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84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4월 8일)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연등회보존위원회 ·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 11~12일 서울 종로 일원서 불기2568년 연등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5월 11일 연등행렬에서 한마음선원 봉축장엄등 '불바퀴등'이 이운되고 있는 모습.

MZ도 반한 10만 연등행렬…비오는 서울 밤을 밝히다

불기 2568년 연등회, 5월 11~12일 종로서 봉행

동국대 재학생 2000명 비롯해
군승 · 군종병 등 MZ참여 눈길
雨中에도 5만 인파 행렬 동참

글=임은호 기자, 사진=윤호섭 · 이민우 기자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10만 오색연등이 비오는 서울 밤하늘을 연등 물결로 수 놓았다.

연등회보존위원회와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 11~12일 서울 종로 일원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를 개최했다.

연등회의 백미는 5월 11일 저녁 진행된 연등행렬이었다. 이날 동국대 운동장에서 어울림마당과 연등법회를 봉행한 5만여 사부대중은 손에 오색연등을 들고 긴 행렬을 이어갔다. 봄비가 내려 한층 쌀쌀해진 날씨에도 연등행렬 구간 거리마다 다음 연등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가득했다.

이번 연등행렬에서는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새롭게 선보인 장엄등과 행렬등이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은 대행 선사가 설하신 우주의 섭리와 진리를 나타내는 '불바퀴등'을 새로 선보였으며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불교의 전통등도 신선함을 더했다.

무엇보다 올해 연등행렬에서 눈길을 끌었던 것은 청년세대가 대거 동참했다는 점이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의 주도로 동참한 2000여 동국대 학생들은 MZ세대 특유의 톡톡 튀는 발랄함으로 '재미있는 연등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동국대 학생들이 동국을 상징하는 코끼리 형태 '아코등'을 손에 들고 행진하자, 이들이 지나는 곳곳에서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음악에 맞춰 '아코등'을 흔들며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전했다.

군종특별교구 군승들과 군종병 150여 명은 호국의 의지를 담은 범종등을 들고 행렬에 참여, 거리에 앉아 행렬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큰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법우들은 3개월 전부터 제작한 각각의 학교를 상징하는 '우리학교 상징등'으로 솜씨를 뽐냈다.

대불련 참가자는 "법우들과 함께 연등을 만들고 축제를 준비하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면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보며 부처님 제자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연등회 홍보대사인 23개국 50여 명으로 구성된 연등회 프렌즈도 관람객 외국인과 함께 행렬에 참여, 글로벌 연등회의 모습을 선보였다. 해외특별교구와 홍대선원 주관으로 진행된 시민·외국인 문화체험단 1000명도 낮부터 만든 연등을 직접 손에 들고 행렬에 동참해 축제를 즐겼다.

미국 출신 로리아 씨는 "아름다운 연등을 직접 만들고 행렬까지 참여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면서 "한국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 뜻깊은 시간을 갖게 해준 한국불교에 감사하다"고 동참 소감을 밝혔다.

〈관련기사 A3〉

사고 부처님오신날 특집호 제1484호는 제작 일정 상 배송이 지연됐습니다. 제1485호도 제작 일정으로 배송이 늦어집니다. 독자여러분의 혜량바랍니다.



2024년 봉축특집호
A·B·C 섹션 88면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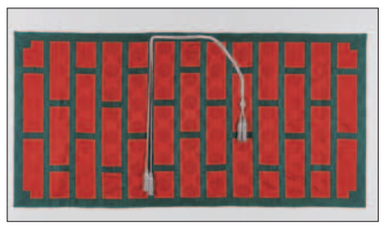
지상백고좌 B1·2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대종사



데스크 초대석 A5
만당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봉축특집
태초의 성보, 가사 A15·16·17·20·21



펫케어&불교 B7·9·10·11·13
등은 서원이다 C1·2·3·6·9
열암곡 마애불 천일기도 1주년 B17
생명나눔 전통문화마당 B21
각 종단 봉축법어·봉축사 A7·8·10·11·12
연등회 화보 C12·13

“단기출가 확대… ‘친숙한 불교’로 변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부처님오신날 봉축간담회서
불교문턱 낮출 방안 제시해
청년세대 꾸준한 소통 약속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진행된 봉축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단기출가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년세대가 갖는 불교의 무거운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진우 스님은 5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불기2568년 봉축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지난달 불교박람회가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힙한 불교’라는 평을 받은 데 이어 조계사의 5박6일 청년·대학생 단기출가도 성공적으로 치러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진우 스님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국민 스트레스가 가장 많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겪으며 앞으로의 희망이 없다는 마음을 갖는 것 같다”며 “불교와 스님은 엄숙하고 경건하고 무거운 이미지가 있어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 같은 캐릭터도 불교가 청년세대에 다가가려는 방편이 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취임 이후 줄곧 청년세대와 만나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강연을 통해 마음 다스리는 법을 전한 진우 스님은 보다 더 다양한 형식으로 청년들과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님은 “나라의 미래는 젊은이에게 달려 있다. 젊은이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사회나 국가가 헝클어진다”며 “청년들과 만나는 자리는 꾸준히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우 스님은 또 종교인구 감소와 출가자 급감을 겪는 현실에서 조계종의 가장 큰 위기와 해법을 묻는 질문에 ‘개인주의’와 ‘분열주의’로 인한 사회현상을 원인으로 짚은 뒤 선명상 보급을 통한 정신문화의 전환을 대안으로 내놨다.

진우 스님은 “1970년대 인구가 4000만명 수준일 때도 2000만 불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5000만 인구에서 천만 불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종단이 추진하는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제5차 산업혁명일 수 있는 정신문화혁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끝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일성이었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의미를 설명했다.

스님은 “천상천하는 과거·현재·미래와 동서남북·가운데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홀로 존귀하다는 뜻이지만 일반인들은 혼자 잘났다는 의미로 오해하기도 한다”며 “깨치면 시비와 고락이라는 상대적인 개념이 사라져 열반과 같은 완전한 편안함을 얻는다. 그 외에는 최고가 없기 때문에 유아독존이라고 하고, 결국 모든 사람은 각자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미타요양병원 1주년…제2병동 신축 추진

5월 3일, 원내 법당서 기념법회
진우 스님 “전법에 큰 버팀목”
200병상 규모 목표로 내년 착공
지강 스님, 1억원 후원금 전달도



아미타요양병원 개원 1주년 기념법회를 마치고 내빈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스님을 공경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병원을 기치로 문을 연 조계종 직영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이 개원 1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하며 자축했다. 아미타요양병원은 200병상 규모를 갖춘 병원으로 위한 제2병상도 신축, 스님들의 노후안정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인 조계종승려복지는 5월 3일 안성 아미타불교요양병원 6층 법당에서 개원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아미타요양병원은 개원 후 1년 동안 종단스님들이 수행자로서 위의를 지키면서 임종할 때까지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전문요양병원으로서 제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이날 기념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총무부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치사에서 스님들의 건강과 수행을 위한 요양병원의 발전과 종단 복지향상을 위한 후원에 힘써준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신축 등 병원 확장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아미타요양병원은 스님 전문요양병원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2병동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설계용역에 후 2025년 착공식을 거행, 200병상 이상 규모를 갖춘 병원으로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진우 스님은 “전문의료진과 의료장비 보강 등을 통해 스님들의 건강과 안정된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켜 종도들이 종단의 승려복지제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표이사 호산 스님도 인사말에서 스님과 불자들의 후원, 그리고 한마음으로 근무하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2~3년 후 큰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진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호산 스님은 “병원 설립자인 각현 스님의 원력을 이은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이 해봉당 자승 스님에게 파라밀요양병원 운영을 요청했지만 자승 스님은 종단 직영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원력으로 직영 요양병원이 문을 열 수 있었다”면서 처음 병원이 시작될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

칠장사 주지 지강 스님은 축사에서 “종단스님들이 병고에도 수행자로서 위의를 지키면서 여법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불자 모두가 힘써야 한다”면서 지원금 1억원을 후원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을 대표해 사무처장 덕운 스님도 300만원 상당의 치약과 칫솔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안성=임은호 기자

청년들의 출가발심, 2기로 이어지다

조계사 청년단기출가 2기 성황
캐나다 출신 유학생 행자 눈길


조계사가 지난 4월 29일 청년전법을 위해 시작한 청년·대학생 단기출가 프로그램이 1기에 이어 2기로 이어졌다. 1기보다 더 많은 12명의 행자들이 발심한 가운데 캐나다 출신 동국대 유학생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사는 5월 5일 청년·대학생 단기출가 2기를 입재했다. 3일차인 8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종단 주요 소임자스님, 조계사스님들과 108배 정진으로 하루를 시작한 행자들은 108배 정진 이후 곧바로 진우 스님과 차담을 가졌다.〈사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행자들의 발심 동기는 ‘교수님과 부모님의 추천’ ‘안내 홍보지와 SNS를 통해’ 등 다양했다. 그중 임울 행자는 “군입대를 앞두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단기출가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우 스님은 “큰 결심을 했다”고 칭찬하며 다른 행자들에게도 아낌없는 조언을 건넸다.

진우 스님은 “삶에 있어 출가의 기회를 갖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무척 소중한 경험”이라며 “일주일의 기간 동안 수행정진하며 출가의 최종 목표인 근심과 걱정, 괴로움의 마음을 완전히 없애는데 한걸음 다가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행자들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지에 담아 주면 언제든 답하겠다고 약속하며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다.

캐나다 토론토 출신 길선진 행자는 이름도 한국식으로 개명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길 행자는 “동국대에서 불교학을 복수전공하며 불교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학교에서 자주 만나는 스님들은 어떻게 수행생활을 하는지 궁금해 단기출가에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처음 해보는 108배를 다시 떠올리며 웃음을 지은 길 행자는 “꽤나 힘들었지만 끝까지 해낸 덕분에 보람찼던 시간”이라고 말하며 “이번 프로그램이 평소 지나치게 많았던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봉축 맞아 ‘천년을세우다’ 기금 잇달아

길상사 · 전등사 · 영평사 이어
조계종 종무원조합도 동참해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37대 집행부의 핵심 불사인 ‘천년을세우다’의 원만회향을 발원하는 사부대중의 성원이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7일과 9일,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각각 기금전달식을 갖고 서울 길상사(주지 덕조 스님), 강화 전등사(주지 여암 스님), 세종 영평사(주지 환성 스님), 조계종 종무원조합 원우회(위원장 김재훈)로부터 기금을 받았다.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은 2000만원을 전달하며 “전법과 청년포교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고마움을 표하면서 “법정 큰스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도량을 잘 가꾸고 청년전법의 도량으로 거듭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등사 주지에 재임된 여암 스님은 9일 “주지로서 맡은 소임에 열심히 임하겠다”며 불사기금 5000만원을 기탁했다. 진우 스님은 감사인사와 함께 “앞으로도 가람수호와 전법포교에 더 매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은 10일 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세종불교발전과 영평사 낙화법 보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 종무원조합 원우회는 기금 823만5000원을 전달하며 불사의 원만회향을 발원했다.

이민우 기자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총본산 조계사,
세상과 함께하며 부처님법을 전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JOGYESA / 02.768.8500 / www.jogyesa.kr

빗속 환희의 율동…세계평화 기원하다

연등회의 시작 '어울림마당'
동국대서 연희단 공연 비롯
종단 지도자들과 연등법회
12일엔 전통문화마당 열려

임은호 · 김내영 기자


5월 11일 연등행렬에 앞서 봉행된 어울림마당에서 청소년연희단이 봉축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윤호섭 · 이민우 기자

5월 11일 연등회의 시작은 동국대 운동장에서 봉축연희단의 축하무대를 중심으로 한 어울림마당으로 시작됐다.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연희단은 밝은 얼굴과 신명나는 율동으로 화합과 배려, 평등, 세대전승의 연속성을 상징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40여 단체의 어린이·청소년·청년 율동단과 등 단별 연희단 1000여 명은 음악에 맞춘 활기찬 율동으로 축제의 장을 펼쳐내고, 참석대중은 연희단의 신명나는 무대에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이어 봉행된 연등법회는 연등행렬의 의미를 알리고 온 인류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하는 법석이었다. 법회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지도자들과 조계사, 봉은사, 도선사 등 주요 사찰, 포교사단·국제포교사회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각 종단 대표와 각계 대표들은 단상에 마련된 아기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진행하며 부처님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온 인류의 건강과 평화를 기원했다.

봉축위원장 진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우리가 밝히는 등은 마음의 평화를 통해 내 삶의 주인공으로 바로 서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서원"이라며 "어둠이 짙은 곳에 등을 밝혀 그림자를 걷어내고 밝은 빛은 함께 누려 행복을 나누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자비의 손길로 함께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붓다차리타〉 경전봉독으로 부처님 오신 뜻을 전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발원문에서 정토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도진정사는 "구름 걷힌 해처럼 있는 그대로가 평안함이요, 본래 부처임을 확신하겠다"며 "사람이 곧 부처요, 이 몸이 곧 부처임을 아는 반야의 지혜를 열겠다"고 밝혔다.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기원문에서 "나와 남이 함께 상생하며 이익되는 세상,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일구는 세상, 자신을 성찰하고 이웃에게 전법해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세상이 될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평화 기원 메시지'도 발표됐다. 법회 참석 대중은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낭독한 메시지에서 "오늘 우리가 밝히는 등은 그늘진 곳을 밝히는 광명의 등이며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는 평화의 등이 될 것"이라고 기원했다.

한편 5월 12일에는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전통문화마당과 연등놀이가 열렸다. 전통문화마당에는 80여 개 단체가 참여해 내·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불교문화체험을 체험할 수 있게 안내했다. 또 연등행렬의 아쉬움을 달래는 연등놀이에는 상월비보이와 각 사찰 율동단,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의 EDM 난장 등이 펼쳐져 청년세대의 관심을 끌었다.

동국대 全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

미융대 '퓨처핸접' 창립법회로
14개 단과대 동아리 창립 완료



동국대 서울캠퍼스 모든 단과대학에 불교동아리가 창립됐다.〈사진〉

동국대 미래융합대학은 5월 11일 정각원에서 불교동아리 '퓨처핸접'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미래융합대학 불교동아리 회원 학생들은 청년불자로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할 것을 서원했다. 창립법회에서는 불교동아리를 지도할 지도법사와 지도교수 위촉식도 진행됐다. 지도법사에는 진관 스님(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지도교수에는 동국대 글로벌무역학과 이도형 교수, 융합보안학과 박상진 교수, 사회복지상담학과 이해님 교수, 글로벌무역학과 남은영 교수가 위촉됐다.

미래융합대학 '퓨처핸접'을 끝으로 지난 3월 20일 사회과학대학 불교동아리 '템플애플' 창립부터 시작된 동국대 14개 모든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은 최종 완료됐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지난 3월 사회과학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을 시작으로 집을 한 채씩 지어 오늘 드디어 14번째 마지막 집을 짓게 되었다"며 "지금까지 모든 단과대학에 불교동아리가 창립될 수 있도록 고생해주신 총장님 이하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재웅 총장은 "동국대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3월부터 불교동아리가 창립됐는데 오늘 14번째 동아리가 창립됨으로써 회향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마지막이면서 새 출발을 하는 날이기도 하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 16일 출범한 'WISE 대학생전법단'을 출범시킨 동국대 WISE캠퍼스도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불교학생회, 불교도연합회(불교계 장학생, 불교추천전형, 유학생 불자 등) 등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한마음선원 불바퀴燈, 세상을 비추다

안양본원 5월 5일 봉축점등
장엄 · 행렬등 · 연희 선봬
우천에도 2천여 대중 집결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은 5월 5일 한마음선원 불교문화회관에서 봉축장엄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청년연희단이 공연하는 모습.

매년 연등회에서 선보이는 장엄등 중 단연 백미는 한마음선원이 제작한 장엄등이다. 올해 한마음선원의 장엄등은 대행 선사가 설한 우주의 섭리와 진리를 나타내는 '불바퀴등(燈)'으로, 연등회에 앞서 대중에게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5월 5일 안양본원 불교문화회관에서 봉축장엄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은 궂은 날씨에도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조계종 총무국장 향림 스님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점등식은 한마음선원에 장엄등과 행렬등, 선원 연희단의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로 꾸며졌다. 올해 한마음선원은 장엄등으로 불바퀴등과 사탕수레등 2기를 선보인다.

불바퀴등 중앙에 자리한 한마음의 불바퀴는 불바퀴, 법바퀴, 물바퀴가 같이 꿰어 돌아가는 우주의 섭리와 진리를 나타내면서 만물만생이 광대무변하고 불생불멸하는 우주의 근본과 연결돼 돌아감을 표현했다. 좌우 청룡과 황룡은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돌아감을 의미하며, 앞에 자리한 손오공은 부처님의 근본에너지가 수없는 화신으로 나투어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 있음을 상징한다.

법회별 행렬등도 소개됐다. 어린이 법회는 '봄나들이', 선법합창단은 '향공양등', 학생회는 '허수아비와 참새', 신도회는 '황금나무', 청년연희단은 '봄이 오는 소식' 행렬등을 선보였다. 이들 장엄등과 행렬등은 이사장 혜수 스님과 주지 혜솔 스님의 점등으로 불을 밝히며, 도량과 세상을 비추었다.

이와 함께 각 법회들은 행렬등과 함께 연등회에서 선보일 군무를 대중에게 첫 선을 보였으며, 학생회는 점등식만을 위한 난타 공연을 펼쳐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마음선원의 장엄등과 연희를 확인한 향림 스님(염불사 주지)은 "무려 5개월을 준비했다고 들었다. 이사장 스님과 주지스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신도들의 신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연등회 발전을 위해 변치 않는 정진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우리 청년들은 장엄등 불사가 수행의 길이자 정진의 길임을 그대로 보여줬다. 청년들이 보여준 5~6개월의 과정은 마치 하나의 법당을 만드는 불사였다"고 격려했다. 안양=신중일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www.bongeunsa.org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역겁 매하지 않고 진리 삼매락 누리소서”

조계총림 방장 현봉 대종사 영결 · 다비식 엄수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5월 5일 선호당서… 3천명 운집
진우 스님 “영원히 함께 하실 것”
비 내리는 가운데도 추모 이어져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 함성과 함께 불이 치솟으며 현봉 대종사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

목우가풍(牧牛家風)을 통해 조계총림의 수행을 이끌었던 송광사 방장 남은당 현봉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이 봄비가 내리는 조계산에서 엄수됐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5월 1일 입적한 현봉 대종사의 영결식을 5월 5일 경내 선호당에서 봉행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결사에서 “대종사께서는 50여 년을 총림에 머물면서 선농일치(禪農一致)의 사표가 되셨고 이사(理事)가 원융하여 종단의 모범이 되어 널리 사부대중을 이롭게 했다”면서 “이제 세연을 다하셨지만 천 년의 조계총림에 그림자 없는 나무가 되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대종사를 추모했다.

이어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보선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대종사께서는 생사무상(生死無常)의 고통을 느끼고 출가하신 이래 수행과 교화에 힘쓰신 선지식이셨다”면서 “산승이 금일 남은당 현봉 대종사 각령(覺靈) 전(前)에 법공양을 올리오니 잘 받아 간직하시어 역겁(歷劫)에 매하지 않고 진리의 삼매락(三昧樂)을 누리소서”라고 설했다.

현봉 대종사의 입적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조사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대독한 조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수행가풍을 높이고, 불교 대중하에도 크게 기여한 선사였다.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수행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은 큰 어른”이라며 “정부는 대종사의 큰 가르침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을 더 따뜻하게 살피고, 대종사께서 염원하셨던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추모했다.

조사에 이어 참가대중은 대종사의 영정에 꽃을 올리며 스님을 추모했다. 송광사를 대표해 주지 무자 스님은 “스님은 백장청규를 실천했고 후학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모범을 보였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소탈한 모습은 대중들을 지도하신 진정한 수행자였다”고 회고했다.

영결식 이후 대종사의 법구는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이운은 인로왕번, 명정, 삼신불번 등 수많은 번과 위패, 영정을 따라 법주와 법구, 문도들이 뒤따르며 운구됐고, 다비장에 마련된 연화대에 법구가 안치됐다.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라는 함성과 함께 거화가 시작됐고 봄비가 내리는 연화대 위에 붉은 불이 치솟으며 50여 년 치열한 수행자의 삶을 살았던 현봉 대종사는 이생과의 인연을 다했다.

한편 현봉대종사 49재는 5월 7일 초재를 시작으로, 2재 5월 15일, 3재 21일, 4재 28일, 5재 6월 4일. 6재 6월 11일, 7재 6월 18일 오전 10시 조계총림 송광사에서 봉행한다.

한마음선원, 대행 선사 12주기 추모다례재

5월 8일 본원서…1천 대중 참여
대행 선사 해외 포교 다큐 공개
혜수 스님 “한마음으로 살아가자”
‘뜻으로 푼 금강경’ 영역본 봉정


한마음선원은 5월 8일 안양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2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이사장 혜수 스님이 ‘뜻으로 푼 금강경’ 영역본을 봉정하는 모습.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생활 속 마음수행의 가르침을 전한 선지식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열반 12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5월 8일 안양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2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다례재에는 본원 및 국내외 지원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대행 선사의 향훈과 가르침을 되새겼다.

다례재에 앞서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을 법주로 〈천수경〉과 〈뜻으로 푼 반야심경〉 봉독, 축원이 이뤄졌으며, 이사장 혜수 스님과 한마음국제문화원장 청고 스님이 대행 선사가 저술한 〈뜻으로 푼 금강경〉 영역본을 부처님 전에 봉정했다. 이어진 다례재에서는 이사장 혜수 스님과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이 헌다와 헌향, 헌화를 진행했으며, 혜수 스님은 〈뜻으로 푼 금강경〉 영역본을 대행 선사 영전에도 봉정했다.

내외빈의 헌화도 이어졌다.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근일 대종사는 각령전에 꽃을 올리며 추모했고, 최대호 안양시장도 헌화하며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본원과 각 지원 신도회장, 임원들도 각령전에 헌화하며 스승의 생전 가르침을 되새기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다례재에서는 대행 선사 열반 추모특집 다큐멘터리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추모 다큐는 대행 선사의 해외 포교 역사와 성과를 되짚어 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추모영상 상영 후에는 본원 혼성합창단이 선법가 ‘공놀이나 하여 보세’를 음성공양 올렸다.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은 대행 선사를 추모하는 시를 낭독·헌정하기도 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대행 선사 열반 12주기를 맞아 해외 지원 창건을 위해 큰스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영상으로 제작했다. 대행 선사께서 행하신 해외 포교의 길은 영상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지원까지 큰스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녹아있다. 그 가르침을 실천하며 한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큰스님을 향해 걸어나가는 길임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양=신중일 기자


음악회에는 송가인, 남상일, 주병선 등 인기가수가 총출동, 어르신들에게 추억의 노래를 선물했다.

어르신들에게 ‘추억 멜로디’ 선물

쿠무다, ‘찾아가는 봉축음악회’
5월 3일 서울 마로니에공원서
서울 종로구 관내 어르신 초청

5월 부처님오신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감성을 선사하고, 함께 추억을 떠올릴 ‘추억의 멜로디’가 서울 마로니에공원을 수놓았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듣는 익숙한 노래에 맞춰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옛 추억에 젖어 들었다.

문화포교로 전법에 앞장서고 있는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는 5월 3일 서울 종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서울 종로구 관내 어르신을 초청해 ‘2024 쿠무다 찾아가는 봉축음악회-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교도소, 군부대 등 소외된 곳이나 문화가 필요한 곳을 직접 방문해 문화의 힘을 전파하는 축제로, 이번이 15번째를 맞았다. 이번 음악회는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서울노인복지센터,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등 불교계 복지시설이 함께 힘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봉축의 의미를 더했다.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음악회를 여법하게 열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관계자에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주관사를 대표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어르신들이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준비했다”고 인사했다.

본격적인 음악회는 가수 김종환 씨의 무대로 시작됐다. ‘바램’ ‘남남으로 만나서’를 라이브로 열창해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가수 주병선 씨는 ‘칠갑산’과 ‘들꽃’을 힘 있는 보컬로 노래해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국악인 남상일은 ‘민요연곡’ ‘사랑가’ ‘아리랑연곡’ 등 친숙한 우리 전통 가락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음악회의 마지막은 ‘트로트 여제’ 가수 송가인 씨가 장식했다.

김내영 기자

대불련·홍대선원, 청년 전법 활성화 MOU

대불련 소속 불교동아리 · 회원에
템플스테이 3만원으로 할인 제공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주현우)와 저스트비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은 5월 7일 홍대선원에서 대학생·청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업무협약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자리이타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청년 불자 리더를 육성하고, 건강한 자아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청년 대학생 전법 활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 △상호 인적, 물적, 정보교류 등을 통한 협력관계 유지 △대불련 소속 불교동아리 간 연합법회와 같은 특별 행사를 지원한다.

특히 홍대선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불련 소속 불교동아리 및 회원의 템플스테이 참가비를 3만원(다인실)으로 할인해 제공한다. 또 대불련 신입회원 웰컴기프트 선물로 홍대선원 숙박 바우처 200매를 지원키로 했다.

김내영 기자

韓國佛教太古宗

宗正 雲耕

宗正禮敬室長 東虛

僧正院
僧正 慧雲, 知足, 錦龍, 圓默, 智山

元老會議 議長 道光
首席副議長 大隱
次席副議長 雪雲
議員 德山,錦龍,鏡潭,覺林,南坡,靑山,智弘,雪山,法宣,智性,智山,保惠,世明,智玄,東佑,東杓,觀正,玄虎

中央宗會 議長 始覺
首席副議長 法輪
次席副議長 慧祐

護法院長 導鶴
副院長 瑞虎
委員 惺應,晩愚,六和,松憲,淸虎,慧學,智峰

初審院長 錦潭
副院長 明願
委員 古潭,羨覺,杲峰,蓮虛,曉門

中央選擧管理 委員長 九山
副委員長 智海
委員 法一, 智光, 寶月

總務院長 常眞
行政副院長 能解
總務部長 道惺
敎務部長 正眼
財經部長 曉能
司書室長 圓悟
社會部長 道輝
弘報部長 呑默
糾正部長 眞華
比丘尼部長 現潭
校任·傳法師部長 心圓
敎育院長 才弘
副院長 智觀
布敎院長
考試委員長 休完
法規委員長 正雲
社會福祉院長 聖海
副院長 鏡月
佛敎文藝院長 智虛
副院長 六和
東邦佛敎大學學長 法潭
敎學處長 哲悟
韓國佛敎新聞社長 淸湖
太古文化遺産傳乘事業團長 性泉
全國比丘尼會長 玄仲
全國校任傳法師會長 振話
全國信徒會
靑年會長 李承潤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

“템플스테이, ‘선명상’으로 더 풍성해집니다”

데스크 초대석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

글=신중일 기자 · 사진=김내영 기자



만당 스님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찾은 영광 불갑사에서 수산 지종 대종사를 만나 출가해 1992년 수계했다. 총무원 기획실 기획국장,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제15 · 16대 중앙종회의원, 제17대 중앙종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2001년부터 불갑사 주지를 맡아 불갑사를 일신시켰다. 현재 제18대 중앙종회의원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으로 활동 중이다.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청년은 1991년 사법고시 2차시험에 아쉽게 낙방했다. 고향에 내려가던 중 전주지검 검사였던 6촌형을 만났다. 평소 불심(佛心)이 돈독했던 청년은 “사시에 합격해도 출가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6촌형은 “영광 불갑사에서 공부해보라”고 권유했다.

그 길로 불갑사로 가서 공부를 시작한 청년은 수산 지종 대종사를 만났다. 수산 스님은 20대 고시생에게 〈불갑사고적기〉를 건넸다. 고적기를 본 고시생 청년은 “출가해 불갑사를 복원하겠다”는 발원을 세우고 불문(佛門)에 들었다. 그렇게 출가해 쇠락했던 불갑사를 일신시킨 주인공이 바로 만당 스님이다.

만당 스님은 4선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종단 입법 및 행정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종단의 일꾼이다. 지난 2월 27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임명장을 받고 한국불교문화단장으로 취임했다. 한국 대표 문화관광콘텐츠인 ‘템플스테이’를 이끄는 만당 스님을 문화사업단장실에서 만났다.

선명상 템플스테이 보급 준비 중

가장 먼저 취임 소감을 물었다. 만당 스님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 대한 지원이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시작된 템플스테이는 20년이 지나 정착된 모양새입니다. 이제 템플스테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니까요. 우리 문화사업단에서 할 일은 일선 사찰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하는 역할입니다. 또한 좋은 프로그램이나 운영 시스템들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도 문화사업단이 할 일이죠. 시설 지원들이 불균등하지 않게 공평히 잘 배분해서 고르게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장으로 취임하며 현재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는 ‘선명상 템플스테이’ 개발 및 보급을 꼽았다. 이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진력을 하고 있는 ‘선명상 대중화’와도 그 궤를 같이한다.

“한국불교는 1700년 유구한 역사를 중생의 고통을 보듬으며 희로애락을 함께한 종교입니다. 총무원장스님께서는 물질문명의 발전으로 정신적인 가치가 외면받는 이 시대에, 불교 수행법인 ‘선명상’은 현대인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해법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이에 깊이 공감합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선명상은 효과적인 마음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의 본질이 담겨있으면서, 스스로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불교가 현대사회에서 중생과 함께하는 확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 개발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현재 58개 사찰이 선명상 템플스테이 사찰로 지원했고, 지난 4월 26~27일에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지도법사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선명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교육’이 진행됐다.

“올해 하반기까지 ‘선명상 특화 프로그램’을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 1차 ‘선명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교육’이 반응이 좋아 6월 3일~4일 2차 교육을 추가로 개설해, 더 많은 인원이 선명상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들은 사실상 전국 템플스테이 사찰에서 운영될 ‘선명상 특화 템플스테이’의 보급 전 준비단계입니다. 조계종과 문화사업단은 선명상 대중화의 첫 걸음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고요한 산사를 찾아 편히 쉬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템플스테이는 ‘선명상 대중화’를 통해 더욱 풍성해질 겁니다.”

올 하반기 선명상 템플스테이 정착
58개 사찰 지원…“운영자 교육 중”
대학생 할인으로 Z세대 전법 지원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불교 수행
업 바뀌려면 완전한 참회, 발심을”

대학생 전법에 템플스테이 접목을

MZ세대에게 템플스테이는 하나의 문화다. 최근 창립·재창립이 이뤄지는 대학교 불교동아리들의 계획들에는 대부분 ‘정기적인 템플스테이 진행’이 담겨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가 처음으로 개설한 교양 과목인 ‘템플스테이: 산사에서의 행복한 하루’는 수강인원이 35명이었지만, 신청자가 670명에 달할 정도로 템플스테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에 만당 스님은 “건강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집중하려는 MZ세대들의 시도”라고 평가했다.

“템플스테이가 지닌 공간적 아름다움과 자연 친화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보면 젊은 세대들은 순수한 자신의 체험 속에서 그 순간의 행복을 온전히 즐기는 일종의 문화 흐름을 형성해 나가는 듯 합니다.”

대학생과 청년 세대들이 템플스테이에 관심이 높은 만큼 이들을 위한 ‘청춘 템플스테이’ 이벤트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다. 5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청춘 템플스테이’는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1만원에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로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재 한국불교의 화두이기도 한 ‘대학생 전법’에 대해서도 만당 스님은 템플스테이를 연계해 확장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대학생 전법에 템플스테이를 활용한다면 효과는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과도 관련된 논의를 했습니다. 지역 대표 템플스테이 사찰과 대학 불교동아리, 교수 불자들을 연계하는 틀을 짜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허실없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MZ세대에 인기있는 굿즈 개발에 대한 복안도 내놨다. “불교 고유 사상을 기반한 굿즈를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그간 문화사업단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차에 걸쳐 불교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진행했고, 자체 굿즈 브랜드 ‘본디나’도 론칭한 바 있다. 사찰의 단청과 꽃살문, 사물과 불교건축물, 문화유산 속 동물과 지물, 그리고 각종 문화유산과 관련한 스토리텔링 발굴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그 결과로 꽃살문 다이어리와 여권케이스, 손수건, 여행용파우치, 목어USB, 명함케이스, 나전필함, 비천상 스카프 등 다양한 상품들을 굿즈로 선보였다.

“문화사업단은 앞으로도 종교 고유의 사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많은 대중에게 전통문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런 굿즈 제작은 공익적인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템플스테이홍보관 외에는 만날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영리목적의 제한방침이 어떻게 보면 확장성 측면에서 아쉬운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대중들이 불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숙고 중입니다.”

템플스테이, 새로운 도약 도모

스물두 살 청년이 된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제는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방향성을 정하고 나아갈 때다. 템플스테이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묻자 스님은 “질적 성장으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이제 템플스테이를 모르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템플스테이는 하나의 문화가 됐죠. 지난 20년간 템플스테이가 일궈낸 성과를 딛고 한 단계 도약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치열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참가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계층이나 국적, 종교까지 세심하게 배려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죠. 선명상 템플스테이도 어느 정도 정착되면 초급, 고급 등 수준을 나눠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템플스테이는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인터뷰 말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짧은 법문을 요청했다. 만당 스님은 “업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 부단히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이 육신을 움직이는 주인공이 바로 마음입니다. 결국 마음을 찾아가는 게 불교수행이죠. 부처님께서는 매일 쓰고 사는 마음을 알아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그것을 찾으라는 거죠.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 업이 쌓이는 것이고, 업을 녹이지 못하니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순간순간 잘 관찰해야 합니다. 화가 난다면 바로 반응하지 말고 관찰하며 사태를 지켜보고 나서 합리적으로 대응하세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켜보는 게 ‘관법’입니다. 어떤 마음이 ‘분노’라는 감정을 일으키는지를 바라보는 거죠. 사실 업은 잘 안 바뀝니다. 업이 바뀌려면 완전한 참회가 이뤄지고 발심해야 합니다. 진짜 몇 달은 눈물 흘리며 정진해야 하죠. 정진하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원각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방장 원각 대종사
주지 혜일

사부대중 일동

초파일 처음으로 오후 3시에 봉축행사 시작
점등식은 오후 7시 합니다.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055)934-3000 Fax 934-3010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大韓佛教 天台宗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박덕수
총무부장	이갈지
교무부장	정도웅
교육부장	김도진
재무부장	지설혜
사회부장	이개문
규정부장	구성해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세운
종의회부의장	김경천
	황세열
총무분과위원장	김월도
법제분과위원장	방경혜
재무분과위원장	이보광

원로원

원로원장	주정산
원로간사	김도산

감사원

감사원장	조진덕
감사위원	곽수산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전화 (043)423-7100 / 팩스 (043)420-7399 / www.cheontae.org

봉 부처님오신날 축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불교총지종

불교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한국 정통밀교 종단입니다.

종령 지성 대종사 통리원장 우인 정사 종의회의장 법상인 전수 사감원장 법일 정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 | 전화 02)552-1080~3 | www.chongji.or.kr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 응 중앙종회의장 대 휴
종무처장 양위찬(원당)

대본산 약사사(추모관운영)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이사장 화 응
희망다문화협동조합
공익법인 화엄종약사사장학회 이사장 화 응



(총무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032)429-4444 FAX (032)429-4445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02)730-0798 FAX (02)730-0799



총 인 **경 정**

통리원장	도 진
종의회의장	증 혜
현정원장	능 원
교육원장	효 명
총금강회장	정 명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17 | 전화 (02)913-0751~4 | 팩스 (02)913-0755

참된 삶 보이시려 이 땅에 나투시었네!

성파 대종사
조계종 종정



摩訶大法王(마하대법왕)이여
無短亦無長(무단역무장)이로다
本來非皂白(본래비조백)이로되
隨處現靑黃(수처현청황)이로다.

크고 크신 법왕이시여!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으시도다.
본래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지만
인연 따라 청황으로 나투시도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심은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희유한 일이요, 사바세계에 지혜광명을 비춰주신 경하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중생에게 본래 구족한 여래의 지혜덕상을 활용하여 부처의 삶, 참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립과 갈등은 화합으로 치유하고, 탐욕과 무지는 청정으로 다스리며, 중생의 행복을 위해 바라밀 실천을 권장하셨습니다.

모두에게 구족한 지혜덕상을 인정하고 활용하면 넉넉하고 원만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화합으로 살아가면 곳곳의 물이 바다로 모이듯 모든 이들이 하나로 모여 동체대비를 실천하며 살게 됩니다. 청정한 삶은 불안과 공포가 소멸되고 대립과 갈등이 치유되며 모두가 신뢰하여 한 몸이 되게 하며, 바라밀 실천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삶의 터전을 넓히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이러한 최상의 삶을 보여 주시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떠한 허상에도 속지 않고, 한 중생도 외면하지 않는 대지혜인이 되고 대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法王權實令雙行(법왕권실영쌍행)하니
雷捲風馳海岳傾(뇌권풍치해악경)이로다.
霹靂一聲雲散盡(벽력일성운산진)하니
到家元不涉途程(도가원불섭도정)이로다.

법왕께서 권실법을 쌍으로 행하시니
우뢰 바람 몰아쳐 바다와 산이 기울었도다.
벽력소리에 구름은 모두 흩어지고
집에 이르고 보니 원래 길에 나선 적이 없었더라.

온 누리에 부처님 법신이

도용 대종사
천태종 종정



대자비 원력으로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 중생의 인연 따라 천백억 몸을 나투시어 교화의 손길을 펴시니 부처님 만남은 최상의 기쁨이어라.

행복은 마음의 평화에서 깃들며 온전한 만족에서 샘솟나니. 부드럽게 받아주는 유화인욕과 끝없는 선행으로 부처님 나라에 이르리라.

수행으로 나를 다듬어 혼탁한 세상을 지혜로 바라볼지니 내 안에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며 만나는 일마다 공덕이 되리라.

환희와 찬탄의 마음으로 국운융창과 인류의 행복을 기원하며 보살행으로 부처님 세계를 장엄하니 부처님오신날 산하대지 온 누리에 법신의 모습이 드러나리라.

세상은 은혜의 터전입니다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오늘은 초파일 부처님이 오십니다. 부처님은 오고감이 항시 자재하여 시공에 걸림 없고 누구든 분별 않고 정토세계 펴시려고 그렇게 오십니다. 모두 함께 정성 다해 받들어 봅시다.

중생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고 세상살이 어디나 안락의 처소이니 마음 맑은 사람은 이 이치 깨치고 눈 밝은 선남선녀 그 도리 밝혀서 지금 이곳에 장엄국토 펼쳐갑시다. 소리는 공명하여 더욱 크게 울리고 자타의 상승(相乘)은 공력을 증폭하듯 귀천과 빈부가 다독여 상생(相生)하고 계층마다 갈등을 어울러 화해하여 은혜가 넘실대는 웃음 꽃 피웁시다.

남 허물 바루려면 다툼이 일어나고 내 잘못 먼저 고치면 남이 따라오니 너 탓 내 자랑 서로 앞서 주장 말고 공사(公私)를 가려서 공도를 세워 가면 투쟁을 잠재우고 정의가 자리합니다.

탐욕의 거친 말과 분노의 험한 소리 저마다 까닭으로 절절히 아우성쳐도 허공의 메아리로 소란만 드높아지니 진언(眞言)의 향음(響音)을 짙게 품고서 곳곳마다 해묵은 원한을 정화합시다.

강한 자의 유세도 약한 자의 넋두리도 인연의 그물 안의 부질없는 헛수고라 은혜의 큰 품으로 다 모여 얼싸안고 주고받는 넓은 삶을 여실히 살려내어 오신 뜻 깊이 새겨 평화를 수놓읍시다.

삼라만상은 나와 한 몸

홍파 대종사
관음종 종정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사월 초파일입니다.

꽃향기 그윽한 향기와 초록의 향연이 펼쳐지는 밝은 마음, 맑은 마음의 날입니다.

天上天下 無如佛(천상천하 무여불)
十方世界 亦無比(시방삼세 역무비)
世間所有 我盡見(세간소유 아진견)
一切無有 如佛子(일체무유 여불자)

부처님의 설법, 자비의 찬가를 우러러보아도 하늘 위, 하늘 아래 부처님 같은 분 없어라! 온 세계 살펴보아도 비교할 분 없다네!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부처님 자식일세. 부처님과 같이 우리 불자들 하늘과 땅이 나와 한 뿌리요, 삼라만상은 나와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네. 아! 기쁘다. 대우주와 소우주(자신)는 둘이 아닌 공생의 一大事(일대사)여라!!

마음 등불 밝혀 세계평화 이루자

운경 대종사
태고종 종정



명명석명(明明石冥) 심연등(心蓮燈) "밝고 밝아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불을 밝히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본래 고향인 부처의 세계로 돌아가도록 일깨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태어나 깨달음을 통해 부처님이 되셨고, 모든 중생들도 원래 부처인데 중생으로 생사고해를 헤매는 것이 안타까워 많은 가르침과 방편으로써 부처되는 법을 시현하셨습니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주관하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고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마음에 천당과 지옥이 있고 선과 악이 함께 합니다.

세계는 지금 전쟁과 테러로 민생이 불안하고 경제침체로 사람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마음의 등불, 지혜의 등불, 자비의 등불을 밝혀 굶주린 이에게는 풍요로움을 주고, 전쟁과 테러가 있는 곳에는 평화로움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한 김정은에게는 핵 포기의 계기가 되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자유와 안락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불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든 인류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마음의 등불을 밝힙시다. 세계평화가 실현되어 모두가 안락국토에 태어나길 기원합니다.

천천지지(天天地地) 안락찰(安樂刹) "하늘은 하늘이요 땅은 땅이니, 모두 평안하리라."

고통 해방하는 자비의 등불 밝히길

지성 정사
총지종 종령



오늘은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절대평등자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나와 이웃과 자연 모두는 불성을 지니고 태어났으며, 부처님과 너와 나는 하나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념과 사상, 계급과 계층, 지위와 위상은 서로 달라도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소중한 부처님의 불성을 가진 절대평등자로서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많은 지역에서 국가와 민족의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과 전쟁에 대한 책임은 불교의 인과법으로 볼 때 어떤 형태로든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분쟁과 전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이로 인한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 그리고 잘못된 이념과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과 전쟁을 해결하려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분별심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어온 삼독과 탐욕, 질투와 어리석음으로 인한 공업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샤까족과 꼴리야족의 로히니강 분쟁사건을 해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증오 속에서도 증오 없이, 미워해야할 사람 속에서도 미움을 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자."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애틋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듯이,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부처님의 본불성과 자리이타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자비의 등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여산 정여 대종사
주 지 산해 정오
신도회장 이 윤 희

총림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 종무소 051)508-3122

육바라밀행·선명상으로 국민 모두 마음 평안을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해마다 봄이 다시 찾아와 훈훈한 햇살과 바람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연초록 나뭇잎들이 일렁이며 밝고 청정한 공동체를 꿈꾸고 꽃봉오리들은 저마다의 색을 뽐내며 화엄(華嚴)세상 속에서 어우러집니다. 온 세상이 기쁨으로 장엄하며 이 땅에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이 눈부신 시절의 환희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오신 참 의미를 함께 되새깁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시며 처음으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할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뜻입니다. 이어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 역시 내 이웃의 고통을 편안하게 할 주인공도 나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괴로움이 없는 부처의 세상이 열립니다. 흔들림 없이 고요한 깨친 마음으로 보면 온 세상 인연 인과(因果)의 모습들이 오롯합니다. 걸림 없는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의 안락과 이익에 머물지 않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基心), 저절로 걸림 없는 무애자비행(無碍慈悲行)을 실천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덜어내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우리는 모두가 부처요, 보살입니다.

깨침 없는 마음으로 사바세계를 살아가면 양극단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차생고피생(此生故彼生),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내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갑니다. 내가 마음을 깨쳐 양극단의 분별(分別)을 없애면 세상은 정토(淨土)가 됩니다. 이를 알면 괴로움은 사라질 것이요, 이를 모르면 여전히 자업자득(自業自得)하는 쳇바퀴 안에 머물 것입니다. 〈중략〉

"중생이 아프니 보살도 아프다."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마음 깨침으로 고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걸림 없는 자비행(慈悲行)으로 정토(淨土)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더 이상의 대립과 갈등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서로 다름에 집착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버리면 곧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의 이치를 깨달아 고집과 집착을 버리고 진실한 소통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불교는 K문화의 원형이 되는 한국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우리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간과 자연에 대한 상생과 배려,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한 K콘텐츠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더욱 가깝게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경주 열암곡 통일신라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로 새로운 미래 천년의 희망을 세우며, 불교박람회와 연등회에 주목한 젊은 청년들의 열광에 화답하여 더욱 활기차고 젊어지는 한국불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을 꽃피우겠습니다.

보살행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 되길

덕수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오늘은 인류의 영원한 등대이시고 진리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거룩하신 석가세존 탄신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을 가장 밝고 영원히 안락한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3천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 가운데 하늘이시고 성인 가운데 성인이신 부처님께서는 대자비로서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 아귀 축생의 6도 중생을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자유 대평등 대광명의 길이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무명에서 벗어나 지혜의 문에 들게 하는 진리입니다.

5월의 꽃향기가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룸비니 동산을 연상케 합니다.

탐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속히 벗어버리고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우리 다 함께 자비와 지혜와 광명의 등불을 밝힙시다.

나보다는 남을 이익되게 하고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 자비와 희생과 보살행을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길 다 함께 발원하며 부처님오신날을 진심으로 봉축합시다.

더불어 잘사는 정토 이루자

도진 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신행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시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화신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사바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도 부처님처럼 지혜를 밝히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마음의 평화는 올곧은 신행으로 자기를 확립하면서 스스로의 주인공으로 당당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세상은 더불어 살려는 마음으로 나누는 실천행이 있는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포교와 교화가 수행입니다. 용맹으로 정진하면서 이웃과 사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합시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날을 가장 뜻깊게 하고 일대사 인연을 짓는 포교와 교화를 통한 수행이야말로 진정한 봉축불사가 될 것입니다. 〈중략〉

부처님께서는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이라는 가르침을 부촉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좇아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법을 세우고 그 법에 의지해 정진합시다. 자성을 찾읍시다. 그리고 자기참회를 합시다. 자성을 찾아 자기참회를 하면 이웃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이웃제도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으면서 우리들의 수행을 다시금 점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실천함으로써 가정과 이웃, 사회를 정화합시다. 온 인류가 더불어 잘 사는 정토를 만듭시다. 그 속에서 생활하는 뭇 생명체가 나날이 행복하기를 서원합시다.

무명 밝히고 불성 마주하자

법명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선분홍 연산홍이 만개한 산하로 오늘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깨달아 실천함으로써 무명(無明)을 밝힐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거리에 형형색색으로 걸린 연등에는 '지혜의 등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등에 불을 밝히는 것은 곧 무명을 밝히는 것이니, 연등을 다는 것은 온 중생의 무지를 깨우치고자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무명을 밝히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존재하다가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무상(無常)하여 사라지기 마련이니, 우리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끊어질 인연 너머 새로운 인연이 자연히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자비로 여러 인연들이 모여 새 인연을 짓게 되었습니다. 연등이 혼자 덩그러니 걸려있을 수 없듯이, 인연 또한 그러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한다면 우리의 인연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불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오신날, 무명을 밝히고 불성을 마주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정의와 자유를 사모하여온 우리 민족의 전도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지혜광명 등불 밝히자

상진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로써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자비와 지혜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제도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통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돕는 것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가장 잘 받들고 실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중략〉

오늘의 우리 사회는 몹시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으며, 고통 또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실로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성이란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불안만이 증폭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고통 받는 대중을 포교하고 구원해주시기 위해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밝고 희망찬 연등불에 의지해 세상과 대중들이 오늘의 위기와 시련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안락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광명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연등이 온 누리에 두루 퍼져 만 중생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즐겁고 환희로운 일들만 가득 일어나기를 두 손 합장 기원합니다.

더욱 분발해 정진수행을

우인 정사
총지종 통리원장



5월의 햇살보다 찬란한 지혜와 대자대비의 등불을 밝히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을 봉축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모두 평안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진리 당체로서의 부처님은 허공계에 편재충만하시어 따로 구할 바가 없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 범부중생들에게는 2500여 년 전 역사상 실재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림자를 따르는 마음이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 육신은 사라졌으나 그 가르침은 면면히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도 감로 법문은 항상하고 있습니다. 〈중략〉

일체중생 모두가 불성을 가진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지혜의 등불,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자비의 등불,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원력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참뜻과 부처님께서 지나신 길을 되새기며 우리 불자들은 더욱 분발하여 정진수행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예하 방장 중봉 성파 대종사
수좌 향우 명신
주지 현덕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新興寺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전화 033)636-7044, 7393 팩스 033)636-7556 www.sinheungsa.kr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회주 연암 현해
주지 퇴우 정념

사부대중일동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800 **팩스** 033-332-6915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오대산 월정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조계종 원로의원·회주 종상

조계종 원로의원	종우	불국사 원로	덕민
주지	종천	총무	성제
교무	정수	재무	성심
사서	성주	신도회장	이영숙

■ 부설기관 ■

- 사회복지법인 불국사복지재단
- 분당포교당 석가사
- 불국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유치원
- 성림어린이집
-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 불국사템플스테이

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로 385(진현동) (054)746-9912~4 FAX 746-1476

만유평등 이치 아시겠습니까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대륜 스님

만물은 제각기 생겨난 이유가 있기에 스스로 아름다움을 빚어냅니다. 모든 것이 이어져 있는 법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멸은 없고 그 안에 미혹도 깨달음도 없으며 차별이 없고 평등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여러분은 진속(眞俗)이 평등한 이치를 아시겠습니까? 두두물물 속에 부처님이 계시고 시방법계가 보리의 도량입니다. 마음 밖에는 진리가 따로 있지 않고, 부처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심을 여의고 함께 밝음으로 나아가면 삼천대천세계가 바로 부처님 나툰 곳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한생각이 밝아지면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각자의 눈을 밝힙시다.

모든 생명 부처로 탄생한 날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우리의 마음은 모든 진리의 바탕 자리이기도 하지만 악행을 일으키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중생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본래면목이 가려지고 번뇌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으로 오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중생의 무명(無明)과 미혹을 깨치고 무애자재한 삶을 사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입니다. 본래 깨끗한 우리의 참나를 되찾으면 그것은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삶이고, 그 자리에서 모든 번뇌는 사라집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던져버리고 우리 모두 내 안의 부처를 깨달아 갑시다. 이와 함께 불성을 가진 여러 뭇 생명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 실천에 나아갑시다.

一念으로 燃燈켜자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도선 스님

本來緣有地
因地種花生
本來無有種
花亦不能生

본래 인연 있는 땅에
땅을 이어 꽃의 종자 피어난다
본래 있을 종자 뿌리지 아니하면
꽃의 종자도 나지 못하거늘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 뜻은 우리 중생들과 인연이 있어 제도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법(佛法)인연에 더욱 발심하여 모든 중생들과 함께 세세생생 보살도를 이루는 불자가 됩시다.

한 생각에 날마다 좋은 날



대한불교대각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만청 스님

본래 청정한 마음의 밝은 달이 일체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탁악세의 사바세계가 한 마음 돌리면 바로 정토입니다. 번뇌망상에 빠진 스스로를 돌아봐 자성청정의 참나를 찾으면 그 자리가 부처님이 나신 곳이며, 그 곳이 바로 부처님 세상입니다.

허망한 나를 버리고 영원한 행복이 넘치는 장엄한 세계로 나아갑시다.

누구를 만나도 보살이요, 어디를 가도 불국토입니다. 지금 부처로 사는 마음을 내면 날마다 좋은 날입니다. 한 생각을 바로 하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니 대각의 가르침입니다. 저마다 마음 속 평화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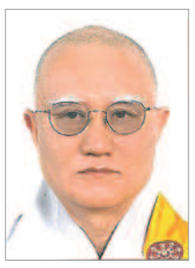
마음에 자비의 꽃 피웁시다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 자라 찬란한 향기를 뿌립니다. 오탁악세에 머물러도 오염되지 않는 우리들의 참된 마음이 부처님오신날 연꽃으로 피어납니다. 깨달음의 빛으로 우리의 무명을 없애는 광명을 안기는 연등을 저마다 들고 함께 정진합시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뭇 생명들의 조화와 화합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유정 무정물이 모두 인연으로 이어져 있으니 그 소중함에 항상 감사하며 기도 올립시다.

마음속 불성의 등불 밝힙시다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무명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법화경 방편품에는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퇴전의 보살행을 쌓아 자비를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마침내 성불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이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뜻입니다. 마음 속에 불성의 등불,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환히 밝히시고 모두 성불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생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오늘은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광명(光明)으로 나투신 날이요, 뭇 중생들의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사와 열반이 따로 없는 법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자성이 본래 생겨남이 없고, 오고 감이 없으며, 오직 맑고 밝은 하나임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부처이며 다 같은 주인이니 모두의 생일인 것입니다. 부처로 살기 위해서는 부처다움을 보여야 하니 중생제도 위하여 정진해 나아갑시다.

이 세상을 행복한 정토로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우리 부처님은 중생의 몸으로 우리들에게 성불의 과정을 보여주시고 열반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본래 부처는 오고감이 없는데 어떤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셨을까요. 위대한 스승의 탄생일을 맞이하여 오늘의 기쁨을 모든 중생들과 함께 합시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벗어나 성불에 이르기 위해 보살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가장 큰 행복을 찾아라



불교조계종 종정 혜인 스님

비구들이여 내가 열반에 든 뒤에는 계율을 존중하라. 어둠 속에 빛을 만난 듯 가난한 사람이 보물을 얻은 듯이 소중하게 여겨라. 계율은 너희들의 큰 스승이니 내가 세상에 더 살아있다 해도 이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물방울이 떨어져 바위에 금을 내고 바위를 갈라지게 하는 것과 같다. 계를 잘 지켜 적정무위의 안락을 얻고 몸과 마음이 한가로워진다. 부디 계를 청정히 하여라.

행복한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청파 스님

부처님오신날이 밝았습니다. 부처님은 전 인류의 스승이시고 모든 중생의 자비로우신 어버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또 이 세상에 살았던 생애는 팔십년에 불과하지만 그가 끼친 영향은 세월이 지날수록 빛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르침을 우리 불제자들은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전해 나가야 겠습니다. 행복한 부처님오신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안의 평화, 사회 평화로



대한불교해인종 종정 만허 혜지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구촌 곳곳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 갈등은 자만과 이기심의 결과입니다. 이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는 나를 살피고, 주변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한층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무명 밝히는 등불 밝히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不滅燈兮長明燈 人人皆皆人人燈
長命燈兮不滅燈 世世年年世世燈

항상 꺼지지 않는 등불이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라. 영원토록 밝아 꺼지지 않는 등불로, 세세년년 광명 비치니 영원한 등불이어라.

지혜와 자비로 무명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부처님, 우리가 마음속에 등불을 밝히고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소서.

인간 존엄 회복의 해로



대광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스님

아기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탄생게를 외치신 것은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과 스스로 주인이라는 인간 존엄의 선포이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존엄합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인간존엄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어둡고 슬픈 고통의 세계에 행복과 평화를 전하는 것은 바로 자비실천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심을 전하는데 앞장서 나아갑시다.

내 안의 불성 깨달아 갑시다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 부처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스승이자 어버이이신 부처님. 부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의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제도의 마음을 먹으셨을 때 그 때의 심정을 느껴봅니다. 우리는 함께 도반으로서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내 안에 갖춰진 불성을 깨닫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아가는 뜻깊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염화미소 진전을 전등하는가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청암 스님

正法眼藏 涅槃妙心 實相無相 微妙法門
不立文字 教外別傳

불조께서 이 도리를 가섭 존자께 전했으며 중원의 임제선사에 이어 오늘의 수행자에게까지 이르렀으니 누가 눈의 못을 제거하고 염화미소의 진전을 전등하겠는가? 석탄일을 맞이하여 봉축과 더불어 가열찬 탁마의 정진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누리의 생명 가진 모든 것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중생을 부처님처럼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스님

오늘은 모든 생명이 부처님으로 탄생되는 날입니다. 작금의 세계는 사람이 사라지고 물질만이 남은 인간 존엄성 상실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욕망이 충돌하여 갈등이 양산되는 이 시기에는 이기적 생존의 욕구만이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연기적 공존의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부처님임을 자각하고 함께 상생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도는 항상 가까운데 있다



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관 스님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은 일곱자인데 얼굴에 눈 두개, 귀 두개, 코구멍 두개, 입까지 일곱 개가 붙어 있어서 우리 얼굴이 화엄경이다. 눈 두 개는 일월광명세존(日月光明世尊)이 상주설법(常住說法)을 하고 있고, 귀는 소리를 듣는 성문여래(聲聞如來)로서 상주설법 하고 있고, 코구멍은 향적여래(香積如來)로서 설법하고 있고, 입은 법희여래(法喜如來)로서 설법하고 있다. 우리 일상에 도가 있는데 구하려고 하면 자꾸 멀어진다. 도는 가까운 곳에 있다.

갈등 소멸의 기회로 삼자



대한불교대승조계종 총무원장 자운 스님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그리고 세계 곳곳의 전쟁과 갈등으로 수많은 이들이 기아와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어리석음, 욕망으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부처님 세상을 위해 정진합시다.

부처님을 따르옵니다



용화법원미륵종 종정 현진 스님

부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의 어두운 가슴을 밝혀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누추한 중생을 찬란하고 빛나는 불성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인생의 험로에서 방황할 때 광명의 길로 인도하셨기에 부처님을 항상 따르옵니다. 고해를 방황하는 중생이 아니라 행복으로 충만한 삶을 가르쳐 주셨기에 부처님은 나의 광명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평온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화합으로 이타장엄행을



신뇨엔(眞如苑)
교무장 西川 勢二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모두 화합하여 '인류·지구·우주'를 구하는 자비의 실천에 노력하며, 부처님 탄신을 축하하는 '자비의 등불'을 밝힙시다.

신뇨엔에서는 재해나 전쟁의 고통 속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안온과 지역의 안녕, 그리고 희생자분들의 회향과 추복을 위해 모든 교원이 밤낮으로 지심의 기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타행에 매진하는 길은 부처님과 함께 정진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끝없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계 속의 고통과 슬픔을 멸하는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면서...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대승정 목탁 스님

화목과 평등, 포용과 자비심이 담긴 사랑이 존재했을 때 이 땅에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행복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화합과 평등 그리고 자비의 정신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상호협력과 지원, 교류를 통한 존엄과 신뢰와 믿음이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생동감 있고 살아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로지 불교 지도자 한분 한분이 화광동진하여 현세의 10대 제자, 보살마하살이 되시고 성자가 되시고 아라한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인류를 위해 좋은 인연,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온 불교계 큰스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부처님 세상 이루는 주역 됩시다.

원융화합 자비심 나투네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종정협의회 의장 월인 스님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명을 밝히신 날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자비와 지혜의 가피를 받아 탐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고 부처님과 내가 따로가 아닌 하나의 원융화합된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정성껏 빈자일등의 마음으로 등을 달고, 이와 함께 어려운 이웃도 생각해봅시다.

다시 한번 부처님오신날을 봉축드리며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세계불교교황청
대승통 능인 스님

도솔천에서 중생계를 내려다 보시고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고자 이 사바세계를 내려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이들에게 지혜의 등불로 밝혀 무명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탐욕이 많은 이들에게는 보시의 등불로 밝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성내고 화를 내는 이들에게는 자비의 등불로 밝혀 덕성을 주셨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청정한 부처님의 공덕을 얻는 것이며 마음이 깨끗하면 온 법계가 청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온 도량에 연등을 달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등불입니다. 힘든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법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동사의 정신 실천합시다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영원한 대자유와 대행복의 길을 선포하신 날, 따뜻한 봄날에 룸비니의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천하의 창생(蒼生)들이 때와 티끌을 씻는 날이며, 우주만물도 생멸의 도리를 알아 저마다 자유와 기쁨의 소통을 갖는 날입니다. 인류의 삶을 조화롭고 화평하게 만드는 화엄세계는 함께 하는 동사의 정신을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사면팔방이 원래 막히지 않았다는 경계를 바로 깨우쳐주는 화엄의 가르침으로 인류의 화합과 세계평화를 이룩합시다.

날마다 부처님오신날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

자비보살행을 실천하고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발원을 세우는 것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불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다짐이 사라진다면 다시 중생의 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보살행으로 주변을 밝히는 정진을 이어간다면 부처님오신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며 우리가 부처로 태어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사물 직시 혜안 이룹시다



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송천 스님

指環即離 不作方便
離幻即覺 亦無漸次

인류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비로써 더욱 맑고 밝게 비추시고, 용서와 화합으로 행복을 추구하라고 이르십니다.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우리는 허상을 진실로 착각하지 말고 사물을 직시하는 혜안(慧眼)을 이뤄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경하드리며, 최고의 행복인 성불(成佛)을 이룹시다.

동체대비 정신 발휘를



수미산문조동총림 종정 정림 스님

탐욕과 무명의 허망함을 아는 것 부터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 보면 바탕에 부처의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오신날 우리 각자가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면 화합과 상생으로 새로운 희망이 싹틀 것입니다. 다른 생명도 인간과 같이 존귀하고 소중함을 인식하여 동체대비의 정신을 발휘해 갑시다. 부처님오신날 자비광명이 각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합시다.

사바세계가 부처님 도량이니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종정 연화 스님

世尊坐道場 淸淨大光明 比如千日出 照耀大千界
慈悲沒有敵人 智慧不起煩惱

세존께서는 항시 도량에 계시며 청정한 대광명의 빛을 주시니 비교하면 천개의 태양과 같이 대천 세계를 밝혀주노니 그대들은 두려워 말고 자비 베풀어 살면 적이 없고 지혜 밝으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은 모두가 부처님 도량이요 부처님의 지혜 자비의 광명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자비실천과 선업을 쌓아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불성 찾아 부처 이루세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스님

天上天下 唯我獨尊
無量生死 於今盡矣
此生濟度一切人天

이 불성이야 말로 하늘 위 하늘 아래 홀로 높고 가장 존귀한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며 불성을 찾아서 부처를 이룰 때 그 존재는 가장 높고 위대한 개인이 됨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부처님 지혜를 알립시다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보 스님

중생을 요익(饒益)케 하고 구제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되는 세상이야 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부처님 세상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진리와 자비와 지혜로 청정함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욕망은 파멸을 낳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중도로 상생의 미덕을 만듭니다. 불교 안의 지혜를 더욱 널리 알려갑시다.

마음으로 지혜등불 켜자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모든 정성을 다해 켠 등이 밝은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설화처럼 우리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진솔한 마음으로 불성을 일깨우고 중생의 어둠을 사르는 지혜의 등불을 켭시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내 몸 같이 여긴다면 저절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 부처를 공경합시다



여래불교조계종 종정 성관 스님

교도소에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술집에 있는 부처님들, 공장에서 굵은 땀을 흘리는 부처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부처님들, 모든 부처님들이 태어난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일체가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일체이니 우리 사회 곳곳의 수많은 이들이 부처님 오신 뜻을 깨닫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정진합시다. 정진하는 가운데 저절로 내 마음의 무명이 걷어지고 행복이 찾아오니 공경하고 공경합시다.

꽃을 보고 마음 깨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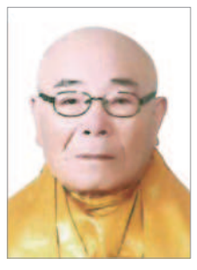


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법장 스님

부처님 오신날 나라는 안정되고 온국민은 평화롭게 사십시요.

청산은 티끌 밖에 허상이니
밝은달은 마음 가운데 숨었도다.
산하는 천안 속에 있고 세계는 그대로가 진리니라.
새소리 듣고 마음 밝히니 꽃을 보고 몸과 마음 깨치도다.

양보하며 살아갑시다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수암 스님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천의 스승이며 사생육도의 어버이시고 만고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애민중생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부처와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자는 남을 도와주고 살아갑시다. 중생들이 서로 싸우고 침해하는 것은 일심동체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하여 서로 화합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돕고 살아갑시다.

관용과 화합의 세상 만들자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미망을 깨우쳐주고자 육신을 나투시어 미래의 영원한 생명체인 법신의 참모습을 보이셨고, 생사 해탈을 통해 대자유인, 참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밝은 연등을 밝혀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며 탐욕에서 배품으로, 다툼에서 관용과 화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의 삶을 배우고 가르침에 따라 삼독심에서 벗어나 고통과 소외받는 모든 이웃에게 자비 손길을 나눕시다.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국내 최초 DM 서비스 제공, 44년 경험의 전문 기업 덕성기획(주)



미래를 여는 덕성기획(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87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 DM사업본부 ▶ 물류사업본부 ▶ 유아교육사업본부(노벨과 개미)

유아교육사업본부 덕성기획(주) 노벨과 개미+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TEL : (02)2615-3296(대)
FAX : (02)666-3139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

부처님 자비광명 함께 하길

광용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지혜와 복덕의 불성을 원만히 갖추고 있다고 선언하신 날입니다. 산천초목이 풍요롭고 오색 등불이 온 누리에 출렁이며 저마다의 소원을 머금고 중생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품어 줍니다. 즉심시불(卽心是佛)이란 마음이 곧 부처라는 뜻입니다. 올해는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와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마음의 어둠을 밝혀 주는 연등처럼 밝고 편안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서원, 환한 등불 되길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중앙신도회에서는 1700년 한국불교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한반도 최초 불교 성지를 계승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새롭게 쓰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젊은 이미지의 불교로 주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라·백제로부터 시작된 한반도 불교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고 미래 세대에게 알리는 것 또한 불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자로서의 본분을 그동안 다해 왔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 우리의 서원이 환한 등불이 되어 부처님께 닿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대학생 전법단, 불교중흥 디딤돌

윤재웅 동국대 총장



우리 캠퍼스에서는 건학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불교학생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중흥의 역사를 새로 써나갈 수 있는 대학생 청년 전법단이 불교종립대학에서 새로 태어나는 중입니다. 이들이 동국 발전의 주춧돌이요, 불교중흥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매일 매일 매 순간을 이런 마음으로 정진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이요, 지금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길을 따라 열심히 정진하고 신행활동 또한 여법하게 하시길 발원합니다.

자비 손길 나누는데 앞장

김의정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장



전국 사찰과 거리에 밝혀진 연등의 불빛을 보면서 마음의 행복을 느끼는 한편,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지구 반대편 이웃의 아픔, 초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세대적 갈등,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개개인의 지나친 욕망의 공업(共業)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중생의 모습이 너무나 작고 가냘프게 느껴집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여성불자들은 나로 인해 세상이 기뻐할 수 있도록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자비의 손길을 나누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행복한 세상 밝히는 등불되길

이기흥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



부처님께서는 오직 중생들에게 모든 행복의 근원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 분별과 시비로 인한 갈등은 이미 우리에게 갖추어진 행복을 찾아내지 못한 채, 외부의 행복만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날갯짓에 지친 새들에게는 안락한 휴식을 위한 숲과 둥지가 필요하듯이 반목과 질시의 마음에 전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국회, 현실 환히 밝히는 연등될 것"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민대표자회의인 국회의 넓고 푸른광장에 등을 밝혔습니다.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 이 말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부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등을 밝히면서 저출생, 저성장, 고물가 등 어려운 현실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지혜를 부처님께 구해봅니다. 국회가 어두운 현실을 환하게 밝히는 연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처님 법 전하는 청년불자 됩시다"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우리 청년 불자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가짐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여유를 가져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평화로운 공동체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온세계 인류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나를 찾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는 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모두 서로를 사랑합시다. 긍정적으로 바라봅시다. 부처님 법 전하는 청년불자가 되어 봅시다.

자리이타 자비사상 전법으로 실천

김영석 조계종 포교사단장



개인의 마음과 삶은 긴장과 우울 등으로 주체적인 삶을 상실하고 있고 사회와 국가 간은 극단의 대립으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인류는 마음의 평화와 행복 실현을 위해 부처님 마음수행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모든 국민도 부처님의 마음명상과 수행으로 마음의 건강과 평화를 이루며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 법 포교하는 포교사단도 부처님의 마음명상과 수행에 더욱 정진하고 자리이타 자비사상을 실행하겠습니다.

"나랏일을 부처님 같이"

정승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어지러운 가운데에서 자아를 찾아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우리 공무원 불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나랏일을 부처님같이, 국민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라는 공불련의 창립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맡은 직무를 바르게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 불자는 날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며 공직사회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부처님 법 실천이 삶의 행복

황경환 21세기불교포럼 이사장



인간의 몸을 받아, 무진(無塵) 되돌아보고 되돌아보아도 세상이라는 대도량(大道場)에 인간의 몸을 받아 왔다가 가는 길에 오직 의미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부처님 법을 만나 그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익히고 따르고 실천하며 사는 삶이 최상의 행복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정진하며 각자의 행복, 우리 사회의 을 찾도록 합시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널리 퍼져 보다 많은 이들이 행복한 세상으로 거듭나도록 함께 노력해 갑시다.

"정론직필로 지혜 연등 밝히겠다"

김보배 한국불교기자협회장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나가길 발원합니다. 한국불교기자협회는 올해 제22대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심과 열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말과 글로 포교에 앞장서 온 기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우의를 증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론직필을 통해 지혜의 연등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봄날을 맞은 지금, 더욱 정진하여 행복한 세상을 위해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바른 신심으로 한국불교 미래될 것"

주현우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을 맞아 전국의 모든 대학생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봉축의 기쁨을 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학생 전법과 포교의 원력이 깊어가는 요즘입니다. 대학생 불자들의 활동과 성장에 관심 가져 주시며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대불련은 언제나처럼 대학생 청년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의 씨앗을 심어 바른 신심을 키우며 한국 불교의 든든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삼론종

종 정 **혜승**

전계화상 **혜공** 승정원장 **진봉**

총무원장 **해불** 종회의장 **지경** 교육원장 **법지**
종회부의장 **혜인** 교육부원장 **묘현**
총무부장 **근혜** 포교원장 **해인**
교무부장 **자원** 교리연구원장 **남륜** 포교부원장 **지연**
사회부장 **도일** 수선원장 **응진** 문화원장 **혜관**
규정부장 **조영** 사정부원장 **성우** 문화부원장 **마애**

각 교구 종무원장
서울·경기 종무원장 **묘현** 충남 종무원장 **성현**
경남·울산 종무원장 **해산** 충북 종무원장 **정연**
경북·대구 종무원장 **지화** 강원 종무원장 **도광**
전라·남북 종무원장 **도암**

종도일동

총무원 주소 :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고길203번길 103 천용사 전화 043)878-0109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만 청 스님**

사부대중 일동

충남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미암길128
전화 041)832-1188 www.miamsa.com

(財)韓國佛教 如來宗

총무원장 **명안**(총본산 회주)

원로원장 **석산** 종회의장 **일연**

행정부원장 **혜안**(성남 약사사 주지)
포교부원장 **무극**(용인 구만사 주지)
교육부원장 **혜광**(제천 도원사 주지)
호법부원장 **도혜**(횡성 여래사 주지)

전국 인왕 문도회장 **묘선**(영월 천운사사 주지)

총무원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로 1길 28-1 **전화** 043-731-2261

(사)대한불교 원융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融無碍 一O相 眞理體得
우리종도는 원융무애한 일원상의 진리를 스스로 체득한다.
圓滿融通 人格完成
우리종도는 원만 융통한 대인상의 인격을 수련 성취한다.
圓通融和 道義社會建設
우리종도는 원통융화한 이상 사회의 실현에 적극 헌신한다.
圓融會通 理想世界實現
우리종도는 원융회통의 참된 평화 세계건설에 이바지한다.

원융종 종도일동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180-6 (구로동)
총본산 : 원융사 전화 02)853-0430~1 팩스 02)857-5094

※원융종 종도 여러분 사.암 등록증과 임명장,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 임명장, 승려증은 필히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총림

안성 영평사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영평사 주지 정림



주소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길 79-42
전화 031-676-3960

(사)대한불교 금강종

종 정 **무학당 송 천**
총무원장 **법산당 영 봉**

종정예하 예경실장 **정 해** 총무원장 사서실장 **정 효**

원로원장 **월서** 원로원부원장 **일각**
교육원장 **정산** 포교원장 **덕산**
사정원장 **혜광** 문화원장 **혜일**
호법원장 **관호** 고시원장 **혜신**
수선원장 **해륜** 복지원장 **법영**
보건원장 **정일** 비구니원장 **법신**
비구니원 상임고문 **지연** 비구니원 수석고문 **해안**
비구니부원장 **능현**

중앙종회의장 **법화** 중앙종회부의장 **현우**
중앙종회사무총장 **정견**

[각 지역 교구원장]
서울특별시 교구원장 **정심(서원암)**
부산광역시 교구원장 **해안(법정사)**
대전광역시 교구원장 **법신(내원암)**
대구광역시 교구원장 **정일(광원사)**
울산광역시 교구원장 **능현(옥련암)**
창원시 교구원장 **하연(만월정사)**
당진시 교구원장 **법성(유향사)**
경기북부 교구원장 **현수(여래사)**
충청남도 교구원장 **혜진(천본사)**
충청북도 교구원장 **자오(덕성암)**
경상남도 교구원장 **관호(관호사)**
경상북도 교구원장 **정암(정암사)**
전라북도 교구원장 **월서(삼불사)**
전라남도 교구원장 **혜신(남해사)**

(사) 대한불교 금강종 입종 안내문

◇ 구비서류:법복(가사+장삼) 착용한 사진 3매(여권사진),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수행이력서 1통, 소정의 입종비
◇ 교부서류:사찰 운영자는 주지 임명장,사찰 등록증,승려증, 사단법인 등록 허가증,신도 년말정산 기부증서

총무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99-74(일성사) 전화 (042)935-2279 fax (042)935-2279
HP 010-3550-5153(총무원장 직통), 010-7547-2149(총무원 사무국장)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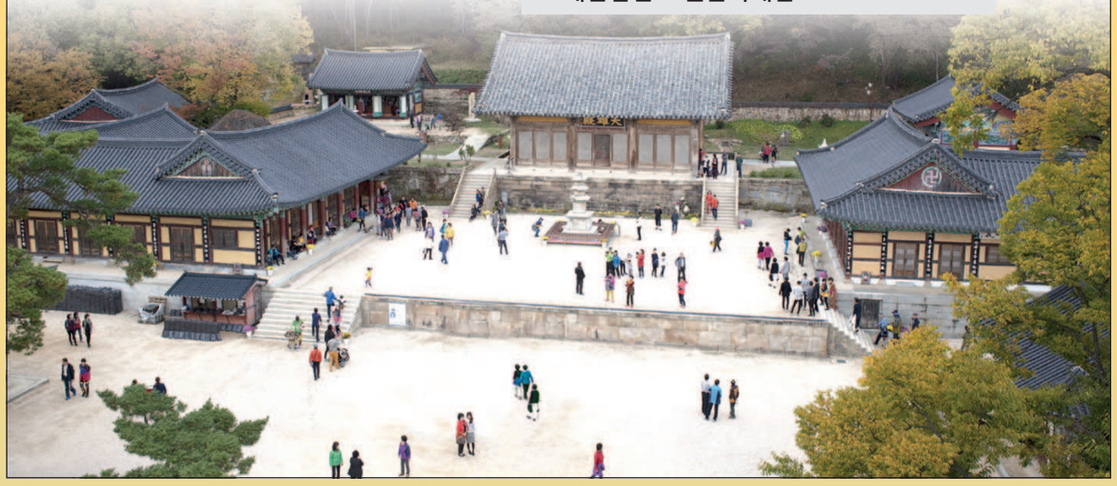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본사

德崇叢林 修德寺

方丈 達河 愚松

叢林大衆一同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www.sudeoksa.com
전화 041)330-7700 팩스 330-7702
선 수행 템플스테이 전화 041)330-7789
(sudeoksa@daum.net)
수덕사노인요양원 전화 041)338-7711
사회복지법인 修德
재단법인 호원문화재단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참여와 도약으로
불교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전화 02)3411-8103~4 www.kbhiksuni.org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무심 보광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임원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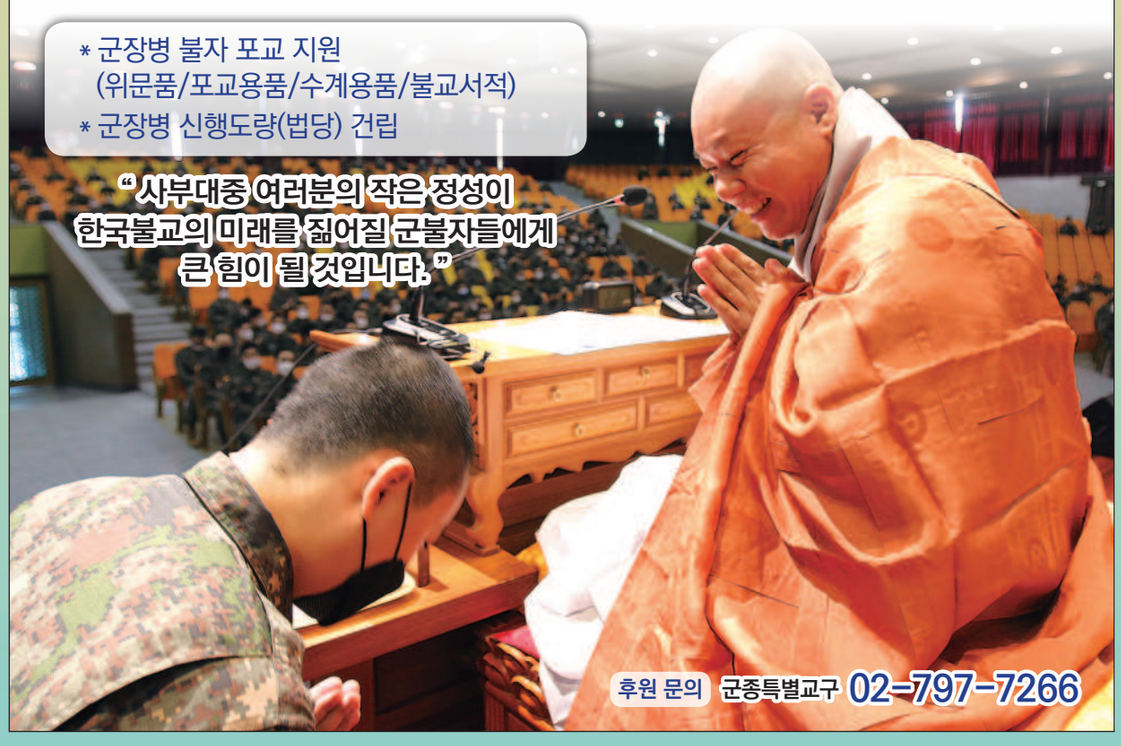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0길 87
목동 사무국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전화 (02) 765-2701 팩스 (02) 741-1385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군불교 만인동참 후원

한국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 군장병 불자 포교 지원
(위문품/포교용품/수계용품/불교서적)
* 군장병 신행도량(법당) 건립



후원 문의 군종특별교구 02-797-7266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興天寺

사부대중일동

삼각산 흥천사에서 기도하시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전화 02)929-6611~2 팩스 02)921-1626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화계사

사부대중 일동

화계사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
• 불교입문(3개월) • 천수경(3개월) • 선 · 명상 입문(10회)
문의) 02-997-6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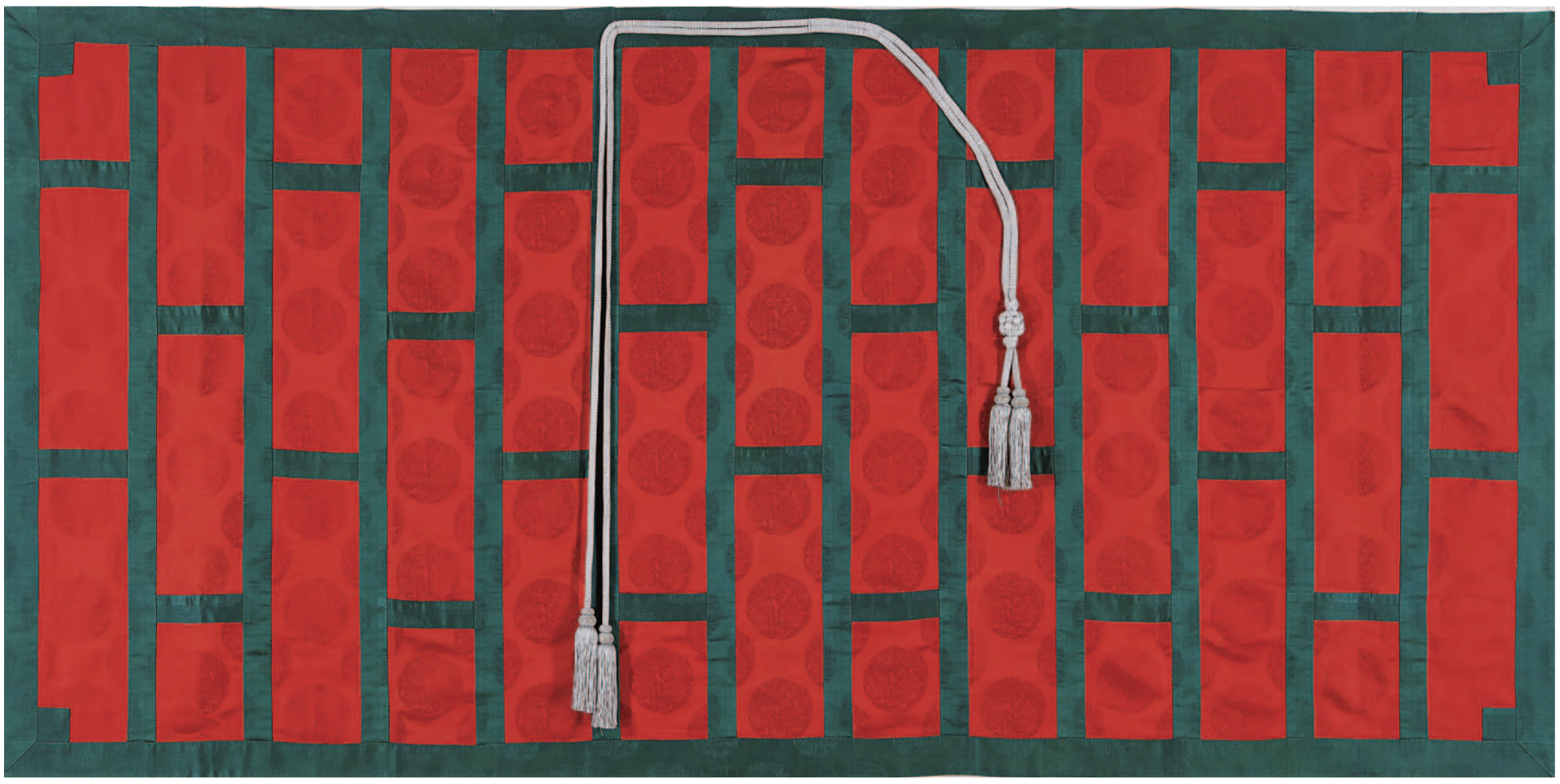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수유동)
☎ 02)902-2663 Fax 02)990-1885 www.hwagyesa.org

선재해탈복(善哉解脫服)
무상복전의(無上福田衣)
아금정대수(我今頂戴受)
세세상득피(世世常得被)
옴 마하가바바다 숫제 사바하(3번)

훌륭하도다 해탈복이여
위없는 복 밭의 가사여
이마에 공손히 받드노니
널리 모든 중생 제도하리

–가사정대게–



명천 스님이 재현한 고려시대 홍록첩상가사(280×140㎝).

Cover Story

'가사작법'은 무형유산…전승은 '빨간불'

가사 짓는 전통이 사라진다

교단 발전하며 복식 필요해져
불제자 · 외도 구분하는 가사
부처님 지시로 아난이 만들어

오래전부터 '가사불사'라 칭해
가사단 규율도 선방 못지않아
교단서 가사짓는 일 관심 저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교 袈裟의 탄생

세 가지 가사(袈裟)와 발우 하나, 삼의일발(三衣一鉢). 불교의 탄생과 함께한 태초의 성보다. 출가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의발(衣鉢)이자 때로는 불제자를 외도들과 구분 짓는 수행 방편이다. 선종에선 스승이 제자에게 의발을 전수하며 자신의 법맥이 계승됐음을 증명할 정도로 큰 의미를 갖는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상정등각을 이루고 다섯 비구에게 진리를 설한 이후 불교는 개인을 넘어 교단의 형태로 발전했다. 하지만 부처님에게 법을 전해 듣고 깨달음을 얻는 수행자들이 늘어나 불교의 교세가 점차 커지자 일부 외도들은 불교를 깎아내리는 데 혈안이 됐다. 외도들이 일부러 범계를 저지르고 스스로를 불교도라고 사칭하니 불교에 대한 대중의 오해가 번지기 시작했다. 이로써 불교는 대외적으로 불교도를 구분할 수 있는 복식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십송율(十誦律)〉을 비롯한 율장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선 제자인 아난과 함께 왕사성 남쪽으로 유행하며 논과 밭두렁이 가지런하게 정비된 것을 보고 법의를 만들도록 했다. 외도와는 차별화된 복식을 마련해 불교도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교단이 발달하면서 허름한 옷의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진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장례를 치를 때 사용한 천이나 병자의 피가 묻은 천과 같이 사람들이 버린 천을 세탁해 입던 분소의(糞掃衣)에서 벗어나 대중성과 편의성을 적당히 갖춘 불교만의 복식이 탄생한 것이다.

가사를 만들 때는 큼지막하고 좋은 천을 굳이 조각으로 자르고, 청·황·적·백·흑의 정색을 피해 일종의 잡색인 탁한 느낌의 괴색으로 물을 들였다. 옷감에 대한 가치를 낮춰 수행자로서 잘못된 애착을 줄이게 한 것. 논밭 형태로 천 조각을 이어 붙여 만드는 지금의 가사인 '할절의(割截衣)'는 그렇게 탄생했다.

한국불교의 '가사불사'

한국불교는 오래전부터 가사 짓는 일을 '가사불사(袈裟佛事)'라고 했다. 불사(佛事)라고 표현할 만큼 값지고 무엇보다 불교적이라는 뜻이다. 가사 한 벌 쉬이 구할 수 없던 1960~70년대만 해도 제법 큰 절에서 하던 가사불사는 100여 명이 모여 같은 원력으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대작불사였다. 가사에 침이 튀지 않도록 입을 가리는 구포를 쓰고, 바느질 한 땀마다 관세음보살을 외던 시절. 가사불사에 동참할 때는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중간에 해우소라도 다녀오려면 헌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만큼 가사단의 규율은 선방에 못지않았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가사불사 전통은 역사로만 전해질 위기에 처했다. 윤달이 든 해에 일부 총림에서 가사단을 꾸리고 가사불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수십 년 전 스님들이 직접 가사를 만들던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대량 제조가 가능해져서일까, 아니면 이제는 승복집에서 돈을 주고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일까. 이유가 무엇이든 교단 내에서 손수 가사 짓는 일에 대한 사부대중의 관심이 낮아진 것만은 분명하다.

1960년대부터 손수 가사를 지었던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나주 심향사 주지인 성오 스님과 법주사 율주이자 조계종 가사원 도편수 무상 스님은 어느덧 팔순에 가까운 나이가 됐다. 전통가사를 공부해 고려·조선시대 가사를 재현하는 함양 향운암 주지 명천 스님도 환갑을 넘겼다. 이제는 누가 전통을 이어갈지 알 수 없는 현실이다.

불상을 조각하거나 불화를 그리는 이들을 흔히 불모(佛母)라고 높여 부른다. 우리는 가사 짓는 일을 '불사'라고 하면서 가사 만드는 이들을 무엇으로 불렀는가. 불상이 없어도, 불복장이 없어도 불교 고유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지만 가사가 없다면 불교라고 할 수 있을까.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가사작법의 의미와 방법, 가사의 전래, 가사불사 공덕, 전승 과제 등을 짚어본다.

회 주 밀운부림
교구장 호산
어산어장 인묵 학장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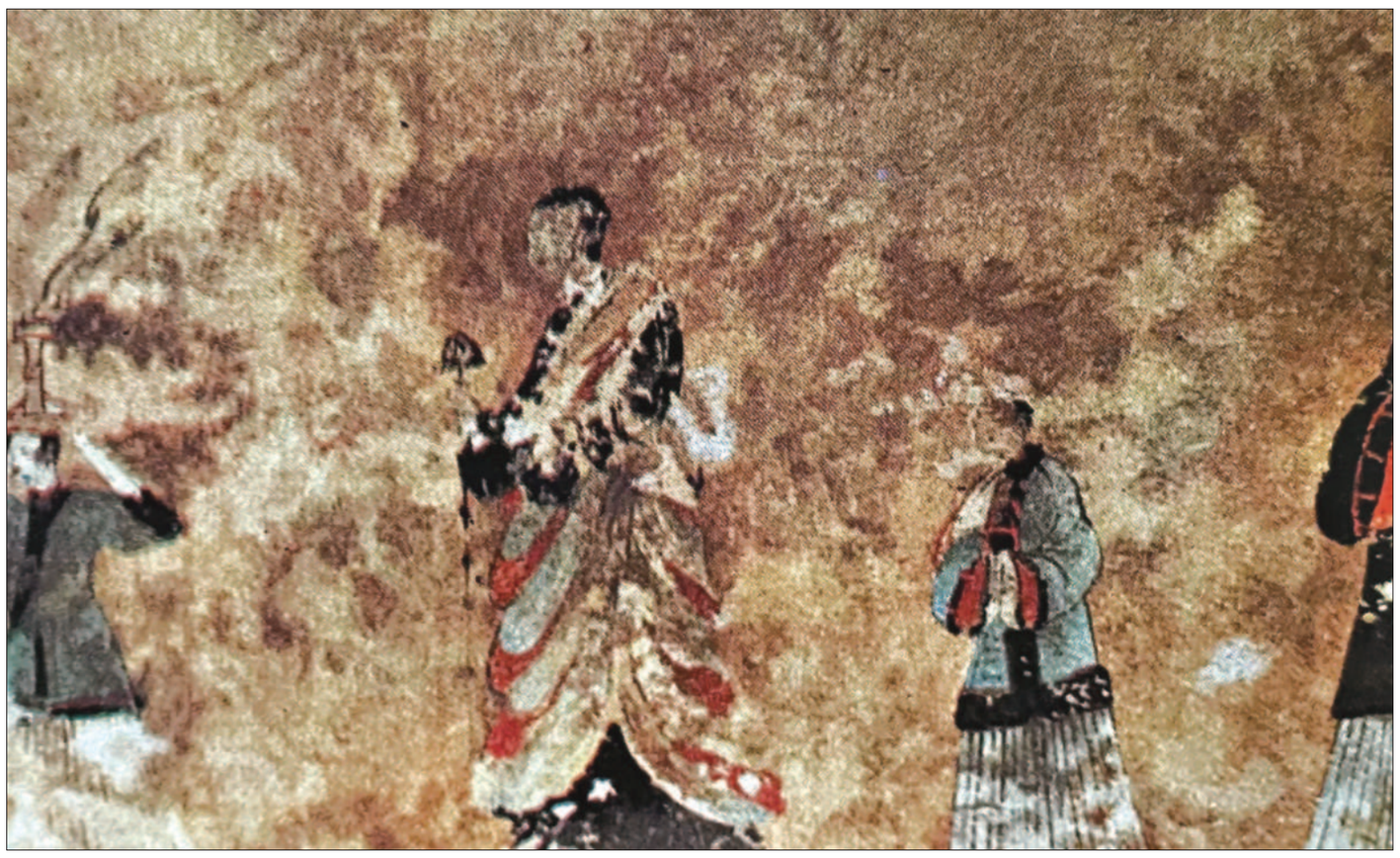
총무국장 보관 종책실장 덕산
기획국장 향성 교무국장
재무국장 성우 사회국장 법륜
포교국장 혜교 호법국장 현묵
복지국장 혜각 연수국장 청효
문화특보 혜공 사회특보 도심
정무특보 혜성 복지특보 무일/최종환
전법특보 묘수



천년고찰, 부처님 법 전법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부평리) / 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사무실 : 031-527-1951~2 / 팩스 : 031-527-8568 / 종무실 : 031-527-1956

봉선사 산하기관 학교법인 광동학원(광동중학교, 광동고등학교,의정부 광동고등학교)/연꽃유치원/남양주시 노인복지관/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남양주시 북부장애인주간보호센터/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보호작업장/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남양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구리 실버인력뱅크/구리 인창경로식당

부처님법전합시다



쌍영총 벽화에 그려진 고구려 스님의 복식. 뚜렷하진 않지만 채색된 가사와 편단우견 형태의 복식이 보인다.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셀수스협동조합



대구 동화사 소장 고려시대 보조 국사 지눌 진영.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고승 사명 대사 진영.

평상복서 '禮 중심' 복식으로 시대별 변화

한국불교 가사의 전래와 변천

통으로 된 천 형태서 점차 변화 거듭
고급 소재 가사공양 기록 다수 확인
법계 따른 차등, 고려시대 두드러져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가사는 '삼의일발(三衣一鉢)'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처님 당시 세 벌이면 충분한 것으로 봤다. 5조로 이뤄진 안타회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옷이며, 7조인 울다라승은 공양·예배·포살 등을 할 때 입는 것으로 겉가사라고도 한다. 승가리는 왕궁에 갈 때나 법상에서 법문할 때, 걸식할 때 입는 것으로 하품(9·11·13조)과 중품(15·17·19조), 상품(21·23·25조)으로 나뉜다.

가사는 불교의 성립과 교단 발전에 따라 탄생했지만 불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각 나라의 기후나 문화에 따라 복식에서 차이가 생겼다. 인도 마투라와 간다라 지역에서 출토된 불상과 벽화에선 모두 통으로 된 천 형태의 가사를 확인할 수 있다. 소재의 차이는 있지만 당시 인도의 평상복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가사 형태는 실크로드를 거쳐 중국으로 불교가 전해지며 일부 변용돼 평상복보다는 '예(禮)'의 가치를 중시하게 됐다.

한국사에 기록된 가사

그렇다면 한국불교 가사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 안타깝게도 국내 연구논문 가운데 한국의 가사 전래와 변천을 망라한 것은 극히 드물다. 현전하는 유물가사도 모두 조선중기 이후의 것인 탓에 많은 연구가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가사를 다루고 있다. 특정 국사·대종사의 유물가사 연구, 불교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가사의 의미, 특정 종단의 가사 등을 짚은 논문은 많은 데 비해 불교가 공인된 삼국시대부터 억불숭유로 대변되는 조선시대까지 전 세기에 걸친 가사연구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단국대 대학원 전통의상학과에서 '한국 가사의 유형 분석 및 구성법 연구'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순학 한국전통복식공예연구소장의 학위논문이 거의 유일하다. 전통가사를 직접 재현하는 예술인으로서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17년의 세월을 담아 쓴 이 논문의 내용을 저자에게 직접 듣고 정리했다. 여기에 더해 2005년 대원사에서 펴낸 〈한국의 가사〉도 참고했다.

국내 문헌에서 가사의 유형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것은 〈삼국사기〉에 '삭발하고 이상한 옷을 입었다(童頭異服)'는 기록이다. 법흥왕 15년(528), 불교를 일으키고자 한 법흥왕이 신하들을 불러들여 이차돈과 대화할 때 신하들이 불교를 조롱하던 말이다. 이차돈의 순교 당시다. 이후 806년(애장왕 7) '금이금수위불사(禁以錦繡爲佛事)'라는 표현에서 고급 재료의 가사가 승려에게 공양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공민왕이 봉은사에서 보우 대사의 설법을 들은 뒤 '수가사'를 시주하고, 1134년(인종 12) 묘청에게 '삼중대통지누각원사(三重大統知漏刻院事)'라는 직함을 내리며 자색의 가사를 전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 이 밖에도 다양한 금석문과 문집에서 가사에 대한 여러 이름과 색상, 소재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온다.

조선시대엔 가사의 재료가 다양했던 만큼 외형상 표현방법도 화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1439년(세종 21) 불교의 폐단을 상소하는 글에서 승려의 법의를 주옥과 금수로 만드는 것이 괴이한 일이라고 했다. 보석과 화려한 직물에 자수를 놓는 표현방법이 성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양상은 '만수가사(滿繡袈裟)' 즉 자수를 가득 놓은 가사라는 명칭에서도 확인되며, 화려함을 나타내는 표현방법에는 '화채가사(華彩袈裟)'도 있다.

불교미술로 본 시대별 가사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불교가 전래된 곳은 고구려다. 고구려의 법의는 쌍영총과 무용총 등의 벽화에서 당시를 짐작할 수 있다. 5~6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쌍영총 벽화 중의 주실동벽 인물행렬도에는 스님이 석장(지팡이)을 쥐고 편단우견(偏袒右肩,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형태)으로 홍색과 청색으로 채색된 대가사를 수한 모습이 보인다.

백제는 스님의 의복에 관계되는 유적이나 유물이 없어 당시 상황을 알기 어렵다. 다만 당시 유물로 추정되는 금동승상을 보면 맨몸에 조수가 없는 가사를 편단우견으로 걸치고 있다. 이는 백제의 스님이 가사를 수한 모습을 재현했다기보다 본래 의미에 충실하면서 인도식 가사를 재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삼국시대 가사는 통견과 편단우견이 모두 있으며 끈이나 매듭 등을 이용해 묶어 인도의 가사와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고려시대는 법계에 따라 차등을 두고 가사를 구분해 착용했다. 사미비구는 어려서부터 출가한 비구승으로 첩상이 없는 괴색 포의를 입고 계율이 높아지면 비로소 자복으로 바꿔 차례에 따라 납의를 입었다. 당시에는 고려 특산의 직물인 마납(磨衲)을 최고로 여겼다고 한다.

중국 송나라 서긍(徐兢)이 1123년(인종 1) 고려 송도에 사신으로 왔다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인 〈선화봉사고려도경〉에 가사에 대한 기술이 전해진다. 제18권에 의하면 왕사나 국사는 산수납가사와 긴 소매의 편삼, 금발차를 착용하고, 아래에는 자상을 입고 검은 가죽에 방울이 달린 신발을 신었다. 방울 달린 신발은 스님들이 걸어 다닐 때 신분을 알림으로써 여러 가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이 같은 모습은 고려시대 고승들의 진영에서 확인된다.

조선시대는 외적으로는 불교가 사양의 길을 걸었지만, 오랫동안 민중 속에 깊이 박혀 있던 사상적인 측면은 내적으로 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됐다. 이 시대 가사에는 고려시대와 달리 법계에 의한 차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시대 가사는 치수에 관계없이 단일색 가사로서 고려의 수가사에 비해 문양이 다양하게 발달된 것이 특징이다. 가사의 형태는 홑가사와 겹가사로 구분되며, 부착물은 일(日)자와 월(月)자의 수판이 방형에서 원형으로 바뀐다. 일은 삼족오(다리 셋 까마귀)가 이족오로 표현된 경우도 있다. 착장 방법은 끈이 장식적인 면에 치중해 두세 가지 색으로 돼 있다. 특히 녹·홍·자·황·청색 등의 오정색이나 간색을 사용했다. 유물로는 서산·사명·벽암 대사 등의 가사가 전해진다.



“법당 짓는 것보다 더 규모 컸던 가사불사”

명천 스님이 말하는 가사작법

가사,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진=정승용 작가



2023년 2월 통도사 가사불사를 위한 가사당이 설치된 영산전.



가사 제작의 첫 단계, 밑그림인 가사초 그리기.



본격적인 작업은 가사 천 재단부터다.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한 바느질.



바느질에 이상이 없어야 다림질을 한다.



가사 제작에 필요한 도구들.

경남 함양=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앞서 커버스토리에 언급한 것처럼 1960년대부터 가사불사에 참여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온 스님들은 세수로 팔순을 앞두고 있다. 가사불사 현장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어른스님들이다. 그 다음 세대로는 지난해까지 통도사 가사불사 도편수를 맡아 가사 제작에 힘을 쏟은 명천 스님을 꼽을 수 있다. 명천 스님은 고려시대 전통가사를 재현해 2009년 불교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솜씨를 갖추고 있다. 명천 스님도 환갑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사에 대한 열정은 남다르다. 지난 4월 26일 경남 함양 향운암을 찾아 스님에게 가사작법 이야기를 들어봤다.

“옛날에는 사찰에 부처님을 모시거나 법당을 짓는 것보다도 가사불사 규모가 더 컸어요.”

요사채 바닥에 손수 만든 첩상가사를 펼쳐 놓고 바느질 땀을 가리키며 옛 이야기를 시작한 명천 스님. 봄이면 바느질 대신 농사 하느라 손톱 밑에 흙이 박혀 손이 지저분하다고 말한 스님은 짧은 막대를 쥐고 가사의 요소들을 하나씩 짚었다.

불보살님 지나다니는 ‘通門’ 비롯해
일월광문 · 사천왕첩 등 특징도 뚜렷

“아주 옛날 기준으로는 천을 염색하는 것부터 시작이죠. 모든 재료가 다 준비됐다는 가정하에 가사 제작 순서를 요약하면 가사초를 그린 뒤 재단, 바느질, 다림질 순이 됩니다. 재봉틀 안 쓰고 손바느질로 가사 만들면 가사 하나에 바느질만 한 달은 넘게 걸려요.”

가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통문(通門)’이다. 부처가 다니는 길이라는 뜻에서 ‘통문불’이라고도 한다. 가사 겉면에는 바느질 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통문이 보이지 않지만 뒷면에는 바느질 사이 틈이 있다. 일반적인 속세의 전통의상과 큰 차이점으로, 명천 스님은 이를 논밭에 비유했다.

“가사의 여러 명칭 가운데 하나가 ‘복전의(福田衣)’잖아요. 그래서 복밭의 옷이라고 하고 논과 밭의 형태로 본다면 스님들이 수행하는 게 농작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논밭에는 물을 대야 하잖아요. 통문은 그런 물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콩알을 넣어서 모든 통문으로 통과되는지 확인합니다.”

25조 대가사에만 300개가 넘는 통문이 있다. 세심하게 통문을 확인하다 막힌 부분이 발견되면 고치느라 또 시간을 보내야 한다. 가사 짓는 일이 선방의 용맹정진처럼 결코 만만치 않다는 말이 허언이 아니란 걸 눈으로 본 뒤에야 이해할 수 있었다.

한국 가사의 특징으로는 일월광문(日月光紋)과 사천왕첩(四天王貼)이 있다. 모두 가사 본연의 역할보다는 가사에 덧대는 장식으로서 보다 불교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요소다. 해와 달, 까마귀와 토끼를 그려넣는 일월광문은 불교 우주론적 관점에서 만다라를 현시하고 법계를 청정히 해 가사를 수한 스님과 신도들이 이상경계를 빨리 확보할 수 있게 하자는 열망을 내포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 사천왕첩은 가사의 사방 모서리에 붙이는 조그마한 덧댄 천이다. 새로운 것만을 욕심내지 말라는 의미로 첩을 붙이다가 언제부터인가 가사를 착용한 스님을 사방의 천왕이 보호해준다는 의미로 바뀌었다. 첩에는 천(天) 또는 왕(王) 새겨 넣기도 한다.

“일월광문은 옛날 어느 부인이 가사불사에 참여해 집을 자주 비웠을 때 마침 전장에서 돌아온 포수가 부인을 의심해 쏜 화살이 닿지 않고, 완성된 가사에 구멍이 두 개 뚫려서 붙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수승한 가사공덕의 의미를 강조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불교적으로 이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 성보가 또 있을까. 그럼에도 현재 조계종의 법계품서식에서 수여되는 공식 가사봉투에는 가사 편수의 법명조차 들어가지 않는다. 스님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제는 이런 문화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관심을 둬야 할 게 많아져서라거나 전보다 가사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가사에 담긴 뜻이라든지 가사를 수함으로써 갖추게 되는 수행자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말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향운암 주지 명천 스님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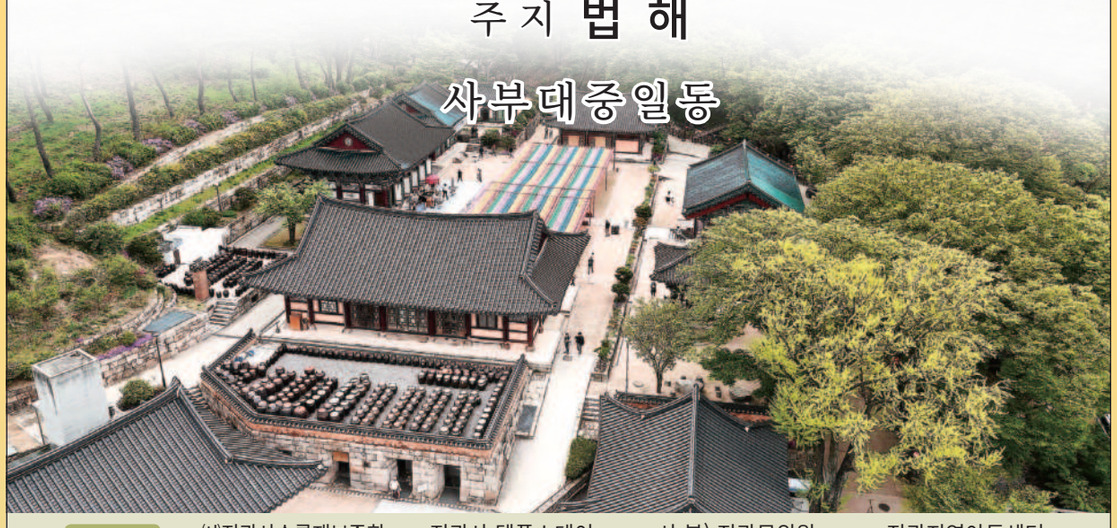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주 계 호

주지 법 해

사부대중일동



부설기관
- ㈜진관사수륙재보존회
- 코끼리 유치원
- 진관사 불교대학. 대학원
- 진관사 템플스테이
-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 한문화체험관
- 사.복) 진관무위원
-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 진관지역아동센터
- 구파발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전화 02)359-8410 www.jinkwansa.org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봉 녕 사

봉녕사승가대학 ·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주지 진 상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전화 031)256-4127 www.bongnyeongsa.org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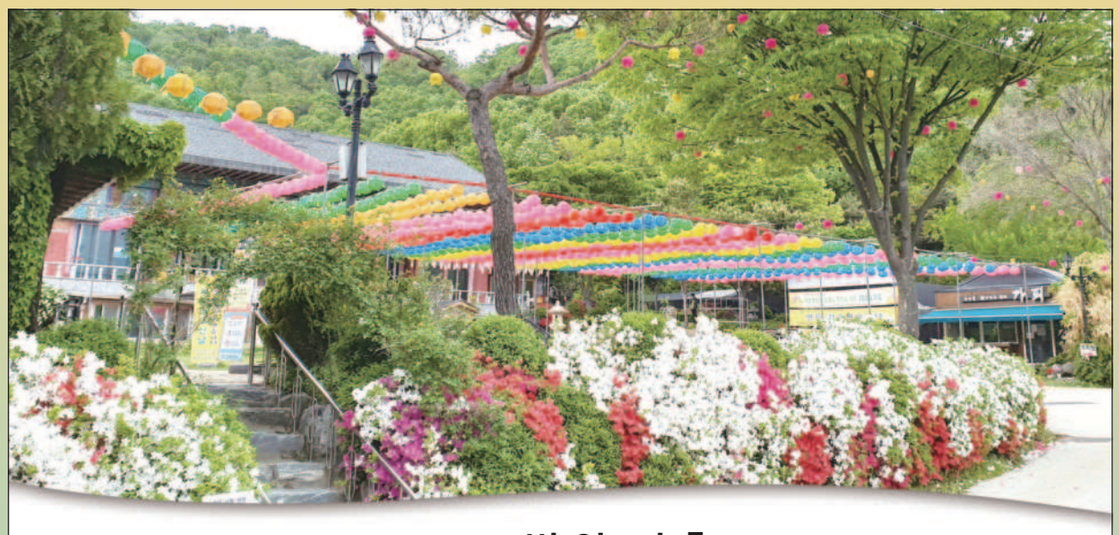
대한불교 조계종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

주 지 진 경

사부대중일동





벽 암 지 홍

신도회장 환희지 이란희

법회 및 기도 안내

일요법회	매주(일)10:30
호법법회	매월 첫째주(수) 10:30
초하루신중기도	매월 음력 초하루 10:30
지장재일기도	매월 음력 18일 10:30
다라니기도	매월 넷째주(금) 19:00

유관기관 안내
- 행원 사회적협동조합
- 보리수 지역아동센터
-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 시립 하안누리어린이집
- 시립 새론어린이집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YouTube 금강정사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정사 | 주소 경기도 광명시 설월로58(소하동) | www.sejon.org 전화 02)898-8200 | 팩스 02)898-1844

대한불교조계종

108평화기도도량

수락산 도 안 사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회주 선묵 혜자

사부대중일동



주소 서울시 덕릉로129길 전화 02)936-5936

마하반야바라밀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주 지 동 명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35 Tel.413-6060 www.bulkwangsa.org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날마다 좋은날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

일체제불의 자비와 사랑은 일체중생의 자비와 사랑이다.
-대행선사 법어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전화 043)877-5000 팩스 043)877-2900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달빛이 운치를 더하는 소박하고 편안한 절

대한불교조계종

만월산 현덕사

주 지 현 종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싸리골길 170
전화 033)661-5878 팩스 033)662-1080
www.hyundeoksa.or.kr

봉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그득하시길 두손 모읍니다 축

中國嵩山 少林寺 達磨大師의 禪香이 그윽한 ·····

大韓護國佛教少林禪宗

- 名譽宗正 中國嵩山 少林寺 方丈 **釋永信**
- 宗正 : **釋 延 和**

• 僧 正 院 長 : 頓悟	• 元 老 院 長 : 蕙 潭	• 司 正 院 長 : 道瑄	• 門 徒 會 長 : 法性
• 中央宗會議長 : 孝進	• 宗乘委員長 : 法 藏	• 禪 院 長 : 月岩	• 總 務 部 長 : 大鏡
• 監 察 部 長 : 法鵬	• 教 育 院 長 : 慧 日	• 弘 報 局 長 : 月峰	• 私 署 室 長 : 慶泉
• 儀 典 室 長 : 無影	• 事 務 部 長 : 慧 光	• 社 會 部 長 : 덕원	• 大邱教區長 : 昭雲
• 光 州 教 區 長 : 龍灝	• 忠南教區長 : 法 志	• 忠北教區長 : 天上	• 全南教區長 : 圓庵
• 全 北 教 區 長 : 慧元	• 江原教區長 : 榮 光	• 慶南教區長 : 齊峯	• 慶北教區長 : 慈雲
• 比 丘 尼 院 長 : 관연	• 스 리 랑 카 : 비에난드	• 中 國 : 慧文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본찰

미륵산 용화사

주 소 : (우:26502)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지차골길 27 용화사
전 화 : 033)761-2556, 7008, / FAX : (033)766-2557
• 총무원 : 033)761-3200 • 서울사무소 02)766-6800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우리 중생이 웃고 행복해야 부처님이 웃으시고 행복하십니다

(사) 현대불교조계종

부종정 **성주** 부종정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법진**
교육원장 **해인** 포교원장 **도선**

각지역 종무원, 종회의원 및 종도 일동

◈ 입종서류 ◈

• 주민등록등본 사본 • 반명함판 사진 • 신행 이력서

현대불교조계종 종단입종 환영합니다.

입종시 :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발행

총무원 보광사 신도일동

총무원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보광사 / 전화 042)284-3929
총무원장 동화 010-8552-7108

청년불교, 새중불교, 한글불교

사단법인 대한불교 해인종

www.haiinjong.org

종 정 만허 혜지

종정사서실장 법인 종정사서부실장 정오, 송담

원로위원 : 금광 금강 덕산 공덕 보리 청담 승공 선광 담원 혜철

원로원장 : 법 공	종회의장 : 도 원	총무원장 : 대 호	
사정원장 : 혜 담	포교원장 : 정 오	유천도원장 : 지 완	
교육원장 : 금 봉	비구니회장 : 보 원	불무도원장 : 보 각	
법사단장 : 대 공	학술원장 : 운 곡	사무총장 : 자 륜	
총무부장 : 송 담	총무국장 : 지 명	교무부장 : 동 진	교무국장 : 덕 일
재무부장 : 도 경	재무국장 : 도 현	교육부장 : 인 봉	교육국장 : 도 운
기획부장 : 청 봉	기획국장 : 법 봉	사회부장 : 송 인	사회국장 : 혜 안
규정부장 : 해 원	규정국장 : 중 광	포교부장 : 보 광	포교국장 : 용 성
홍보부장 : 송 하	홍보국장 : 대 향	문화부장 : 지 홍	문화국장 : 서 진
의전부장 : 은 산	의전국장 : 선 재	봉사부장 : 법 수	봉사국장 : 명 진

총무원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433번 가길 82-3(주례동 낙은사) **전화** 051)322-5918, 312-3777
이메일 jalun2545@daum.net **홈페이지 한글도메인** 대한불교 해인종, 해인종

가사 바느질 몇 뜸으로 악연 끊어내다

가사 공양과 불사 공덕

청평사와 평양공주



그림 · 김상규

아름다운 호수가 유명한 호반의 도시 춘천. 한때 젊은이들의 여행 성지였던 이곳엔 꽤 규모가 큰 전통사찰 청평사가 있습니다. 사시사철 빼어난 풍광으로 등산객과 관광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도량입니다. 청평사를 관심 있게 다녀오신 분이라면 이 도량에 가사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진다는 걸 아실 겁니다.

당나라의 한 평민이 당 태종의 딸 평양공주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사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워낙 미모가 빼어나 그 일대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유명했던 공주이기에 이 청년이 품은 연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감히 마음을 표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나 공주 좀 보게 해주세요. 공주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점차 병세가 악화돼 몸져누운 상황에서도 청년은 좀처럼 공주를 잊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거듭된 애끓는 소리에도 어머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나라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 5족을 멸할 거다. 감히 그런 생각일랑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 장가도 가고 건강을 되찾는 게 어떻겠니?"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도 고집 많은 청년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는 그 순간 맹세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 죽어서라도 몸을 바꿔 그녀와 함께 하리라.'

하루는 공주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몸이 이상해서 살펴보니 난데없이 뱀 한 마리가 자신을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기겁한 공주는 부모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왕과 왕후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뱀을 떼어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죽어서라도 공주를 사랑하겠다던 청년이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 상사뱀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해결되지 않아 고민을 거듭하던 공주. 공주는 마침내 자신이 기거하는 궁을 버리고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맘껏 세상을 돌아다니고 산천경계를 자유롭게 구경하다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지 옷차림을 하고 이 산 저 산을 오르내리다 이름 없는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들은 공주를 감싸고 있는 뱀을 보고 질겁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며내 공주는 중원을 다 돌았으나 그를 치료할 사람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에서 금강산을 알게 됐습니다. 기암절벽이 만불산을 이루고 사계의 산색이 저마다 달라 가히 천하의 명산이라 하니 금강산을 한번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공주는 배를 타고 한반도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길을 잘못 들어 영서로 빠져 공주는 지금의 춘천 땅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곳에도 금강산처럼 유명한 곳이 있는지 궁금했던 공주. 사람들에게 귀동냥을 하니 청평천 건너편 청평사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왕 오게 된 곳, 공주는 구경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몸에 꼭 달라붙어있던 상사뱀이 요동을 하면서 청평사에 들어가려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0년이나 함께하며 어느 곳에서도 떨어진 적이 없던 상사뱀인데 이날만은 유독 청평사 회전문 앞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너와 상종한지 10년이다. 처음에 두어 번 너를 떼어본 뒤로는 한 번도 너의 마음을 거슬려 본 일이 없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가 좋아하는 절 구경도 하지 못하게 하느냐? 만일 네가 싫거든 잠시 여기에 떨어져 있어라. 그러면 내가 절 구경을 하고 돌아와 너와 함께 가리라."

평양공주 사랑한 당나라 평민
뱀으로 환생해 공주 곁에 붙어
공주가 무심코 동참한 가사불사
10년간 괴롭힌 뱀, 벼락에 죽어

뱀은 그 말을 듣고 칭칭 감고 있던 몸을 풀어 넓은 바위 아래 똬리를 틀고 앉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홀몸이 된 공주는 그 개운함에 하늘을 나는 듯 기뻤습니다. 공주는 사찰 옆 계곡에 들어가 몸을 씻고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밥 때가 되어 스님들은 다 큰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절에서는 가사불사가 한창이었는데, 빈 법당에 아름다운 비단 조각이 바늘과 함께 널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공주는 무심코 들어가 아름다운 비단을 어루만지며 바늘로 몇 땀을 떴습니다.

"어디서 빌어먹는 거지가 들어와 신성한 가사불사를 망쳐 놓느냐!"

바느질을 하던 공주를 보고 스님들이 나와 호통을 쳤습니다. 스님들은 노발대발하며 거지행색의 공주를 꾸짖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공주는 결국 회전문을 지나 절 밖으로 나오려는데 갑자기 마른하늘에서 뇌성벽력이 내려쳤습니다. 공주를 기다리다 지친 상사뱀이 절 안으로 들어가려다 회전문 앞에서 벼락을 맞은 것이었습니다. 뱀은 그 자리에서 새까맣게 타 죽었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원치 않게 뱀과 함께 삶을 보내온 공주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 길로 다시 청평사 대웅전으로 뛰어 들어가 부처님께 백배, 천배 절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영험하신 신통력입니다. 스님들께서 입는 무상복전의를 만진 큰 공덕 덕분입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공주는 대웅전을 나와 후원에 들어가서 주지스님을 뵙고 말했습니다.

"이 절에 종노릇이라도 하고 싶으니 자비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거지차림으로 가사불사 현장에 들어와 비단을 만진 모습이 탐탁지 않았지만 스님은 공주의 간곡한 요청에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행색은 초라했지만 결연한 눈빛과 올곧은 자세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공주는 절에서 밥을 짓고 찬도 만들며, 때로는 밭에 나가 김도 맸습니다.

얼마가 지나고 하루는 대중스님들이 가사불사를 마친 뒤 공사를 하는데, 서로 화주를 맡지 않으려 손사래를 치고 있었습니다. 공사는 퇴락한 큰 법당을 중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얘기를 후원에서 듣고 있던 공주는 단정히 옷깃을 여미고 스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화주는 제가 맡겠습니다. 소녀가 비록 미약하오나 부처님의 은혜가 지중하므로 이 불사는 제가 홀로 맡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주는 붓과 벼루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끝으로 춘천부사와 강원감사에게 각각 편지를 한 통씩 써 전했습니다. 이 편지가 닿자마자 춘천부사와 강원감사는 한달음에 찾아왔습니다.

"공주마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당나라 조정으로부터 공주님이 내국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수소문하던 참인데 잘 되었습니다."

공주를 만난 춘천부사와 강원감사는 조정에 알려 법당을 중수할 돈과 곡식, 노역을 나라에서 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찰 안에 삼층석탑을 세워 이 일을 기렸습니다. 이것이 현재 춘천 청평사에 전해지는 가사불사와 얽힌 설화입니다.

청평사 설화 알고 가기

청평사는 고려 광종 24년(973년)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7세기 인물인 당 태종 이세민과는 그 시기가 맞지 않아 항간에는 평양공주가 14세기 원나라 황제인 혜종의 딸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역사를 살펴보면 평양공주는 당 태종이 아닌 당 태종의 아버지 당 고조 이연의 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진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닌 이야기가 전해주는 의미와 상징을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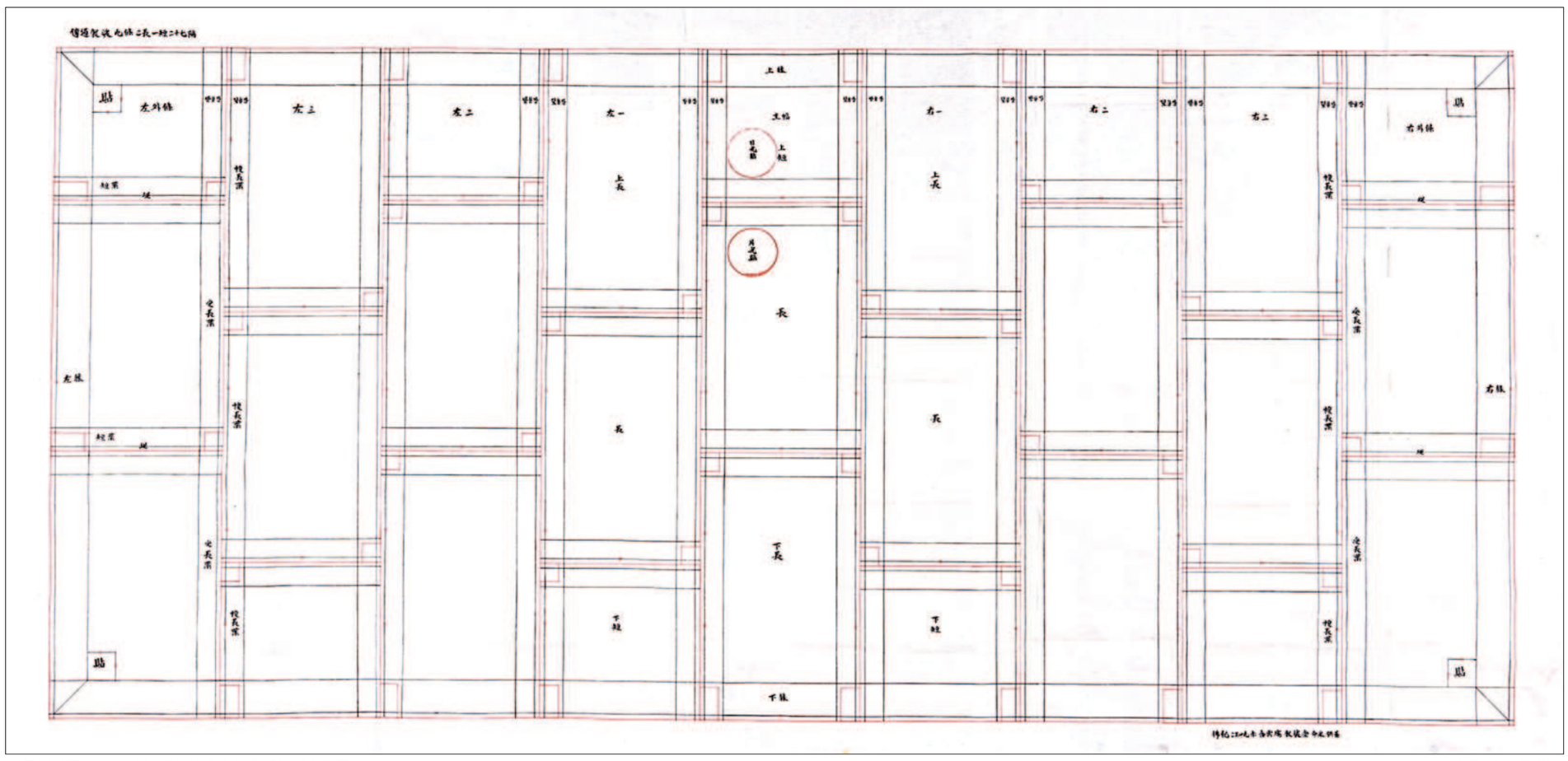
지금도 청평사에는 이런 설화와 함께 계곡에 평양공주의 동상과 공주가 목욕재계를 했다는 공주탕, 공주가 절에 들어가기 전 하룻밤을 묵었다는 공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불사의 영험함을 기리는 삼층석탑은 또 다른 이름인 '공주탑'으로도 불립니다.



무상 스님은 월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3년 사미계를, 1965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0년대부터 가사를 만들었다. 현재 속리산 법주사 율주이자 조계종 가사원 도편수를 맡고 있다.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 지 경 우
사부대중일동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 승려노후수행마을
■ 고창 푸드마켓
■ 선운기초푸드뱅크
■ 고창군 건강 ·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선운사 템플스테이
■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 고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고창군 노인복지관
■ 선운사 불교체험관
■ 고창군 노인복지센터
■ 선운교육문화회관
- 고창 시니어클럽 - 반야스터디 카페 - 갤러리 리유 - 담마 북까페
- 명상학교 '보리수 아래' - 공동육아나눔터 - 고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전통가사를 만드는 밑그림인 가사초. 명천 스님 작품. 사진=정승용 작가

원형·전형 모두 가치…본격 연구 시작된다

〈原型〉 〈典型〉

'가사작법' 전통 전승 어떻게?

전통가사 제작 매뉴얼 없어서
원형 파악하는 연구 쉽지 않아
가사원 설치해 대량생산하자
전통기법 전승 관심도 낮아져

최근 가사작법 중요성 높아져
조계종 6월 중 연구용역 예정
'가사명장' 무상스님 지정 유력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가사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탄생해 불교의 역사와 함께해왔지만 가사 짓는 일에 대한 사료는 극히 제한적으로 전해진다. 율장에 '안타회' '울다라승' '승가리' 삼의(三衣)를 분류하고, 가사로 인정받을 수 없는 조건 등이 언급돼 있긴 하지만 불교는 2700년간 전 세계에 전파되며 각 지역 토착문화와 융합해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에 공인돼 점차 퍼지기 시작한 한국불교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며 시대에 따른 가사의 다양성이 두드러진다. 그럼에도 가사 제작에 대한 일종의 매뉴얼과 조선시대 이전 실물 가사가 현전하지 않아 무엇이 전통이고 원형인지 파악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불교 장자종단인 조계종의 경우 2006년 삼보륜이 직조된 지금의 '통일가사'를 도입하면서 조선시대 주류를 이뤘던 홍가사는 태고종의 상징으로 남았다. 조계종은 스님들의 가사가 통일되지 않아 승복업체 로비 의혹이나 원단 공급에 대한 독점 논란이 암암리에 불거지자 통일의제 확립을 위해 가사원을 설치하고, 모든 스님들의 가사 제작을 일원화했다. 다만 1980~90년대 늘어난 스님 수에 맞춰 가사의 대량생산이 요구되면서 전통제작기법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몇 년 전 서울 봉은사는 가사 전시인 '한국 전통 가사의 과거와 현대전'을 개최하고, 가사 바느질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무형문화재 지정을 추진했지만 일부 반대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가사제작을 비롯해 가사점안 등의 의례의식을 포함한 통합적인 가사작법 연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조계종은 지난 3월 열린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진각 스님(통도사)이 가사작법의 보존과 전승에 대한 종책질의를 한 뒤부터 조금씩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진각 스님은 〈현대불교〉에 "가사는 승속을 구분하는 옷으로, 일반인들이 입진 않는다. 전법의 증표로도 의미가 있고 일반 옷을 만드는 과정과도 차이가 크다"며 "불교 고유의 전통문화가 산발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 데 묶어 거점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무형유산으로 전승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지난 5월 7일 성보보존위원회 무형분과 회의에서 '가사작법 조사 관련 심의의 건'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무형문화유산 지정 추진에 앞서 가사작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용역을 거쳐 현황 파악에 나설 것을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소중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선 무형문화유산 지정이 필수적이고, 불교만의 노하우가 정리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연등회보존위원회와 같은 무형유산의 주체도 필요하다. 연구용역을 통해 충분한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가사작법보존위원회 같은 단체를 조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보보존위원회 차원의 연구용역은 다음 달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통일가사 도입으로 원형과 차이가 커진 조계종은 원형뿐만 아니라 전형(典型)으로서의 가치도 조망할 계획이다. 원형 보존을 중심으로 하던 기존의 무형유산 지정은 최근 전형 추세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전형은 같은 종류의 여러 것 가운데 가장 본질적으로 일반적인 특성을 지닌 본보기를 뜻한다.

문화부장 혜공 스님은 "지금의 쥐불놀이에 신라시대 원형의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원형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현 시대에 어떻게 전승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곤 한다"며 "통일가사가 전통가사와 다른 모습이라고 해도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가치와 제작방식은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달 15일 '2024 대한불교 조계종 명장 접수 공고'를 내고, 한 달간 불교문화의 전문 기능을 보유한 스님들의 명장 신청을 받았다. 부문은 불교문화 전반으로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20년 이상 종사하고, 명장 선정 분야에서 최고의 기능을 보유했다고 인정되는 스님을 대상으로 한다. 가사 부문에는 조계종 가사원 도편수인 무상 스님이 접수된 가운데, 종단 가사 제작을 대표하는 스님인 만큼 명장 지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조계종 법계품서식에 사용되는 가사봉투.



가사의 특징 중 하나인 통문(通門).



고려가사 고리 일습. 명천 스님 작품. 사진=정승용 작가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TEL 051)746-2256, 744-481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로 245-7 성담사 TEL 055)867-9999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Jungbupsa Temple



마산포교당 정법사 원통보전 33응신

사부대중일동

- 영축불교대학 운영
- 현존 최고의 역사와 전통의 어린이 교육기관 대자유치원 운영
- 보현의 집 무료급식 시설 운영

www.jungbupsa.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몽고정길 46 (추산동) 전화 055) 246-8393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호국도량 신흥사

주지 인경스님

사부대중일동

1649년 조성 아미타부처님 봉안 사찰
(보물 제2149호 국가지정문화재)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4길 280(대안동 739번지)
종무소 Tel 052)295-7522 www.sinheungsa.co.kr

대한불교조계종

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성철스님 기념관

산청 겁외사

전쟁이 없는 세계평화와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불국정토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회주 원택스님
주지 일학스님

겁외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철로125
전화 055)973-1615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주지 진각스님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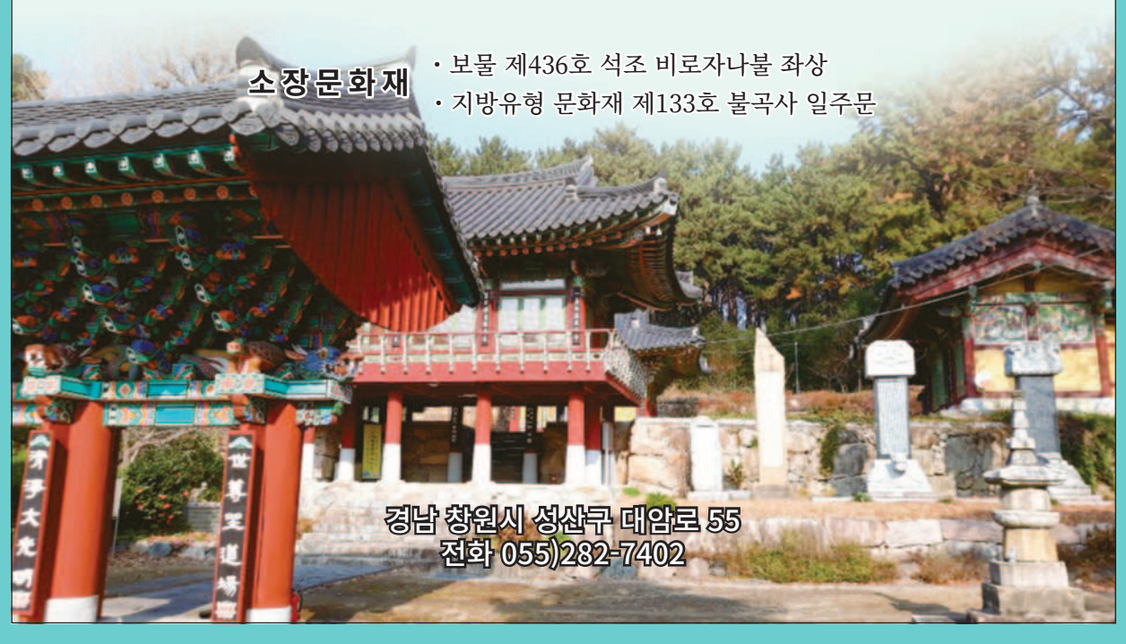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대한불교 법화종

신라고찰
비음산 불곡사

주지 서암 도홍

소장문화재
- 보물 제436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 지방유형 문화재 제133호 불곡사 일주문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암로 55
전화 055)282-7402



대한불교조계종
법륜사

회주 눌암 지정
주지 향원 남수

사부대중일동
울산시 동구 녹수 5길 50
T.052)234-1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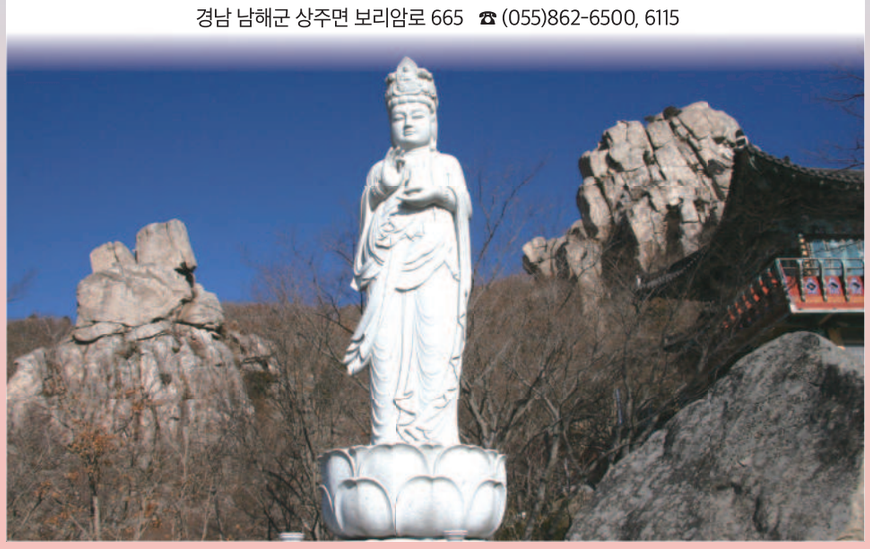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금산 **보 리 암**

사부대중일동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 ☎ (055)862-6500, 6115



"금강경 기도 정진 도량"

진주 **호국사**

주 지 **월영 적민스님**
총괄회장 **김월광화**
신중회장 **박보련화**
지장회장 **조무애심**
칠성회장 **김정진화**
약사회장 **이공덕화**
보름회장 **김홍련화**
관음회장 **이선명화**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재단법인 정토마을

- 정토마을 간월사
- 정토마을 자재병원 (호스피스전문의료기관)
- 마하보디교육원
- 한국티베트문화학술연구원(KTCARI)
- 정토마을 청주 수행센터
-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문의 : 052-255-8588 / 010-2926-8500 종무소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40

경남고성군불교사암연합회

직전회장 **이암스님** (문수암)
회 장 **수운스님** (약수암)
부 회 장 **원명스님** (청련암)
재 무 **선우스님** (고불사)
감사 **월암스님** (운흥사) 총무 **진각스님** (청수암)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지구 안녕 발원

지원장 **혜근스님**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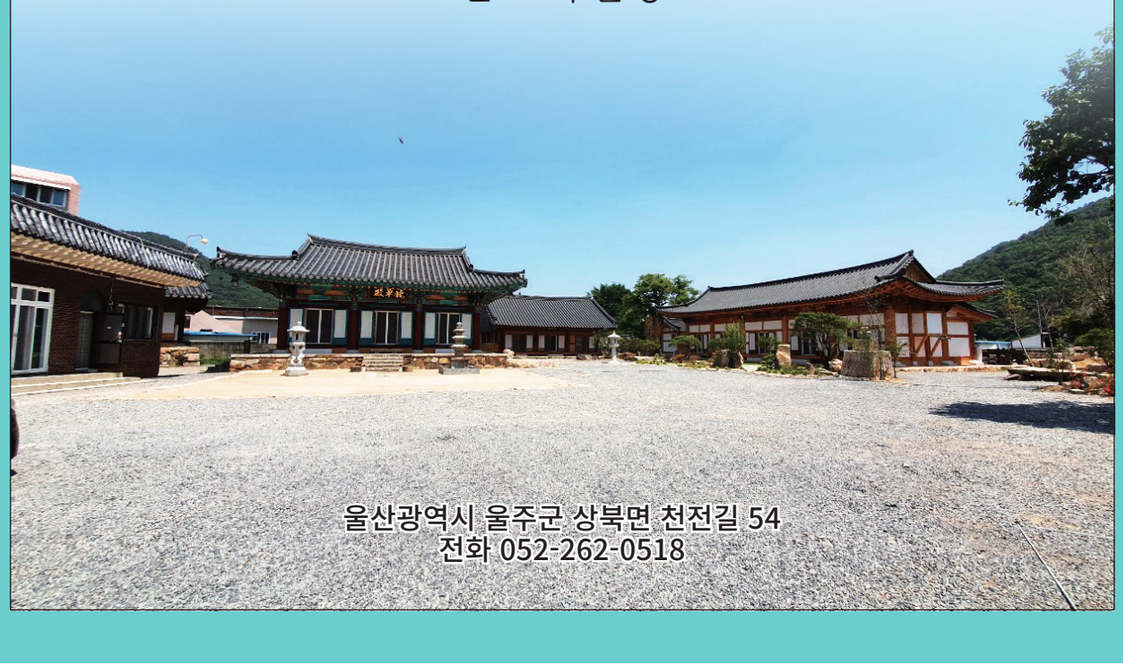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전화 055)746-8162 팩스 055)746-7825

대한불교조계종

울산 **용 화 사**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천전길 54
전화 052-262-0518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

회 장	법안 성주사 주지	고 문	운남 봉림사 주지	수석부회장	광우 정법사 주지	감 사	혜명 반야사 주지
상임고문	지태 봉원사 주지	고 문	월봉 석봉암 회주	부 회 장	지암 송림사 주지	사무총장	원문 금룡사 주지
상임고문	원행 정인사 주지	고 문	호정 세심사 주지	부 회 장	월서 길상사 주지	총무부장	무경 대광사 주지
상임고문	도홍 불곡사 주지	고 문	석봉 백운사 회주	부 회 장	무성 구룡사 주지	재무부장	선해 미타사 주지
상임고문	정인 불지사 주지	고 문	월도 원흥사 주지	부 회 장	진홍 자비정사 주지	포교부장	무성 구룡사 주지
상임고문	원정 법혜사 주지	고 문	성일 수선정사 주지	감 사	해암 용천사 주지	문화부장	성욱 영진사 주지
		고 문	명종 자비정사 주지	감 사	무아 진불선원 주지	복지부장	성우 천웅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가지산 보덕사

주 지 효암스님

신도회장 김남규 외 사부대중일동

-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 10시~11:30
- 한국전통명장 박해양 회장 출판기념회 | 12:00~19:00

→ 이판사판불교판(불교에서 유래된 생활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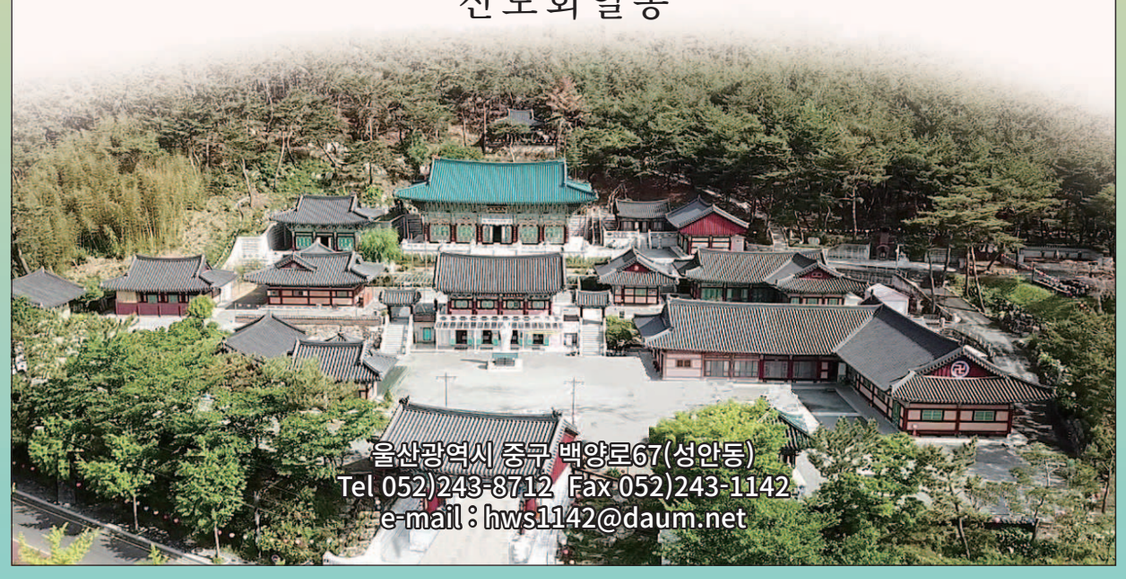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 석리길 21-6 전화 052-267-0108.팩스052-267-0184

대한불교조계종

함월산 백양사

주 지 묵암 지선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67(성안동)
Tel 052)243-8712 Fax 052)243-1142
e-mail : hws1142@daum.net

대한불교조계종

창녕 청련사

주 지 무영스님

부 주 지 성휴스님

신도회장 이 판 암

총 무 하 주 미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녕군 계성면 청련사길 99
전화 055)521-2185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울산포교당

해남사

주 지 혜원스님

해남사에서는 금강경독송기도를 통해 원을 성취하고 무량수 부처님을 친견하는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독송하며 몸과 마음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드는 환희로운 경험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 수트라(금강경)
21일×21독 독송 정진기도

입재 : 2024년 10월 21일
회향 : 2024년 11월 11일
장소 : 해남사 설법보전



울산광역시 중구 기상대로길13,
052)211-3340 / 10-7450-3340

세계법화수행법음협회

법화전법도진
성 불 도 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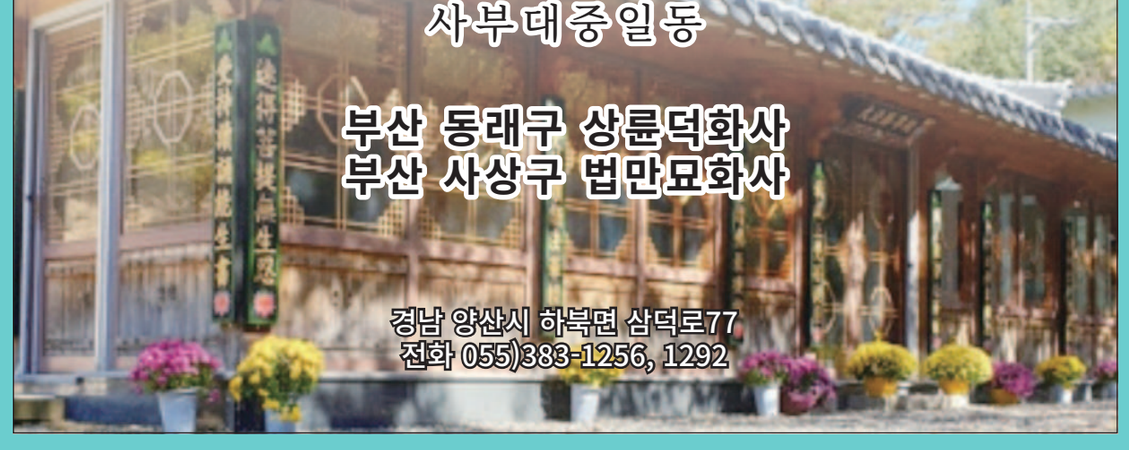
기청사

주 지 묘혜공스님

법화원도회
법화경 독송회

사부대중일동

부산 동래구 상륜덕화사
부산 사상구 법만묘화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덕로77
전화 055)383-1256, 1292

“종교 간 평화, 세계 평화 필수요건”

범어사, 종교평화포럼 세미나
‘평화 위한 종교 역할’ 주제로
오강남·금강스님 등 발제 나서
현대사회 퇴행 막는 길 제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가 개최한 종교평화포럼 세미나에서 강연하는 오강남 박사.

“종교 간의 대화가 없으면 종교 간 평화가 없고, 종교 간의 평화가 없으면 세계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가 5월 7일 범어사 선문화센터에서 ‘21세기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종교평화포럼 세미나에서 오강남 박사(캐나다 리자이나대 종교학 명예교수)는 한스 큉(1928~2021)의 말을 인용하며 종교 간 화합을 역설했다.

오 박사는 ‘인류평화와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종교 간 화합이 세계평화의 필수 요건”이라 강조했다. 오 박사는 “깨침과 메타노이아, 염불과 예수 기도를 통해 의식의 변화를 체험한다면, 그리고 모두가 결국 만물이 하나라는 사실을 체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반문하며 “여러 가지 수행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우주 공동체의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두 종교 모두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고 연결돼 있다는 진실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이어 “이것이 바로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유마(維摩) 거사의 마음, 보살의 자비심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말씀처럼 이웃과 나를 하나로 보는 그리스도교의 사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김상일 박사(전 한신대 철학과 교수)가 ‘세계평화를 위한 한(韓) 철학’을, 금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세계평화와 붓다의 가르침’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미나는 마지막으로 성소은 영성가가 좌장으로 진행한 논찬과 대담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금정총림 방장 정여 대종사와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격려사와 환영사로 참가자를 환영하고 행사 개최 의미를 전달했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부산종교인평화포럼과 범어사가 함께하는 오늘 행사를 기점으로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을 다시 돌아보고 인류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각 종교에서 행하는 명상과 피정 등 다양한 마음수련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갈등을 정화시키고, 내면의 행복은 물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모든 종교인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연 대종사여, 중생구제 보살로 돌아오소서”

법연종 종정 조연 스님 영결식
5월 9일 합천 법연사서 엄수
법납 32년, 세납 78세 원적해
각 종단스님들 추모물결 잇달아



법연종 종정 조연 대종사의 영결식이 5월 9일 경남 합천 황매산 법연사에서 엄수됐다.

전법교화와 중생구제의 사표인 법연종 종정 조연 대종사의 영결식이 5월 9일 경남 합천 황매산 법연사에서 엄수됐다. 조연 스님은 5월 5일 새벽 4시에 법납 32년, 세납 78세로 원적에 들었다.

영결식에는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조계종 사서실장 진경 스님, 대각종 총무부장 원광 스님, 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스님, 용화종 총무원장 법광 스님, 미륵종 총무원장 고봉 스님 등 전국에서 참석한 스님들과 김윤철 합천군수, 김종숙 여성개발원 부원장, 장영철 한국환경단체협의회 상임의장, 최수용 법연종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조연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사에서 덕아 연사는 “큰스님께서 세운 법연종은 자연사상과 불타의 가르침을 일심으로 정진하는 수행 종단으로서 지역과 나라발전에 이바지하는 호국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평생 나눔을 실천하신 큰스님 가르침 따라 정법의 길을 넓히고 복덕과 지혜를 닦아 나가는 법연 불자들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이어 “조연 대종사님이시어! 속환사바하시어 중생구제를 위해, 종교통합을 위해 사바세계에 돌아오소서”라며 안타까워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은 사무총장 진호 스님이 대독한 조사를 통해 “이생과의 인연이 다하여 우리 곁을 이리도 훌쩍 떠나시니 스님을 보내드리는 불자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하다. 이제 원적의 그윽한 법향 속에 편히 잠드시고 왕생극락 하시옵고 부디 서방정토의 극락세계의 법향으로, 다시 속환 사바하시어 육도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이 되어 나투소서”라고 애도했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은 “조연 큰스님, 제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무아인데 열반으로 적정을 보이십니까? 황매산 철쭉 향기를 좇아서 다시 오시어 덕향으로 법석을 환희 회향하소서”라고 추도사를 전했다.

허성 법연종 대표이사는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셔서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열반을 통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셨다 생각한다. 큰스님께서 나투신 법을 더 밝게 더 넓게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인사했다.

최수용 법연종 전국신도회장은 “스님을 보내드리는 저희들 마음, 슬픔 가득하나 이제 원적의 그윽한 법향 속 극락왕생 드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영결식 후 사부대중은 납골을 이운했으며, 이운은 영결식장을 지나 탑마당, 명부전으로 이어졌다.

합천=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경찰청 봉축법요… “시민안전 최우선”

경승·경찰공무원 등 축원 올려



부산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정오 스님)은 5월 8일 부산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을 비롯한 경승스님들과 우철문 부산지방경찰청장 및 경찰 관계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경승실장 정오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마음에 귀중한 가르침을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철문 청장은 “우리가 밝힌 연등은 시민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힘과 지혜의 등불이 될 것”이라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시민 안전과 법질서 확립 등 부산 경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일문화교류 여성부 ‘봉축 만발공양’

송상현광장서 사찰비빔밥 나눠



사단법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 이하 여성부)가 5월 5일 송상현광장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무차만발공양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여성부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상진 스님과 종단스님들이 방문해 의미를 더했다.

여성부는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시민에게 사찰비빔밥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백명숙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은 비빔밥 2000인 분을 마련해 광장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만발공양을 올렸다.

상진 스님은 “여성부는 한일 화합을 이끄는 대표 단체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백명숙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모범이 돼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백명숙 회장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스님들께서 방문해주셔서 큰 힘이 된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여성불자회, 파라미타 장학금 전달

중·고등학생 16명에 총 600만원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정분남)가 5월 7일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사무실에서 파라미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봉축을 맞아 인재불사에 앞장섰다.〈사진〉 행사에는 부산여성불자회 총재 혜총 대종사, 왕선자, 류영남 고문, 정분남 회장, 박명규 녹산중 교장, 천용귀 해동중 교감, 김진화 동해중 교감, 최지원 금정중 교사 등이 함께했다. 장학금은 고교생 6명에게 각 50만원, 중학생 10명에게 각 30만원을 전달했다.

총재 혜총 대종사는 “오늘 전달해 드린 금액이 비록 크지 않지만 공부에 보탬이 된다면 법사로서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법문했다.

정분남 회장은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은 학업에 매진해 각자 정한 목표를 이루고 단련시켜 꿈을 키우시길 바란다”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불자라는 자부심으로 성장해 여러분도 어디에나 꼭 필요한 인재가 돼달라”고 인사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WWW.JONGJEONG.COM

본회는 불타의 회삼귀일의 가르침과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하여 한국불교종단 최고 지도자인 각종단 스님들의 모임으로서 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며, 광도중생과 안심입명으로 세계인류평화와 국가 사회의 이바지 하고자함을 목적으로 1995년 4월 15일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본회는 국가와 겨레를 위한 기원대법회(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위령천도대법회, 일본 관동대지진 한국인희생자 위령대법회(일본관음사),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장병위문 및 보살수계식(논산), 불우이웃돕기 등 수백회의 각종 법회를 국내외에서 봉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어둡고 그늘진 사회각층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 할 것입니다.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고문단

대장로 : 석정각 대종사 :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前종정
석삼중 대종사 : 대한불교자비종 종정
석의천 대종사 : 대한불교선화종 종정
석혜우 대종사 : 한국불교일광조계종 종정
석해곡 대종사 : 대한불교열반종 종정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법인이사진

대표이사 겸 회장 : 석월인 대종사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수석이사 부회장 : 청봉 대종사 (사)대원불교조계종
기획이사 부회장 : 월성 대종사 (사)대한불교교종
재무이사 부회장 : 도우 대종사 대한반야불교조계종
상임이사 부회장 : 정일 대종사 한국불교근본해동종
호법이사 부회장 : 지엄 대종사 통불교화엄종
전법이사 부회장 : 영월 대종사 대한불교법사조계종
섭외이사 부회장 : 보검 대종사 세계불교미륵이안종
행정이사 부회장 : 호암 대종사 대한불교총원효종
종규이사 부회장 : 동봉 대종사 세계불교육조조계종
호계이사 부회장 : 법흥 대종사 (재)세계불교미륵대종
유나이사 부회장 : 도연 대종사 대한불교성덕종
국외이사 부회장 : 월단 명사 용화세계미륵종
차석이사 부회장 : 보안 명사 대한불교일붕조계종
법규이사 부회장 : 정림 대종사 (사)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정종
외호이사 부회장 : 법혜 대종사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외호이사 부회장 : 고석 대종사 한국불교법보조계종
이사 : 혜승 대종사 대선불교조계종
이사 : 청운 대종사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이사 : 일웅 대종사 국제불교조계종
이사 : 무각 대종사 대한불교통일조계종
이사 : 지환 대종사 국제불교금륜종
이사 : 혜원 대종사 한국불교선조계종
이사 : 법휴 대종사 대한불교보리달마종
이사 : 도오 대종사 대한불교묘법연화조계종
이사 : 명암 대종사 대한불교관법조계종
이사 : 옥당 명사 국제불교상좌부조계종
이사 : 혜능 대종사 대한불교법황종
이사 : 법하 대종사 대한불교신계종
이사 : 도원 대종사 (사)한국불교법사종
이사 : 혜원 대종사 한국불교법화종
이사 : 동해 대종사 세계불교일붕종
이사 : 고산 대종사 세계불교법사조계종
회장 사서실장 : 삼하 무착
사무총장 : 이붕 서병열 법사
기획실장 : 전성배 법사
사 무 장 : 상광 배영희
외 회원 일동

■ 법인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748번길 45, 216호 전화 : (042)285-1227
■ 서울사무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6안길 27 미근빌딩 4층 전화 : (02)756-1227 ■ 부경사무처 : 불광사(경남 양산시 주진로 205) 전화 : (055)364-4747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승정원장 **월해**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감찰원장 **성호** 종회의장 **법륜** 호법원장 **해월**
포교원장 **덕해** 교육원장 **영호**

감찰부장 **경오** 호법부장 **문경** 포교부장 **장문**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경북교구원장 **천호**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각 원장 및 부장의 공란은 이중승적으로 제적 되었음을 알립니다.

한마음 108종도 일동

종도집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010-3870-0021

사단법인 대한불교 무량종

종 정 **혜안 효종**
사서실장 **보인**

총무원장 보운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보공** 포교원장 **보아**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의장 **자운 보덕** 사무총장 **보성**

총무부장 **보림**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정운** 사회부장 **보월** 호법부장 **정목**
총무국장 **보미** 재무국장 **보리** 교무국장 **보심** 포교국장 **보우** 사서국장 **보륜**

■ 총 림 :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티로11(괴정동) 은암천불정사 전화 : 051-292-4586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 7790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양산불광사

종 정 **정산도정 석청봉 화남**

최고원로의장 무량사(석홍섭) 호 법 원 장 동국사(석원명)
원 로 회 장 약사암(석수오) 승 정 원 장 수불사(석원명)
원 로 위 원 천흥사(석대몽) 문 화 원 장 제화선원(석덕고)
총 무 원 장 석법경 감 찰 원 장 (석법진)
총 무 국 장 천운사(석법성)

각교구 지원장 대원정사(석대원) 도림사(석혜통) 보문사(석무오)
광 엄 사(석법현) 청수암(석청암) 천흥사(석대몽)
여해선원(석여해) 심원사(석원목) 문수암(석성오)
원 정 사(석월안) 팔영암(석무착) 석불암(석길현)



종도일동합장

총본산:경남양산시 주진로205 천성산 불광사 전화 055-364-4747

사단법인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교육원장 동담 백천 기획실장 대비 종 회 의장
감찰원장 동암 원효 사서실장 동판 사 무 국 장 동석 우석
문화원장 덕일 금산 총무부장 동봉 태공 창원교구원장 동백 지원
고시원장 도진 동영 복지원장 동법 혜조 의 전 원 장 동민 경오
사회원장 덕진 도광 수선원장 동성 혜각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 3통, 사진(3×4) 3장, 이력서 3통

종회위원 일동



총무원 50809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시례마을
TEL : 055-336-0108, 335-0178 FAX : 055-336-7070 / H·P : 010-3595-6522, 010-8939-6522

사)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회 장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송 청파**

고 문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중앙불교 조계종 종 정 **우담**
한국불교 대불종 총무원장 **만주**

소속명단
대한불교 통일조계종 총무원장 **무각**
한국근본불교 해동종 종 정 **정일**
대한불교 법보 조계종 종 정 **향운**
사)함께 가는 길이 사 장 **혜상**
생활실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해 동 자 비 원 원 장 **만호**
한국불교 법상조계종 종회의장 **법장**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교육원장 **도문**
한국불교 미륵선종 종 정 **해일**
대만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일 산 자 비 원 원 장 **도일**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감찰원장 **동암**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고시원장 **동영**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경기종무원장 **동일**



◉각 종단 총무원장님 : 종단 입종을 환영합니다.

종단연합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우)50809
전화 055)336-0108. 335-0178, 323-0108 팩스 055)996-7070
HP : 010-3595-6522, 010-8939-6522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두 수암**

승조원원장 **법호 서호**
총 무 원 장 **법웅 정관**

원로원장 **용정 일월** 고시원장 **보화 원도**
교육원장 **원화 법봉** 사회부장 **용화 해월**
포교원장 **금화 백담** 교육부장 **법타**
문화원장 **법경 월명** 총무국장 **무화 무경**
복지원장 **법수 청운** 부산교구종무원장 **보화 원도**
기획실장 **진명** 경남동부종무원장 **법경 월명**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총무원장 법웅 정관

총무원 : 경남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전화 (055)532-4414 휴대전화 010-3507-2837

“천년을 이은 차 문화 체험…몸·마음 치유”

하동 쌍계사 2024 쌍계사 차문화축전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다(茶)-디카시로 만나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성낙두 경남지사장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 주지 지현 스님이 헌다하고 있다.

하동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천년을 이어온 차의 역사와 전통을 보급·계승하고, 차문화 체험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2024년 차문화 대축전’을 개최했다.

행사는 5월 2일 쌍계사 차나무 시배지에서 찻잎을 채취하는 개원채다 의식으로 시작됐다. 의식은 헌다, 각 나라별 의식, 고불문 낭독, 채다의 순으로 이어졌다.

5월 3일 경내 괘불전에서는 입재식과 법요식이 봉행됐다. 육법공양, 삼귀의, 반야심경, 108 헌다, 대회사, 축사, 고려다도 시연, 두리차회 시연이 진행됐다.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족하나마 쌍계사 대중과 선다회 회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마련한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을 즐겁게 즐겨달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진감초의 다맥 한국선다회 이사장 영담 스님은 “지난해부터 하동 세계차문화엑스포와 함께 국제행사로 쌍계사 차문화축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차문화를 선양하고 전통다맥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쌍계사 차문화대축전’은 전통불교 선(禪) 사상의 원류인 육조 혜능 대사의 선맥과 진감 국사, 초의·만허 선사의 다맥이 융화된 선다(禪茶)의 정맥을 전하는 법석”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차문화 대축전에 참여해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진우 스님은 “올해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은 차나무 시배지에 대한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리고 천년을 이어온 차의 역사와 전통 차문화를 체험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이 미래 문화유산을 지켜갈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해 전통과 현대를 잇고 전통문화와 다양한 국가의 문화가 어우러지며 소통하는 축제로 지역문화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치하했다.

진우 스님은 이어 “고산 대선사와 제 은사이신 백운 대강백께서는 초의선사의 차 정신을 ‘선다일미(禪茶一味)’라고 하셨다”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선다일미의 차인정신 선양을 위해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이 풍성한 축제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경내 팔영루에서 22회 진감·초의·만허·고산 대선사 다맥전수식이 열렸다. 진감초의다맥한국선다회에서 시행하는 진감국사 전승선차 다도교육을 이수한 차인들이 다맥을 전수받았다.

5월 4일에는 특별 청소년프로그램 ‘茶-디카시로 만나다’가 열렸으며 쌍계사 차 시배지 답사와 사진촬영, 시쓰기도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茶)-디카시로 만나다’와 글로벌 다국적 시대에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하는 ‘K-어울림 축제’를 통해 한국문화와 다양한 국가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는 축제의 시간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꾀했다.

광주 最古 축제 ‘빛고을관등회’ 개최

5월 4일, 법요식 · 연등행진 등



1300년을 이어온 광주 최고(最古) 축제인 ‘빛고을관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5월 4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빛고을관등회’를 봉행했다.〈사진〉

광주의 연합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는 4월 18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광주 중요지점 4곳 점등식과 광주천에서 열리는 전통등전시회 개최에 이어 이날 어울림마당, 법요식과 연등행진, 대동한마당을 개최했다.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은 “빛고을 광주는 의향이요, 예향이며 부처님의 땅이다. 오늘 관등법회와 연등행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자비와 평화가 가득한 고을이라는 옛사람들의 천년의 꿈을 이은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밝힌 등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을 밝히고, 광주시민의 마음을 밝히고,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자바로 화합하게 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란다”고 행사의 의미를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함안불교사암聯, 군민위안 봉축연합법회

5월 4일, 아라길공원 야외공연장



함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명 스님)가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4일 함안 아라길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함안군민위안 봉축연합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원명 스님은 “내가 아닌 너도 할 수 있다는 배려의 마음으로 함께 하는 동반자가 된다면 반목과 투쟁은 사라지고 극락화가 만발한 세상이 될 것”이라며 “부처님오신 날에 밝히는 등불은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위대한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서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함안불교연합회장 달전사 원명 스님, 칠보사 정광 스님, 봉불사 지정 스님, 청룡사 수암 스님, 관음사 재경 스님, 불연사 월암 스님, 동방선원 묘공 스님, 함안불교연합회스님, 함안수륙재보존회스님, 조용찬 함안불교신도회장, 허대양 함안부군수, 조만제 함안군의회부의장, 지희선 공무원불자회장, 바웃다합창단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처님 시원하시죠”

각원사, 5월 9일 대불 목욕법회



천안지역 교육·수행·포교 도량인 각원사(주지 대원 스님)는 5월 9일 개산 48주년 기념행사와 제15회 대불부처님 목욕의식 법회를 경내 아미타 청동대좌불 앞에서 봉행했다.〈사진〉

대원 스님은 “오늘 아미타대불 목욕을 시켜드리는 의미는, 하루를 살고 열흘을 살고 평생을 살면서 어두운 마음의 앙금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과 같다”며 “오늘 의식을 통해 우리 다 함께 건강하고 복되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생활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남원 만복사지 복원 청신호 켜졌다

남원시, 관통도로 폐도 추진
발굴조사사업 등 정비 본격화


남원시가 관통도로 폐도사업을 추친하고 있다. 사진=남원시청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 당시 왜군에 의해 소실된 남원 만복사지가 복원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남원시는 만복사지 중앙을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에 대한 폐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적의 경관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다.

남원 만복사지는 고려 문종(1046~1083)시기에 건립된 사찰로 김시습의 한문소설 〈금오신화〉 소설 중 하나인 〈만복사저포기〉의 무대이다. 석조여래입상을 비롯한 보물 4점과 석조인왕상(도 지정) 등 다양한 유산이 자리한다. 당시 전각이 있던 장소에는 사찰임을 알리는 주춧돌 등도 발견됐다. 만복사지는 정유재란 남원성 전투 시 소실돼 지금까지 폐사지로 남아 있다.

그러나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로 인해 문화유산의 경관성 저해와 보존·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남원시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관통도로 폐도사업을 시작했다.

만복사지를 관통하는 도로는 약 200년 동안 생활도로로 이용되면서 도로 하부 상·하수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이 매립돼 있었다.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도로 상·하부의 모든 시설물을 철거했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주민과 유적정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관통도로 폐도사업은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폐도 이후 하부에 대한 발굴조사와 석인상 이전 및 보존처리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만복사지 관통도로 폐도사업은 과거 찬란했던 남원의 문화·역사를 재정립해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사업이 될 것이다”며 “생활도로가 없어지는 불편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복원·정비에 협조해 주신 왕정동 주민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역사인식 부족으로 잘못 정비된 문화유산에 대해 단계별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읍 내장사 역대 조사 다례재

5월 4일, 내장사 부도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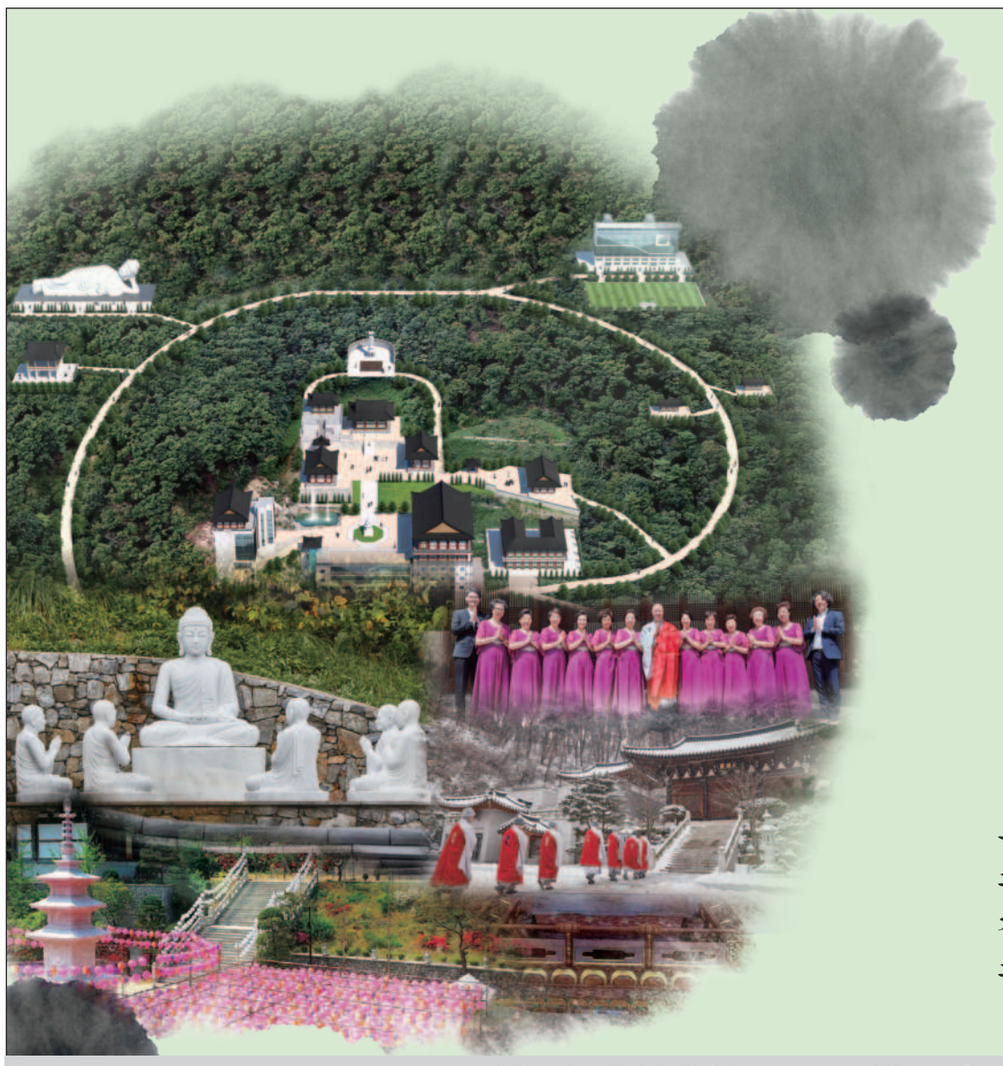


정읍의 명찰 내장사가 창건주 영은 대종사를 비롯해 매곡 스님, 희묵 스님 등 내장사에 주석하며 법을 펼친 역대 조사스님들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내장사(주지 대원 스님)는 5월 4일 학명 스님, 매곡 스님, 희묵 스님, 석전 박한영 스님 등 조사스님들의 부도가 봉안된 부도전에서 역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는 헌향, 헌다, 종사영반, 회향 3배로 진행됐다.

내장사 주지 대원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학명 문도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역대 조사스님들의 가르침과 유지를 이어 수행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조 실 해 경
원 로 도 암
회 주 상 진
주지 직무대행 심 곡
총 무 부 장 벽 산
교 무 부 장 효 능
서 무 부 장 효 진
대 중 과 장 효 성, 일 겸, 일 월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심 곡
이 사 해 경, 거 진
효 능
최종남, 이종수
감 사 최인귀
법무실장 홍창수

청련사 두도엔지니어링
(종합건설회사)

건설본부장 김호영
상무이사 김유영

청련사 극락원
(추모관)

상 무 장진우
과 장 송 원

종무소 직원

총무과장 정태우(일소)
관리계장 최진호(무착)
경리주임 성진희(소담)
관리주임 황재훈(무영)

청련사 불교문화연구소

실 장 인용민(법정)

현장관리직원

소 장 허대형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전화 : 031)836-2439, 1080 팩스 :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 능인종

사부대중일동



총무원 :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905-13(청룡사) 전화055)585-5300

대광불교 조계종

종정대행 및 총무원장 도현성원(용주사)

원로원장 원성(다인사)
원로위원 덕산(회룡사)
중앙종회의장 서암(암천사)
감사원장 지현(유은정사)
호계원장 선혜(은혜사)
사정원장 보원(극락암)
서울교구원장 지연(지연정사)
충북교구원장 무광(대청사)
충남교구원장 삼현(용화사)
부산교구원장 무루지(진불사)
전북교구원장 법향(지장사)
전남교구원장 혜안(유정정사)
경남교구원장 부성(은혼사)
비구니회장 화심(관음사)
법사단부회장 세연(현선사)

국장 아랑(보현정사)
지현(해월신당)
정수(청암사)
영매(영영당)
유경(별궁)
나혜(매화신당)
도희(수성신당)
동인(백천정사)
은공(은공사)
덕각(초불사)

대광불교 조계종에서 종도님 모집합니다.
스님 법사님 등 많은성원 부탁드립니다.

총무원 : 경남 밀양시 초동면 초하로634-19 전화 055-391-0413 팩스 055-391-9951

◈ 불.법.승 ◈

(宗)대한불교삼보종

1세종정 滅空대종사 법주 正覺대종사

원로원장 **성주** 부 종 정 **회천** 원로부원 **정공. 정민**
호법원장 **호신** 총무원장 **법장** 종회의장 **법융**
고시원장 **혜룡** 부 원 장 문화원장 **법등**
감찰원장 **용현** 교육원장 **홍인** 염불원장 **원명**
사무총장 **평산**

종회의원 **법융,법성,평산,호신,홍인,법종,보각,도오,지일, 법우,수산,도연,해곤,해봉,법전,도율**

총무부장 **지일** 교육부장 **도오** 규정부장
호법부장 **청파** 교무부장 **청암** 포교부장 **혜수**
문화부장 **진각** 재무부장 **도능** 교화부장
총무국장 포교국장 **도원** 홍보국장 **강천**
전산실장 **진행** 기획국장 **청붕** 사서국장 **도율**
사회국장 예술국장 **보인** 사 무 장 **신연화성**

교구원장 **수산,법인,보산,불광,도연,용현,법송,지원,청광,정륵**
(전국 16개 교구)

학 인 모 집
불교의례·범패·어산·바라·작법무
종립기관 승가대학 교육원·염불원

■ 삼보조계종:
총무원 경남김해시 호계로499번길4
전화 055-338-0089 / 팩스 055-333-1880

(사)대한불교대승종

종 정 **동건 법경**
총무원장 **법보 일봉**
종회의장 **탄 영**

감찰원장 **법운 성연** 연수원장 **가원 성각**
포교원장 **법전 법현** 고시원장 **벽산 혜암**

강원종무원장 **영 명** 서울종무원장 **감 우** 경기종무원장 **혜 암**
충청종무원장 **진 산** 전라종무원장 **덕 운** 군산종무원장 **덕 일**
경북종무원장 **탄 영** 경남동부종무원장 **진 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진 성**

총무부장 **진 공** 사회부장 **진 성** 호법부장 **진 각** 포교부장 **진 산**
재무부장 **지 안** 연화부장 **정 해** 문화부장 **공 덕** 교무부장 **진 문**
포교부장 **태 천**

종도일동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총무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96번길 62-12 천지암

(사)한국대승불교조계종

종 정 **효산현각**
총무원장 **지호혜관**
(이사장)

사정원장(이사) **성군**, 쌍암사(이사) **덕산**, 금정사(이사) **덕심**,
사정부장(이사) **자공**, 사회부장(감사) **향광**, 재무부장 (감사) **선혜**,
교무부장 **보명**. 울산종무원장 **향광**, 비구니원장 **보명**,
서림사 **현각**, 법성사 **인덕**, 천광정사 **취운**, 연화사 **일허**, 운고사 **운고**,
용연사 **취암**, 천운사 **현장**, 동방원 **법운**, 동방원 **효혜**, 불심정사 **혜관**,
대왕정사 **혜월**, 미정사 **선혜**, 무심사 **보명**, 보우선원 **성군**, 칠성암 **무설**,
관음사 **월명**, 용덕미륵정사 **영주**, 계령미륵정사 **계령**, 보광정사 **자공**,
약불암 **무여**, 천심정사 **진토**, 쌍암사포교원 **향광**, 태을사 **태을**,
백련암 **문정**, 화성암 **성화**, 금강사 **금강**, 금오사 **금오**, 칠원정사 **도원**

■ 총본산 :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384-3 서림사
■ 총무원 : HP. 010-4590-5539 FAX. 052)275-5539
■ 사정원 : HP. 010-5061-8300
■ 울산종무원 : HP. 010-4546-1100

(사) 대승불교조계종
The Mahayana Buddhist Jogye Order

이사장 **현 담**

이 사 **인각 법광 만법 도각 법공 경천 법연지**
감 사 **대성 안도**

각 교구장 및 대의원 일동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신상명세서, 증명사진 2매 등**

법인사무국 : 경남 사천시 백천길 234-34 백룡사
전화 055)832-8367 / 팩스 055)832-8368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대한국불교조계종 총연합회

자문위원 **(은덕사)종천 (성덕암)법신 (해원암)지우(본각사)법우**

총무원장 **호산 성보**

서울종무원장	(본각사)법우	김천종무원장	(약수암)자원
경기종무원장	(반야사)지연	밀양종무원장	(약사암)연화
마산종무원장	(삼선암)정안	호법원장	(구천사)상원
대구종무원장	(무상사)일불	감찰원장	(화엄사)무심
울산종무원장	(감로암)대련	문화원장	(문수암)승태
진주종무원장	(구룡사)진성	포교원장	(양명사)법성
창녕종무원장	(성불사)무덕	비구니원장	(묘음정사)덕운
부산종무원장	(용음사)명주	총무원신도회장	(보리심)
		교육원장	(성불사)무덕

무연고자 장례 및 선천성어린이 심장병돕기 종단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대한국불교조계종 사부대중 일동

대한국불교조계종(총연합회)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입종시 : 사암등록증 · 주지임명장 · 승려증 발행

창원시 마산회원구 광려천북로208 총본산 불광사

전화 055)232-7819, 010-8540-8209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종 정 **보명당 석원정**(사서실장 석현승)

총무원장 **현광 석자운** 총무부장 **석재현**

승정원장 **석보경**

종회의장 **석월암**

원로의장 **석선학**

승 정 **석법일 석법광 석도암 석덕인**

원로위원 **석일현 석대원 석도명 석보성 석혜림 석법안 석해진**

호법원장 **석법성** 감찰원장 **석도관**

호계원장 **석도일** 교육원장 **석유심**

기획원장 **석정현** 문화원장 **석현법**

포교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구담**

비구니원장 **석정인** 비구니회장 **석서정**

각 교구원장

부산동종무원장	석혜명	울산 종무원장	석진공
전남 종무원장	석서정	김해 종무원장	석법원
광주 종무원장	석청오	부산서종무원장	석경일
칠곡 종무원장	석현승	경남 종무원장	석혜운
영천 종무원장	석혜심	인천 종무원장	석지원
창원 종무원장	석혜일	대구 종무원장	석진성
강릉 종무원장	석원공	제주 종무원장	석경담
마산 종무원장	석법상	밀양 종무원장	석경오
경북 종무원장	석화성	전북 종무원장	석해산

중단법률 자문위원

변호사 **심규명 김영길 이승현**

법무사 **이기동** 세무사 **안미옥**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주민등본1통, 증명사진 3매,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총본산 : 마하사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642 전화 052)247-4848

대한불교조계종

울산광역시 사암연합회

자문	월파스님 (문수사 주지)	총무부장	남수스님 (법륜사 주지)
	눌암스님 (법륜사 회주)	기획부장	효암스님 (보덕사 주지)
	지용스님 (남산사 주지)	교무부장	인경스님 (신흥사 주지)
상임자문	남현스님 (내원암 주지)	재무부장	혜안스님 (한마음선원주지)
	덕진스님 (정토사 주지)	사회부장	덕인스님 (도솔암 주지)
회장	혜원스님 (해남사 주지)	포교부장	정진스님 (태안사 주지)
감사	본명스님 (등룡사 주지)	복지부장	명조스님 (선암사 주지)
부회장	문성스님 (옥천암 주지)		
	지선스님 (백양사 주지)		
	보화스님 (월봉사 주지)		
	태암스님 (관음사 주지)		
	종선스님 (청룡암 주지)		
	천조스님 (석남사 주지)		

※제17대 울산사암연합합창단장 기탁스님(화봉선원주지)

회 원 일 동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51(신정동) 성수빌딩6층

전화 052)266-3318~9 팩스 052)261-1285

함 안 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원명스님**

총 무 **영공스님**

감 사 **정광스님**

신도회회장 **조용찬** 신도회총무 **신현숙**

신도회부회장 **박성하** 신도회차장 **김성곤**

신행단체

공무원불자회 회장 **지희선**

바웃다합창단 단장 **하미옥**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778(달전사) 전화 055)587-8419

창원시 무료급식(점심) 단체 지정사찰

사단법인 樹山慈悲禪院



이사장 **法 相**

하나는 여럿을 위하여!
여럿은 하나를 위하여!

의료생협 자비요양병원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50번길 5-4
전 화 055)277-7626, 010-6586-3088
팩 스 055)277-9101

요양급여 1,2,3등급 수용
복지시설(중풍,치매,노인성질환)

사단법인 자비마을

- 보건복지부 인가시설 -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50번길 5-4
전 화 055)277-7626, 010-6586-3088
팩 스 055)277-9101

(주)보광석재

(주)보광석재는 1983년 창립한 이래로 우리 불교의 우수한
전통 석조 문화를 계승·발전하고자 기획에서부터 설계, 제작, 설치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매순간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찰 및 문화재 전문의 석조회사입니다.

대표이사 **김한열** 합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본사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석재단지길 38 전시장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523
전화 : 054-955-8888~9 팩스 : 054-955-8890 E-mail : bkstone601@naver.com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본사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

주지 무자



전남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100
www.songgwangsa.org 전화061)755-0108 Fax 061)755-0408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주지 연성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 113번길 11
전화 062)961-1080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

금오산 **향일암**

주지 연규

사부대중일동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 061)644-4742 www.hyangiram.org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천은사

주지 대진



전남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
종무소 061-781-4800

대한불교조계종

사성암

사부대중일동



전남 구례군 문척면 사성암길 303 전화 061)781-4544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광주지원

신도회일동



광주 서구 운천로204번길 23-1 | 전화 062)373-8801



대행 스님

이 육체에서 마음이 벗어나면 이 몸뚱이라는 물질도 굴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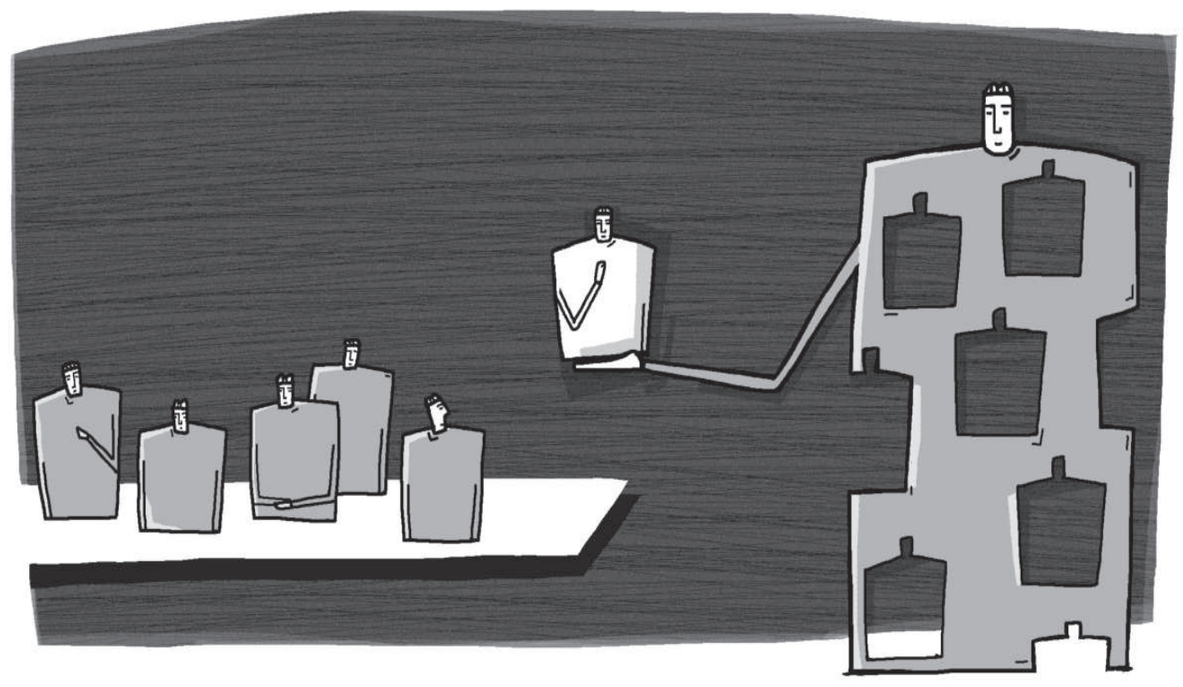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항상 공해서 돌아가는 한마음의 도리지만, 차원에 따라서 또는 자기의 가락에 따라서 각기 천차만별로 살림살이가 나누어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여러분과 더불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도 역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부처님께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지어내서 사십구 년 동안 설하신 것이 아니고, 또 없는 걸 지어서 말씀하시거나 행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와 더불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진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에 여러분하고 이렇게 서로서로 길 없는 길을 걸으려 합니다. 손 없는 손, 발 없는 발 또는 행 없는 행을 그대로 여여하게 걸림 없이 같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모든 일체 삼라대천세계가 다 공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공했느니라"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색이 즉 공이고, 공이 즉 색이니라." 하는 것도 인정하시죠? 우리가 지금 한 찰나의 살림살이라는 등 가락에 맞춰서 여러분이 차원에 따라서 살고 있다는 그 도리도 알고 계시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 힘이 없다든가 힘이 있다든가 하는 이러한 논쟁, 이러한 모든 것을 놔야 되지 않나, 버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평발이요, 내가 아니 딛는 데가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손 아니 닿는 데가 없고, 내 몸 아닌 것이 없고, 내 아픔 아닌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얘기합시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어느 조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너를 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네 주장자를 뺏을 것이니라." 하셨다 이겁니다. 그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 전체가 포함돼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닿는 데가 없다' 하는 그 뜻, 우리가 찰나에 돌아가면서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이 돌아가는 그 행과 뜻 또는 말씀, 이것이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대로 여여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주장자 얘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내가 네가 될 수도 있고, 네가 내가 될 수도 있는 뜻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업이나 선업이 다 붙어서 돌아가는 한마음의 구성체, 이 여러분 몸속에 다 구성체가 있듯이 그 구성체가 한마음의 지배인에 의해서 응하고 돌아간다는 거,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것을 고덩어리라고 했고 '고 하나만 녹인다면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느니라' 하신 말씀도 거기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무슨 인정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그것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생각을 잘해 보시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주장자 얘기했듯 이 마음의 도리는, 우리가 조그마한 데서만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저 삼천대천세계의 어떠한 물건이든지, 어떠한 혹성이든지 별이든지, 무엇이든 막론해 놓고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같이, 마음의 도리가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의 씀씀이도 같이 돌아갑니다. 씀씀이는 우리가 깨달아야만 같이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방치하는 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를, 공부라고 하기 이전에 사람이 돼서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부처가 이루어지면 관세음보살이 나이고 부처가 나이고 모두 나라고 했지만, 행과 말과 뜻이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면 허공 잡는 얘기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뒷받침을 이렇게 몇 마디 해 놓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예전에 말씀해 놓으셨노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몸뚱이라는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뚱이가 살고 있는 집은 지구입니다. 지구인데 우리 몸뚱이가 수명이 있듯이 지구도 수명이 있다고 봅니다,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간만 생명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체 생명이라고 볼 때 그래도 고등 동물이라고 한다면 인간을 최고로 치죠. 인간이 돼야만 이 부처를 이룰 수 있고, 한마음으로 전체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고, 지혜를 가질 수 있고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그렇게 깨달아서 포용력 있게 지혜롭게, 참 걸림 없이 갈 수 있다면, 아까 주장자 얘기했듯 저런 달세계나 저런 모든 혹성들에게도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은 지수화풍에서 소생돼 가지고 지수화풍을 지금 쓰면서 살고 있고 지수화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수화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에서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그 속에서, 복합적인 재료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니깐요. 그 질량은 수만 개의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발이 되는 것도 그렇고, 참 과학이 발전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발이 되고 또 인간이 많이 늘어나고, 그것이 증강된다고 할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또 생각을 안 해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깐 그건 식량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자원이나 식량을 더 만들지 않고 곶감 꼬치 빼 먹듯 빼 먹으면 그것은 마치 은행에 예금해 놓은 것을 꼬박꼬박 빼다 쓰기만 하고, 벌지 않아서 나중에는 통장이 비는 것처럼 살림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없을 때는 가져올 수도 있고 있을 때는 남에게 줄 수도 있는, 그런 영향력과 지혜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즉, 이 육체에서 마음이 벗어나면 이 몸뚱이라는 물질도 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면 굴릴 수 없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독 안에 들어 있다면 독을 굴릴 수가 없고, 독 안에서 벗어난다면 독을 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독이 혹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혹성 안에 있는 재료를 마음대로 용도에 따라서, 크나 작으나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료라든가 이런 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렇게 멀고 먼데 어떻게 조달이 되느냐. 구름 잡는 얘기라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 우리의 능력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진리이고 길입니다. 또 그 길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셨고요. 또 나 역시 없는 거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한생각은 체가 없어서 요기 요거 (법상을 가리키시며) 생각하는 거나, 저 달세계 생각하는 거나 둘이 아니라 이 소립니다. 그런 까닭에 그것도 서로 오고 감이 없

☞ A32면으로 계속



되는것도 안되는것도 고정되지 않으니 굴리는 운전수에 달려 있다

☞ A31면에서 계속

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다 한 것은, 오고 가기만 하면 뭘 합니까? 교류가 돼서 우리가 맛을 봐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여러분이 장사를 해도 이익을 봐야 되고, 회향이 돼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예를 들어서 본다 듣는다 또는 가고 올 수 있다, 그 마음을 서로가 교환하고 알 수 있다, 또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고 있다 이럴 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통신력과 광력, 전력, 자력이 충만히, 우리가 지수화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만히 교류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나 우리 살아나가는 계발의 문제라든가, 또는 식량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건데, 깨달으면 한계가 없는 것도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한계가 있는 것만 알지 마시고 한계가 없는 것도 좀 아셨으면 하는 겁니다. 무한량, 한계가 없이 영원하다는 그 문제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향력과 지혜를 가지시라 이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멀리 있는 것과 우리가 교류가 되지 않는다면, 벽이 쌓아진다면 우리는 어디로 피난을 가겠습니까? 내 집이 망가진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면 어디로 가서 얻어먹겠습니까? 또 재료가 없다면 어디서 나서 쓰겠습니까? 이런 거 세 가지만 말해도 우리는 이 마음 자체가 그렇게 충만하고 교류가 될 수 있고 벽이 없고 그렇다는 부처님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몸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몸인데, 그럼 몸하고 지구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볼 때 '몸을 이끌어 나가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몸이 주인이 없으면 얼른 망가질 거고, 내가 깨달아서 주인이 있다면 내 몸도 고쳐서 쓸 것입니다. 그러면 가고 싶으면 가고 그냥 벗고 싶으면 벗고 말고 싶으면 말겠죠. 그것이 자유입니다, 이 옷을 벗는 것도. 그런데 그렇게 한계가 있듯이 그럼 지구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이게 겉껍데기가 있고 속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셋째 번에 아주 그 얇은 껍데기가 우리 뱃가죽에도 있듯이 또 있습니다. 별성도 껍데기를 벗으면 새 빛이 나면서 다시 살듯이, 인간도 이 껍데기를 벗고서 다시 또 몸을 바꿔 가지고 다시 나오는 이치에 의해서 우린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몸이 없어졌다가 다시 나고, 났다가 다시 꺼지고 이러는데, 이러한 혹성이나 저러한 별성 같은 거는 이것이 꺼멓게, 예를 들어서 그 껍데기를 벗으면서 그대로 속에서 새 빛이 다시 날 수 있는 것이 그게 한계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드리는 것이, 그러면은 지금 당장 급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오억 년이 가든지 십억 년이 가든지 일억 년이 가든지 그건 한계에 따라서 어느 때 이렇게 되고 어느 때에 요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건 예언이 되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공부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럼 그게 못 미더우면,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정감록에 말입니다. "물에서만 배가 다니는 게 아니라 땅으로도 배가 다니고, 땅 위에는 거미줄이 얽히고, 그 거미줄을 따라서 배가 둥둥 떠다니고 공중으로도 나중에는 배가 떠다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친 놈, 미친 소리, 허공 잡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록을 해 놨어도 반이 다 타 버리고 말았죠. 누설이 된다고 해서 그랬답니다. 그런데 또 박사들은, 몇백 년 전 박사들이 '지구가 돈다'고 하니 미친놈이라고 했다죠. 여러분은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쳤던가요? 너부터 알라고,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라고 한 소크라테스도 미쳤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미쳤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말한 대로 지금은 그 배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다 우리가 발전이 되고 능력이 생겨서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너와 나와 둘이 아니니라."

> 예를 들어 이 물 한 컵에 있는 물방울이 악인이라 한다면
> 아주 악한 악인이라도 그걸 내 물 그릇에 넣어서
> 같은 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행입니다.



한 뜻이 무엇인가도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했든 했든 스스로서 알게 되고, 스스로서 계발하게 되고, 스스로서 그런 심성 과학이 발전이 되고, 천체물리학이 발전이 되고, 천문학이 발전이 되고 이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이 아니다.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어서 가지고 있느니라." 했다면 그건 인정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언제나 얕보고 또 어떤 사람은 높이 보고 이럽니다.

오늘도 염불하셨죠? 염불하시는데 내 마음이, 한마음이 즉 관세음이고 지장이고, 독성이고 산신이고, 용왕이고 이렇게 일체가 내 한마음에 들었다고 돼 있죠. 그 한마음에서 그 이름이 나가는 거고 한마음에서 씀씀이가 다 가락대로 차원대로 나가죠.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소릴 하냐 하면, 여러분은 말로만 '내가 관세음이고, 내가 부처고, 내가 지장이고, 이 마음에, 그 한마음에 다 들었다는데, 뭐.' 이렇게 꼿꼿이 세우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내가 부처니까 인간은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다 부처다' 하는 그 마음만 알고 이론만 알고 있지 진짜 행은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이 공부를 빨리 해야지.' 하는 급한 마음을 가지시기 이전에 여러분은 자기의 아집이라든가 아상을 놔 버려야 하고, 자기 분수를 지켜야 하고, 또는 시간도 지켜야 하고, 의리도 지켜야 하고, 도의도 지켜야 하고, 사랑도 지켜야 하고 그러니까 자만이나 아만을 부리지 말고, 착을 놔야 하고, 욕심을 놔야 하고,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모든 악한 것은 내 마음으로 안아서, 예를 들어 이 물 한 컵에 있는 (법상 위의 물컵을 들어 보이시며) 물방울이 아주 악인이라고 합시다.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걸 내 물그릇에 넣어서 같은 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행입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여러분의 이름에 속한다고 볼진댄 그렇게 넣어서 안아서 녹여 주고, 병자가 있으면 병자가 있는 대로 여기 넣어서 안아 주고, 또 가난이 있으면 내 가난과 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마음이라야 되고,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생각하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또 죽는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으로, 한마음으로 안아서 나를 만들어서 다시 내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안을 때, 참 그것은 즐겁고 여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렇게 될 때에는 밉고 곱고, 너는 잘못하고 잘하고 이것을 따진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살들이 될 수 있는 100%를 가지고 있고 99%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99%다 할지라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다 될 수 있어도 이 행을, 그대로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중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에 속합니다.

그래서 물건도 '내가 물건을 다 잃었다' 고 울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 물건을 써서 내가 그 물건으로, 물질로 그 사람한테 갚았다고 생각한다면 억울할 게 하나도 없죠. 받지도 못하고 그럴 거를 울고불고해서 몸까지 집까지 망가뜨리고, 살림까지 망가뜨리고, 식구까지 다 파산을 시키고, 그런 행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행에 따라서 계율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율을 지키려는 생각을 억지로 낸다면 계율 하나도 안 지켜집니다.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그렇게 행을 해 가지고 나가신다면 그대로 천 가지 만 가지 이 세상의 계율과 질서를 다 지키면서 모순된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여여하게 자유인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아마 이름 없는 부처겠죠. 그러니 그 행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아무리 부처가 되려고 애를 써도 그 행이 그럴 때는 안 됩니다.

왜 이 바다의 물을 마셨다 내놨다 할 수 있는 부처님이 계셨느냐? 모든 일체 중생들을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일체 중생들을 다 내놓고 자기도 일체 중생들과 같이해도 줄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방울로 비유를 했는데, 얼마나 천차만별로 그 생명체들이 많으며 모습들이 가지각색으로 많습니까? 새로 온 분들도 있지만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한 번 더 들어둬도 손색이 없다고 보기에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벌써 내 마음속에, 한마음 주처의 주인공에다 '내 주인공밖에는 나를 이끌어 갈 수 없다, 내 주인공밖에는 나를 형성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뼈와 살을 받아서 이 집만 받아 가지고 나온 거지, 악업과 선업의 그 업식을 통채로 지니고 나온 건 나다. 내가 나를 형성시켜서 나를 이렇게 지니고 나왔다. 전생이 지금 현생이다. 현생에, 전생과 더불어 현생이 지금 같이 살고 있다. 그러니 과거의 내 이전을 멀리 가서 찾지 말고 나 있는 데서 찾아라.

그렇게 주인공에다 놓고 갈 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아주 빡빡하고 마르고 척박한 땅에 물을 주고 모든 걸 그렇게 하니까 노골노골해지듯이, 돌도 골라내고 다 이렇게 행으로 하니까 말입니다. 그렇듯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을 수 있고 '아, 이 병도 주인공밖에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믿고 들어갈 때에…, 거기에서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엎드러지면 여러분에게 일어날 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 놓을 때에 안 되는 것도 거기고 되는 것도 거긴데,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안 되는 것도 고정되지 않으니 그 굴리는 것은 운전수에 달려 있다. 이리로 가는 것도 저리로 가는 것도 운전수에 달려 있으니 안 되는 거 되는 것을 다 거기에, 거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다 다 놓고, 되게 하는 것도 너고 또 몰라서 못 쓰는 것도 너니까 그것을 그렇게 놓고 간다면 내 마음이 아주 밝아지고 자꾸자꾸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5월 21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불자여러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불성의 등불,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환히 밝히시고 모두 성불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재단이사회
명예이사장 경원
이 사 장 일명
부이사장 경담
상임이사 오원
이 사 혜천
법도화, 자비행

종정 / 총무원
종 정 대륜
총무원장 혜일

원로회의
원로의원 혜천 현암 법성 법선 경원 승원

중앙종회
종회의장 도정
종회의원 재단이사회 고봉 석경 무착 정암 서현 보은 동철 성운 혜성 백운심 여래자 교구종무원장

종무위원
호계원장 동청 / 감사원장 법광
교육원장 지언 / 호계부원장 지명
문화원장 제법 / 포교부원장 덕산
총무부원장 도허 / 문화부원장 해동
고시위원장 원공 / 총무부장 혜광
선거관리위원장 붕원 / 교무부장 덕운

교구종무원장
강원동부교구 보 해
경기남부교구 지 안
경기북부교구 지 흘
경남교구 덕 운
대구교구 무상심
울산교구 현 산
전북·전남교구 지 명
제주교구 제 법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 Tel : 02-991-8175, 8904 / Fax : 02-991-8176 / www.ilbung.org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 실 금산도영 기 획 제환
회 주 취산도법 교 무 석초
주 지 월강일원 재 무 여찬
부주지 시산원혜 사 회 보연
신도회장 한광수

17교구 사부대중 일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전북불교회관

조 실 금산 도영
회 주 불일 평상
교구장 월강 일원
주 지 제 환

-부 설-
· 화엄불교대학
· 룸비니어린이집

사부대중일동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42-13 전화 063)277-3497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

종무원장	진 성	종회의장	법 전
부 원 장	현 진	수석부의장	혜 신
총무·문화국장	법 진	부 의 장	청 명
재무·홍보국장	지 오	종회의원	혜 정, 진 수
교무·복지국장	법 성		법 원, 원 경
규정·사회국장	법 정		현 담, 혜 성
주재기자	문 선 희		정 유, 혜 일
			보 경, 도 흥
			원 만, 혜 월

전북종도일동

영산작법보존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회 장 영 산(작법보유자) 조교수 법 정 감 사 법 원, 원 경
부 회 장 도 홍(지화장엄보유자) 사무처장 법 진
교육원장 도 정 재 무 지 오

전북 영산작법보존회 회원 일동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11 전화 063)285-9700 팩스 063)282-1536

나의 참맘을 붓다, 사랑을 붓다, 행복을 붓다, 나눔을 붓다, 부처님 법을 붓다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회주 진성 스님	교무 보문 스님	교리 정유 스님
주지 정원 스님	사회 대련 스님	탬플 정운 스님
원주 연심 전법사	포교 추파 스님	복지 마정 스님
재무 연정 전법사	문화 정진 스님	기록 정월 스님

· 신도회장 | 윤금상 청리
· 부회장 | 박선자 보리행
· 총무 | 김경은 금강행
· 사)붓다 총괄이사 | 현진 스님
봉사단장 | 이재현 수암
관리 | 허영자 정아 전법사
홍보 | 손채림 정이 전법사
해외 | 노은지 정무 실장
국내 | 성명선 정야 전법사
총무 | 정해자 혜안행
해외 봉사단장 | 황동현 청야
· 탑밴드 음악 봉사단장 | 천순희 천수행
· 교정 봉사단장 | 박성균 진실행
· 소년원 어머니회 | 김도운 청운
· 군부대 봉사단장 | 변상경 청진
· 붓다복지관 관리단장 | 박교상 청준
· 무료급식 후원단장 | 김동우 청화
· 갑룡장학회 후원회장 | 동상진 도경

· 재)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
· 사) 한지문화법인 장엄
· 사) 착한벗들(다문화지원센터)
· 사) 진안군자원봉사센터
· 사) 진안군관광협의회
· 사) 전북녹색환경연합회
· 사) 전북자원봉사센터



주소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 남로 367 마이산탑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260 붓다복지센터
공유폰 010-4335-7807 / 전화 063-433-0012 팩스 050-4775-7807
홈페이지 http://www.maisantapsa.com 이메일 maitapsa@hanmail.net



부처님오신날, 만생명 축복의 날

'미혹의 문명을 넘어 깨달음의 문명으로'

문명전환 지리산 만일결사

실상사

- 사부대중공동체 -

실상사 정기 템플스테이
첫째주 : 내인생의 3박4일
셋째주 : 실상사 공동체 학교
넷째주 : 지리산 순례 템플스테이
참가 문의 : 010-9654-3031
홈페이지 : silsangsa.templestay.com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실상사 | 주소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길 94-129 전화 063)636-3031 | www.silsangsa.or.kr

대한불교조계종

동국사

주지 재 안

사부대중일동



주소 전북 군산시 동국사길 16 전화 063)462-5366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영남최고의 관음기도도량

천성산

미 타 암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주진로 379-61
전화 055)365-4184

사)대한불교승가종

복 천 암

주지 **삼화 무착**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동면 영천2길 21-19
전화 055)372-3555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 당 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41-23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교구종무원

승정 **금 용**

중앙원로회
의원 금 명
의원 현 호

중앙종회
의원 지 공
의원 원 일
의원 연 봉
의원 공 일
의원 진 응
의원 성 봉
의원 양 휘
의원 현 용
의원 봉 산
의원 허 휴
의원 지 원
의원 법 대
의원 법 연
의원 혜 승
의원 보 법
의원 도 덕
의원 도 영

지방원로회
의장 금 명(태평사)
부의장 금 용(장원사)
의원 도 수(봉정사)
의원 성 천(흥국사)
의원 설 봉(관음사)
의원 남 파(오봉사)
의원 현 오(학천사)
의원 수 진(용화사)

종무원
종무원장 월 인
총무국장 심 일
교무국장 선 주
재무국장 명 휴
규정국장 도 진
종무주임 자비심

지방종회
의장 도 안
수석부의장 여 허
차석부의장 도 우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길 85-15 전화 062)375 - 1820 팩스 062)381 – 0944

대한불교용화법원미륵종

불 종 사

종정 **보원 현진**
주지 **청담**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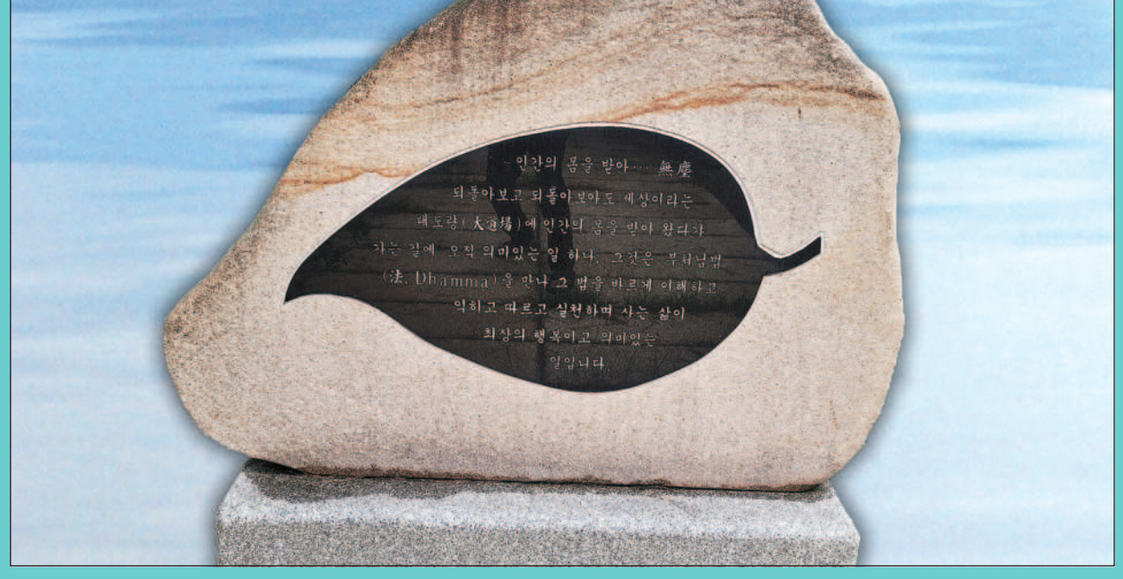
경상북도 경산시 남방1길 5-6 (남방동) 전화 053)802-4043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 오신날을 삼가 봉축합니다

사)21세기불교포럼

이사장 **황경환** 합장



奉祝隨想

나날이 부처님오신날 되길…



눌은 스님
범어사 전 포교국장



그림·최주현

어릴 적 학습지만큼 싫었던 것이 사찰 가는 일
29살에 출가한 것도 어렸을 적 기억 작용해서
MZ세대가 사찰 오려면 '재밌는 불교' 거듭나야
시대 맞춰 '재미의 옷' 입고 어울림, 좋지 않은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수학 방문학습지를 구독했던 기억이 납니다. 숫자를 많이 싫어했던 이유로 매주 스무 장씩 숙제를 풀어놓으면 방문선생님이 오셔서 점검도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했던 그 학습지가 너무도 하기 싫었던 감정이 지금도 희미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많이 밀리기 일쑤였고, 어느새부터인가 숙제를 하기 위한 노력보다 왜 숙제를 안했는지에 대한 변명을 구상하는데 더 열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 생신 잔치에 가야한다는 둥 몸살이 났다는 둥 거짓말이 다 떨어지자 마지막에는 "다 풀어놓은 학습지가 어디로 갔는지 도통 모르겠다. 이건 초자연적인 현상인 것 같다"는 변명까지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어지간하면 넘어가시던 부모님이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셨는지 그 날은 정말 숙제를 안 했다는 사실을 실토할 때까지 저녁 식사를 거르면서 혼내셨고,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죄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학습지를 열심히 잘 풀고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는 결말도 좋았겠지만, 학습지 구독을 끊는 것으로 부모님도 속이 편해지시고 저도 몸과 마음이 편해지는 나쁘지 않은 결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반에서 1등하는 네가 이 학습지 몇 장이 풀기 어려워서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그렇게 하기 싫은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거짓말 늘어놓을 머리를 키우느니 공부 좀 덜해도 된다."

학습지 구독을 끊을 때 어머니가 하셨던 이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숙제하기 싫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시간에 숙제를 하는 편이 훨씬 시간과 노력 면에서 현명했을 테지만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197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은 〈계간 경제학 저널(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에 게재한 그의 논문 '이성적 선택에서의 행동 양식(A Behavioral Model of Rational Choice)'에서 고전 경제학에서 정의되는 인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대해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은 완벽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그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정이 필요한 문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가,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감정의 호불호는 어떠한가, 판단을 내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허용되는가에 따라 사람은 '최적의 대안'이 아닌 '적당히 만족스러운' 해법을 선택한다는 것이 사이먼의 주장입니다.

사이먼의 이론은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로 주변 환경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정보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협된 결정을 한다는 데 주안점을 주지만,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마음의 호불호, 좋고 싫음이 아닐까 합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에 걸리지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리라.(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

널리 알려진 승찬 대사의 〈신심명〉은 위과 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지극한 깨달음의 시작과 끝이 오직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라는 선사의 가르침은, 역으로 그만큼 우리 중생들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기도 하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학습지만큼이나 어린 시절 하기 싫었던 일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부처님오신날 아버지를 따라 절에 가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처님오신날만큼은 꼭 저를 데리고 인근의 절에 가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귀한 휴일에 별 관심도 없던 절에 가서 절하고 채식으로만 나오는 비빔밥을 먹는 것이 영 탐탁지 않았습니다. 또 절들은 다 산속에 있어서 땀나는 등산은 당연히 따라오는 옵션이었습니다. 불교가 나에게, 부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는지는 관심이 없었고, 그저 원하지 않는 어색한 곳에 따라가야 한다는 마음에 싫은 감정만이 있었던 듯 합니다. 만 29살이 되어서야 출가인연이 이어진 데에는 비빔밥에 계란후라이가 없었던 이유도 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해 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코로나19로 일상생활과 관계 맺는 방식이 크게 변한 세상, MZ세대니 알파세대니 하는 용어의 홍수 속에서 한국불교는 다시 오래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불자님들이 불교에 흥미를 느끼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절에 오게 할까.

지난 4월 초에 서울에서 열린 국제불교박람회는 그에 대한 하나의 대답입니다. '재밌는 불교'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불교박람회의 가장 큰 화젯거리는 디제잉하는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 씨의 부캐)이었습니다. 진짜 스님은 아니지만 장삼을 입고 '카톡을 안 읽어서 고통, 친구가 잘 나가서 고통, 미래가 안 보여서 고통~'이라며 노래 부르고 춤추는 뉴진 스님에게 많은 이들이 즐거워하고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불교는 어렵고 따분하다는 통념을 벗어나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덧 오늘은 부처님 생신날입니다. 아이들이 스님을 어려워하지 않고, 절에 와서 즐겁게 웃으며, 비빔밥이 비건이라고 몸에 좋다며 잘 먹는 모습에 좀처럼 웃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재미가 불교의 본질은 아닐지라도, 시대에 따라 즐거움과 재미의 옷을 입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 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젊은 불자님의 밝은 얼굴 안에서 수학 학습지를 여전히 싫어하고 아버지 손에 이끌려 절에 가던 어린 날의 제 얼굴도 함께 웃고 있습니다.

나날이 부처님오신날이고, 매일 매일이 절에 오는 날이기를 발원하겠습니다. 곳곳이 사바세계에 임한 극락세계이고, 모든 순간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부처님오신날을 빌려 축원드립니다.

社說

MZ세대 참여 연등회 변화 환영한다

2천여 동국대 학생·150여 군종병 참여 '눈길'
동국대 全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창립 의미 커
SNS 등 호평 일색… 안주 말고 '트렌드화'를

불기 2568년 연등회는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불교의 모습이 보였다. 항상 무겁고 엄숙하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숙'하고 '재밌는' 불교를 보여주려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노력들은 연등회 참여 세대의 변화로 이어졌다. 동국대에서는 2000여 명의 재학생이 연등회 제등행렬에 참여했으며, 군승과 군종병 150명이 행렬에 동참했다.

Z세대의 참여는 동국대와 군종교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동국대는 건학위원회 출범 3주년을 맞아 '3000 대학생 청년 불자 양성'을 발원하고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학생회 '동불'과 14개 단과대학 불교동아리, 대학원 불교장학생·소모임, 유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불교학생연합'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4월 16일 출범한 'WISE 대학생 전법단'을 출범시킨 동국대 WISE캠퍼스도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불교학생회, 불교도연합회(불교계 장학생, 불교추천전형, 유학생 불자) 등 연합체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동국대는 지난 3월 20일 사회과학대학 불교동아리 '템플애플' 창립을 시작해 5월 11일 미래융합대학 '퓨처핸접' 창립법회를 봉행하며 14개 모든 단과대학 내 불교동아리 창립을 완료했다. 이 같이 전법을 향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3000 대학생 청년 불자'라는 서원의 결실에 한 발짝 다가간 것이다.

5월 12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펼쳐진 전통문화마당에서도 명상마당과 청년MZ마당을 신설하고, 연등놀이에서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 씨의 부캐)의 EDM야단법석을 넣어 MZ세대와 소통에 나선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SNS에서 호평도 쏟아졌다. MZ세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엑스(전 트위터)에는 '진짜 연등회 재미있음'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 꽃비를 내려주신다는데, 비는 충분하고 꽃은 우리가 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피규어 사진과 함께)최애와 연등회 데이트 왔어' 등 다양한 반응들이 올라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9일 열린 봉축기자간담회에서 단기출가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년세대가 갖고 있는 불교의 무거운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근 유행이 된 뉴진 스님에 대해서도 "불교가 청년세대에 다가가려는 방편이 된다"고도 했다. 앞서 진우 스님은 예방한 뉴진 스님에게 헤드폰을 선물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MZ세대에게 불교는 '힙하다'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는 일시적인 유행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세대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MZ세대, 알파세대의 니즈를 파악해 이를 전법 아이템으로 활용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년세대가 가진 불교에 대한 호응과 관심을 불교 안으로 어떻게 끌여들여 조직화 교육화된 진성 신도로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소위 '넥스트 스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년세대의 불교에 대한 호응이 '트렌드화'되고, 불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이제부터 불교의 노력에 달려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사)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종회의장 조허 혜윤(금강사) 규정원장 백봉 성관(대성사) 총무부장 선행
교육원장 설산 능인(보광사) 포교원장 혜선(효암사) 교육부장 법천
선 원 장 진보(법등사) 문화원장 일락(중산정사) 포교부장 혜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전화 02)762-2459 팩스 02)742-2344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어둠을 밝히는 연등처럼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 사 장 돈 관

WISE캠퍼스총장 류 완 하 동국대학교총장 윤 재 웅 의 료 원 장 채 석 래





WISE캠퍼스 미래 비전을 선도하는 글로컬 인재 양성



서울캠퍼스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의료원 자비인술과 약사여래의 원력 실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기관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석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선화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흥제중학교 / 은석초등학교 /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 동국대학교 DUICA



본지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대종사를 예방하고 법을 청했다. 이 자리에서 운경 스님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한걸음씩 여래에 가까이 가는 길"임을 설하며, 불자들에게 '자비행'을 당부했다. 사진=신중일 기자

"자비 실천하라…여래에 한걸음 가까워지리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태고종 종정예하인 운경(雲耕) 대종사에게 법문을 듣기 위해서 백련사를 찾았다.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소재한 백련사(白蓮寺)는 한국불교태고종의 3사(봉원사, 백련사, 청련사) 중 하나로서 신라 경덕왕 6년(747) 진표율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수행도량이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시점이어서 백련사에는 사명(寺名)에 걸맞게 각 전각(殿閣)과 당우(堂宇) 앞은 물론이고 경내 마당에도 각색의 연등들이 걸렸는데, 그 곱고 단아한 자태가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들을 떠올리게 했다.

꽃잎이 필 때 씨방도 함께 여무는 까닭에 연꽃을 인과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연화지에 가면 이제 갓 봉오리가 맺힌 연꽃과 활짝 꽃잎이 피어난 연꽃, 이미 꽃잎이 진 연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세, 현세, 내세 등 삼세(三世)를 의미한다고 한다. 도량을 수놓은 연등들을 보면서 필자는 아득한 전생부터 니전(泥田)에 피어난 백련(白蓮)처럼 더러운 곳에 있어도 항상 청정함을 잃지 않았던(處染常淨) 수행승들이 있었기에 탐진치(貪瞋痴) 삼독심(三毒心)에 물든 중생들의 사바세계(娑婆世界)에도 깨달음의 향기가 세세생생 이어졌음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백련사는 운경 스님이 설봉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한 도량이다. 그 법맥을 계승하기 위해서 운경 스님은 평생 동안 깨달음을 구하고 얻고 지켜왔다. 운경 스님은 백련사 주지 재임 시 친일파 이해승에게 뺏겼던 사찰 토지 4만7643㎡를 되찾기도 했다. 토지를 되찾고 열린 법회에서 운경 스님은 '백련사 일대 토지 봉증 발원문'을 낭독했는데 이 발원문을 듣고서 백련사의 원로스님들이 눈물을 장삼 소매로 닦았다고 한다.

당시 운경 스님은 "백련사가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근본 원력인 수행으로 정각(正覺)을 이루는 희유(稀有)한 도량이 되게 하시어 불음(佛音)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지고 세계만방에 불광(佛光)이 더욱 빛나고, 육도의 모든 중생들이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도록 가피를 내려달라"고 발원했다.

필자 일행이 삼배를 올리자 운경 스님도 맞절을 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던가? 운경 스님의 수행력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법체 청안하셨느냐"는 필자의 인사말에 운경 스님은 "낮에는 환하고, 밤에는 어둡습니다"라고 대답한 뒤 "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운경 스님의 대답은 〈벽암록(碧巖錄)〉 제3칙 '마대사불안(馬大師不安)'의 주석(註釋)이기도 했다. 원주 스님이 안부를 묻자 마조 스님은 "일면불(日面佛) 월면불(月面佛)"이라고 대답했는데, 이에 대해 찰나와 영겁이 다르지 않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에 이르면 냇물소리에서도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산색(山色)에서도 부처님의 법신을 볼 수 있다는 게 운경 스님의 견해이다.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에는 전국 사찰에서 봉축법요식을 봉행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라는 필자의 우문(愚問)에 스님은 손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킴으로써 현답(賢答)했다.

"부처님은 시방 삼세에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만유에 평등하사 일체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선문염송(禪門拈頌)〉에 이르길, '미리도솔(未離兜率) 이강왕궁(已降王宮) 미출모태(未出母胎) 도인이필(度人已畢)'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도솔천에 계시면서도 이미 정반왕궁에 오셨으며 어머니 태중에 계시면서도 이미 중생을 제도하셨으니, 불생불멸(不生不滅)한 부처님 공덕은 미래세(未來世)가 다하도록 우주법계에 두루 편재(遍在)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이미 성불(成佛)하신 분이지만 사바세계(娑婆世界)에 있는 모든 중생(衆生)을 구하고자 세상에 출현(出現)하시고 시현(示現)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실체(實體)는 달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강(千江)에 비친 달처럼 부처님은 시방법계(十方法界)를 두루 비추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광명을 통해 나투시기도 하지만, 그럴 여건이 되지 않을 때에는 부처님오신날 출현하시어 우리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성(佛性)의 씨앗에 싹을 움트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름이 끼어 있으면 달이 보이지 않듯이 마음이 흐리면 부처님의 자비광명의 빛도 반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항상 맑게 해야 합니다."

운경 대종사의 회고송(懷古頌)

팔십성상(八十星霜) 여영상(如映像)
행봉불법(幸逢佛法) 각주객(覺主客)
작일역래(昨日亦來) 기내일(旣來日)
침식기좌(寢食起坐) 미미소(微微笑)

팔십여 년이 영상같이 지나갔지만
다행이 불법을 만나 주객을 알았다.
어제가 돌아오고 내일이 지나갔지만
침식의 나날 중 일어나 앉으니 실로
우습다.

부처님, 전염병 창궐 베살리 구호
재난 구제 7일 만에 역병 사라져
슬픔 나누는 것이 불자 실천 덕목

운경 스님은 이어서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는 곳"에 대해 설명했다.

"부처님은 먼 데 계시지 않습니다. 우선, 누구나 불성(佛性)을 지니고 태어났으니 자기 자신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인연, 부부의 인연으로 한 집에서 함께 웃고 울며 평생 살아가는 가족들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하루 종일 합심해서 일을 하는 직장 동료들, 법회 때마다 만나서 함께 예불을 하는 법우들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같은 해를 바라보면서 일어나서 같은 달을 보면서 잠이 드는 사해동포(四海同胞)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빈부격차도, 지위고하도 따지지 않고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걸으신 길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것만이 광대무변(廣大無邊)한 부처님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것입니다."

운경 스님은 불자가 실천해야 할 최고 덕목으로 '자비행(慈悲行)'을 꼽았다.

"부처님께서는 전염병이 창궐하는 베살리를 직접 방문해 구호활동을 전개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베살리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우선 제자들과 함께 발우에 물을 담아와 뿌리면서 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삼보에 귀의하라고 설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재난 구제에 나선 지 7일이 지나자 베살리에는 전염병이 사라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 가뭄도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야말로 불자들이 실천해야 할 덕목입니다. 여래란 진리의 세계에서 왔다는 의미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한걸음씩 여래에 가까이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운경 스님의 말을 듣고 나니 "어떤 사람이 무엇이 온갖 선행의 근본이냐고 묻거든 자비심이라고 대답해라. 자비심은 진실해서 헛되지 않고, 선한 일은 진실한 생각에서 일어난다. 신실한 생각이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이 곧 여래"라는 〈열반경(涅槃經)〉의 구절이 떠올랐다.

운경 스님은 이어 한국불교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초발심을 가질 것"을 역설하면서 남허 스님을 모시고 태고종의 기틀을 다졌던 과정을 회고했다.

불교 분규 끝에 태고문손은 한국불교태고종을 정부에 등록했다. 태고종 창립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터라 남허 스님은 종단이 향후 과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 남허 스님은 도별 종무원 산하에 시·군·구 분원을 조직했고, 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불교중흥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중흥기원대법회'에는 무려 2만여 명이 참석해 장충체육관 안팎이 인산인해(人山人海)를 이뤘다. 남허 스님은 "불자들은 최상종승(最上宗乘)을 참수(參修)하여 도생(度生)하고 성불(成佛)함을 목표로 삼고, 원융통화(圓融統和)의 종풍을 계승하여 선(禪), 교(敎), 주력(呪力), 예참(禮懺) 등 각자 근기에 맞도록 정진하며, 자(自)보다는 타(他)를 위하여 불국(佛國)을 이룩하자"고 역설했다. 불교중흥기원대법회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은 태고종은 1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수륙재를 봉행한 데 이어 보살계, 구족계, 유발 합동득도식을 차례대로 봉행했다.

"초발심을 잃지 않으셨던 남허 스님이 계셨기에 태고종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남허 스님이 걸으셨던 길을 따른다면 한국불교계의 미래도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B2면에 계속

지상백고좌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대종사

"만나는 모든 이가 부처, 공경하고 공경하라"

B1면에 이어

부처님은 먼 곳에서 계시지 않아
누구나 佛性 지녔으니 모두 부처
佛法대로 따르는 게 佛恩 갚는 일

운경 스님은 남허 스님을 '행정능력과 교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선적(禪的) 혜안을 지닌 선지식(善知識)'으로 평가했다. 실제, 남허 스님은 문병을 가서 의식이 없는 정암 스님에게 큰소리로 '놓치지 말라'고 할(喝)을 했고, 그 소리를 듣고서 정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필자는 운경 스님이 동안거 해제법어에서 "나는 현현(玄玄)한 무아(無我)이면서 동시에 역역(歷歷)한 진아(眞我)"라고 설하신 의미에 대해 물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도자(求道者)는 '삼계는 오직 마음이며, 삼라만상은 한 개 마음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달마 대사는 '삼계가 혼돈 속에서 일어났으나 본체에서 보면 모두 일심(一心)으로 귀결된다. 과거의 부처님과 미래의 진리를 깨달은 부처님들은 마음으로써 깨달은 그 마음을 전할 뿐 말이나 문자를 빌리지 않는다고 설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서 한 사람이 '문자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으로 전합니까'라고 물었고, 달마 대사는 '지금 그대가 묻는 것이 바로 그대의 마음이다. 그대의 질문을 받고서 내가 대답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만약 그대에게서 마음이 없다면 무엇에 근거해 나에게 질문하는 것을 알 것이며 내게 마음이 없다면 무엇에 근거해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을 알 것인가? 오랜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시공간이 모두 그대의 근본 마음이니 이것이 바로 그대의 근본 부처이다. 청정한 마음이 곧 부처(即心是佛)이니, 이 마음을 떠나서는 부처를 얻을 수 없고 이 마음을 떠나서 보리와 열반을 찾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달마 대사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 청정한 마음이 곧 보리이고 열반인 것입니다. 마조 선사가 '마음이 곧 부처님'이라고 설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운경 스님은 이어서 '본원청정심(本源淸淨心)'을 설명하면서 물을 예를 들었다.



3월 30일 서울 서대문 백련사에서 봉행된 종정 추대법회에서 운경 대종사가 추대 법어를 설하고 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되고 증발하면 수증기가 된다. 고정적 본질이 없지만 고체도 되고, 액체도 되고, 기체도 되는 것이다. 이처럼 본원청정심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는 게 운경 스님의 설명이다.

"'암환주인(巖喚主人)'이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서암(瑞巖) 사언(師彦) 화상은 매일같이 자신을 '주인공'하고 부른 뒤 '예'하고 자문자답했습니다. 이런 자문자답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자기암시를 걸었던 것입니다. 구도자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이전의 식신(識神)이 본래 자기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구도자라면 자신의 본성(本性)을 살피는 주인공을 알아야 합니다."

인터뷰 말미에 운경 스님은 〈열반경(涅槃經)〉에 실려 있는 '공덕천과 흑암녀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불자들에게 덕담을 전했다.

"공덕천은 복덕(福德)을 주는 여자이고, 흑암녀는 복덕을 없애는 여자입니다. 이 자매가 찾아와 함께 살기를 청하자 부유한 사람은 거절한 반면 가난한 사람은 승낙했습니다. 공덕천과 흑암녀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구별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가르침일까요? 그렇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받아들인 가난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공덕천과 흑암녀 이야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공덕천이 주는 행복이 흑암녀가 불행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공덕천으로 인해 아무리 권세를 누리며 잘 산다고 해도, 나중에는 흑암녀로 인해 늙어서 병들어 죽게 되고, 공덕천으로 인해 천상에 태어난다고, 나중에는 흑암녀로 인해 육도윤회를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공덕천과 흑암녀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행복과 불행은, 순경계와 역경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운경 스님은 백련사 경내까지 나와서 필자 일행을 배웅했다. 필자가 "백련사가 왜 서방정토 도량이냐"는 우문을 던지자 이번에도 운경 스님은 현답을 내놓았다. 운경 스님은 먼저 '정찰'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정찰(淨刹)'은 '청정한 세계의 사찰'을 일컫는다. 그러다 보니 '생어정찰(生於淨刹) 유심정토(唯心淨土) 후생극락(後生極樂)'에 대한 뜻풀이도 제 각각이다. 혹자는 "살아서 정토에 간다"고 주장한다. '생어정찰'의 뜻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현세에서 복락을 누리자는 현실론자들의 주장이다. 다른 혹자는 "마음에 정토"라고 말한다. '유심정토'의 뜻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혹자는 "죽어서 정토에 간다"고 한다. '후생극락'의 뜻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운경 스님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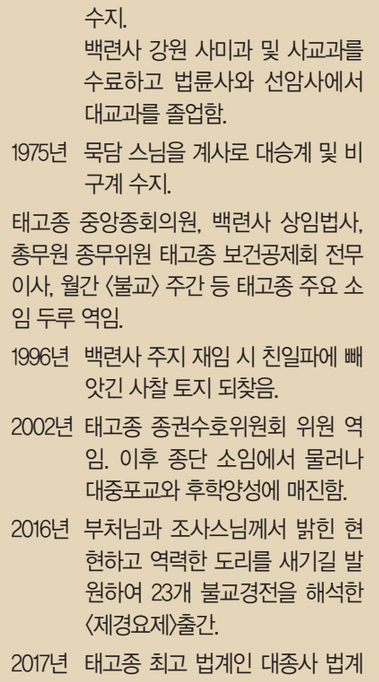
"사견(私見)이지만 세 견해 모두 틀리지 않습니다. 세 견해는 종적으로 횡적으로 하나로 연결돼 있습니다. 살아서 정토에 간다는 견해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습니다. 인생은 고해(苦海)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生), 노(老), 병(病), 사(死),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오성음고(五盛陰苦) 등 팔고(八苦)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괴로움이 끝이 없는 이 세상을 어떻게 정토로 구현하겠습니까?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정토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팔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효대사의 일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는 지난밤 마신 물이 해골 속에 담긴 물임을 알고서 '마음이 일어나므로 갖가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해골에 담긴 물은 애초 더럽거나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더럽다고 생각하면 더러운 것이 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깨끗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불자라면 마땅히 원효 대사의 화쟁(和諍) 정신에 입각해 〈육화경(六和敬)〉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으로 화합해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身和同住)
입으로는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口和無諍)
생각을 함께 하여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意和無違)
계율을 다 같이 지켜야 합니다.(戒和同遵)
견해를 다 같이 해야 합니다.(見和同解)
이익을 균등해야 나눠야 합니다.(利和同均)

운경 스님의 말을 듣고 나니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부처님의 집이 아닐까 싶었다. 백련사를 빠져나오는 길, 필자는 〈화엄경〉 '탐현기(探玄記)'에 기술된 연꽃의 네 가지 덕이 떠올랐다. 연꽃은 향기롭고 고결하고 맑고 청정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더러운 곳에 있어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씨앗이 진흙에 떨어진 뒤에는 썩지 않고 인고(忍苦)의 세월을 보내다가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다시 피어나는 연꽃들. '불법(佛法)의 인연을 만나 주객(主客)이 따로 없기에' 연꽃들은 '어제가 다시 돌아오고 내일이 이미 지나갔어도 침식의 나날 중 일어나 앉아서 살포시 웃는 것이리라.'

유응오 /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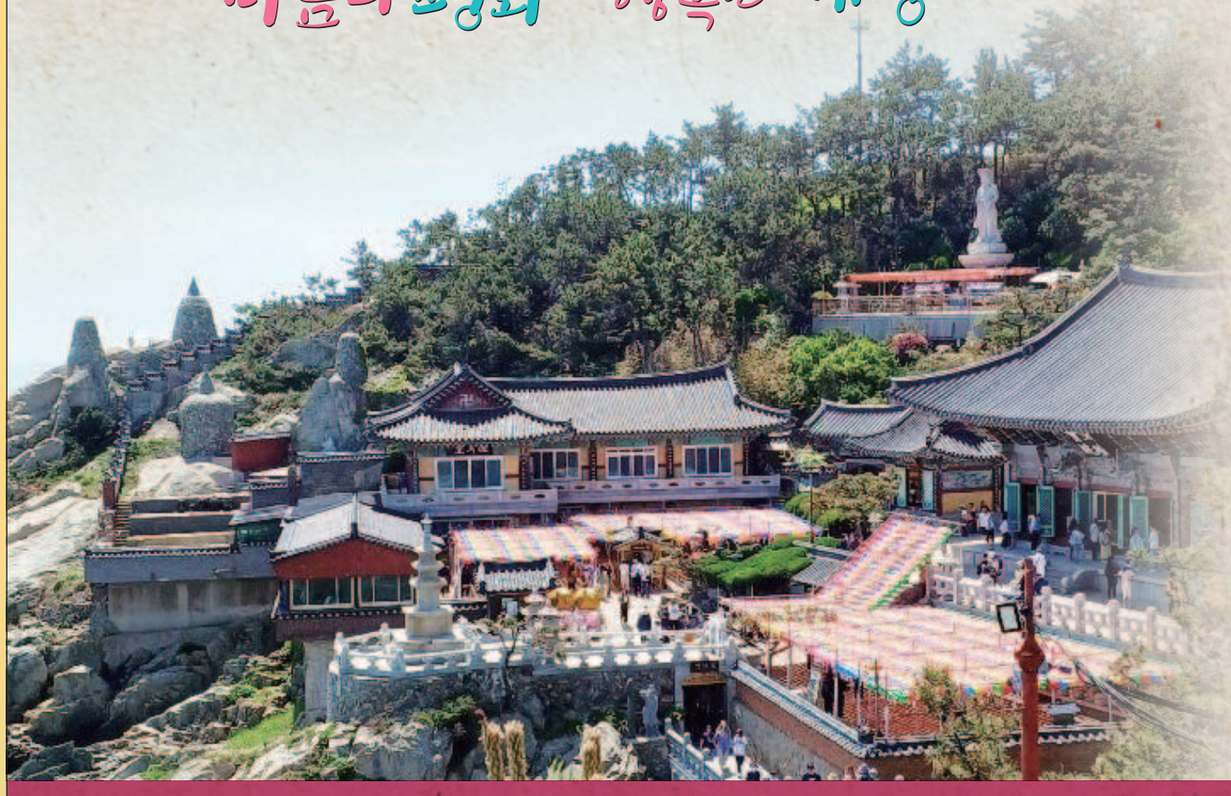
태고종 종정예하 운경 대종사는

1943년 일본 혼슈 야마구치현 출생.
1959년 서울 백련사에서 설호 스님을 은사로, 금봉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백련사 강원 사미과 및 사교과를 수료하고 법륜사와 선암사에서 대교과를 졸업함.
1975년 묵담 스님을 계사로 대승계 및 비구계 수지.
태고종 중앙종회의원, 백련사 상임법사, 총무원 종무위원 태고종 보건공제회 전무이사, 월간 〈불교〉 주간 등 태고종 주요 소임 두루 역임.
1996년 백련사 주지 재임 시 친일파에 빼앗긴 사찰 토지 되찾음.
2002년 태고종 종권수호위원회 위원 역임. 이후 종단 소임에서 물러나 대중포교와 후학양성에 매진함.
2016년 부처님과 조사스님께서 밝힌 현현하고 역력한 도리를 새기길 발원하여 23개 불교경전을 해석한 〈제경요제〉출간.
2017년 태고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받고, 2018년 태고종 원로회 원로의원으로 위촉
2023년 태고종 제21세 종정에 추대됨.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말사

해수관음 기도도량

해동용궁사

주 지 덕림 합장
사부대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용궁길 86 전화 051)-722-7744 www.yongkungsa.or.kr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世界一花 신뇨엔 자비의 등불을 세계의 바다로



眞如苑 신뇨엔
▶ 해외정사 및 포교소 : 20개국 42개
▶ 한국정사 : 서울·부산·제주·창원
▶ 집회소 : 51개국 930여개
▶ e-mail : shinnyoen@hanmail.net
▶ 서울정사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46 TEL (02)719-6998
▶ 부산정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47 TEL (051)892-6998



불교의 우주관을 세계건축명장의 초현대적 감성으로 구현한 새로운 패러다임, 새시대 새로운 한국불교를 선도할 **"뷰;ㅁ비전센터"** 창건 공덕주를 모십니다.

번뇌 망상을 비우고 비워서 불성을 찾아가는 의미를 담은 붓다로드에 **자화상**의 도예원불(108만원) 동참으로 창건 불사 공덕주가 되십시오.
'불자 여러분들의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원 불 108만원

계좌번호 |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 의

010-5514-1002 (오오!일사천리)

거제도 뷰;ㅁ비전센터 평천 범혜 합장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천년고찰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산 장안사

주 지 도 림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사부대중일동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0994 / FAX 051)583-0991
▷서울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대한불교조계종 천육백년 전통사찰 나한기도 영험도량

부산 최초의사찰
금련산 마하사

거사회 관음회
천수회 청림회
합창단

사부대중 일동



재단법인 부산동명불원 東明佛院

원 장 인월 원순
이사장 김경조
상임이사 박희채

이 사 김성규 이인수 안수근 감 사 황주환 강다은
강석진 이재동 조성두 신도회장 성재곤
정종원 이희태 홍철우 부 회 장 이원옥 이상수
이욱태 심재민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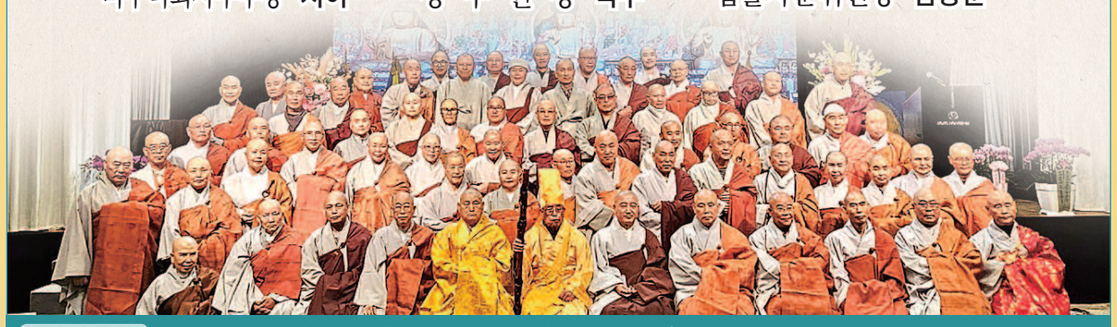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사단법인 한국불교선교종

종 정 경보 혜만 총무원장 대풍 범각

원로원장 법우	중앙교육원장 도현	총무부장 성우
원로회의의장 성도	중앙포교원장 법안	교무부장 덕광
승정원장 도신	국제포교원장 도청	사회부장 덕법
사정원장 도경	불교문화원장 덕운	호법부장 도형
중앙종의회의장 도정	불교예술원장 월수	포교부장 청명
비구니회장 대연	중앙염불원장 해진	상임감찰 무현, 향원
비구니회부회장 송하	염불교육원장 정문	총무국장 향법
비구니회부회장 수현	중앙연수원장 원각	사무국장 김성한
비구니회사무부장 지아	정수원장 덕우	중앙정책위원장 마병진
		법률자문위원장 김광준



중앙총무원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산내용전4길 29-67 대표전화 : 055)352-3104
부산총무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선프라자 417호 대표전화 : 051)892-5000/Fax : 051)462-6652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200만 부산불자를 대표하는 실천하는 수행공동체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신도회

회장 이윤희 외 회원 일동

주소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양정동) 불교회관 400호
전화 051)867-0501



네 불성이 본불이니 마음을 통하여 닦아 이룰지니라

황매산법연사 055.932.8811
경남 합천군 가회면 황매산 공원길 62-1

부산본원 연정사 051.868.7734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로 50

서울1교구 무량사 02.3462.3337
서울2교구 미묘사 02.2619.7733
강원교구 덕수사 033.256.2480
경기교구 정수사 031.213.1935
충청교구 계룡사 042.486.9971

경북교구 대덕사 054.452.8166
대구교구 법황사 053.253.7733
부산2교구 법륜사 051.203.8833
경남교구 김해사 055.326.7050
호남교구 연성사 062.223.0351

대한불교법연종

한국불교태고종

동래 읍성 마안산 자비암

부산유형문화재 151 육경합부
부산유형문화재 152 선림보훈

주지 청암 자관
총무 정웅



부산 동래구 복천로 5번 가길 46 전화 051)552-332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은 한마음의 도리를 이르신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로 전하는 음성 포교단입니다.
음성공양을 통하여 스스로를 닦고 밝히며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생활 선법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단장 010-6223-4375
거사합창단 단장 010-3860-4258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문화가 시작되는 곳
복합문화공간, 피아크

PARK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195번길 180 051-404-9200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회 주 명 성
주 지 진 성

운문사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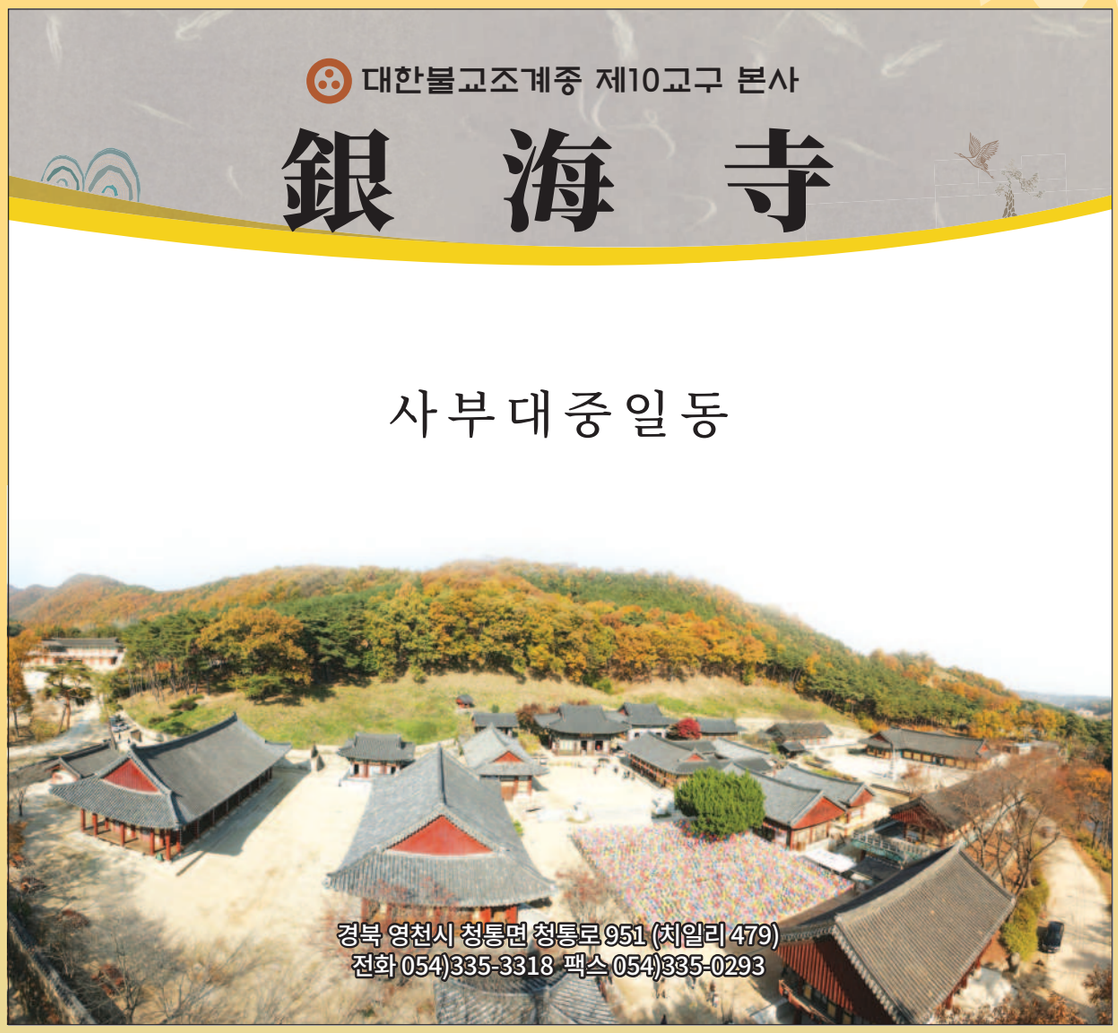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전화 054)372-8800 사리암 054-372-8811 www.unmu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 海 寺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치일리 479)
전화 054)335-3318 팩스 054)335-0293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지사

직지사문장 황산 혜창
직지사회주 신산 법성
직지사승려복지 회장 웅산 법등
직지사승가운영위원장 종화 도진
직지사천불선원장 의성
직지사주지 장명

사부대중일동



주소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전화 054)429-1700~3, 429-1713~15 팩스 054)436-3174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갓바위 선 본 사

한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갓바위 부처님!!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699 전화 053)851-1868, 853-9877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모두를 자기와 같이 본다면 그 마음의 향기 에너지가 상대까지 밝아지게 한다.
– 대행 선사 법어 –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정 법 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종도를 모집합니다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전화 054)974-2605 팩스 054)974-2705

PetCare & 불교

프롤로그-포교영역으로 들어온 펫케어 PetCare

반려동물 천만시대 도래 이젠 '펫케어'에 주목하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Phase 1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이지만, 한반도에는 원래 고양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주로 삵과 같은 육식 들고양이가 주류였다고. 지금의 '코리아숏헤어', 일명 '코숏'이라 부르는 한국 길고양이들은 언제 한반도로 왔을까.

한반도에 고양이들이 유입된 것은 불교의 전래와도 관련 있습니다. 귀중한 불교 경전을 육로와 해로를 통해 가져오는 과정에서 경전을 쥐들이 갉아먹는 것을 막아야 했고, 이를 위해 고양이를 경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불경(佛經)과 함께 한반도로 온 고양이도 그렇지만, 현대의 불교 사찰에서도 강아지, 고양이들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각종 동물예능프로그램에서 사찰 명물 댕댕이(강아지), 냥이(고양이)들의 이야기들이 다뤄지고 있으니까요. 그뿐일까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주석하는 통도사 서운암에는 여러 마리의 공작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통도사를 거니는 공작에 대한 사진과 글들이 확인됩니다.

6년간 고양이와의 동거를 통해 얻은 사유로 송광사 보경 스님은 〈고양이를 읽는 시간〉 〈어느 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고양이가 주는 행복, 기쁘게 유쾌하게〉 연작 에세이를 집필해 많은 울림을 독자들에게 전했습니다.

Phase 2 최근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또한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고 있죠. 애완동물(Pet)과 인간화(Humanization)가 합쳐진 '펫휴머니제이션'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난 만큼 이미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3년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70만가구, 전체의 31.3%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따지면 1262만명에 달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유로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국내 펫케어 시장은 2023년 기준 3조2500억원대로 조사됐고,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국 670만여 가구가 '펫팸족'
펫케어 시장 3조원 규모 성장
불교 '동물천도' 요구 확대 중
반려동물 가구, 포교적 검토를

Phase 3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입니다. '펫로스 증후군'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뒤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인데, 이는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들은 '펫로스 증후군'이 6개월 이상 지속될 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찰에 반려인들이 '동물 천도'를 문의·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하지만, 사람과 동물이 함께 천도재를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신도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천 팔공산 천룡정사(주지 지덕 스님)처럼 경내에 '축생 법당'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천도재를 봉행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Phase 4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반려인 가구는 새로운 포교 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독신가구부터 3인 이상 가족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계층이죠. '펫케어' 분야는 동물 천도뿐 아니라 템플스테이 같이 사찰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불교의 문턱을 낮추고 포교로 확장시킬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미 '펫케어 포교'를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부산 홍법사의 경우 반려견 템플스테이를 시작했고,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은 통영시와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를 2021년 개장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숨탄것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진 불교는 '펫케어'라는 트렌드에 적지 않게 부합합니다. '펫케어'라는 트렌드를 포교의 영역에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이제부터라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사)대한불교법화종·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청암도선 대종사

원로원
의장 보명 (의원 일동)

총무원
원장 관효 (총무원임원 일동)

중앙종의회
의장 서안 (의원 일동)

전국교구종무원장
부산교구종무원장 법경
경북교구종무원장 해월
강원교구종무원장 승일
충북교구종무원장 지성
전라교구종무원장 정각
마산교구종무원장 현진
경주교구종무원장 혜문
김창교구종무원장 송열
창녕교구종무원장 법상

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92번길 17(성남동) 전화 02)762-2678 팩스 042)627-5044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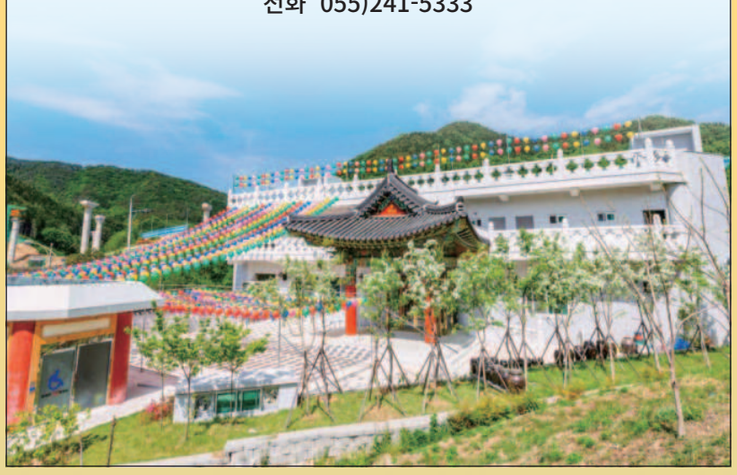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봉원사

주지 지태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마산합포구 현동305
전화 055)241-5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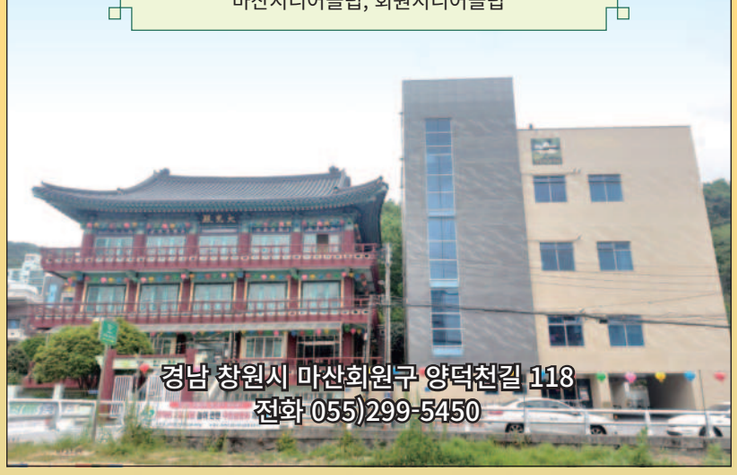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정인사

주지 원행스님

함께하는마음 즐거운세상
사회복지법인 금강
금강어린이집, 정인사불교대학,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문화센터(금강노인종합복지본관),
경상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경남학대피해노인쉼터)
마산시니어클럽, 회원시니어클럽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창포교당 구룡사

주지 무성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56번길 31-1(소답동 909)
전화 055)294-3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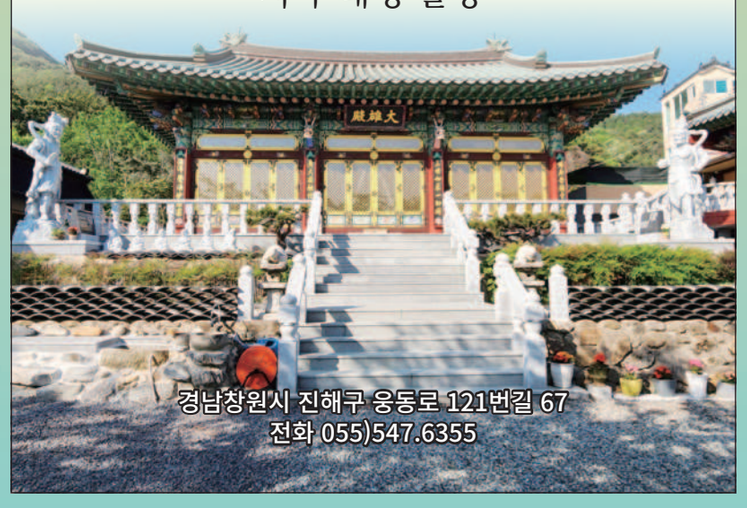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주지 보문 지암

사 무 장 공덕행 정토회장 자현선
관음회장 보광명 관음총무 대명지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은하사

조실 서림 대성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울산 정지심인당

주교 정일정사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83번길 33
052-271-5212

한국불교태고종

불감 정관암

주지 대활

사부대중일동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발길118(하작마을)
010-4517-0097

사단법인

울산광역시불교신도회

회장 이 영 수

회원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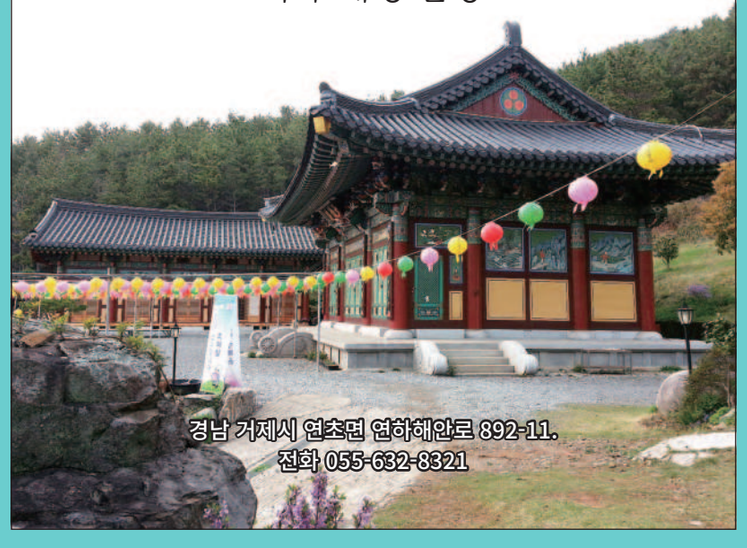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20번길 1
(농민빌딩 4층)
T. 052)271-1310
F. 052)258-1370

대한불교조계종

거제 해인정사

주지 자원스님

사부대중일동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는 견주와 반려견들이 대행 선사 법어 현수막 앞에서 촬영에 임하고 있다.



놀이터를 찾은 견주와 반려견들이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다.

"우린 사찰 놀이터서 맘껏 뛰어논다개~"

펫케어 PetCare 포교현장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반려동물 놀이터'

통영=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에는 다른 사찰들과는 차별화된 공공시설이 있다. 바로 '반려동물 놀이터'다. 지난 4월 27일 통영지원을 찾았을 때에도 상당수의 견주와 반려견들이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입구에서 만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은 이 정도의 수는 평소보다 적은 것이라고 했다.

"요즘에는 송화가루가 많이 날릴 시기라 견주와 반려견들이 사찰 놀이터에 많이 오지는 않아요. 잘못하면 아이(반려견)들이 눈병이나 피부병 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리를 옮겨 혜연 스님에게 사찰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하게 된 사연을 들었다. 스님에 따르면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은 민선 7기 강석주 전 통영시장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를 알게 된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이 10년 동안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키로 했다.

부지 문제가 해결되자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통영시는 통영지원 부지에 2020년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갔으며, 2021년 4월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부지 2000㎡에, 중·소형견(846㎡)과 대형견(902㎡)을 구분하는 시설이 조성됐다. 견종의 크기를 나눈 것은 혹시 있을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놀이터에는 관리실(24㎡)과 음수대 놀이기구, 소변기, 목줄거치대 등의 부대 편의시설을 함께 갖췄다.

이용요금은 무료고, 이용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월요일에만 휴장한다. 동절기나 우천으로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도 개장하지 않는다. 놀이터는 통영시에 등록절차를 거친 반려동물만 가능하며, 견주는 반드시 항상 반려견 옆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이 사찰 공간을 무상 제공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한 것은 모두 '포교' 때문이다.

혜연 스님은 "한마음선원은 무엇보다 '전법 포교'를 중요시 한다. 이를 고민하던 중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이 추진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술회했다.

이어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하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며 "주말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온다. 평일에는 일반 애견유치원, 애견 호텔의 반려견들이 놀이터를 많이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수행에 방해되지 않냐"는 질문에 혜연 스님은 "개장하고 코로나 팬데믹이 왔는데, 강아지들 짖는 소리도 반가웠다"고 환하게 웃어보였다.



통영지원 반려동물 놀이터 전경.

2021년 4월 협약 · 개장식 개최
사찰 토지 통영시에 무상 임대
市 시설 투자 및 운영 책임져
전국 견주들 몰려 주말엔 북적
온 김에 사찰 참배…포교 도움
"사찰 문턱 낮춰주는 효과 있어"

안내를 따라 다시 찾은 반려동물 놀이터에는 앞선 시간대보다 더 많은 견주와 반려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놀이터 곳곳에 대행 선사의 법어가 담긴 현수막들도 인상 깊었다. 짖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반려견들은 마음대로 짖으며 놀이터 이곳저곳을 뛰어다녔다. 목줄 없이, 입마개 없이 뛰어노는 반려견들도, 이를 지켜보는 견주들도 행복해 보였다. 통영에서 반려동물호텔 '댕다방'을 운영하는 김민우(37) 대표는 반려견 사모에트 '마늘'을 데리고 이날 놀이터를 찾았다.

김민우 대표는 "2년 전부터 마늘이를 데리고 주말에 와서 시간을 보낸다. 통영에는 이정도 규모의 놀이터가 한마음선원 통영지원밖에 없다"면서 "썰매견이다보니 활동성이 좋은데, 이곳에서 뛰어놀면 마늘이도 행복해 하는 것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어린이법회 자모회장 서지선(44) 씨는 반려견 '오월(크림푸들)'을 데리고 놀이터를 자주 찾는다. 서지선 자모회장은 "소형견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에서 키우는 경우 많다. 그러다보니 목줄을 항상 하고 다니고, 짖는 것도 못하게 제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 모두가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라며 "선원의 놀이터에서는 목줄을 안하고 짖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반려견들에게는 힐링의 공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찰 토지를 무상 제공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할 수 있게 한 통영지원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반려견주들께서는 놀이터가 청결하게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반려견의 배변을 수거해 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임태걸(34), 김아라(33) 씨 부부는 아들 임로운(2), 반려견 오뎅·볶음(보더콜리 믹스)과 함께 놀이터를 찾았다. 임태걸 씨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사찰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다고 해서 알게 됐다"면서 "애견 카페에 가도 실내라서 행동에 제약이 많다. 통영지원의 놀이터는 실외라 자유롭게 뛰놀 수 있고, 다른 반려견들과 친해지며 사교성도 길러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마산 삼학사 등 사찰에 자주 참배하러 간다"면서 "사찰에 가족과 반려견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놀이터에서 만난 젤리·테리(비숑)의 견주 채선임(50) 씨는 교회에 다니는 개신교인이었다. 이날도 주일예배를 마치고 놀이터를 찾은 듯 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이에 채 씨는 "별 다른 거부감이 들지 않다"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견주 입장에서는 목줄 없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다. 또한 이곳 놀이터는 서로 생활, 교육 등 여러 정보들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의 반려동물 놀이터는 견주와 반려견의 힐링 공간이자 지역민의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은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하고 나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람들이 사찰을 꾸준히 찾아오게 됐다는 점이다. 지원 신도 역시 꾸준히 증가 추세"라며 "사찰을 찾아 반려견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기억만으로도 불교와 사찰이라는 문턱을 낮출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한마음선원만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찰을 홍보하는 것과 같다. 이곳에서 쌓였던 좋은 기억들로 인해 다시 사찰을 찾게 됐을 때, 친숙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습득

원로의장 석원 혜륜
총무원장 백타 법수
부원장 운비 도안
부원장 삼하 무착
행정부원장 혜안 선조
승가종 총본산주지 법비 선견

전 종도 일동 합장

총본산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만수산 승가사 총무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곡로 15번길 5(서래암) 전화 051)552-8554, 556-0278~9 팩스 556-8551 seunggajong.co.kr



영천 천룡정사 축생법당에서 주지 지덕 스님이 그동안 49재를 지낸 100여 마리의 반려동물들을 소개하며 왕생극락을 발원하고 있다. 반려동물 사진아래 영단에는 다양한 동물 사료와 채소 등이 올려져 있다.



천룡정사 주지 지덕 스님은 2019년 5월, 전국 최초로 동물 천도를 위한 '축생법당'을 조성했다.


축생법당 탱화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그려져 있다. 동물들은 애교스러운 자태로 표현돼 친근감을 준다.


법당 천장에는 무지개다리를 건넌 반려동물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영가등이 빼곡하다.

반려인 상실감 '마음케어'…반려동물 '왕생 기원'

펫케어 PetCare 포교현장

반려동물 49재 봉행하는 영천 천룡정사

영천=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우리 OO이가 조금 전 무지개다리를 건넜어요. 49재 어떻게 하는 거죠 스님?"

새벽 2시 반, 고요한 산사의 정적을 깬 전화기 너머로 한 여성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막 세상을 떠난 반려묘가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에 시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작정 전화부터 한 것. 스님은 반려동물 49재 절차를 차분히 설명했다. 전화기 너머 여성이 현재 겪고 있을 상실의 큰 슬픔을 다독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전국 최초 반려동물 위한 '축생법당'

반려동물의 죽음을 알리는 새벽 전화는 경북 영천 천룡정사 주지 지덕 스님에게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천룡정사에는 전국 어디에도 없는 법당이 있기 때문. 생을 마감한 반려동물의 명복을 비는 법당, 바로 '축생법당'이다. '축생법당' 내외부는 여느 법당과 다르지 않다. 전통 전각 양식의 법당에 들어가 보면 누군가의 명복을 비는 촛불과 위패, 불 밝혀진 영가등, 한쪽 벽면을 채운 탱화가 있다. 이곳이 '축생법당' 임을 단숨에 알아챌 수 있는 것은 영정 사진에 있다. 사람이 아닌 개와 고양이 등 동물들 사진이다. 사진 밑 영단에는 다양한 동물 사료와 채소들이 올려져 있다.

천룡정사 주지 지덕 스님은 2019년 5월, 전국 최초로 경내에 '축생법당'을 조성했다. 주인 곁을 떠난 반려동물의 명복을 전문으로 비는 이 법당에서 지난 5년간 49재를 지낸 동물들이 100여 마리에 달한다. 지덕 스님은 "기존 법당에서 반려동물 천도재를 지내니 거부반응을 보이는 신도가 더러 있어 어려운 살림을 쪼개 '축생법당'을 마련했다"면서 "반려동물 천도재를 통해 일체의 생명은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사람과 같은 절차…2시간 내내 울음바다

'축생법당'에서의 반려동물 49재는 사람의 49재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영혼을 불러내 영단에 모시는 시련(侍輦)에 이어 영가에게 앞으로 진행할 일을 부처님 법에 따라 올바르고 경건하게 치르겠다고 약속하는 대령(對靈)이 진행된다. 영가를 목욕시키며 업장을 씻겨주는 관욕(灌浴) 후 영가와 불보살에게 공양을 올린다. 영혼이 음식을 먹으면 명복을 빌어주고 위패를 모신 영단에 세 번 절한다. 49재에 함께한 반려인들과 발원문도 낭송한다. 발원문에는 금생의 인연에 감사함을 표하고 내생에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모든 의식이 끝나면 반려동물이 사용했던 다양한 물품을 용선에 실어 불태운다. 모든 의식은 2시간쯤 소요된다.

지덕 스님은 "의식 내내 이어지는 울음소리도 사람의 49재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같고 다음 세상에 더 좋은 세상에서 태어나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도 매한가지라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 "사랑하는 이 잃은 슬픈 마음 읽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다양한 사연에 뭉클…'마음케어' 돕는 법문도

지덕 스님은 지난 5년간 다양한 사연을 접했다고 말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한 가족은 왕복 8시간이 걸림에도 7주 동안 모든 재에 참석했다. 오직 하나, 반려견의 왕생극락을 위해서다. 16년을 함께한 반려견을 잃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49재를 알고 찾아온 학생도 있었다.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다. 젊은 시절 사냥했던 노루가 마음에 걸려 뒤늦게 법당을 찾은 70대 노인, 마을에 번진 전염병으로 소를 살처분하고 다녀간 축사 주인,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살다가 경찰견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며 찾은 경찰도 있다.

지덕 스님은 반려동물을 잃고 상실감(펫 로스 증후군)에 빠진 반려인들이 49재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법문에 신경을 쓴다. 한마디로 '마음케어' 시간이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인연법에 대해 차분히 설명한다. 다양한 사연에 성심껏 귀 기울여 주는 것에 이어 반려동물이 육도윤회를 벗고 천상환생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돕는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잃은 이들에게는 위로가 절실합니다. 세상 이치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낼 수 있도록 마음 청소를 많이 하라고 조언합니다. 둥글게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발원하는 것은 덤이죠."

사찰이 상처 치유 안식처되길

반려인 1500만명 시대, 지덕 스님은 불교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가 강조했다. 반려동물도 불성을 지니고 윤회하는 중생으로 본다면 '축생법당' 같은 법당을 따로 짓지 않더라도 반려동물을 기리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잃은 이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목탁치고 염불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 해줘야죠. 아픔은 제각기 다르기에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덕 스님은 "시대가 변한 만큼, 불교도 변화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펫 로스 증후군 치유 프로그램과 템플스테이 연계, 사찰 내 산책로 확보 등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불교계 역할은 이제 시대적 요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교계에서 독경하면 좋은 경전이나 불단에 올릴 음식 등 표준화된 반려동물 천도재 의식이나 의례에 대해 고민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49재는 포교의 한 방편

반려동물 49재가 포교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도 말한 지덕 스님은 "지금껏 천룡정사 반려동물 49재를 지낸 100여 명의 반려인 중 불자는 반수도 채 되지 않는다"면서 "많은 반려인들이 49재를 위해 사찰을 찾았다가 자연스럽게 불교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휴머니즘을 넘어 모든 생명이 중시돼야 한다는 불교의 이상을 실현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반려동물을 추모하는 문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며 "포교 외연 확장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대표이사 · 종정대행 석도선 종단고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위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체법, 석일두, 석혜천, 석보각, 석진공, 석일현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 교육원장 석동은 / 기획원장 석담허 / 종회의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 의전원장 석법도 / 어산장 석도암 /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보성
부원장 석대공 / 총무부장 석성덕 / 감찰부장 석성현 /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성보 / 사회부장 석자광 / 사서부장 석성우 /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성광 / 문화부장 석성원 / 포교부장 석보현 /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 지원국장 석해인 / 봉사국장 석성광 /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 포교국장 석성원 / 의전국장 석균중 / 수행국장 석성조
종무국장 석성안 / 문화국장 석원종 / 의식국장 석성타 / 사서국장 석성오

비구니회 부회장 석효성 / 부장 석지현 / 국장 석충효 / 비구니회장 석보성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 대전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성원 /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 제천중앙종무원장 석진공

법인 3단체 임원
대표이사 석도선 등기이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학산)(도명)(성원)(성안)
운영이사 성덕 일현 청암 혜천 의공 감사 성조 성민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족종교조계종
대표이사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장 학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임)
총무 대각심(김경숙)
임원 혜명심(박현숙)
임원 보덕심(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장 묘각(이재인)
부원장 혜정(이영숙)
국장 불심화(정형숙)
무용 무애심(박순애)
연출 원각심(도지연)

법사승단임원
울산원장 법광 / 포교국장 청운 / 구미부장 혜진
종무원장 성종 / 통영국장 덕인 / 부산부장 혜성
홍보원장 원명 / 화순국장 보정 / 경기부장 자운
포교국장 덕운 / 포교국장 혜경 / 전남부장 혜명
종무국장 도연 / 영천국장 원명 / 대구부장 혜련
서울국장 명덕 / 창원국장 혜운 / 충북부장 상학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전화 02)303-5612



홍법사는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반려견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사진은 참여 반려견과 견주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주지 심산 스님이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탕이'를 바라보며 웃고 있다.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혜원 스님이 모자를 씌워주고 있는 모습.



견주들이 잔디마당에서 염주를 만들기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사찰에 힐링하러 왔어요 멍멍!"

펫케어 PetCare 포교현장

부산 홍법사 반려견 템플스테이

5월 10~11일 경내 일원서 진행
200여 가구 신청…8가구 선정돼
장소 만든 사찰에 참가자들 감사
'생명 바르게 돌봄'도 불상생 실천
심산 스님 "펫케어도 포교 아이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템플스테이를 푸딩이랑 함께 할 수 있다니 직장생활로 지친 맘을 달랠 수 있는 기회인거 같아요. 반려견도 함께라면 힐링 그 잡채!"

"법당개 is 온 my 버킷리스트."

"엄마랑 템플스테이! 버킷리스트인데 너무 참여하고 싶어요. 칭구들~ 조은건 함께 하자개!"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가 주최하는 '반려견 템플스테이'의 서포터즈가 되기 위해 반려인들이 남긴 댓글들이다. 1박 2일 숙박형에 200여 명이 신청했고, 그 가운데 8팀이 선정됐다.

'부산사나이 탕이' '소금이' '뽀야' '정열' '순대' '복순이' '무무' '주노'. 홍법사 템플스테이 동참자 명단으로 이름을 올리고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홍법사를 찾은 반려견들이다. 사찰에서 힐링하기 위해 견주들과 함께 경내를 거니는 반려견들은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홍법사 잔디마당에서 걷고 달렸으며 편안하게 눕기도 했다. 사찰의 자연 속에서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반려견의 모습에 견주들도 함께 행복을 느꼈다.

홍법사는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경내 일원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반려견 템플스테이' 첫 시작을 알리는 이번 행사는 숙박형과 당일형으로 운영됐고, 반려견과 함께 쉼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았다.

강원도 원주에서 방문한 전한울(37) 씨는 "순대(강아지 이름)를 데리고 여행을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템플스테이를 체험해보고 싶었는데 강아지를 두고 1박을 혼자 다녀오기에는 쉽지 않아 아쉬워하고 있었다"며 "이곳 홍법사는 정말 넓고 곳곳에 나무와 식물, 꽃이 반기고 아름다운 도량이다. 강원도에 찾아온게 아쉽지 않을 정도로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주신 스님과 신도들의 결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허주연(27) 씨는 "주노와 갈려면 너무나 힘이 들고 정말 쉼이 필요했는데 갈 곳이 없어 아쉬웠다"며 "일상에 지쳐 힘들었지만 오늘 이곳 홍법사에서 힐링을 얻었다. 당일형은 촉박하게 느껴지고 스님과의 차담도 할 수 없는데 숙박형을 경험하며 여유를 얻은 느낌이다"고 말했다.

윤수정(34) 씨는 "반려견과 절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새롭고 시설과 프로그램도 기대가 많이 됐다"며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신 홍법사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당일형도 운영돼 5월 11일 8팀이 더 추가로 방문했다. 숙박형은 염주 만들기와 사찰음식 공양, 스님과의 차담, 반려견 동반 산책 등 힐링과 휴식형으로 진행됐다.

당일형 템플스테이는 '슬기로운 반려생활'을 주제로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현재 많은 반려인들이 있지만 제대로 된 반려견 문화가 부족하고, 애견의 특성을 감당하지 못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마련된 강연이다.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반려견 문화를 만들자는 것. 주지 심산 스님은 이번 강연을 기획한 이유를 '생명 바르게 돌보기'로 꼽았다.

"견주가 행복해야 반려견도 행복합니다. 견주의 사고가 바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면 반려견도 불행해질 겁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의 발달과정과 특징을 알고 지혜롭게 대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로 키우려고 개를 사고 또 쉽게 버리는 태도는 사라져야 할 겁니다."

심산 스님은 "생명 바르게 돌보는 것은 결국에는 불교의 불살생과도 맞닿는다"며 "불교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는 생명이 함께 살고 서로의 특징을 알아보살피는 마음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강연은 최동락 前 경상대 반려동물보건과 학과장이 담당했다. 최동락 교수는 강연을 통해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났지만 그에 비해 성숙한 반려견 문화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 김병석 교수(신라대)가 반려견의 기질을 파악하고 행동 패턴을 이해하도록 도왔고, 관련 법률 상식 강의와 맹견 기질 테스트도 진행했다. 아울러 미니운동게임과 반려견 훈습을 위한 즉문즉답 행동교정 체험을 진행해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추억을 쌓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번 반려견 동반 템플스테이는 반려견을 가족처럼 여기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찰 문턱을 낮춘 것이 의미가 크다. 현대인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지만, 정작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없는 상황에서 사찰에서 견주와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내어주며 불교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주지 심산 스님도 이번 반려견 템플스테이를 '현대적 상황에 발맞춘 새로운 포교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회향의 차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선도해 나가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돕는 것, 이것이 이 시대 불교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사찰에서 반려견과 함께 온 가족들을 편히 맞고 불교를 접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포교 방향입니다."

홍법사 반려견 템플스테이는 비바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펫브랜드 '멍콕'과 함께 한다. 앞으로 홍법사 반려견 템플스테이는 5월 중순부터 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받는다. 1인 혹은 2인 1견을 기본으로 진행하며 당일형은 반려견 전문 이해 교육이 진행된다. 숙박은 1박 2일로 진행되며 예약은 '멍콕사이트(www.mungkok.com)'에서 가능하다. 당일형은 토요일, 숙박형은 화·목·금·일요일 주 4일간 예약할 수 있다.

한승민 비바인사이트 대표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반려인구의 성숙과 함께 살기 좋은 부산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특화 콘텐츠를 마련 중이다. 많은 기업과 반려가족들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사단법인 세계불교교황청

대한불교전통조계종
World Buddhism Monarchy Corporation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본 세계불교교황청은 세계불교승가연합재단과 룸비니불교협의회와 유대를 하여 부처님탄생지 룸비니동산에서 팔만사천 연등불사와 룽따불사를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룸비니내 세계불교교황청 마하라니사찰에 약사여래좌상 삼천불 봉안불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매년 룸비니성지순례와 대만 국제공승재에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 세계불교교황청 네팔본부 룸비니 마하라니사찰

종정예하 석능인대승통
원로의장 성법
종회의장 무아
승정원장 원산
총무원장 운봉
사정원장 인연
교육원장 상호
포교원장 도법
문화원장 봉화

서울교구 곡담
경기교구 법륜
강원교구 견불
충청교구 청명
대전교구 경산
경북교구 여산
대구교구 법성
경남교구 혜현
울산교구 인연

부산교구 두현
총무부장 도연
재무부장 보리
교육부장 거불
포교부장 보우
사회부장 보경
호법부장 청명
국제부장 경산
규정부장 법성

종단단체가입 및 종도모집

사단법인 세계불교교황청 소속
국내 30개종단 외 해외교구 네팔 룸비니 마하라니사찰
룸비니불교협회 회장 반테비베카난다
세계불교승가재단 이사장 람샬

국내법인이사진
대표이사 석능인 상임이사 원산 총무이사 혜현
섭외이사 운봉 관리이사 청명
재무이사 대원 행정이사 백성훈

대위원 임명호 박성수 윤남수 이계순 진학분
최숙자 김성은 이고운 정우영 성난기
김창식 박재심 김미용 신다겸 정순열
정동길 박화심 박성순 오묘석 김형태
김병원 이상철 이정수 박행자 박점순

●총본찰 053)325-0400 팩스: 053)325-4848 ●세계불교교황청 053)321-5008 ●국제승가대학 053)325-0400 팩스 053)321-6008 ●총괄본부장 010-3944-0597
●홈페이지 www.monarchywbc.com ●이메일: buddhasangha@naver.com ●총본찰 각황사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 ●중앙본부 :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305. 3층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안스님**

사부대중일동

내가 했다는 것을 내려놓아야
가정도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 대행선사법어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26-12(천곡동)
전화 052)295-2335 팩스 052)295-2336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35
전화 055)342-6639, 345-9900 팩스 055)346-2179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연스님**

사부대중일동

만 가지 생각을 좋게 하면
만 가지로 좋게 생산이 되어 나온다.
- 대행선사법어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전화 055)643-0643 팩스 055)643-0642



열려있는 불법마당

(사)진주불교회관

이사장 **상전 홍수승**

가야불교대학
무료급식소 보현의집
법화경독송회
진 불 선 원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1117
전화 055) 747 - 0108

한국불교조계종

밀양 **삼봉사**

신도회일동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단장로379-8.
전화 055)356-0124 부산포교원 051)516-3000



대한불교조계종

산청 **덕산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 내원로256
전화 055)973-6799

한국불교태고종

창원 **관음사**

주 지 **황봉스님**

신도회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남 10길 53
전화 055-241-6050 팩스 055-243-3450



虎巖(호암)지성(知醒)스님께서
조계종 최고 법계 大宗師(대종사)
품서를 받게 되었음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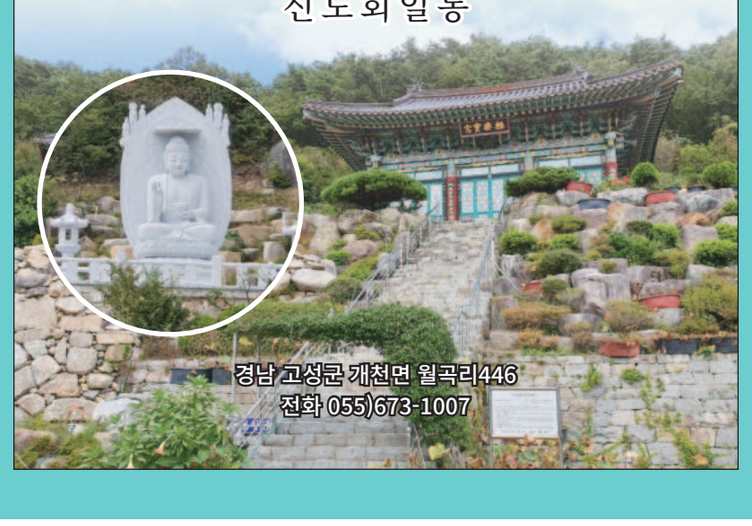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와불산 일출봉 약사여래도량

오도암 **적멸보궁**

회주 **호암 지성스님**

신도회일동



경남 고성군 개천면 월곡리446
전화 055)673-1007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장유전법도량

동 림 선 원

부설 : 동림불교대학·동림선림원
은암 선문화 아카데미

주지 **은암 신공**

사부대중일동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계곡길 168-14(대청동)
전화 055)325-4008 팩스 055)325-4009
www.dongrim.org



동물권 보호·학대방지…실천영역도 관심을

펫케어 PetCare 포교 제언



그림 · 김상규

'펫(pet)'은 '애완동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사람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애완동물은 개와 고양이가 일반적이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파충류부터 곤충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애완동물의 사육은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고, 거의 모든 문명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애완동물도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향도 생겨났다. '반려동물'이라는 개념은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움에서 동물행동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콘라드 로렌츠(Konrad Lorenz, 1903~1989)가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제안하였다.

이 심포지움에서 콘라드 로렌츠는 "인간이 반려동물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고 불안감, 스트레스, 맥박, 혈압 등에서 현저한 개선효과를 보였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반려동물의 체온이 사람보다 1~2도 높고, 털이 있기 때문에 안았을 때 따뜻하고 행복감과 즐거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후부터 애완동물은 반려동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각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 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증가, 고령인구와 미혼인구의 증가 등이 나타나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602만 가구, 전체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약 25.4%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육 인구수는 약 1300여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하나의 가족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서 반려동물이 죽으면 함께 슬퍼하며 우울증이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상실감 등을 경험하는 이른 바 '펫로스 증후군(pet loss syndrome)'이라는 새로운 정신적 장애도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을 못 이기고 자살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애완'서 '반려' 개념으로 변화해
반려동물 가구 증가, 세계적 추세
佛經 속 동물 우화들 비유적 교훈

〈대지도론〉 제12권에는 코끼리, 원숭이, 새 등이 누가 어른인지를 상의하였는데 코끼리가 등에 원숭이를 태우고, 원숭이 머리 위에 새가 앉아 숲속을 돌아다니면서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새와 짐승들을 감화시키는 비유적 설법이 소개되어 있다. 이 모습을 본 다른 새와 짐승들이 감화를 받아 모두가 예절을 지키고 민가의 밭을 침범하거나 다른 동물들의 목숨을 해치지 않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물들이 선행을 닦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새와 짐승들조차 어질어지고 있음은 세상이 태평해지려고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코끼리, 원숭이, 새 등이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받아서 예의와 공경을 다하게 되었다고 설하면서 이 동물들이 바로 법신 보살이라고 하였다.

이 비유적 설법에서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동물들의 행동을 통해 예의와 공경을 배울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는 보살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애완동물보다는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려동물에 가까운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요경〉 제23권에서는 선정에 들어 그 뜻을 얻는 것은 "마치 알을 깨고 나오는 동물이 그 껍질을 버리고 거기에서 몸이 나오는 것"과 같다고 설하고 있다. 이 가르침은 선정을 통해 훈습된 행을 버리고 번뇌 없는 행으로 나아가는 것은 "마치 알이 그 막을 깨뜨리는 것 같다"라고 비유로 설한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수행자들이 동물의 행을 관찰함으로써 선정과 지혜를 체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오계의 불살생계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함으로써 불교에서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 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한 행동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자비심의 실천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나 고통을 당하는 동물들에 대해 배려하고 섭수하는 것은 불교적 관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받아들여진다.

강릉 만월산 현덕사(주지 현종 스님)에서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약 25년 동안 동식물 천도재를 봉행해 왔다. 이 절에서는 어느 약사의 요청으로 실험용으로 희생된 쥐를 위한 천도재를 지내기도 했고, 각종 질병으로 살처분 된 가축들을 위한 천도재, 야생동물들을 위한 천도재 등을 지내기도 했다. 천도재를 지내는 이유에 대해 주지 현종 스님은 "모든 사람이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에는 영천 천룡정사에서는 축생법당을 건립하고 동물 천도재를 봉행하기도 하였고,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개장했고, 부산 홍법사에서는 반려동물 템플스테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많은 사찰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재의식을 봉행함으로써 불교계에서는 발 빠르게 반려동물 양육인구 1300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펫로스' 고통 치유, 불교가 나서야
동물천도 관련 가이드 라인 마련을
동물권 보호 불교헌장 제정 어떨까

그렇지만 반려동물 천도재 및 관련 활동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되나 종단의 종법적 근거나 행동지침 없이 각 사찰이나 스님들이 임의로 수용하고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불교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논란이나 시비곡직에 휘말릴 경우 이를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각 사찰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펫케어 및 이와 관련된 재의식이나 포교활동은 단순히 시대적 요청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서서 전법교화를 위한 중요한 방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펫케어 관련 불교적 활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섭수해 주면서 이들이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고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상실로 인해 상실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실감을 극복하고 지혜롭고 여여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천도재 등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규범을 제시하고 동참하도록 촉진하는 일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별로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그들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둘째는 반려동물의 입장에 서서 동물권을 보호하고, 학대당하거나 버려지지 않고 잘 돌볼 수 있도록 사회운동을 전개하는 일이다.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을 기르던 사람들이 변심하여 학대하거나 살해하고, 살아 있는 동물들을 유기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관련 법률이 제정되도록 앞장설 수 있다.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 그리고 가축 등과 같이 인간의 삶에 친숙한 동물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한식구로 살아온 수많은 동식물이 자연적으로 융화되고, 조화로운 삶을 유지하도록 지켜주는 것은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이다.

다만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거나 거부감이 형성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물천도재의 방법과 장소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고 각 사찰에서 여법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물권 보호를 위한 불교 헌장의 제정, 행동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력도 함께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구촌에서 함께 공생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자유롭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더불어 더 낳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은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마음으로 함께하는 참다운 기도도량
화개산 반야사
주지 종오 혜명
신도회일동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2024년 4월 7일 영산전 16나한 봉불식을 전후하여
사리가 증과하고 오죽꽃과 우담바라꽃이 피었습니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 134-354
전화 055)231-0994, 221-1072 팩스 055)242-1072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양산 신흥사

조실 영규스님

주지 호법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원동로 2282-111
대광전 보물 1120호 / 대광전 벽화 보물 1757호



양산시불교사암연합회

고 문 정수스님(보현정사) 종일스님(웅상 천불사)
청봉스님(웅상 불광사) 성남스님(용주사)
반산스님(원각사) 문수스님(하북 불광사)

감 사 수운스님(화엄사) 지도스님(내원사)

회 장 동진스님(미타암) 교 무 성광스님(보문사)
부회장 현고스님(용화사) 기 획 진무스님(정각사)
총 무 호법스님(신흥사) 홍 보 도훈스님(양산포교당)
재 무 시주스님(계원암) 서 기 대연스님(웅장원)

회 원 지범스님(원효암) 세봉스님(호성사)
운암스님(조계암) 운성스님(대일암)
정윤스님(법천사) 유정스님(보각사)
진응스님(용담사) 세진스님(대천사)
지수스님(자비원-노인전문요양원) 010 2790 1633
운견스님(금화사)

경남 양산시 장삼동길 13-1(북부동)

대한불교조계종

하동 미서암

주지 명오스님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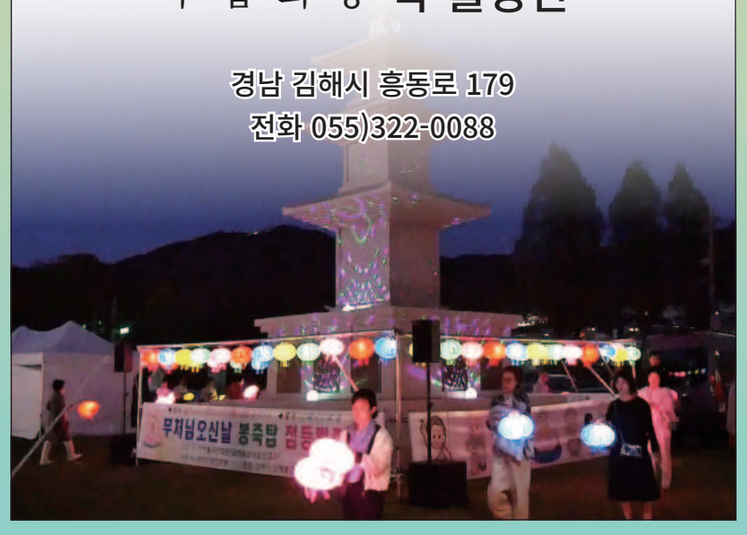


경남 하동군 악양면 미서길 26-13
전화 055)882-5665

김해불교사암연합회 (가야불교문화원)

회장(이사장) 만제 혜수
사무국장 범 해
신도회장 허보홍
무급회장 곽 월정인

경남 김해시 흥동로 179
전화 055)322-0088



대한불교조계종

신라천년고찰

밀양 무舞봉鳳사寺

주지 일관(一寬) 천주(天柱)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영남루1길16-11
종무소 전화 010-2572-1299

대한불교조계종

칠 불 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528
전화 055)883-1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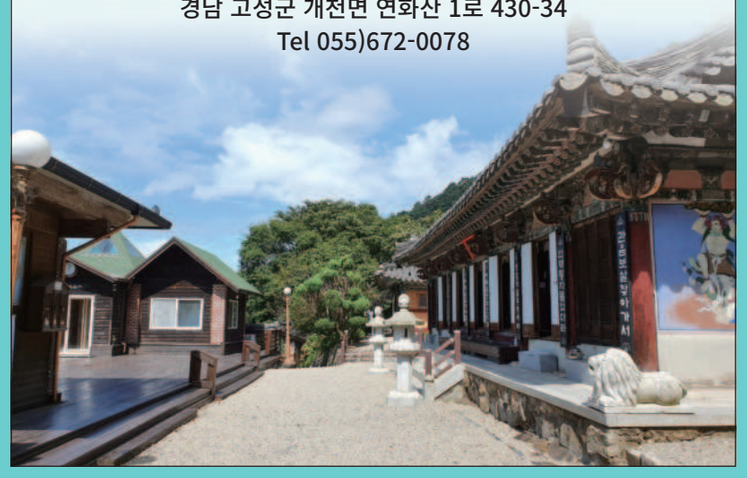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청련암

사부대중일동

보리수동산
정토만일봉사회
53구법성순례단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 1로 430-34
Tel 055)672-0078



대한불교관음종

진주 약사정사

(사단법인 원명)

주 지 진 여
신도회장 정한숙(금강화)

법화경 1000일 새벽기도
YouTube [진주약사정사] 구독
매일 법화경 온라인 독송 축원합니다

신도 일동



주소 경남 진주시 의병로128
전화 055)761-5382

대한불교조계종

운 흥 사

주지 월암스님

신도회일동



경남 고성군 하이면 와룡2길
전화 055)835-8656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진불선원

禪불교대학 | 시민 선방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로 112
(구. 도지사관사 사거리)
TEL. 055)275-3222

대한불교조계종

행복기도도량

지장정사

주지 현우스님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7번길 28
전화 052)256-3552



대한불교조계종

가락고찰 불모산 장유사

불교대학 졸업생 및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170-563(대청동)
전화 055)314-2799



대한불교조계종

양산 내원사

주지 지도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내원로207
전화 055.374.6466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말사

행하면 되는 절

진주 미륵암

주지 현산스님

신도회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용문사

주지 승원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남해군 이동면 용문사길 166-11
055)862-4425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단 장 이용복
수석부단장 이원환
부 단 장 김임자 정선희

감 사 조형식 최성환
중부총괄팀장 정선희 서부총괄팀장 조용호
동부총괄팀장 이선호 북부총괄팀장 정수갑

경남지역단 임원외 포교사일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96 하이페르상가14층
전화:055-262-1180

한국불교태고종

보현사

회주 혜화 주지 묵원

신도회장 유대암 반야회장 최진광월
관음회장 정반야월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전화 055)645-6448

사단법인 나누우리

이사장 만우



사무국 :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전화 055)641-7731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불교대학·극락원 납골당



◉ 울산 도심권 영구봉안 납골당 극락원 ☎ 212-7000
- 시내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 쾌적한 최신시설
- 사전 예약자 봉안비 할인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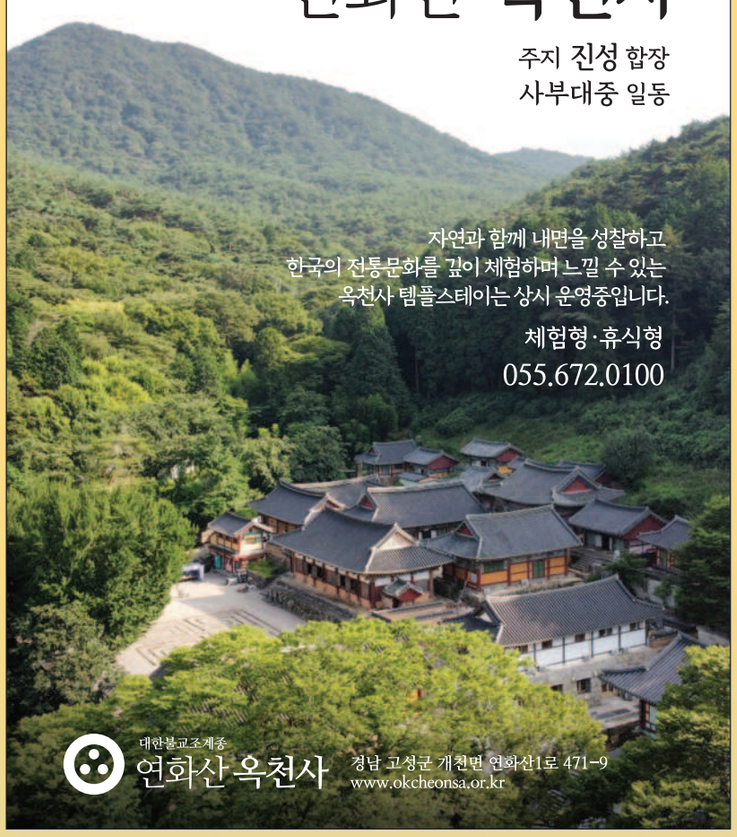
◉ 정토사 불교대학 및 대학원 ☎ 052) 274-3800
- 97년 개교, 1년 과정, 주·야간반, 절 하는 법부터
- 경전반 : 주·야간반, 1년 1경전

남구 문수로 217번길15(옥동) YouTube '울산정토사'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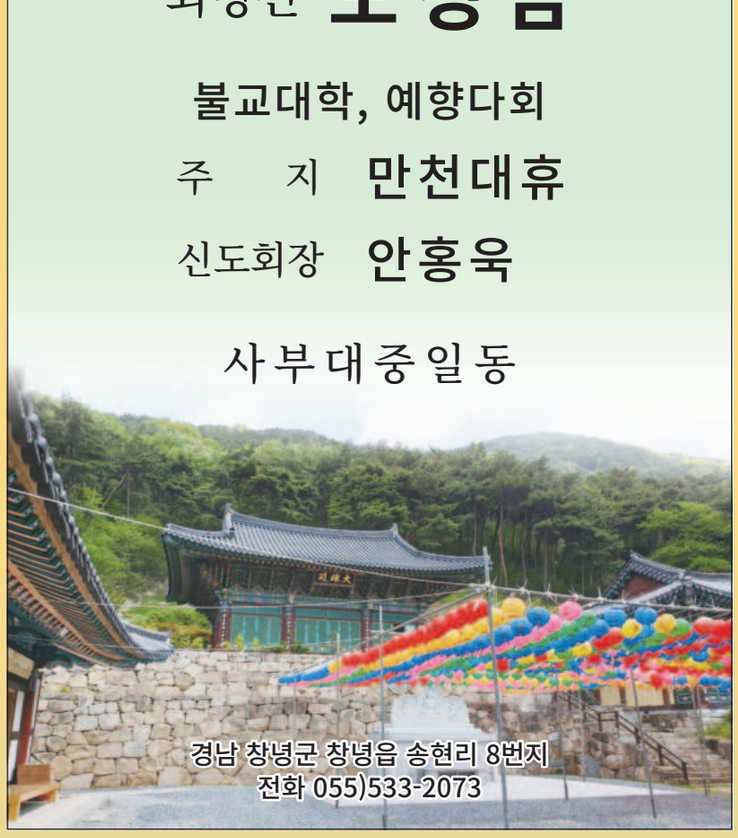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주지 진성 합장
사부대중 일동

자연과 함께 내면을 성찰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깊이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옥천사 템플스테이는 상시 운영중입니다.
체험형·휴식형
055.672.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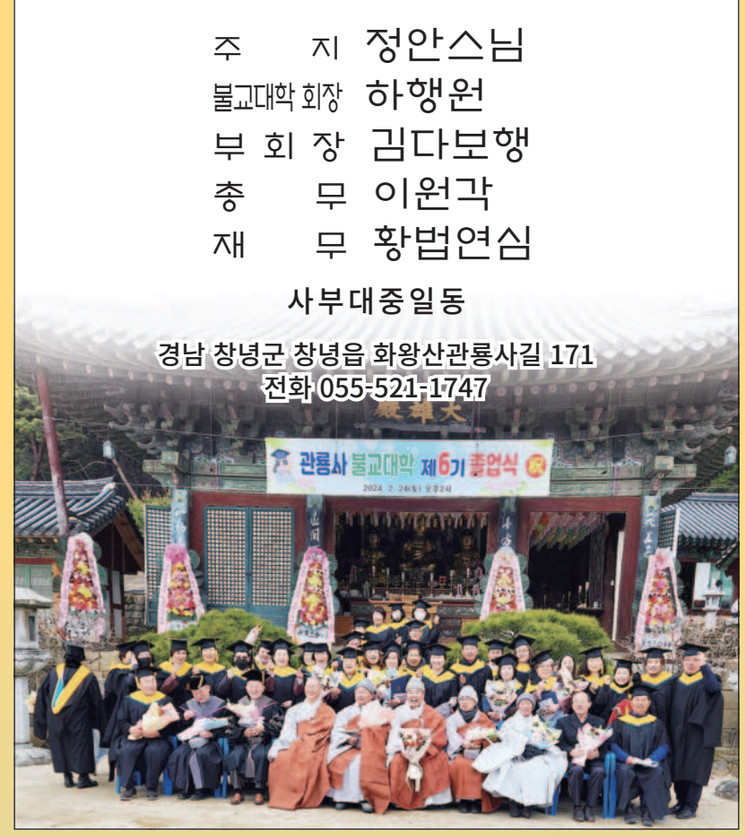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연화산 옥천사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1로 471-9 www.okche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화왕산 도성암
불교대학, 예향다회
주 지 만천대휴
신도회장 안홍욱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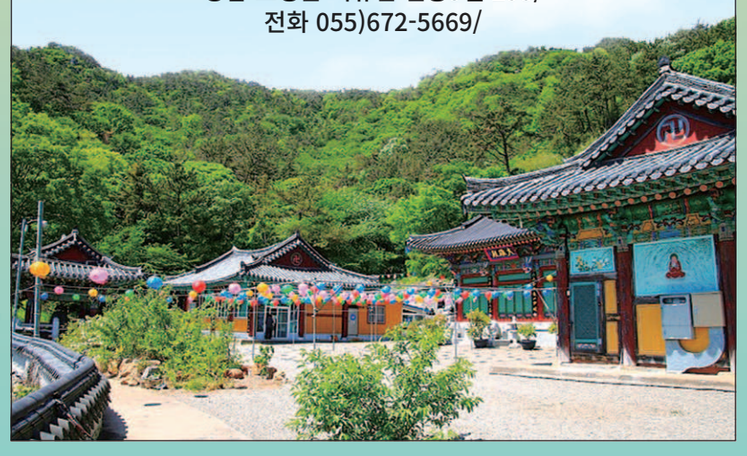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8번지
전화 055)533-2073

대한불교조계종
창녕 관룡사
주 지 정안스님
불교대학 회장 하행원
부 회 장 김다보행
총 무 이원각
재 무 황법연심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관룡사길 171
전화 055-521-1747



대한불교조계종
고성 장의사
주지 종묵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고성군 거류면 신용9길 295/
전화 055)672-5669/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불모산 성주사
조 실 서해 흥교
주 지 법안스님
신도회장 보리 김이순
불모의 품속에서 피워온 천년의 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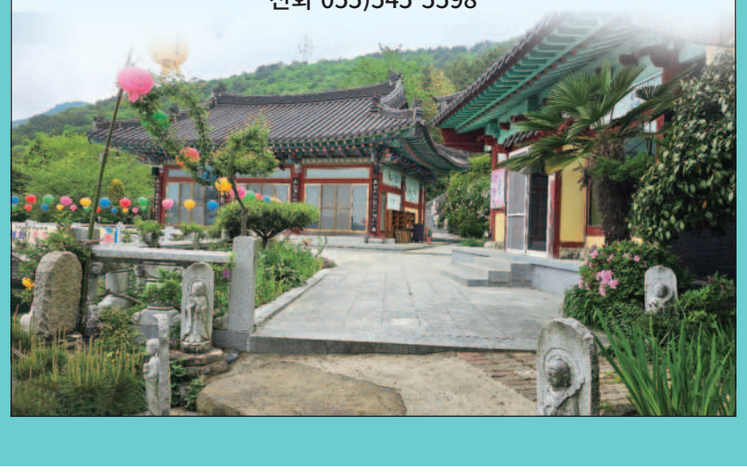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천선동)
Tel 055)262-0108~10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불지사
주지 청계 정인
앞서가는 가르침, 부처님 따라하기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2
전화 055)262-6663

대한불교 천웅사
주지 성우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천북로58번안길 12-48
전화 055)545-5598



한국불교태고종
산청 기원정사
주 지 성각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단성면 덕천로 632-8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말사
울산 덕원사
주지 태여 덕원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중구 성동길 129-10
전화 052)246-8688



“마애불 모시기는 방편…여러분의 ‘와불’ 찾아라”

조계종 미래본부 공동기획

열암곡 마애불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1년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 ‘천년을세우다’의 일환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대작불사의 원만회향을 위해 지난해 4월 28일 입재한 천일기도가 1년의 시간을 보냈다. 올 하반기에는 마애불 입불 모의실험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천일기도 1년을 맞아 5월 4일 불국사가 열암곡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마애부처님을 향한 뜨거운 신심이 한자리에 모인 원력의 현장을 취재했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1년 기념법회 현장. 사부대중이 빈틈없이 열암곡부처님 앞을 가득 채웠다.

경주=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여러분이 와불을 객관화시켜서만 보면 안 됩니다. 와불을 보는 순간 내가 와불이 돼야 해요. 내 깊은 마음속에 서려 있는 주인공을 확인하고 깨달아서 와불 불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런 정성 없이 부처님만 바로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동이 편치 않은 여든하나의 노스님이지만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 모인 사부대중에게 전하는 사자후만큼은 누구보다 강건했다. 부처님을 바로 세우기 전 불자들이 ‘일체중생 개유불성’의 진리를 깨달아 부처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벼락같은 일성이다. 사자후의 주인공은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 대종사.

덕민 대종사는 5월 4일 조계종 미래본부의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천일기도 1년’을 맞아 열린 불국사 주관 기념법회에서 이 같은 특별법문에 나섰다. 지난해 천일기도 입재 당시 ‘천년을 세우는 선시’를 지어 발표했던 대종사는 이날 제법 따가운 봄볕을 뚫고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까지 힘겹게 걸음을 옮겼다. 덕민 대종사는 여든하나의 나이에도 열암곡을 오를 수 있었던 건 불사에 함께하는 공덕 덕분이라며 법문을 시작했다.

천일기도와 불사의 원만성취를 기원한 덕민 대종사의 당부는 간단했다. 아무 생각 없이 부처님이니까 잘 모시자는 마음만으로 불사해선 안 된다는 것. 대종사는 부처님을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 불사에 동참하는 이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함을 역설했다.

덕민 대종사는 “산이 산을 보고 물이 물소리를 듣는다. 물이 내가 되고 내가 물이 되는 것이 바로 화엄의 세계”라며 “마음의 청정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몸의 노예가 된다. 무명의 세계에서 모습과 색깔, 소리에 끌려 다니면서 내 주인공을 잃어버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종사는 이어 1086년 여산 동림사에서 상총 선사와 밤을 새워가며 선학을 토론한 뒤 깨달음을 얻은 소동파(1036~1101)의 일화를 인용해 불자들이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를 설했다. 소동파는 상총 선사에게 “그대는 왜 무정설법은 듣지 않고 유정설법만 들으려 하는가”라는 말을 듣고, ‘무정설법’을 화두로 삼은 다음 날 여산폭포 소리에 깨달음을 얻었다.

이에 소동파는 ‘계곡의 폭포 소리가 부처님의 무진장 설법인데 어찌 산천의 아름다운 경치가 청정한 부처의 몸 아니랴. 밤새도록 쏟아진 팔만사천 미묘한 무정법문을, 다른 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치를 설명해보일 수 있을까’라는 내용의 오도송을 지었다.

5월 4일, 부처님오신날 앞두고
불국사 대중 300명 모여 법회
승가대학원장 덕민 대종사 법문
“불사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자”

덕민 대종사는 “부처님은 누워서도, 보살로서도, 총무원장으로서도 설법한다.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이라며 “마애불을 바로 모시는 건 하나의 방편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와불(본래면목)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40분에 걸친 대종사의 감로법문에 300여 사부대중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여기에 더해 한 시간에 가까운 다라니기도를 올렸다. 불국사 대중의 간절한 염원은 천일기도 1년과 맞물려 또 다른 동력으로 거듭났다.

불국사 사부대중은 박완규 불국사 신도회 수석부회장이 대표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은 나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우리 모두의 본성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불사”라며 “통일신라의 꿈과 비원을 실현하는 거룩한 불사가 성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래본부에 따르면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입불 모의실험에 들어간다. 약 1년간의 모의실험을 거쳐 안정성과 적정성 평가가 끝나면 입불이 추진되지만, 모의실험에서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다른 방법으로 보존 처리를 모색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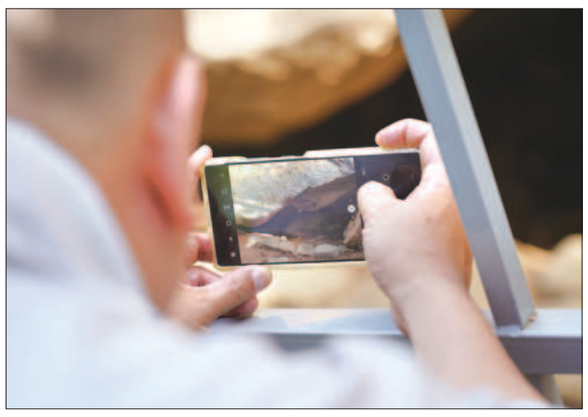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은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는 자금과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 등 각계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되진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바로 모시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하다. 내후년 초파일까지는 바로 모시는 것으로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종단 대중이 뜻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1년간 모든 법회에서 다라니기도를 올리며 불사의 원만회향을 기원한 기도법사단장 환풍 스님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가피를 받았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 덕에 힘든 줄 모르고 1년을 보낼 수 있었다”며 “부처님이 바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정진하고 남산이 불국정토로 거듭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서원했다.

한편 기념법회에는 덕민 대종사를 비롯해 불국사 주지 직무대행 종천 스님, 경주 분황사 주지 성제 스님, 포항 죽림사 주지 성웅 스님, 포항 보경사 주지 탄원 스님, 대구불교방송 사장 운암 스님, 포항사암연합회장 덕화 스님, 동국대 WISE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 이동협 경주시의회 부의장, 류완하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김영일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이사, 진병길 신라문화원장 등이 함께했다.


마애불 앞에서 법문하는 덕민 대종사.


불국사 스님들이 다라니기도를 하고 있다.


마애불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한 스님.


법회에는 300여 불국사 대중이 함께했다.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사단법인 불교 정중종
일죽 망이산성 연 등 사

주지 도 심
- 사회부장
- 안성경찰서 경승회 감사
- 안성불교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 前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16기~17기
- 일붕문도중앙회 수석부회장
- 동국대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여성수석부회장
- 동국대 행정대학원 생활풍수CEO총동문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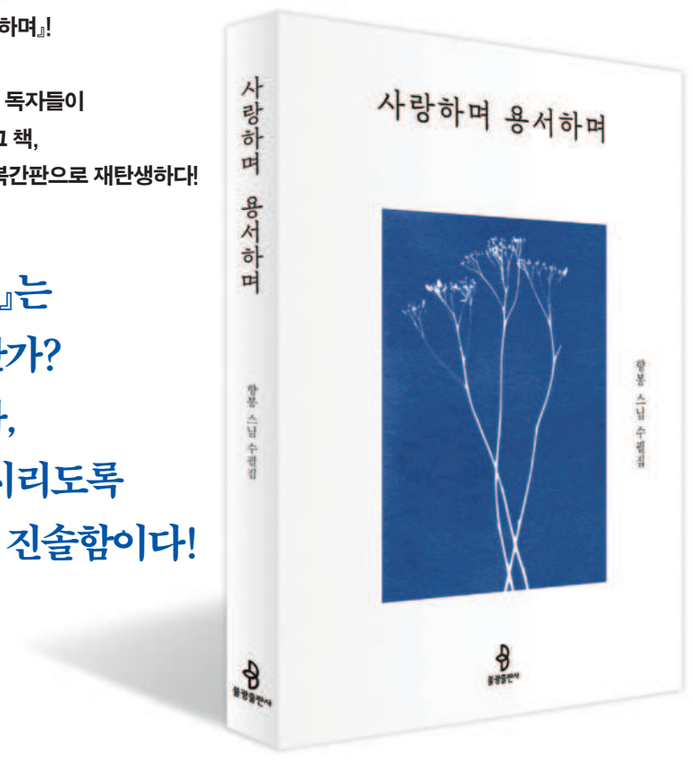
사부대중 일동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8-37(화봉리 69-1)
TEL (031)674-5765 | FAX (031)674-5769 | Mobile. 010-3714-9351

1979년 초판 출간 이후 60만 독자를 울린
우리 시대의 고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을 읽은 독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강제 소환한 바로 그 책,
1991년 증보판 이후 33년 만에 복간판으로 재탄생하다!

『사랑하며 용서하며』는 과연 무엇이 특별한가? 그것은 오로지 하나, 향봉 스님의 가슴 시리도록 처절하고 아름다운 진솔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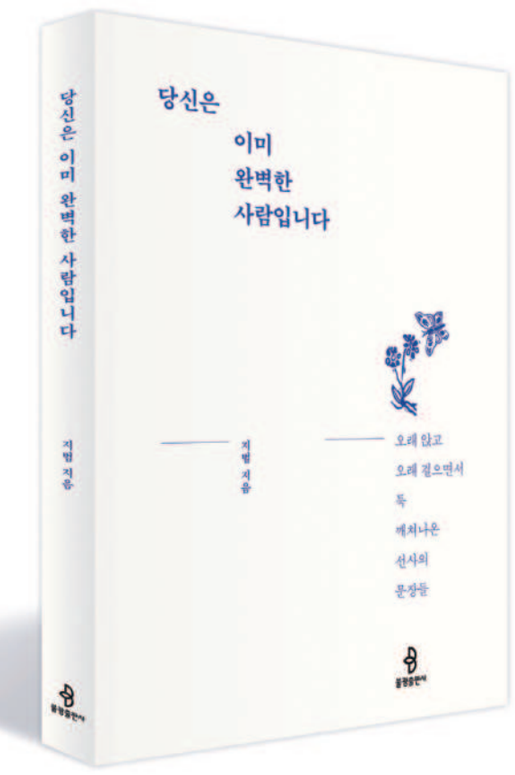


사랑하며 용서하며
향봉 스님 수필집

향봉 지음 | 264쪽 | 값 17,000원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며, 충분히 완벽한 사람이다.

세상이 두렵고, 혼란스러우며,
자신감이 바닥을 칠 때가 있다.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다.
지범 스님의 넉넉한 미소 속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하심의 마음결에서
끝까지 가본 사람의 단단한 공부 속에서
또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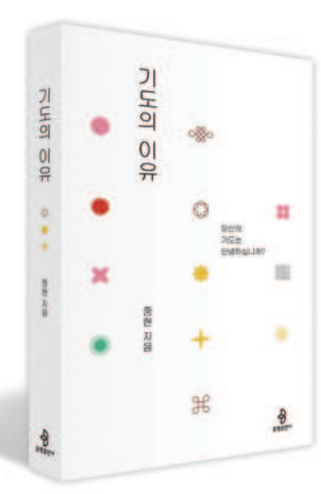
당신은 이미 완벽한 사람입니다
오래 앉고 오래 걸으면서 툭 깨쳐나온 선사의 문장들

지범 지음 | 224쪽 | 값 17,000원

기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기도의 이유

당신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찰나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매일의 안녕을 위한 수행!

일상에서 수행을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물러섬이 없는 목숨을 건 불퇴전(不退轉)의 수행이 아니다. 수행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다. 이 정도의 마음이라도 있으면 불자로서 충분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중현 지음 | 368쪽 | 값 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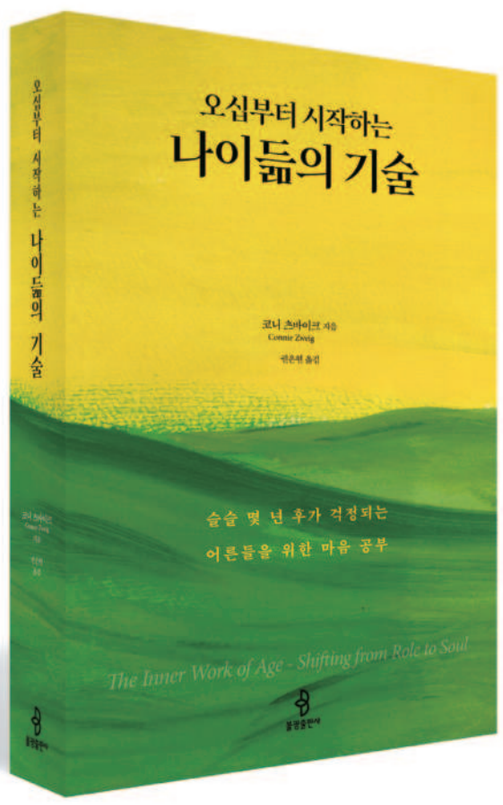
갑자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반야심경』 공부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

"드디어 나왔다!"
『반야심경』이 궁금했던 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흥미진진한 『반야심경』 강의!



이제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
단숨에 읽히고 즐겁게 깨치는 원영 스님의 반야심경

원영 지음 | 304쪽 | 값 18,000원



2022 노틸러스북어워드 '의식적인 노화 부문' 금상

2021 베스트북어워드 '건강·노화 부문' 최우수도서

2021 베스트인디북어워드 '노화·노인학 부문' 최우수도서

평생 바쁘게 살다 정신 차리니 벌써 이 나이, 하루하루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기분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신체적·정서적·도덕적·인지적·영적인 측면 모두에 있어서 노화는 우리의 다음 개척지이다. 나이듦의 신비와 두려움을 의식적이고 신중하게 직면해야 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면의 도구를 제시하려 한다. 인생의 후반기를 진정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 책 속에서

오십부터 시작하는
나이듦의 기술
슬슬 몇 년 후가 걱정되는
어른들을 위한 마음 공부

코니 츠바이크 지음 | 권은현 옮김 | 624쪽 | 30,000원

깊고 폭넓은 경험에서 뽑아낸 노년기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 **리처드 J. 라이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공저자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는 더 많은 내면의 경험이 필요하다.
- **토마스 무어**, 《나이 공부》 저자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부산 사하구불교연합회

고 문 현각(서림사) 만일(미륵암) 법인(약천사)
회 장 혜원(성불사)
부회장 승공(칠보사)
총무국장 송우(해장암)
포교국장 자은(성불사)
조직국장 보성(무학사)
감 사 선혜(대부암)

지효(남운정사) 능인(성불사) 능선(보경사)
정흥(용주암) 지화(감로암)
회원일동

사하사암무료급식소

복지회회장 이경애
약천사, 성불사, 길상사, 해장암,
무학사, 칠보사, 이경애 외10명
권인순외 아름다운 사람들

매주 화 오전 9시
후원계좌 : 부산은행 101-2007-6614-08
(예금주 : 사하사암무료급식소)

사하구불교신도연합회 회원 일동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북로 51(성불사)
전화 (051)292-6818

해운대구불교연합회

고 문 도업스님(화엄법계사) 천제스님(해월정사) 학명스님(도성암) 동림스님(해림사) 광진스님(동해사)
회 장 목종스님(대광명사)
수석부회장 안도스님(원각사)
부 회 장 효범스님(부처님마을) 도원스님(해운정사) 정민스님(폭포사) 진파스님(용수사) 만오스님(석대암) 법성스님(효림사) 혜인스님(길상사)
사무총장 법안스님(동국사)
재 무 혜조스님(청혜원)
총 무 성원스님(연화사)
포 교 정관스님(원오사)

해운대구불교연합회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73 ☎ (051) 742-7610

부산불교여성개발원

원 장 김수현
수석부원장 이영숙
종무부원장 김종숙
대외총협력부원장 이향순
교육담당부원장 김순례
감 사 김종희, 박영옥
복지위원장 김명숙
총 무 부 장 강미화
재 무 부 장 이선덕

대외의전 박봉희
봉사1부장 권춘자
봉사2부장 최두귀
봉사3부장 남미숙
문화부장 이춘선
다도부장 임현정
생활지도부장 김미희
집전부장 김복선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3층

대한불교조계종

부산비구니 금 련 회

회장 대 둔

회원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화 엄 회

회장 묘 선

화엄회 회원 일동



화엄회는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봉사하는 스님들의 단체

화엄승가회

고 문 법우
자 문 범혜
회 장 봉암 자인
감 사 정담. 원도
수석부회장 대각
상임부회장 도경. 천웅
부 회 장 보현. 보성
의전부장 법봉
총무국장 관호
재 무 태산
회 원 혜광. 여해. 선혜. 지오. 의천. 도법. 향공. 혜명. 대원. 지현. 자현. 보원. 해안. 진여. 대화

마음 편한 절 ·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지 하 현

사부대중합장

맑은 마음 밝은 세상

행복 禪 명상센터



부산시 중구 광복로 77번길 5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 점
전화 051)253-8687~8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지금선명상센터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서울분원 지금선원

YouTube 불바보TV

주지 목종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73
(로데오아울렛 3층)
전화 051)742-7610 팩스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자비 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

백양산 참회기도성취도량 **견 강 암**

주지 향 공

(사)부산정각회, 금강회, 보현회, 관음회, 다도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34번길 52-35(모라동)
(모라벽산아파트 107동 뒤편) Tel 051)361-8511 Fax 051)317-7665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부산진구 불교연합회

고 문 월천 혜총, 백설 인수
회 장 영제 감 사 태산 보원
수석부회장 화산 정현 재 무 선혜
상임부회장 연산 원타 총 무 해운 도원
부 회 장 대유 시광 의 전 월화 법봉
정목 정사
지명 지원

회 원 월륜 춘제, 석만 도관,
무심 법지, 승호 원종, 안국,
경록 보원, 송현 대원, 덕봉 법진,
진여, 상보, 보각, 보혜

부산광역시 연제구 불교연합회

고 문 원광스님(정수사)
보당스님(보국사)
자문위원 정산스님(마하사)
회 장 법승스님(화엄사)
부 회 장 동선스님
사 무 장 동선스님
감 사 혜안스님(선금사)
이 사 법호스님(정토사)
희공스님(봉화사)
성원스님(연화사)

그 외 회원스님 일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524번길 16
화엄사 051) 853-1942

자비 실천하는 여성불자회
내가 참여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여성불자회

부산여성불자회

총재 혜총

회 장	정분남	부회장	한순점	재 무	여소현
고 문	왕선자		정정자		여미란
	류영남		황곡자	회 계	이원희
자문위원	정찬스님		김정연	총 무	김미옥
	홍도스님		이해숙		성희강
	백명숙		이동희	봉 사	이명희
	이성희		하승우	다도부장	박유순
감 사	장홍자		최성숙		
	박영선		김희경		
			곽해숙		
			유영임		
			차산혜		
			연화신		

부산여성불자회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양정동, 불교회관 4층 402호)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 장 진우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부 회 장 덕수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도진정사 (진각종 통리원장)
법명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주경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우인정사 (총지종 통리원장)
고 문 홍파스님 (관음종 종정)
이 사 장 상진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부 이 사 장 인구스님 (보문종 총무원장)
향운스님 (원효종 총무원장)
사 무 총 장 명안스님 (여래종 총무원장)
감 사 금주스님 (보문종 기획실장)
방정자 (여성부 운영위원)

여성부

회 장 백명숙
부 회 장 박동희 조경순 남영희
총 무 한륜교
재 무 조원숙
운 영 위 원 김경수 방정자 옥영숙
우정해 정지연 최진희
국제협력부장 정영애
감 사 김예영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 장 정종원
상 임 고 문 최주덕
고 문 박영근 박수관 박순곤 허인구 설동근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이윤희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이상수 김수현
자 문 위 원 정창교 최영호
부 회 장 배영호 배상진 공정근 최삼섭
양재생 최금식
감 사 최상곤 정연식
사 무 총 장 장병주 재 무 총 장 이현수
총 무 이 사 안천일 친 목 이 사 배도정
홍 보 이 사 박차수 기 획 이 사 박창근
섭 외 이 사 이헌호 대외협력이사 안병호
자 문 이 사 김상훈
이 사 강갑균 김선일 김성규 김윤곤
김종한 노종헌 박효근
회 원 강석진 공영석 김선조 김기호 방택훈
손만형 신기열 신상해 안경수 양승찬
이경칠 이권주 이근욱 이성원 이오식
이윤희 이정출 이학우 조보익 진남일
최대경 최태식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705호
(부전동, 유원골든타워)
TEL 051)334-0108 FAX 051)867-4397

지장기도도량 광 덕 선 원

주지 법 진
총무 박윤자

사부대중일동

부산시 강서구 평강로229번길 24 광덕선원
전화 010-4435-5660



백양산 선 광 사

주 지 성 문
신도회장 강귀자

총무 이은영 사무국장 이미희 연화회장 김복자

신도일동

주소 부산 사상구 덕포2동 21-1번지
전화 051)302-5657, 303-4848, 010-3563-5657 팩스 301-4854

범내산 관 음 사

주지 천웅 도광

신도일동

매주 일요일 국수 무료급식



(사)향기로운문화동행
기장 청 량 사

이 사 장 보 혜
신도회장 황보승
운영위원장 최인락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회장 원영애
기장차문화대학 원장 김진옥
청 량 선 차 문 화 원 장외숙
기 장 꽃 차 문 화 원 이숙자

외 임원진 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밖길 12
(지하철 안평역 4번 출구) / 전화 : 051)723-1851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기적’ 선물하세요”

30 생명나누다, 자비의 길 걷다 ④

연등회 전통문화마당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현장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5월 12일 서울 우정국로에서 진행된 전통문화마당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펼쳤다. 스님은 이날 시민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담담히 털어놔 큰 감동을 줬다.

생명나눔, 5월 12일 우정국로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펼쳐
일면 스님 직접 시민 만나 홍보
간이식 경험담 설명으로 감동도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기적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세상을 밝히고 마음의 평화를 기원하는 염원이 담긴 형형색색 연등이 장엄된 서울 조계사 앞에 우정국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가 직접 거리로 나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권선하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대종사는 한 명 한 명에게 생명나눔의 가치를 설명하며 희망등록자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고자 정성을 다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두산 일면 대종사)는 5월 12일 서울 종로 우정국로에서 진행된 ‘연등회 전통문화마당’에 참가,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부스 2개를 연달아 설치, 본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장기와 조직 기증 희망등록 상담, 환자 치료비지원 설명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동국대 재학생으로 구성된 참사람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은 오전부터 우정국로를 돌며 생명나눔실천본부 사업 소개가 담긴 홍보 책자를 전달하는 순회 캠페인을 실시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협약을 맺고 각종 행사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참사람봉사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과 환자치료비 지원을 위한 후원 권선을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에 나선 손석우·전선준 학생(토목공학과)은 “장기기증은 자비 실천”이라고 외치며 생소하고 막연히 무섭게만 생각할 수 있는 장기기증을 의미있는 행동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힘썼다.

이날 장기기증 희망등록에는 가족단위 참여가 늘어 눈길을 끌었다. 10살 딸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한 박민규·전은미 부부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왔다가 의미있는 일에도 참여하게 돼 기분이 좋다”면서 “아이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게 돼 그저 좋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어머니와 함께 나온 이민정 씨는 “7년 전쯤 전통문화마당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를 만나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다”면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 환자 치료비를 위한 CMS를 후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담에 나선 일면 대종사는 간이식을 받은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설명해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 일면 대종사는 “1993년 간경화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기적같이 나타난 기증자로부터 간이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면서 “남으로부터 덤으로 얻은 삶, 남을 위해 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나눔실천본부의 활동에 후원자들의 자비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은 수혜자가 명확하기 때문”이라면서 “삶의 끝자락에서 장기기증을 통해 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일, 또 소외계층에 내민 자비의 손길은 자비인 동시에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동체대비 사상의 가장 헌신적인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법인 홍보뿐 아니라 불교와 연등회를 알리는데도 정성을 쏟았다. 오전부터 부모 손을 잡고 전통문화마당에 나온 아이들을 위해 불교 체험 부스를 마련, 연꽃과 단주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체험에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여, 큰 호응을 보였다. 보냉가방과 반찬통, 마스크 등 선물도 준비해 캠페인에 동참한 이들에게 선물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문화마당에 참석한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았다.

이날 희망등록 신청서 작성자는 120여 명,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펼쳐진 캠페인 때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최상균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연등회가 유네스코 인무무형문화유산이 되고 전통문화마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본부를 홍보하고 한국 불교문화도 알리겠다”고 말했다.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생명나눔의 가치를 사회 곳곳에 알리는 일에 더욱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5월 25일 동국대와 남산 일대에서 제15회 생명나눔 걷기명상대회를 진행한다. 6월 6일 오전 10시 남양주 불암사에서 봉행되는 ‘제29회 생명나눔 천도재’는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한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원 호국영령들의 영가를 축원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창립 30주년 기념식은 10월 12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린다. 02)734-8050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 가수 이소원, 임지민 양도 부스를 찾아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렸다.


연꽃과 단주 만들기 등 불교 체험 부스에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여, 큰 호응을 보였다.


동국대참사랑봉사단은 우정국로에서 생명나눔 홍보 책자를 전달하는 순회 캠페인을 실시했다.


일면 대종사는 생명나눔 부스뿐 아니라 전통문화마당의 다양한 부스를 돌아보며 격려했다.

부처님 자비와 사랑 가득한 삶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오색 찬란한 빛을 발하는 연등이 아름다운 5월은 부처님오신날입니다.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찬탄하며 부처님의 역사적인 탄생을 흥겹게 봉축합시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존재를 위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가르침은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안겨주셨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고, 모든 존재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가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시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 자신을 깨우치고,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하며, 밝혀진 연등 하나하나가 불자님들 가정에 자비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불보살전에 기원드립니다.

두산 일면 대종사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회주/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생명나눔 30주년 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의료 취약국에 자비의 의료물품을 보냅시다”

2024년 30돌을 함께 맞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의료 취약국에 의료물품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와 나눔의 가치를 세계에 전합니다. 공동 캠페인에서 모연된 후원금은 의료물품 배송비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부처님의 세계일화 가르침 실천에 함께해 주세요.

후원계좌 : 농협 053-01-271485
홈페이지 : www.lisa.or.kr
후원문의 : 02-734-8050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제15회 생명나눔 생명사랑 환경사랑 플로깅
2024. 5. 25 (토)
오전10시 부터 오후2시
동국대학교 만해광장
(걷기코스 : 만해광장 - 남산공원 둘레길)

참가대상
청소년 및 참가를 원하는 국민 모두

참가방법
단체_ www.lisa.or.kr 접속 후 사전접수
개인_ 현장 접수

오시는 길
3 호선 동대입구역 3번 출구
4 호선 충무로역 1번 출구

문의
02-720-8050

준비물
비닐봉투
장갑
운동화
편한 옷차림

주최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후원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소 원 정 사

주지 도 계

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79-5번지
전화 062)279-3332

한국불교태고종

만 덕 사

만덕공덕회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22
전화 062)363-6617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지 중 현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사길 177
전화 062)226-0108 팩스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신 광 사

회주 경 주
주지 동 현

대중일동 합장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66번길 42-10
전화 062)261-1529

대한불교조계종

불 갑 사

주지 만 당

사부대중일동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전화 061)352-8097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주지 법 주

신도일동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101-1
전화 061)554-2634

무등산 약사기도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약 사 사

회주 범 종
주지 무 진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11번지
전화 062)222-9844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회 주 수월 혜향
주 지 상범
신도회장 김보덕행
합창단장 조백련화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복개로150번길 22(치평동)
전화 062-375-7600

대한불교조계종

복 암 사



주지 도 성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49번길 68-32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문 빈 정 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소 운

- 관음사 신도회
- 관음사 불교대학(원)
- 붓다스마일 합창단
- 연꽃향기 성지순례회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명 신

부 설

연화유치원,어린이집

062)227-0173



대한불교조계종

보 승 사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광 덕 사

주 지 상 진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원 효 사

주 지 해 청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만 경 사

주 지 시공스님

신도회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557번길 27

한국불교태고종

법 륜 사

주 지 월 인

신도일동

광주전통불교영산보존회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
작법기능보유자



지장도량

미 륵 사

주 지 혜 법

사찰음식 전문점
수자타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선 덕 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향림사 포교당

금 당 사

주지 법담

신도 및 활짝회 일동



녹 야 선 원

주지 아 도

신도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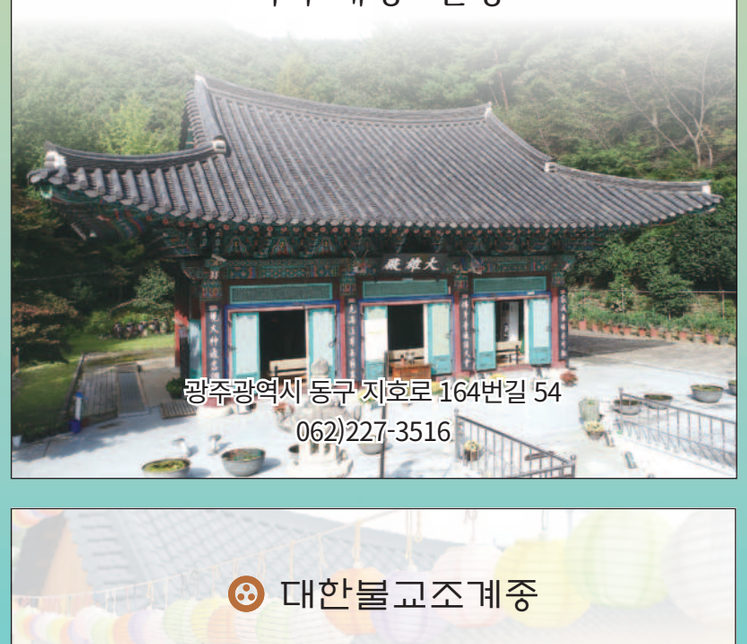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동 원 사

회주 지 각

주지 지 장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심 향 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능 가 사

회주 중현 일귀

주지 진 허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자 성 사

회주 명 지

주지 일 주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자 운 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정 안 사

주지 동 초

사부대중 일동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⑩ 강화 보문사



▶한줄 요약
화산 스님의 묘책과 나한의 신통력으로 낙가산의 울창한 살림이 보호된 결과, 보문사를 찾는 이들은 자연과 사찰이 주는 아늑함에 평온한 마음을 얻는다.

나한 위신력 전해지는 관음보살 성지


보문사 석굴법당에 모셔진 불보살과 나한.


그물로 건져 올린 석상을 표현한 그림.


눈썹바위 밑에 새겨진 마애관음보살.

낚시그물에 걸린 불보살님들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는 낙가산 보문사가 있다. 이전에는 배를 타고 갔지만 2017년 석모대교가 놓인 이후로 육로를 통해 간다. 낙가산 보문사라는 산과 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양양 낙산사, 금산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이다. 특히 총 419개 계단을 오르면 눈썹바위 아래에 새겨진 관음보살을 친견할 수 있다. 그곳에서 바라보는 서해 낙조가 장관이다. 순간 온 세상이 관세음보살이 계신 도량이다.

낙가산 보문사는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회정 대사가 선덕여왕 4년(635년) 창건하였다. 관세음보살이 상주한다는 보타낙가산의 이름을 따서 낙가산이라 하였고,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광대무변함[보문시현(普門示現)]을 상징하여 보문사라 하였다. 석굴법당과 관련한 이야기는 창건 설화로 유명하다.

635년(선덕여왕 4년)[또는 649년(진덕여왕 3년)] 4월이었다. 삼산면에 사는 어부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졌더니 인형 비슷한 돌덩이가 22개나 올라왔다. 실망한 어부들은 돌덩이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다음 그물에도 그 돌덩이가 걸려 올라왔다. 다시 돌덩이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또 다음 그물에도 역시 돌덩이가 걸려 올라왔다. 어부들은 실망한 채 돌덩이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밤 어부들 꿈에 노스님이 나타나 당부하였다. "낮에 그 돌은 돌이 아니라 먼 천축(인도)에서 오신 불보살님과 나한들이다. 내일 다시 불보살님이 그물에 걸려 올라오면 명산에 잘 모셔 달라."

관음도량에 가득한 나한 이야기
곤경에 처한 스님들을 도와주고
도둑에는 위신력으로 반성케 해
눈썹바위 아래 관음보살 친견을

어부들은 새벽녘부터 일어나 간밤의 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감탄하였다. 그들은 배를 띄워 어제 석상을 던져버린 그 바다에 그물을 쳤다. 역시 22분의 석상이 올라왔다. 노스님의 당부대로 불보살님을 낙가산으로 옮겼다. 그런데 지금의 석굴 부근에 이르자 석상이 갑자기 무거워 옮길 수가 없었다. 그리고 굴 안에서 경 읽는 소리가 나고 은은한 향 내음이 굴 밖으로 스며 나오고 있었다. 굴 안으로 들어가 보니, 굴 안은 마치 어떤 사람이 일부러 다듬은 것처럼 천연 좌대가 있었다. 22분의 석상을 그 좌대에 차례로 올려 모셨다. 이후 어부들은 불보살님의 가피로 옥동자를 얻거나 큰 부자가 되었다.

이 22분을 모신 석굴은 현재 보문사 나한전이다.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제27호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석굴사원이다. 그런데 나한전에는 22분이 아니라 23분이 모셔져 있다. 자세히 보면 한 분은 다른 22분과 차이가 난다. 그 한 분은 1900년대 초반(1928년?)에 조성된 보살이다. 또 살펴보면, 불보살님은 연꽃 좌대에 앉아 계시지만, 나한들은 구름 좌대에 앉아 계신다. 불보살님만이 연꽃 좌대에 앉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깨진 옥등을 밝히고 불씨 구해

석굴법당에는 고려 왕실에서 왕후가 헌정한 옥등(玉燈)이 있었다. 어느 날 석굴법당을 청소하던 동자승이 옥등을 닦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옥등은 칼로 자른 것처럼 두 조각이 나버렸다. 옥등은 절에서 중히 여기는 보물이므로 동자승은 어쩔 줄 몰라 울고 있었다. 지나가던 노스님이 동자승에게 우는 이유를 물었다. 이야기를 들은 노스님은 동자승과 함께 법당으로 갔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두 조각이 난 옥등은 멀쩡하고 오히려 불이 켜져 있었다. 노스님은 옥등을 만지고 또 만져보았다. 깨졌다고 생각하니 깨진 듯이 옥등에 금이 나 보였다. 노스님은 석불 바닥에 흘려있을 기름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동자승이 가리킨 곳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그리고 옥등의 불은 전보다 더 밝고, 기름은 가득 차 있었다. 노스님은 나한에게 예를 올렸다. '나한성중, 나한성중!'

그런데 이 옥등은 1980년 10·27법난을 겪는 동안에 어디론지 행방을 감추어 버렸다. 혼란스러운 틈에 분실된 것으로 본다. 앞 이야기는 나한이 동자승을 도와준 것이라고 한다면, 나한이 동자승으로 나타난 이야기도 있다. 여러 절에서 비슷하게 전해지는 이야기다.

갑오년(1892년) 동짓날, 스님이 새벽에 일어나 팥죽을 쑤려고 부엌으로 나갔다. 아궁이에 불을 피우려고 불씨를 헤쳐 보니 불씨가 죽어 있었다. 스님은 당황했다. 팥죽을 쑤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할 텐데 큰일이었다. 절 안에 불이 있을 만한 곳에는 다 갔지만, 불씨는 전혀 없었다. 날이 밝으면 다른 방도를 찾을 요량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석굴법당에서 기도를 드렸다. 기도 중에 이상한 느낌에 일어나 공양간으로 달려갔다. 아궁이에 장작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나한성중"이라 외치며 감격했다. 부지런히 팥죽을 쒀서 시간에 맞게 각 단에 공양을 올렸다.

그날 오전에 스님은 아랫마을 어느 노인에게 볼일이 있어 들렸다. 노인은 스님에게 책망하듯 말하였다. "스님, 어째서 그 춥고 어두운 새벽에 불씨를 얻어오라고 그 어린 아이를 보낸단 말입니까." 스님은 말하였다. "어르신, 절에 어린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불씨를 얻어오게 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불씨를 얻으러 온 아이가 하도 추워하길래, 팥죽 한 그릇을 주었더니 다 먹던데요."

스님은 상황을 짐작하고 급히 절로 돌아와 석굴에 갔다. 나한 한 분의 입에 팥죽이 묻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이 있던 후로 동지만 되면 절에 올라와 팥죽을 쑤어 불단에 올리고 기도하였다.

절 살림을 지킨 나한

어느 날 보문사에 도둑이 들어왔다. 도둑은 촛대 등 불기(佛器)를 훔쳐 달아났다. 도둑은 밤새도록 도망을 쳤다. 아무리 달려도 길이 끝이 없었다. 새벽이 되어 보니, 보문사 마당을 빙빙 돌고 있었다. 나한이 도둑을 절 마당에 가둬둔 것이다. 결국에는 스님에게 덜미를 잡힌 도둑은 잘못을 빌었다. 도둑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딱한 사정이 있는지라, 스님은 자루에 쌀을 담고 약간의 노자를 주어 돌려보냈다. 이후 그 사람은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고 보문사 신도가 되었다.

절 살림을 지켜내고 중생을 제도한 나한의 신통 이야기는 또 있다.

수십 년 전의 일이다. 화산 스님이 주지로 있을 때 보문사 인근 마을 사람들이 낙가산의 나무를 함부로 베어갔다. 처음에는 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몰래 베어가고, 나중에는 대낮에도 버젓이 베어갔다. 스님들이 말리러 가면 피하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베었다. 그러다가 스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일도 자주 일어났다. 작당하여 스님들을 위압하고 심지어는 폭행도 하였다.

화산 스님은 궁리 끝에 석굴의 나한상을 업어다가 나무를 잘 베어가는 사람 집에 한 분씩 내려놨다. 마을 사람들은 나한의 신통이 무섭다는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에게 나한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을까하는 두려운 생각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스님의 생각은 적중하였다. 아마 꿈자리도 뒤숭숭하였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주지스님을 찾아와 '제발 나한님을 다시 모셔가 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낙가산의 나무를 베지 않기로 서약하였다. 이후 낙가산의 나무를 베는 일이 없었다. 화산 스님의 묘책과 나한의 신통력으로 낙가산의 울창한 살림이 보호된 결과, 보문사를 찾는 이들은 자연과 사찰이 주는 아늑함에 평온한 마음을 얻는다.

〈불교학자〉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법 림 사

주지 무 진

대해노인복지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번지
전화 062)234-2207

대한불교조계종

금 룡 사

주지 범 일

사부대중 일동



전남 순천시 해룡면 복성길 95-13
전화 061)724-5988

대한불교조계종

봉 덕 사

주지 대천 현오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1안길 21
전화 062)674-2887

대한불교조계종

도 림 사

주지 우 범



전남 곡성군 곡성읍 도림로 175
전화 061) 362-2727

대한불교조계종

흥 룡 사

주지 상 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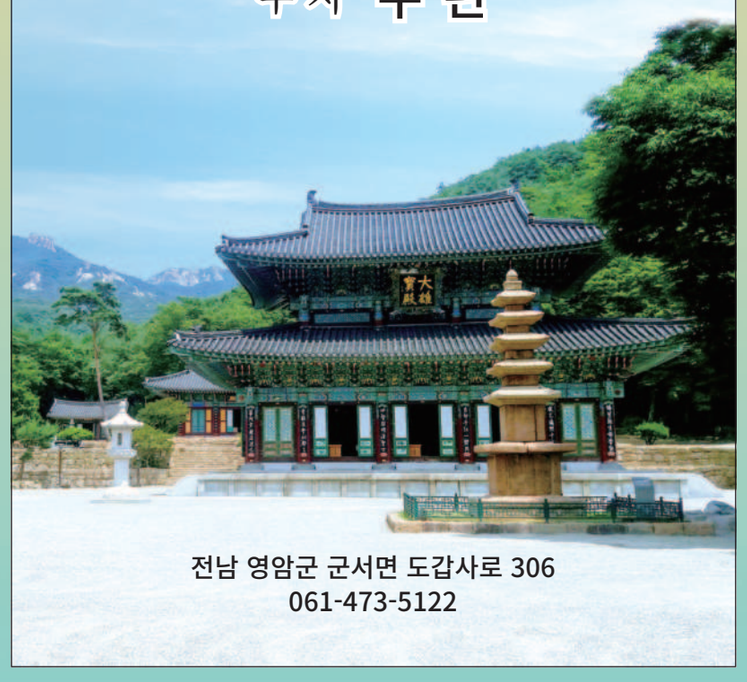


광주 광역시 남구 주월동 1231-1
전화 062) 651-5083

대한불교조계종

도 갑 사

주지 수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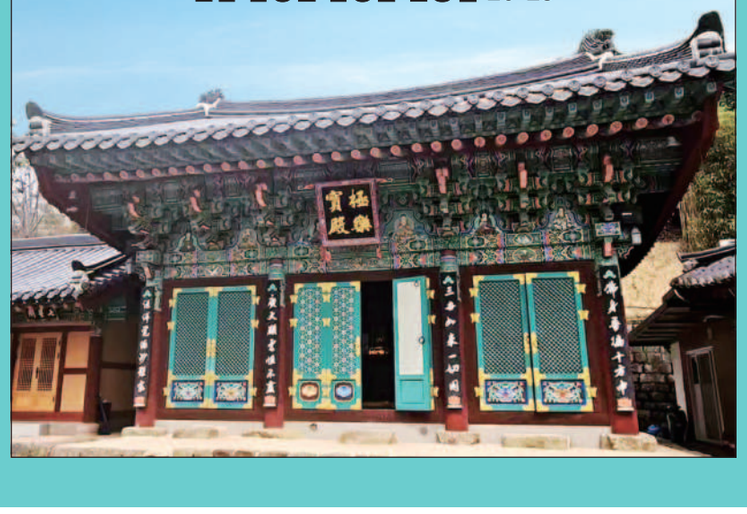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 306
061-473-5122

대한불교조계종

호 국 사

주지 동 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15



광주 정광중·고등학교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자비를 실천하는
광주·전남 유일의 불교종립학교

학교법인 정광학원
정광중·고등학교 이사장 덕문스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일동

연우개발(주)

대표이사
윤 상 준

시설물유지관리업
위생관리용역업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50-1, 302호
(두암동, 두암2차무등파크맨션 상가동)
전화 062)262-0480 팩스 062)262-0481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 실 현봉 근일
회 주 남전 호성
주 지 등운

사부대중 일동



주소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415(구계리1166) www.gounsa.net
대 표 전 화 054)833-2324, 010-5163-2324
템플스테이 054)833-6933, 010-2653-0872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회주 **호 성**
주지 **두 현**

신도회일동

봉황이 머무른 자리
영산암에서의 하룻밤
하루 템플스테이 특별 템플스테이

세계유산 봉정사

홈페이지 www.bongjeongsa.org
인스타그램 bongjeongsatemplestay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전화 054)853-4181, 4187 / 팩스 054)853-4185

풍기정품인삼 **풍 삼 정**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을 숙성발효시켜 만든제품



■ 풍삼 정제품 :
풍기정품홍삼액(명품),
순홍삼액골드,
인삼향기홍삼액(골드),
풍기정품홍삼액(골드),
홍삼먹은사과즙, 풍기홍삼,
풍삼정쥬니어홍삼액,
풍삼정홍삼환, 홍삼진액,
홍삼청국장, 백미삼, 수삼



직접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만든
인삼향기 홍 삼 액 「골 드」
100ml × 60포(한달분) ₩128,000원



전화 : 054-636-2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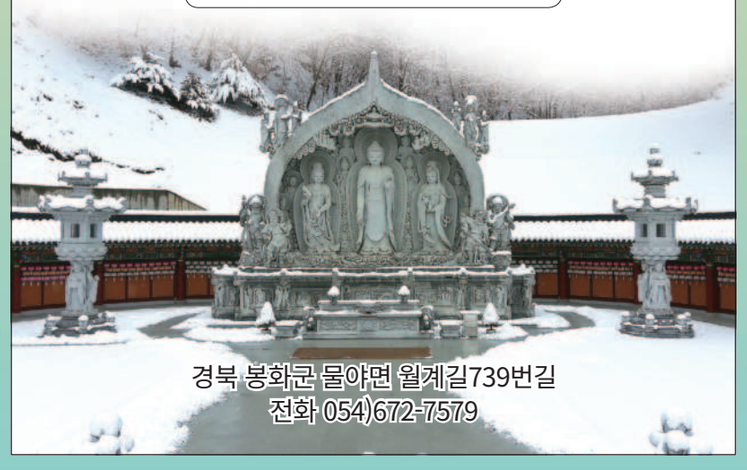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 서 사**

주 지 **무 여**

사부대중일동

보궁기도 · 참선법회
템플스테이 · 불교대학
은빛노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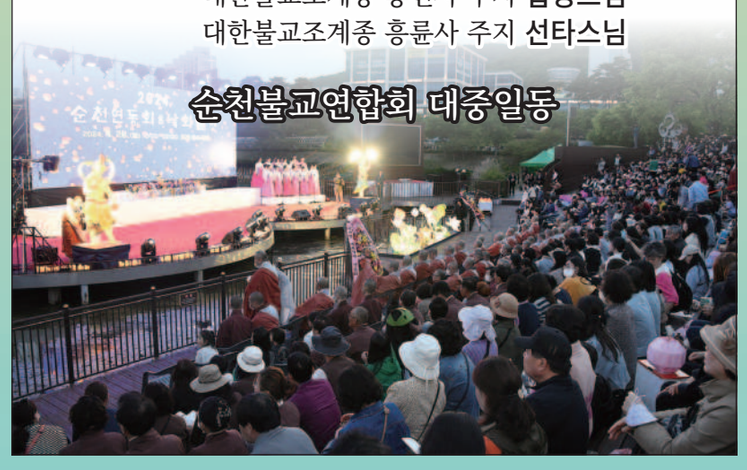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739번길
전화 054)672-7579

순천불교연합회

회장 금룡사 주지 **범일스님**

고문사찰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 주지 **무자스님**

회원사찰 대한불교조계종 대승사 주지 **정원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보승사 주지 **영도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정혜사 주지 **효광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흥선사 주지 **법영스님**
대한불교조계종 흥륜사 주지 **선타스님**



자연과 조화로운 삶·세상과 함께하는 삶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해청**(광주 원효사 주지)
공동대표 **담준**(광주 선덕사 주지)
법공(광주 문빈정사 주지)
상진(광주 광덕사 주지)

YouTube 나무숲TV

후원계좌 : 농협 301-0056-6893-11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월1만원 불교환경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450번길 1(나무숲센터)
전화 062)223-3623 010-8298-3623

대한불교조계종

운 주 사

천불천탑(千佛千塔) 도량

주 지 **무 안**

사부대중일동



전남 화순군 도암면 천태로 91-44
종무소 061)374-0660, www.unjusa.kr
템플스테이 010-5850-06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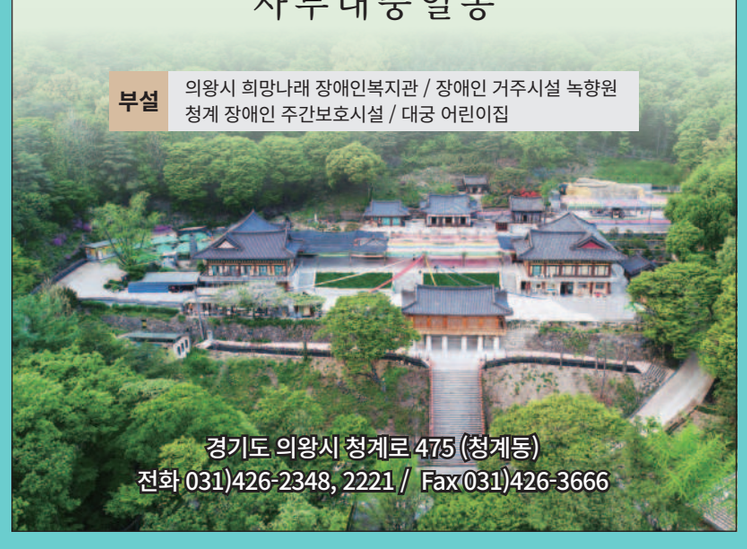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행**
신도회장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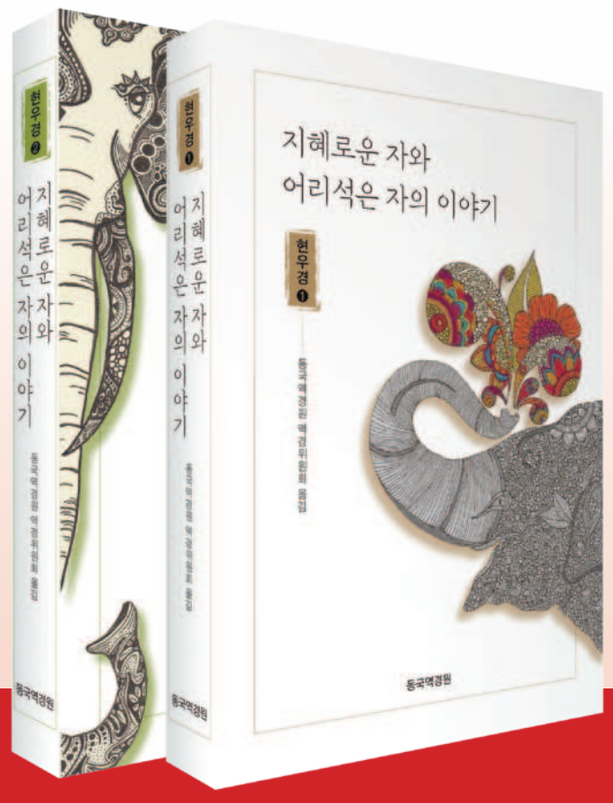
사부대중일동

부설 의왕시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 거주시설 녹향원
청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대궁 어린이집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 (청계동)
전화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당신은 우매한가요, 현명한가요?"

어리석은 길과 지혜로운 길, 어느 길을 걷게 될지 그 해답이 있습니다!

- 부처님이 알려 주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 - 현우경賢愚經"
- 불교설화 비유문학 3대작大作 중 하나인 『현우경』을 새롭게 윤문하여 출간!

『현우경』은 성자와 범부의 길을 밝혀준 비유경이자 인연담이다.
부처님의 전생과 여러 부처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넘나들며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의 엄정함을 일깨워 준다.

동국역경원 역경위원회 옮김 / 원문교감 · 윤문 성재헌
140 × 200 / 전 2권 · 356쪽 · 312쪽 / 각 권 20,000원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 동국역경원

"명상을 통한 삶의 변화"

2023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선지식 · 지성인과의 만남' 강연집

명상과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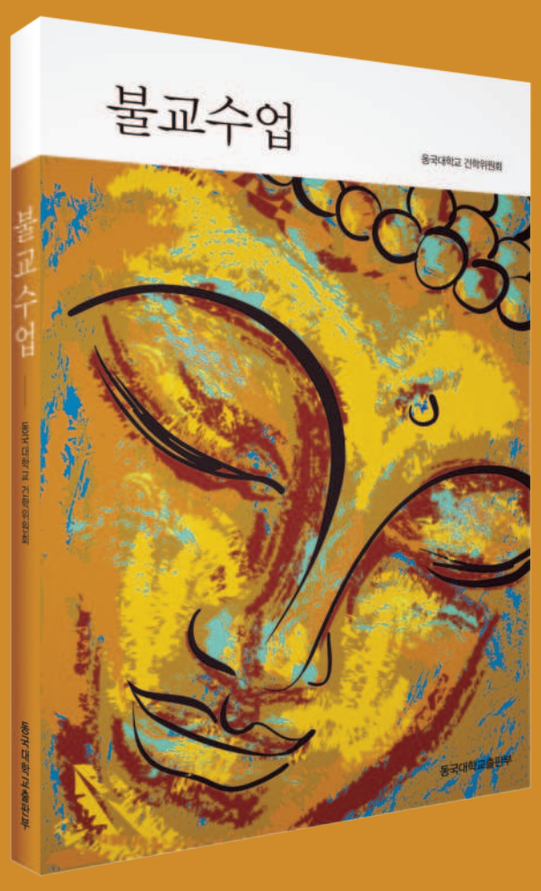
한국 불교명상을 이끄는 17名 강연자들의 릴레이 명상 강연!
부처님 가르침에 바탕 한 불교정통의 명상법과 이를 활용한 현대명상법 소개!
'명상'에 관심은 있지만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던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돈관스님 / 지원스님 / 정도스님 / 인경스님 / 하림스님 / 마가스님 / 서광스님 / 혜거스님
주경스님 / 무각스님 / 지운스님 / 월호스님 / 용수스님 / 윤재웅 / 김재성 / 최훈동 / 안희영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 도서출판 동국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엮음
148 × 212 / 무선 / 269쪽 / 값 16,000원



처음 만나는 불교수업, 어렵지 않아요!

MZ세대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교양수업!
AI 인공지능 시대에 불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렵고 생소하기만 한 '붓다의 가르침', 그 편견을 깨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 엮음
152 × 224 / 무선 / 216쪽 / 값 12,000원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 동국대학교출판부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 동국역경원 | 도서출판 동국 | 동국대학교출판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동국대학교출판문화원 홈페이지 http://dgpress.dongguk.edu
Tel 02-2264-4714 Fax 02-2268-7851 e-mail abook@jeongjincorp.com



◀한마음선원 청년불자가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장엄 등 채색에 열중하고 있다.

등은 서원이다

"이 등불을 켠 이야말로 은근하고 정중한 마음이 있었다. 그 때문에 등불은 항상 밝았느니라. 설령 나한(羅漢) 사리불(舍利弗) 등과 벽지불이 신통변화의 공덕으로 함께 끈다 하여도 이 등불은 끌 수 없을 것이며, 금시왕(金翅王)에게 큰 바닷물을 치게 하고, 사자왕(師子王)이 크게 울부짖으면서 뛰어올라 함께 끄려 하여도 이 등불은 끌 수 없을 것이니라."

–〈빈녀난타경(貧女難陀經)〉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오신날. 올해도 어김없이 연등을 밝힌다.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며, 가족의 건강을 기원하며. 때론 로또 당첨이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소망도 이때만큼은 부처님께서 다 섭수해주실 거라는 어리광과 함께 담아본다.

그래서 등은 서원이다. 너나 할 것 없이 각자의 서원을 담아 피안으로 건너가길 바라는 반야용선이다. 서원 없이 등을 밝히는 이는 없다. 하다못해 정월대보름날 부럼을 깨물며 하는 "내 더위 사라"는 말처럼 나의 근심 걱정이 말끔히 사라지길 바란다.

무명을 밝히는 지혜광명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듯이 서원을 담아내는 등도 '뚝딱'하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떤 모양의 등을 만들지 몇날며칠을 고민하고, 투박한 손으로 골조를 짜고, 주름을 말거나 풀칠을 하고, 채색을 하기까지. 모든 과정이 삼매고 수행이다. 시대의 변화로 연등 뼈대가 싸리나무·대나무에서 금속으로 바뀌었고, 기름등잔·초가 전구로 교체됐지만, 연등에 담는 마음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2568년째 되는 오늘, 우리는 무슨 등을 밝히며 어떤 서원을 담아냈을까. 저마다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각양각색의 등에서 나와 가족, 이웃의 행복을 서원하는 정성어린 마음을 다시금 생각해본다.

글 · 사진=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등은 서원이다

‘빈자일등’ 정신, 민중 서원과 함께 이어지다

변천사로 본 등의 변화 · 발전



고려에서도, 조선에서도 연등회날이면 집집마다 등간을 세우고 가족 숫자만큼 등을 달았다. 이 사진은 옛모습을 재현한 조계사의 등간 전시. 사진=연등회보존위원회

등 만들고 밝히며 축제를 즐기던 민족

14세기 고려의 유학자 목은 이색은 연등회 밤이면 산에 올라 관등놀이를 즐기고 그 감회를 시에 담았다.

“연등은 성안 가득 끊임없이 이어지고/ 무리 지어 몰려다니며 부처 이름을 외우는 밤/ 나이든 나도 그동안 병으로 신음만 하다가/ 다시 흥에 편승하여 말 머리 나란히 하였는데/ 지난해보다 구경거리 더 많은 올해의 관등놀이.”

18세기 조선의 선비 이종악이 안동에서 관등놀이를 즐기며 지은 싯구절은 다음과 같다.

“반구정에 돌아와 뜬 달을 보고 누우니/ 성안 가득한 연등, 이 또한 기쁜 명절이구나.”

두 편의 시가 지어진 세월은 400년 차이가 난다. 하나는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하나는 조선유교의 메카 안동 땅에서의 관등이지만 성안 가득 연등으로 불 밝혀진 장관은 다를 바 없다. 불자가 아닌 대표적인 유학자들이 하나같이 불 밝혀진 등 행렬 속에 젖어서 흥에 겨운 기쁜 명절을 보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866년 신라 경문왕이 황룡사에 행차해서 연등을 구경하고 백관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 이후로 손수 등을 만들고, 손수 등을 밝히고, 거리로 나아가 만인이 밝혀놓은 등의 장관을 보고 즐기는 관등풍속은 고려와 조선, 그리고 근대를 지나 오늘날까지 면면하다.

등은 불을 사용해서 어둠을 밝히는 도구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은 “진리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였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미혹함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힘쓰라는 간곡한 유훈이었다. 선종의 지침서 〈달마대사관심론〉에 “깨달음을 구하는 이는 몸으로 등대를 삼고, 마음으로 등잔을 삼고, 믿음으로 심지를 삼고, 계행으로 기름을 삼는다”고 했다. 〈등지인연경〉 〈잡보장경〉 〈보살본행경〉을 비롯한 무수한 경전 역시 등불의 비유는 빠짐없이 등장한다. 불교에서 등은 어둠, 즉 어리석음을 밝혀서 지혜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상징이기에 우리는 마음에 등불을 켜고, 이웃을 위한 등불이 되기를 서원한다.

그 옛날에는 어떤 등이 있었을까

〈삼국유사〉에는 신라 망덕사 스님 선율이 참기름[胡麻油]을 가져다 불등에 불을 켜달라는 내용이 나온다. 등공양이 생활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고려의 문인 이인로는 붉은 비단으로 만든 초롱등을 놓고 시를 지었다. 충렬왕비가 연 특설 연등회에는 호화롭기 이를 데 없는 진주와 옥으로 만든 등이 등장한다.

고려의 등제작 기법이 발전하면서 조선시대에는 다채로운 등문화가 꽃을 피운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표범등, 봉황등을 비롯해 500개의 등을 궁궐에서 밝혔다. 이날 밤 태종은 창덕궁 후원에서 관등을 즐긴 뒤에 등을 만든 장인 26명에게 각각 쌀 한 석씩을 하사했다. 그리곤 정월대보름 연등회에서 사용한 등은 사월초파일 연등회에서도 재활용하라고 명한다.

연등에 관해 각별함을 보인 왕은 정조였다. 세손시절, 사월초파일 관등을 위해 스승 홍대용을 궁궐로 초대한다. 이때 스승과 나눈 대화 속에 옥등, 양각등, 비단채색등, 유리등, 진주등, 난간등과 같은 흥미로운 등이름이 등장한다. 인원왕후 김씨가 만든 진주등은 정말 아름답다는 극찬도 아끼지 않았다.

오랜 옛날부터 사찰마다 지화와 등을 제작하는 꽃방이 있었다. 꽃방에서 전통 방식으로 등이 제작되었다. 한지에 그림을 그리거나, 오리기, 말아 붙이기를 해서 만든 등이다. 대나무나 싸리나무를 틀로 삼고 한지를 붙여 만든다. 그 위에 오려붙이는 색한지는 치자나 소목, 시금치와 같은 식물을 비롯해 자연의 소재로 염색한다.

〈동국세시기〉에는 수박등, 마늘등, 가마등을 비롯해 33개의 등 이름이 등장한다. 과일, 채소, 꽃, 동물, 십장생을 비롯 등의 종류도 다채롭다. 조선 연등회 풍속도를 시로 남긴 유만공은 옥항아리등, 연꽃등, 마늘등, 방울등을 소개하고 있다. 거위알등, 바가지등 같은 독특한 등이름도 등장한다. 민요 ‘관등가’에도 어룡등, 신선등, 벽장등을 비롯한 22가지 등이 나온다.

이처럼 다종다양한 등이 만들어졌던 것은 등이 만인의 소망을 담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거북등을 빚으면서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석류등을 통해 풍요와 다산을 기원했다. 삿됨을 물리치기 위해서 호랑이등을 만들었고, 아예 등에다 수복, 태평, 만세 등의 글자를 오려놓기도 했다. 유정무정의 것들이 빠짐없이 등으로 탄생한 것이다.

> **등, 미혹 벗어나 지혜로 가는 상징**
> **1300년간 시대 발맞춰 발전 거듭해**
> **정성 담긴 전통등이 품격 한층 높여**
> **등강습으로 노하우 · 기술 세대전승**

옛사람들은 등불을 어떻게 밝혔을까

고려의 백성들은 “집집마다 장대를 세워 등불을 걸었으며 부자들은 크게 채색한 등대를 세웠다. 층층이 달린 그 많은 등불은 마치 하늘에 별이 펼쳐진 것” 같았다고 한다. 문종 27년에는 거리에 3만개의 등이 달렸다. 보한집에는 “수많은 등불이 하늘까지 이어져 그 밝음이 대낮 같았다”고 묘사되어 있다. 더구나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소품 장식하듯 나무에 등을 줄줄이 달아놓고(火樹), 등륜에 무수한 등을 걸어서 등불나무(燈樹)를 완성하기도 했다. 또 누대 위에 작은 산을 만들거나 산대 위에 등을 달아(燈山) 두기도 했다. 이러한 장식으로 등은 각종 행사 현장에서 광명의 바다를 이루면서 축제 분위기를 이끌었다.

조선초 강희맹이 “긴 등대에 하늘하늘 채색 끈 흩날리고 구슬나무에 금속꽃이 주렁주렁 피었구나”라고 노래한 것을 보면 연등회 밤 한양에서도 고려의 개경과 다름없는 연등축제가 펼쳐졌다. 조선 후기 유만공의 시에 “기이하게도 긴 장대에 자라와 잉어가 매달려 있네”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장대에 잉어등과 자라등을 세워놓던 모양이다. 그는 또한 “시내 건물의 처마가 영롱하게 비치니 한 일(一)자로 등불 걸어놓은 것이 만 군데서 붉다”고 했다. 한 일자로 등불이 걸려 있다는 것은 오늘날 가로연등처럼 거리를 가로질러 달아놓은 연등으로 이해된다.

일제강점기 총독부 중추원 자료에 따르면 초파일에 “긴 나무를 문 앞에 세우고 장대 머리에 꿩의 깃털을 꽂고 오색종이를 붙인 등을 매단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그 자녀의 수만큼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점등하여, 위를 첫째로 하고, 아래를 막내로 한다. 등불이 가장 밝은 것에 해당하는 자녀는 운이 크게 좋다고 하고, 등불이 어두운 사람은 흉하다고 하여 그 등에 술과 떡을 올리고 운을 바로잡는다”고 한다. 등 하나에도 복을 기원하며 소망을 담던 이들이 조선의 백성이었다. 국권침탈을 당했어도 설날과 추석을 기리듯이 사월초파일 연등회 풍속을 잊지 않고 즐겼다. 그것이야말로 나라 잃은 백성들이 조국을 지키는 일이었다. 이처럼 정성스럽게 등을 만들고 등불을 밝히고 그 등불을 보고 즐겨온 역사속 이웃들이 있었기에 1300여 년 동안 등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며 다채롭게 변화·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K-연등, 한류를 이끌다

연등은 한류 팬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다. 지난 2022년 파리의 주한 프랑스문화원에서 연등회 특별전이 석달동안 열렸다. 개원 이래 역대 최다 관람객 수인 5만명이 다녀가는 인기를 누렸다. 이는 파리 시립 미술관의 연간 관객 수와 맞먹는 역대 최대 흥행 기록이다. 각양각색의 전통한지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에 반하는 게 큰 이유일 것이다.

일각에서 더 반짝이고, 더 화려하고, 더 눈길을 끌고, 더 커다란 등을 만들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눈부시지 않아도 아름다움을 담보하는 것이 전통의 힘이다. 전통을 되살린 한지등은 은근히 우러나오는 빛의 세계가 압권이다. 뭐든 쉽게 사고 쓰고 버리는 시대에 번거로워도 전통등의 정신을 계승하며 등을 만드는 일은 연등회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과정이다.

전쟁을 통해 인도를 통일한 아사세왕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참회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보답으로 왕은 궁궐에서부터 절에 이르는 긴 거리에 기름등을 밝혔다. 이를 지켜보던 가난한 여인은 구걸한 돈으로 먹을 것을 사는 대신 기름집으로 향한다. 등공양을 올리면서 ‘만약 훗날 깨달음을 얻는다면 광명은 시들지 않을 것’이라고 간절히 서원했다. 밤사이 왕의 등불은 꺼졌으나 가난한 여인이 밝힌 등은 다음날까지 환히 밝아 있었다. 가난한 여인이 밝힌 등 하나(貧者一燈)에 관한 〈아사세왕수결경〉의 가르침이다.

한때 공장에서 날림으로 제작한 비닐등이 중심을 이루고, 국적 모를 접이식등이 연등을 대표하던 시절도 있었다. 연등회보존위원회에서 전통등의 복원과 계승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1996년부터다. 이때부터 등제작 과정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정기적인 전통등 전수교육을 통해 등 전문가들이 꾸준히 배출되었다. 이들이 자신의 사찰과 단체에서 등강습을 하면서 등제작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와 기술은 자연스럽게 세대전승 중이다.

과거 꽃방의 맥을 이어 오늘날 전국적으로 연등공방이 운영된다. 전통방식을 익히고 나면 디자인과 색상은 다양하게 실험되고 열정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져 해마다 창의적인 행렬등들이 만들어진다. 다소 손재주가 부족해도, 시간 내기 어려워도 공방에 모여 함께 작업한다.

공동작업은 배려하고 화합하는 과정이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등을 만들고, 공동체 정신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며 등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빈자일등의 정신이다. 그것이 1300여 년을 이어온 연등회의 힘이자,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핵심 포인트다.



이윤수
문화예술콘텐츠진흥원 전문위원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백 담 사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
■ 종무소 전화 033)462-6969 | www.baekdamsa.or.kr
■ 템플스테이 연수원 전화 033)462-5565,5035 | baekdam6969@daum.net



역대 주목받은 등은?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연등회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의 대형 장엄등과 참가자들이 직접 들고 이동하는 행렬등이 선보인다. 등의 형태는 제각각이지만 세상을 환하게 비추겠다는 바람만은 오롯이 담겼다. 감히 그 정성을 평가할 순 없지만, 고유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전통등은 물론 해마다 현대적 감각과 아이디어를 살린 개성 있는 등들이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박상희 조계종 연등회보존위원회 연구위원의 자문을 거쳐 역대 주목받은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사진=연등회보존위원회〉**

행렬등



팔모등. 우리나라에서 사용돼 온 가장 일반적인 팔각 모양의 전통등으로,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는 8가지 수행의 길인 팔정도를 상징한다. 1975년 영암 · 서옹 · 경산 스님이 팔모등을 들고 연등행렬에 동참한 모습.



T자형 연등걸이. 등을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는 시각적 효과가 탁월해 많은 사찰에서 사용한다. 한일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축구공 모양 연등이 T자형 연등걸이에 걸려있다.



▼세월호 추모등. 2014년 연등회에서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참사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백색의 추모연등을 들었다.



▲북한등. 연등회보존위원회가 2014년부터 북한의 문헌 '조선공예미술연구'를 근거로 복원한 북한 전통등. 북한등은 직선 위주의 표현으로 투박하지만 담백한 멋을 지닌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2018에는 연등행렬 선두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기도 했다.

장엄등



탑모양 장엄등. 1977년 청년불자들이 연꽃잎의 꽃살을 일일이 손으로 잡아 모양을 만들고 붙인 전통 장엄등. 이 장엄등에는 1만장 이상의 연꽃잎이 사용됐다.



조계사 주악비천상등. 전통 기법으로 2000년 즈음 제작됐다. 이 등은 주악비천이 서로가 마주보며 음악을 연주하는 특이한 형상으로, 역동성과 생동감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캐릭터등. 어린이 ·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만화 캐릭터를 본뜬 연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불교에 대한 친숙함도 자연스럽게 심어준다.



한마음선원 장엄등. 한마음선원은 매년 전문가급의 정교하고 화려한 장엄등을 선보여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눈여겨볼 올해 등

합장 염원등.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불교행사로 시작해 어느덧 국민 축제로 자리매김한 연등회. 향후 세계로 뻗어가는 축제로의 발전을 기원하며 합장 염원등이 올해 연등행렬의 선두를 이끌었다. ▶





대학생 불자들의 참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금까지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차원에서 서울 · 경기 지역 22개 학교가 연등행렬에 동참했다. 올해는 가천대, 경동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방송통신대가 추가돼 26개 학교가 각 학교 마스코트가 담긴 장엄등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조 실 설악 무산
기 도 관성 본수 도안 선우
주 지 일념
부 주 지 향성 무문
총 무 본일
기 획 설호
호 법 각일
사 회 서원
원 주 설원
템플스테이연수원장 선일
템플스테이연수국장 지월
무산문도문장 삼조
홍련암 기도 관진 공산 동현 원주
신 도 회 장 방양호
관 음 회 장 반순덕
바 라 밀 회 장 박상혁
문 수 회 장 양은숙
합 창 단 장 안복녀
의 상 회 장 이순애
불교대학회장 윤여경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내장산 내장사

주지 대원

사부대중일동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 1253
전화 063)538-8741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능가산 내소사

주지 진성

사부대중일동



주소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전화 063)583-7281 www.naesosa.kr
내소사 템플스테이 063)583-3035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능가산 개암사

주지 종고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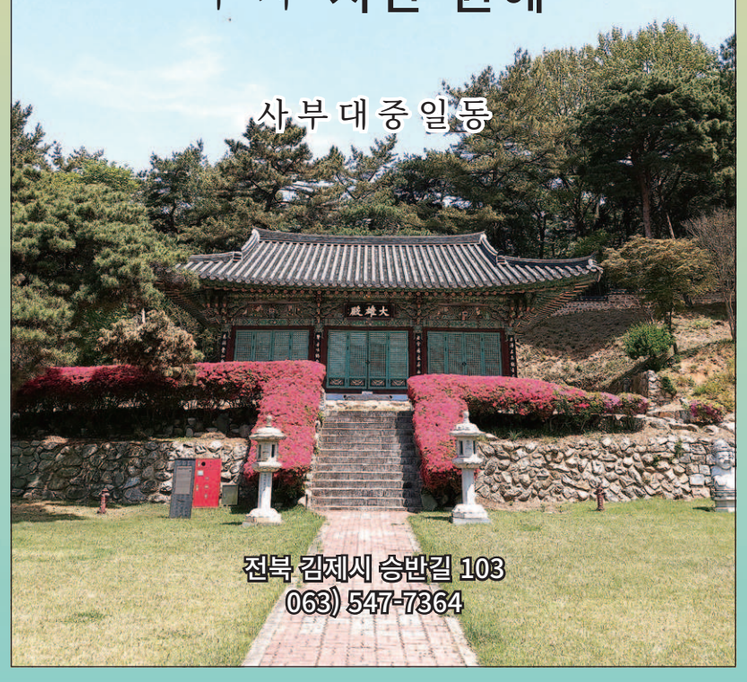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248
전화 063) 583-3871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김제 흥복사

주지 시산 원혜

사부대중일동



전북 김제시 승반길 103
063) 547-7364

한국불교태고종

자비실천도량

마이산 쌍봉사

주지 보경

섬김봉사단
사부대중 일동

전북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37-1
063)432-0880



수 현 사

전북불교미래본부 거점사찰

원탁회의 의장 취산 도법
미래본부 본부장 평상·일원
사 무 총 장 응묵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 45 063) 224-4441
https://www.suhyeonsa.org

익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일 행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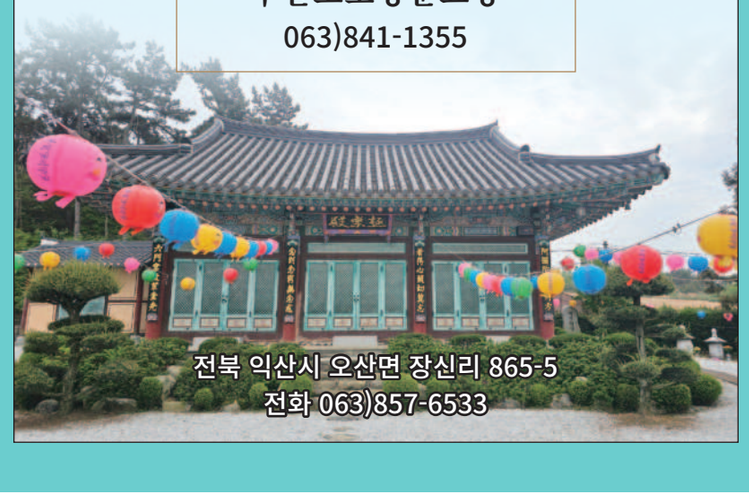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정 각 사

주지 일 행

사부대중 일동

정각복지센터
주간보호방문요양
063)841-1355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65-5
전화 063)857-6533

대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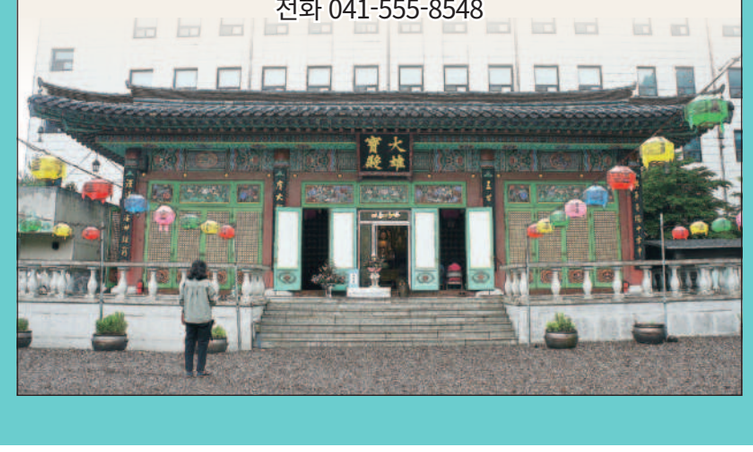
믿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도량

도 광 사

사부대중일동

마이트리 봉사사찰 :
무의탁노인 반찬 지원, 복지관 봉사

천안시 서북구 백석6길 11
전화 041-555-8548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선 덕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4-1
전화 053)255-1450,1411 팩스 053)292-0751
홈페이지 www.jingak.or.kr

호국불교 독립운동 중심도량
대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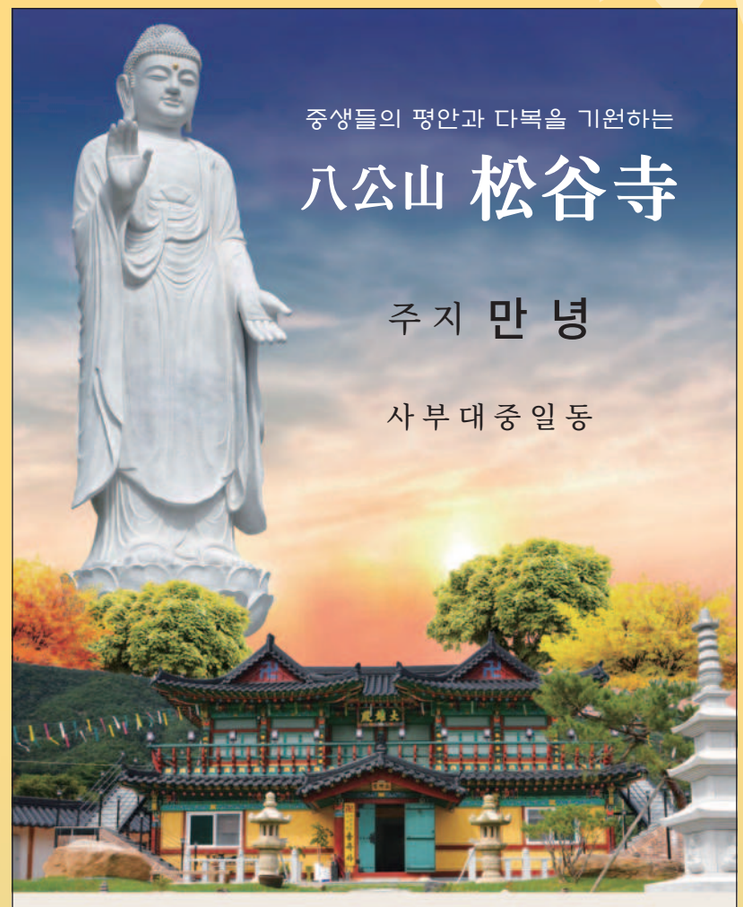
팔공총림 동화사
직할포교당 **보 현 사**

주 지 현진 스님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중구 문우관길 65
전화 053)431-5400 팩스 053)255-5629



중생들의 평안과 다복을 기원하는

八公山 松谷寺

주지 만 녕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 209
전화 053)657-0108 / 휴대전화 010-3390-2145
https://blog.naver.com/sm20815

대한불교조계종

오 어 사

주 지 대종사 설당 종우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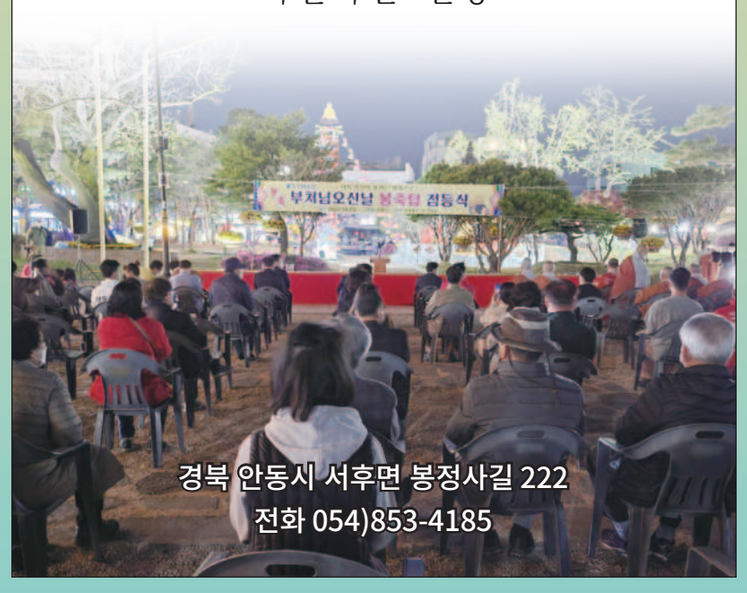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1
전화 054)292-2083 팩스 054)291-4190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며 함께하는 불교'

안동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도 륜

회원사찰 일동



경북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전화 054)853-4185

국내 최초 축생법당개원

팔공산 **천룡정사**

주 지 지 덕

- 국내 최대 탄생불 봉안
- 국내 최대 반려동물 축생법당(畜生法堂) 개원
- 지장 천도 기도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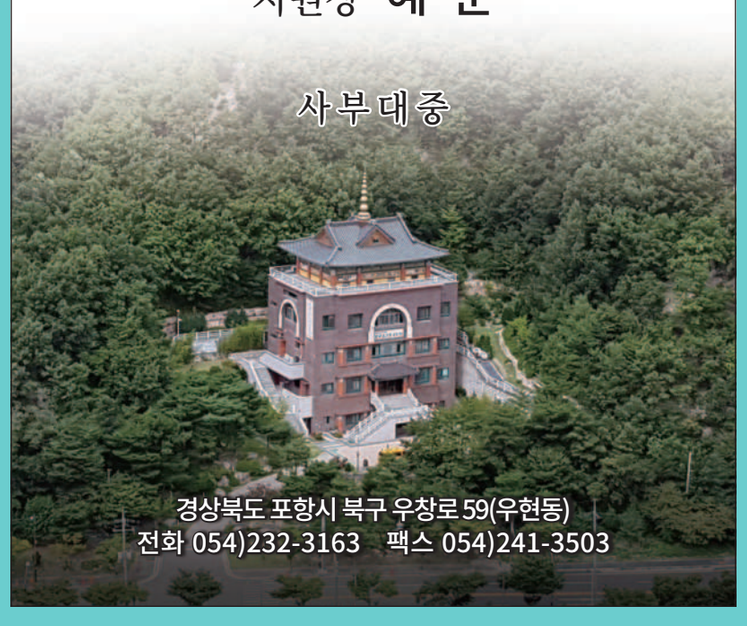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길 95
전화 054)336-0052 팩스 054)336-0053
핸드폰 010-5153-005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우현동)
전화 054)232-3163 팩스 054)241-3503

큰 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이 사 장 운봉 법광
능인중학교장 정 영 채
능인고등학교장 홍 은 표
교 법 사 문 수
교 법 사 원 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 (지산동800)
전화 053-232-9175 / 053-232-9104 / 053-235-4414
법인 중학교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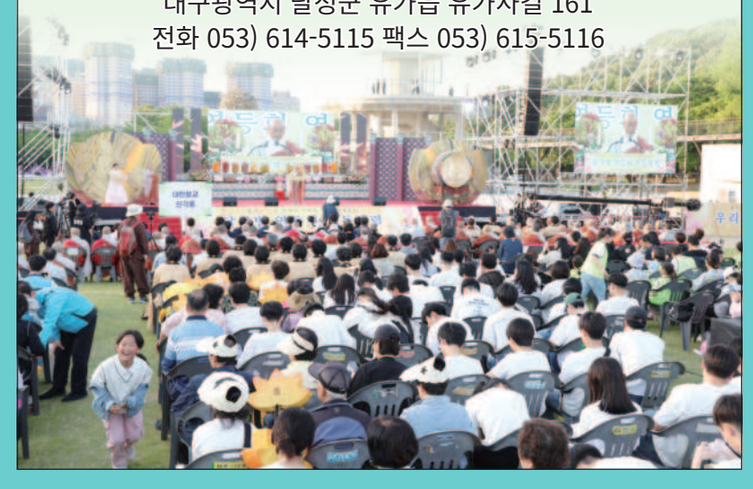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비슬산 **유 가 사**

주 지 도 휘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유가사길 161
전화 053) 614-5115 팩스 053) 615-5116



등은 서원이다

“협동으로 이룬 빛…나를 밝히고 세상 맑힌다”

한마음선원 장엄등 제작 현장

청년회 중심으로 밤낮없이 선원 찾아

올해, 만생명 자유 발원한 ‘불바퀴등’

해마다 독특한 장엄등으로 화제 중심

“건강한 삶 배우는 과정…수행 같아”

경험 · 노하우도 물려주는 선순환 구조

안양=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올해의 장엄등인 ‘한마음의 불바퀴등’ 제작을 끝내고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의자 오른쪽)과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의자 왼쪽)을 비롯한 사중스님들과 청년불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드라이어로 색을 말려가며 채색하고 있다.



각자 채색에 열중한 모습.



완성된 ‘한마음의 불바퀴등’.

아직 색이 입혀지지 않은 대형 장엄등 앞. 앞치마를 두르고 물감과 붓을 든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한 자리씩 차지해서는 익숙한 듯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이내 색칠에 집중한다. 창문 너머 활짝 핀 봄꽃도 이들을 유혹하긴 무리다. 주말의 달콤한 휴식마저 외면한 채 장엄등 채색에 몰입한 한마음선원 청년불자들이다.

색을 칠한다고 작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색칠이 끝난 장엄등은 드라이어로 잘 말려 먹선을 재차 덧칠한다. 입체감을 살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행여 실수라도 할까 장엄등에서 눈을 떼지 않는 이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다.

4월 6일, 안양 한마음선원 불교문화회관을 찾아 채색작업으로 분주한 청년들을 만났다. 매년 부처님오신날이면 화려하고 독특한 장엄등을 선보여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한마음선원. 청년들의 숨은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다.

작업장 입구에 들어서자 벽면을 채운 글귀들이 먼저 눈길을 끈다. 올해 장엄등 시안과 소개, 대행 선사 법어, 등 제작에 앞서 각자의 서원을 기록한 쪽지들이다.

올해 한마음선원 장엄등은 ‘한마음의 불바퀴등’. 치열한 경쟁에 내몰려 늘 불안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 일깨우기 위해 기획됐다.

장엄등에 담긴 의미처럼 청년불자들의 서원에도 ‘나’보다는 ‘남’을, 나아가 모두의 평화와 화합을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다. “더불어 밝아지고 평화로워질 수 있는 등이 되길 마음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전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등 불사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들은 작업 시작 전 ‘공생’을 늘 강조해왔던 대행 스님 말씀을 읽으며 지구와 인류가 당면한 위기에 공감하고 뭇 생명의 이익과 행복을 되새긴다고 한다.

한마음선원은 매년 9월이면 다음 연등회를 위한 장엄등 시안을 준비한다. 12월부터는 시안을 토대로 100여 명의 청년회원들이 골조·전기·채색·자재·기획·운영·미디어·실·연희·용 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선다. 하나의 장엄등을 완성하는 데 꼬박 9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순서는 없다. 정해진 기간 내에 작업을 마치려면 모두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렇기에 매일 퇴근 후 밤늦도록 작업에 매달리기 일쑤다. 모두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지도를 맡은 팀장들의 어깨는 조금 더 무겁다. 오랜 기간 함께 정성을 쏟아야 하는 만큼 협동과 체력 관리도 꼭 필요하다.

한마음선원 청년회 지도법사 혜모 스님은 등 제작 과정을 ‘수행’과 같다고 말했다. 스님은 “옛날에 스님들이 사찰에서 참선하며 안거 수행한 것처럼, 청년들이 몇 달간 하고 싶은 것들을 참고 인내하며 선원에 모여 등 제작에 시간과 정성을 쏟는 모든 과정이 일상에서 수행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라며 “체력적으로 부담되겠지만 스스로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맑히는 건강한 삶을 배워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피력했다.

실제 청년들은 이 과정을 몸소 체험하며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는 중이다. 배득렬(33) 한마음선원 청년회장은 장엄등 기획팀장을 맡아 계획 수립, 일정 조율 등을 총괄한다. 어떤 등을 만들어야 할지, 어떤 메시지를 담아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도반들과 논의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제가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걸 해보겠습니까. 어려움도 있지만 정해진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청년회 회원들과 소통하고 수정을 반복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배 청년회장도 직장생활과 등 제작을 병행하다 보니 가끔 체력이 떨어지고 피로가 몰려올 때가 있다. 그럴 땐 ‘부처님 심부름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는다. 배 청년회장은 “등을 만들면서 각자가 내는 마음들이 등 공양 안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가 만든 장엄등을 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도 같이 밝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5번째 장엄등 제작에 동참하고 있다는 이두찬(31) 불자도 올해 처음 기획팀으로 활동하고 있다. 등 제작 진척 상황을 관리하려면 각 팀과 조율할 부분이 많은데, 그 과정에선 각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불자는 이같은 갈등 상황을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 불자는 “개개인 간 의견 차이는 어쩔 수 없다.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되돌아보면서 각자가 한발 더 성장한다”며 “그렇게 여럿이 함께하는 시간과 경험이 모여 삶을 알아가고, 사회를 이해한다. 비로소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단단한 주도권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흐뭇한지 혜모 스님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자기 안의 믿음이 확고하면 걱정, 근심 없이 마음을 밝힐 수 있다”며 “등을 만들면서 내면에 갖춰진 힘을 되찾아 남과 비교하고 뒤처진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불안에서 벗어나길 기원한다”고 넌지시 응원의 말을 건넸다.

한마음선원이 청년회를 중심으로 창작 장엄등을 만든 건 2002년부터다. 이들은 해마다 대두되는 사회 문제가 다른 만큼 매년 새로운 장엄등 제작을 시도한다. 장엄등을 완성해 가는 과정 하나하나엔 그 해 직면한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각자의 발원과 염원이 오롯이 담겼다.

지금까지 한마음선원이 매년 발전된 등을 선보일 수 있었던 데에는 선배 청년불자들의 공이 크다. 20여 년간 차곡차곡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고스란히 후배들에게 전수해 전통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후배들은 그런 선배들 곁에서 점차 실력을 키웠고, 어느덧 또 다른 후배를 지도하는 선배가 됐다. 이같은 선순환 구조 덕분에 웬만한 망치질부터 LED 등 설치와 전기 설비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한마음선원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등 만들기를 가르치고 있는 김유학(46) 불자는 20여 년간 장엄등 제작에 사용되는 전기를 관리해온 베테랑이다. 청년회를 거쳐 거사회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후배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을 정리해 일러줬다.

김유학 불자는 “저 또한 전기 관련 일을 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등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었다”며 “후배들에게 등 제작에 대한 주체적인 힘을 길러주기 위해선 선배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순환 구조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결연 채색팀장(32)도 “팀원들이 다 미술 전공자가 아니기에 가끔 실수도 하지만 각자의 장점을 이끌어내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며 “코로나19로 멈춰 있는 동안 급격한 세대변화가 이뤄졌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주는 게 고맙다. 시국이 어렵고 전쟁,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는 요즘, 등을 밝혀 세상도 더 밝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 바쁜 와중에도 등 만들기에 충실했던 청년불자들.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한 청년불자들의 간절한 염원이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기대한다.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사)부산불교문인협회

실상문학상 운영 이사장 심산스님

이 사 장 차정연
이 사 이석래, 박희선, 박진호, 윤기선
부 회 장 명은애, 박숙자, 박혜숙, 서경남, 손순이, 윤기선, 윤유점, 우아지, 이순선, 최선희, 보혜스님
감 사 차달숙, 박선옥
편 집 주 간 양원식
편 집 국 장 이소정(사무국장 겸직)
편 집 위 원 윤기선, 염계자, 권명해, 홍종원
편 집 기 자 최인숙
사 무 차 장 이장옥, 임정서
재 무 국 장 이형주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717호
☎ 051)816-4181
http://cafe.daum.net/bulgoy

KUmuda
문화를 넘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 하나'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사단법인 쿠무다가 함께합니다

KUmuda Healing Village
지하 2층, 지상 8층 850평 규모

옥상 SKY BUDDHIST SANCTUARY 하늘법당
8F Res.Maison KUmuda 관광숙박시설 레스메종
7F Res.Maison KUmuda 관광숙박시설 레스메종
6F Res.Maison KUmuda 관광숙박시설 레스메종
5F EDUCATION CENTER/FRONT DESK/MEDITATION & TEA
4F LABXXIV [랩24] by KUmuda
3F KUmuda
2F cafe KUmuda 갤러리
1F 로 비
B1 문화예술 쿠무다 콘서트홀
B2 사무국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41
Tel. 051-702-1300

금정구사암연합회

고 문 정오스님(범어사) 고담스님(천불정사 회주)
춘광스님(광명사) 계전스님(국청사)
월인스님(승가종 종정)동원스님(연화종 종정)
회 장 동암스님(금용사)
수석부회장 법일스님(법장사)
상임부회장 홍일스님(법전사)
사 무 총 장 법경스님(천불정사)
감 사 운곡스님(관음사)
기 획 국 장 보산스님(안국선원)
문 화 국 장 지광스님(대운사)
사 회 국 장 혜공스님(구룡사)
포 교 국 장 현수스님(홍법사)
재 무 국 장 박 분 순(달오사)
사 서 국 장 심일스님(대흥사)
회 원 승공스님(칠보사) 진여스님(다보사)
지훈스님(해동정사)

금정구 사암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201
금융사 內 | Tel 051)518-8507

부산광역시
남구불교연합회

회 장 회중 지원 문수사
수석부회장 원순 동명불원
부 회 장 능후 대연정사
감 사 대 각 옥천암
사 무 총 장 호 명 무문홍법사
사무부총장 혜 광 대연사
사 무 국 장 대혜법사

남구불교연합회 회장 지원 스님 외 회원사암주지일동
남부경찰서 경승 실장 지원 스님 외 경승일동

남구불교연합회 신도회

신도회 회장 박화자
수석부회장 광혜 성재곤

부산시 남구 홍곡로 336번길 41 (용당동)
문수사內 전화 051)623-9253

"수행이 곧 포교, 포교가 곧 수행"
포교현장을 찾아가는 포교사
전법의 선원을 실천하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 장 송재린
자문위원 최덕수 심재덕 강수대 이승표 정분남
감 사 강재실 이수임
부 단 장 서영우 이양희 임한규 주태돈
사무국장 강태산
총괄팀장 최정자 황용대 조봉례 김영신 천경덕 김진희 윤영준 외 포교사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501호
전화 051) 633-3011, 3015 팩스 051) 633-3012
www.pogyosadan.org
http://cafe.daum.net/bgpogyosadan

대한불교조계종
해운대 장산
대 원 각 사

주 지 안 도
신 도 회 장 정 재 원
수석부회장 이 복 덕
다 도 김 미 규
불 무 도 박 성 우

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로 427-291(좌동 1132번지)
전화 051)701-8827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감 로 사

조실 현담 의현 대종사
회주 수봉 세민 대종사
주지 월천 혜총 대종사

부 주 지 경성
총 무 경원 교 무 경무
재 무 경증 사 회 경동
포 교 경소 복 지 경지
연 수 경상 교 육 경증
군 포 교 경제, 경진, 법설
해외포교 경적, 경본
사 서 경여

감로사 신도 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432(전포동)
전화 051)809-0926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회주 법 흥
주지 지 원

신도회장 박화자 외 신도일동

사회복지법인문수복지재단
사단법인위드아시아
심청이문수노인복지센터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용호어린이집
문현노인복지관
못골다함께돌봄센터
남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부산시 남구 홍곡로336번길 41 (용당동)
전화 051)624-3754, 7848
팩스 051)623-9253

지장기도도량
한국불교태고종
천 불 정 사

회 주 선 묵 고 담
주 지 법 경
누림주간보호센터장 조민호(범성)
원 주 조정자

신 도 회 회 장 이상봉
신 도 회 부 회 장 백현일 장문정
신 도 회 총 무 남현주
거 사 림 회 장 이경철
고담나누미 회장 신희숙

사 부 대 중 신 도 일 동

누림주간보호센터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장전동)
전화 051)583-9233 팩스 051)583-6362
누림주간보호센터 051)516-2333

대한불교조계종
승보종찰조계총림 송광사 부산분원
관 음 사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다음카페 cafe.daum.net/gwanumsa1

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관음사]
(당리동39-2)
전화 051)294-9300

대한불교조계종
광 명 사

주지 무 아

신 도 일 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14번길 46
전화 051)646-0843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진각종 부산교구

교구청장 현 강 정사님
종무국장 효 인 정사님
신도회장 안인수 보살님

부산교구신도회
신교도 일동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9
전화 051)464-0668

사)부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 재 정오
부 총 재 원타
도림(사무총장 겸임)
협 회 장 백명숙
사무처장 정경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27
유원골든타워 o/p 1206호
전화 051)513-4306 Fax 051)513-4307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 부 장 심산
부본부장 자인, 목종, 해암, 이동권, 이승표, 이욱태
감 사 최상곤, 이영숙
총무이사 성문, 권인자
기획이사 마나, 최성은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배종권
운영이사 주석, 도명, 법경(광명사), 용암, 법경(천불정사), 용하, 대각, 성화, 보련, 태산, 이경순, 서미단, 박경례, 복춘희, 신혜숙

〈주요사업〉
장기기증 희망등록사업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자살예방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63번길 1,2층
(수정동,은정빌딩)
☎ 051-853-0429 Fax 051-853-0439

불교TV 염불공양회

고 문 강명자 김순이
회 장 하정선
수석부회장 정승자
특별임원 임춘지
부 회 장 윤미자 안상희
감 사 강행순 강지원
재 무 윤정희
총 무 송순애
팀 장 최말순 김금옥 박선자 김숙희



회 원 일 동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02번길 16-10
동양빌딩 7층(범일동) | 전화 051)633-4020

대한불교조계종

천 태 암

회 주 상화
주 지 동효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129번길 175(온천동)
Tel 051)506-0642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지 운암 현엽

(재)청미단 운암 장학회
(사)청미단 생활문화 학림원
마에뜨리아 불교대학·대학원
포교사반(1년), 입문자반(3개월)
대학원(2년)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29 (명지동)
전화 051)271-2774 팩스 051)271-0936

준제보살기도도량

연종학림

명상센터

바즈라야나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15 3층
전화 051)404-5037

고려시대 석기왕자 출가사찰

만 덕 사

(부산지방문화재3호 만덕사지)

주지 금산 박혜명

만덕사 신도일동

사단법인 현대불교 금정원

부산광역시 북구 구만덕로 63-13
전화 051)334-3009

한국불교조계종

황령산 옥 천 암

주 지 대각 금산
원 주 월하 도진
연등회 회장 김선숙
보현회 회장 박영자
지장회 회장 김감애
관음회 회장 배기매

사부대중 일 동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 90번 나길 23(문현동)
전화 051)634-5689

(양정시장 꽃상가 5층) 청정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부설 자선단체]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 (범어사 방장)

여여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 기도법회 -
초하루법회
지장재일법회
관음재일법회
광명진언천일기도법회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420번길 18, 5층(양정상가 아파트)
전화 051)853-5486~7, 팩스 051)863-6422
(사)세상을 향기롭게 : 전화 051)702-9944

함께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 산하시설 및 운영사업 -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공덕향재가복지센터
북구아이돌봄지원사업

온정의 마음을 전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후원 : 부산은행 255-01-000716-4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68 상가동 204호 (금곡동)
Tel. 051)363-2063 Fax. 051)363-2067
http://www.gongchang.or.kr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원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신도 일동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64(구포2동) 3-4층
전화 051)338-1008, 337-1080

등은 서원이다 › 이모저모 등 이야기

등 만들기, 전 세대 아우르는 포교

조계사, 등 만들기 행사 통해
어린이·청소년·가족·비불자
"즐거운 시간" 호평들 쏟아져

이민우 기자 mincow@hyunbul.com


동자승들이 가족 등 만들기 행사에 참여해 자신만의 등을 만들고 있다. 사진=조계사

서울 조계사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교 방법으로 등 만들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조계사는 어린이·청소년은 물론 부모와 조부모, 심지어 비불자 가족을 위한 등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불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고 있다.

조계사는 어린이·청소년법회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행렬등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 불교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은 뼈대에 종이를 붙이고,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메시지를 오려 붙이면서 각자의 개성이 발휘된 행렬등을 만든다. 그리고 완성한 등을 들고 연등행렬에 참여해 잊지 못할 추억도 쌓는다. 뿐만 아니라 왜 불교에서 등을 만드는지, 등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법문도 함께 들으며 부처님의 지혜광명을 되새긴다.

조계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린이·청소년 위주였던 등 만들기 참여 대상을 가족으로 확대해 포교의 폭을 넓힌 것. 조계사는 2018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 가족 연등 만들기 대회'를 처음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가족 등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첫 행사에는 300여 명의 가족들이 참가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고, 2020년 행사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40개 팀 모집이 순식간에 마감됐다. 자녀와 부모, 조부모 세대도 함께 등을 만들며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계사는 완성된 등을 경내에 전시하거나 다른 사찰에 기부하는 등 의미 있게 활용하고 있다.

불자가 아닌 가족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포교 효과를 높였다. 조계사는 사전접수 외 현장접수를 추가로 받아 즉석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비불자 가족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우연히 들른 조계사 현장에서 즉석으로 행사에 참여한 비불자 가족 수도 상당하다. 등 만들기를 통해 불교문화를 경험해본 이들은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조계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와 같은 긍정적 반응을 쏟아냈다.

조계사는 이렇듯 등 만들기를 활용한 전 계층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상훈 조계사 법회·행사국팀장은 "과거 등 만들기는 어린이포교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현재 조계사의 등 만들기는 부모·조부모, 비불자들도 함께 하고 있다. 이렇듯 등 만들기는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훌륭한 포교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조계사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포교행사를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현대 조화…생동감 넘치는 불교 체험 유도

진각종, 움직이는 등 선보여
2001년부터 종단 특색 담아
무선 제어 · 예측값 설정 가능


불을 뿜고 있는 용 모양 장엄등. 사진=진각종

전통 등(燈) 문화와 현대 첨단 기술의 조화로 한국불교 등 발전을 선도하는 종단이 있다. 바로 진각종이다. 진각종은 전통 한지 등 형태를 유지하면서 LED조명과 제어 시스템을 활용해 움직이는 등을 제작, 한국불교의 생동감과 역동성을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

진각종이 움직이는 등을 만든 건 2001년부터다. 당시 연등회가 온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면서 '등' 문화에 관심이 높아졌다. 진각종 역시 등에 생활불교·실천불교를 지향하는 종단의 특색을 담기 위해 고민했고, 현대적이고 차별화된 등을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 결과 청룡, 황룡, 공작, 봉황, 손오공 등 다양한 형태의 움직이는 등이 탄생할 수 있었다. 특히 호국불교정신을 이은 '거북선 등'은 정체성과 상징성을 오롯이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청룡과 황룡, 거북선 등은 불을 뿜는 특수효과를 사용해 움직임의 디테일을 살렸다.

움직이는 등은 기술적 과정이 추가되는 만큼 더 많은 제작 시간이 소요된다.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정 움직임을 위한 별도의 설계와 프로그래밍이 구성돼야 한다. 원활한 작동을 위한 안전성 검토도 필수다. 복잡한 디자인의 경우 길게는 2년이 넘게 걸릴 정도다.

진각종의 등이 기술적 발전을 이룬 데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초기에는 유선 방식으로 움직임을 제어했기에, 발전기 이동과 배터리 수명을 늘 신경 써야 했다. 또 등의 움직임이 어색하거나 이음새가 정돈되지 않아 마무리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 끝에 외관은 깔끔하게 정돈됐고, 원격 제어 장치를 통해 무선으로 동작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움직임의 값을 예측하고 설정하는 것도 가능한 정도다.

현재 진각종은 움직이는 등을 문화포교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등회뿐만 아니라 각 지역문화행사, 전시회에 등을 출품하고, 등 경연대회를 여는 등 불교와 대중의 거리를 좁혀 나가고 있다. 구장현 진각종 포교과장은 "불교의 가르침과 역사가 담긴 '움직이는 등'은 현대적이고 흥미롭게 불교를 체험할 기회"라며 "대중이 쉽게 불교에 다가갈 수 있도록 등 문화 정착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연등행렬 숨은 공신, T자형 연등걸이


봉은사 사부대중이 T자형 연등걸이를 들고 연등행렬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봉은사

봉은사, 2000년 행렬서 최초 선봬
걸음에 따라 물결치는 행렬 연출
등 2개에 서원 담아 의미도 2배

많은 사람이 연등행렬의 매력으로 수천 개의 등이 어우러지면서 연출되는 장엄한 빛의 물결을 꼽는다. 이 배경에는 2000년 T자형 연등걸이를 선보인 서울 봉은사의 역할이 컸다. T자형 연등걸이는 기존 연등걸이의 아쉬움을 보완하고 '행렬등' 자체를 부각하는데 적합했다는 평가다.

기존 연등걸이는 손을 앞으로 뻗어 사용하는 것으로, 등이 앞사람의 허리 위치에 자리했다. 이 방식은 이동시 등이 앞사람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다. 사람 양 옆으로 빈 공간이 생기면서 황량한 분위기마저 느껴졌다.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 디자인이나 크기를 변화하는 노력은 곳곳에서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웠다. 같은 고민을 하던 봉은사는 행렬등을 거는 연등걸이에 주목했다. 행렬등이 부각되지 않는 것은 디자인이 아닌 행렬등을 드는 방식의 문제라는 생각에서다.

연구를 거듭한 봉은사는 안정적으로 등을 높게 들 수 있는 장대 형태를 채택했다. 또 두 개의 등을 한 번에 들 수 있도록 장대 머리 부분을 T자형으로 만들었다. 장대 형태는 등을 사람 머리 위에 위치시켜 행렬등이 가려지는 것을 막았고, 빈공간도 빛으로 채울 수 있었다.

다만 초기 T자형 연등걸이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데다, 등을 밝히는 데 필요한 크고 무거운 배터리를 함께 들어야 했기에 무게 부담이 심했다. 봉은사는 기술적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했고, LED등과 가벼운 소재를 사용한 연등걸이를 제작, 부담을 최소화했다. 경량화된 연등걸이를 든 참가자들은 힘껏 행렬등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었고, 이는 자연스레 빛의 물결을 연출해냈다.

봉은사는 등에 담는 의미도 놓치지 않았다. 연등걸이에 걸린 두 개의 등에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개인적 서원과, 세상을 위한 공동체적 서원이 담긴다. 봉은사는 사람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을 함께 발원하게 만듦으로써 행렬등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이처럼 시각적·의미적으로 연등행렬을 풍부하게 만든 봉은사의 T자형 연등걸이는 순식간에 연등회에 참여한 사찰과 불자들을 사로잡았다. 행렬등이 더 잘 보이는 것을 넘어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렬로 연출되는 장엄한 물결이 혁신적이었기 때문이다. 사회공동체를 위한 서원도 함께 담는다는 점도 불자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 충분했다.

세간의 주목을 받은 봉은사는 두 개의 행렬등에 담는 의미를 확산하고, 아름다운 연등행렬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T자형 연등걸이 보급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T자형 연등걸이를 활용한 사찰들이 조금씩 늘어나 지금의 연등행렬까지 이르렀다. T자형 연등걸이는 봉은사의 넓은 안목이 고스란히 드러난 연등회의 숨은 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우 기자 mincow@hyunbul.com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부산불교복지기관의 상호교류와
불교사회복지 역량강화에
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

Since 1999

회장(대표이사) 정 여
수석부회장 범 산
상임이사 원 광
이 사 명현, 성문, 심산, 정오, 보혜, 김수현
감 사 박용하, 이룡우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불교회관 3층
전화 051)243-3531 http://www.bswia.org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성불합시다.

"대학생불자활성화 108후원"모집

불교인구 감소와 탈종교 시대에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현재이자 미래인 대학교 불자동아리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08후원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원일동 합장

자동이체 : 1만원/월
계좌번호 : 농협 301-0169-1519-21
(예금주 :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문의 : 010-3544-7500 (회장 권성열 교수)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登一段하는

(社)釜山佛敎實業人會 妙光禪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박수복
부 회 장 이근철 이달수 강양수 정영철
감 사 지호경 박신욱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송우근
사업이사 이종환
관리이사 이규인
연수이사 박주영
지도법사 권승열
부 총 무 양동회

회 원 일 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7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대한불교조계종

발 원 사

주지 호 법

신도회장 김해림
화엄회회장 오부상
순례단장 김상욱
다도회회장 윤선영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310-78
Tel 051)405-2326

대한불교조계종

가 야 사

주지 정 현

✽ 가야사 다도회 모집
(매주 월요일 10시~12시)
: 차의 세계와 문화, 다법과 예절(다례), 차명상과 참선
✽ 금강경 수업반 모집
(매주 1회 19시~21시)
문의 : 051)893-0428

〈 후원기관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시니어클럽, 연제시니어클럽

※ 만60세 어르신으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나 어르신들의 채용을 원하는 단체는 언제든지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부산진시니어클럽 ☎ 051) 893-9060
연제시니어클럽 ☎ 051) 851-2190

대한불교조계종

地藏佛敎 根本道場 대연정사

사부대중일동

www.dytemple.net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69번길 8
전화 051)625-3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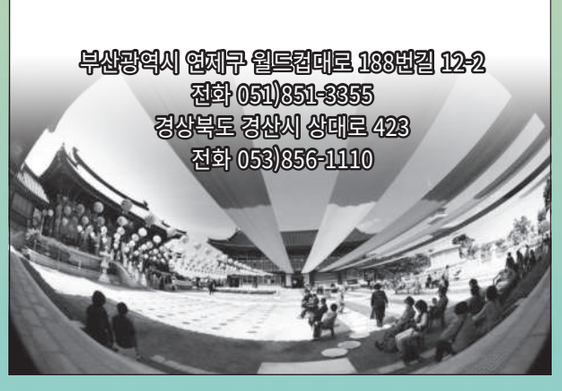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여래선원 경산 삼성사

주지 평중효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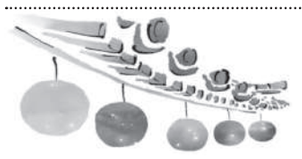
사부대중 합장

· 여래불교대학 : 매주(수) 주간10시 야간 오후7시
· 경전반 : 매주(화) 주간 10시 야간 오후7시
금요자비참법기도 오전10시
· 매월 첫째주 목, 금 다라니기도 오후7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88번길 12-2
전화 051)851-3355
경상북도 경산시 상대로 423
전화 053)856-1110

락 서 암



주지 수 월

락서암 신도 일동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227-3
전화 051)254-0820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 현 정 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최본자성
감 사 배종환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전진호
법당꽃보살 주원미

회 원 일 동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전화 051)636-4531

동 국 한 의 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건강과 행복 가득하세요"

동국한의원 직원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56 한나타워 209호
전화 051)413-1155

담앤북스

출판문화그룹 DHAM&BOOKS

서울_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23(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4단지 805호
T. 02)765-1251(영업부) 1250(편집부)
dhamenbooks@naver.com

부산_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대연동)
T. 051)244-1251
hdbooks21@hanmail.net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지 임 대

사부대중일동

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 939-1
전화 054)247-2729(FAX 겸용)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 덕 사

주지 운 성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전화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금 용 사

(금용 복지회관)

혜 선

신도회 일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13(성당동)
전화 053)628-5404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비슬산 대견사

주지 법 희

일제 강제 폐사 100년 만에 중창 불사한 도량
국운융성과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대도량
(금,토 철야 정진중)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일연선사길 177
전화 053)746-0020

대한불교조계종

대 전 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송군 부동면 공원길 226
전화 054)873-2908 팩스 054)874-9137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주지 덕 화
회장 김광석

사부대중일동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두리 151
전화 054)285-8516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장 증 악

사부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문화강좌안내)
선체조 / 다도 / 어린이 천자문 교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전화 053)522-7611 팩스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법 성 사

주지 부용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 386-3
전화 053)553-5371

대한불교조계종

불 광 사
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장 운곡 돈관

주지 지안

www.gbbc.or.kr
(우리나라 두꺼비 최대서식지)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전화 053)792-1353, 1181 팩스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지 경 암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전화 053)791-8137, 팩스 053)792-0784

대한불교선각종

영천보현산 등 명 사

조실 석정암
주지 석혜명

신도일동

경북 영천시 화북면 오동리 603-2
TEL 054)337-4572 / H·P 010-5506-9448

포항 자 명 선 원

경북 포항시 중앙로 131번1길 46-2
TEL 054)281-7712, 7719

팔공산 갓바위 앞산

용 주 암

주지 韓 成 鶴

사부대중일동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불기 2568년 연등회

사진=윤호섭 · 이민우 기자

올해는 갑진년으로 '푸른 용의 해'라 불린다. 동아시아에서 용은 생명의 근원인 물을 상징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이 하늘로 승천하여 풍운을 일으켜 비를 내리게 하고 물과 바다를 다스리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었다.

상서로운 용의 기운 때문일까. 불기 2568년 연등회가 우천 속에 봉행됐다. 적지 않은 비가 내렸지만, 연등회에는 5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들 만들어낸 10만 연등 물결은 하늘에서 내는 '감로수'를 따라 넘실넘실 흘렀다. 서울 종로 일원에서 펼쳐진 연등회의 모습을 화보로 꾸몄다.



5월 11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막을 올린 연등회 어울림마당에서 연희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행복한 세상' 발원 10만 연등 물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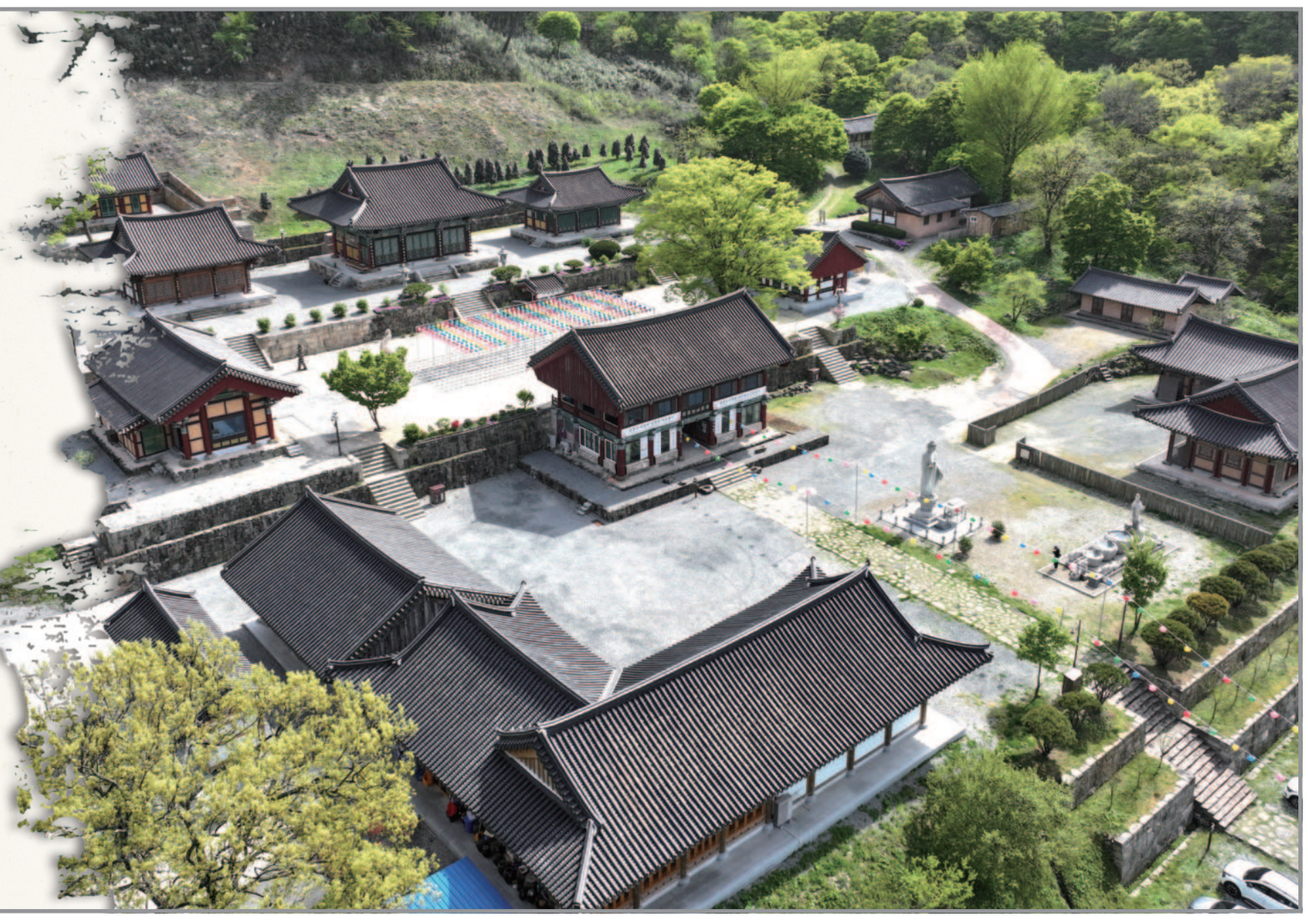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용구산 **용 흥 사**

주 지 **덕유**

사부대중일동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574
전화 061)382-0574





연등회 연등행렬 선두 등단의 사천왕등. 비가 오는 와중에도 서울 종로 일원을 여법하게 장엄했다.

‘감로 꽃비’ 따라 넘실넘실 흐르네













연등회 동참 세계인들 “한국의 멋 모두 담겨”

5월 11일 연등행렬을 지켜보는 외국인들은 “신기한 경험”이라며 “역시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캐나다에서 온 샤롯 씨는 연등 하나 하나를 사진으로 간직하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다. 샤롯 씨는 “다채로운 연등과 아름다운 의상, 활기찬 율동을 보니 얼마나 오랜 시간 함께 모여 정성스럽게 준비했을지 상상이 된다”면서 “유네스코 문화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넘게 문화를 이어가며 협동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감동을 전했다.

연신 “원더풀”을 외치던 영국인 빅토리아 씨는 “한국을 여행하며 느꼈던 다양한 한국의 멋이 연등행렬에 모두 담겨 있다”면서 “사람들에게 뿜어 나오는 활기와 역동성, 화려하면서도 고전적인 색채, 아름다운 밤거리 등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가 쏟아져 숙소에서 나올까 말까 고민하다 나왔는데 이번 여행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라며 “숙소로 돌아가 연등행렬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K-pop에 푹 빠진 딸들과 2주째 한국을 여행 중이라는 미국인 소마 씨는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페스티벌을 경험했지만 가슴이 뭉클한 느낌은 처음”이라며 “연등에서 나오는 우아하면서 빛깔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난다. 신기한 경험이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 하면 그저 엄숙하고 진지한 종교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웃고 떠들고 몸을 흔들며 즐기면서도 메시지와 품격이 있었다”면서 “이것이 한국불교가 가진 힘일까?”라고 감동을 전했다.

이틀 후면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한국을 떠난다는 프랑스인 파비앙 씨는 “연등회에 맞춰 한국 여행 일정을 짠 내 자신을 칭찬한다”면서 “한국을 떠나고 다음날이 부처님오신날이라고 들었는데, 하루 먼저 떠나는 게 아쉬울 지경”이라며 웃었다.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현존 最古사찰 지장도량

삼랑성 傳燈寺

조실 정암 세연

회주 학농 장윤 주지 여암

정기 법회
초하루 법회
지장재일
– 합동천도재 및 만년위패 봉안식
일요법회, 어린이법회

전등사 유튜브 ‘전등사TV’ 운영
구독과 알림설정으로 어디서든
온라인 법회에 동참이 가능합니다.



마음의 등불 전등사 대한불교조계종

주소: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홈페이지: jeondeungsa.org 이메일: 9370125@daum.net TEL: 032)937-0125 FAX:032)232-5450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임 휴 사

주지 무공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 1321
전화 053)632-4844, 641-4844
팩스 053)639-5033

유튜브 불교대학 비유디

19만 구독자가 시청하는 생활법문
한국불교대학 or 유튜브불교대학 or 우학스님 검색

불교의 모든 것! 생활법문, 신행상담
수행 – 금강경 독송, 관음정근, 대다라니 등
경전공부 – 육조단경, 금강경 등
◈ 멤버십을 통한 체계적 불교공부 ◈
(월 2,990원 / 교재 무료 제공)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큰절 (053)474-8228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회주 포전 혜관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전화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비슬산 은적사

은적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회주 일응당 지성
주지 원 일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순환로 574-120(봉덕동)
전화 053)653-1275 팩스 053)653-2765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파계사

관음기도도량
파계사 원통전 보물 제1850호 지정



조실 청운 도원
주지 허주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중대동)
전화 053)984-4550 팩스 053)985-7118
www.pagyesa.org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지 선 지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전화 053)941-3503, 053)953-4481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회주 정 관
사부대중일동

천수경 에세이집
[마음을 주는 손] *저자 정관스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산 1번지
전화 053)767-7504

재단법인 선학원

기원정사

주지 우록 법륭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33길 6(불로동)
전화 053)982-9329 팩스 053)983-1698

'효' 종찰 기도도량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도량

까치산 길조암

주지 보 현

「길따라 …
土樂 토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전화 054)931-5204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륵사

주지 석청송

전화 053)981-1199, Fax 053)982-0683

高靈瓦 Goryeong Rooftile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전화 054)954-8008(代) 팩스 054)954-5335

우리 시대의 힘 인재양성

보광명문화장학재단

"당신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만원 후원금으로
재단 후원회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신한 : 562-069-8443-4636
대구 : 505-10-201229-4
예 금 주 : (재)보광명문화장학재단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4길 39(삼덕동2가)
(갤러리 영도다움 3층)
전화 053)710-3700, 053)523-2886
팩스 053)252-2886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성 불 사

전북지방유형문화재 제238호
석가여래행적송

주지 월은 종명

사부대중 일동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전화 063)445-3266

대한불교조계종

보물 제1842호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익산 관음사

주지 대산 덕림

사부대중일동

부설 이리불교대학
부설 어르신주간보호센터

공양미콘서트 쌀공양



주소 전북 익산시 평동로 9길 72 전화 063)854-1578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금 선 암

포근하고 넉넉한도량

주지 덕 산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377
전화 063)221-8486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정읍 보 림 사

주지 종 진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정읍시 북면 보림1길 497
전화 063) 535-6800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서 고 사

주지 화 평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10-90
전화 063)212-7709

지장참회도량

도솔산 참당암

참당선원

선원장 법 만

사부대중 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도솔길 194-77
전화 063)563-3440

정읍 미 타 사

주지 경 오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정읍시 마곡로 141
전화 063)533-1373

한국불교태고종

군산 성 흥 사

(부설 성흥사 불교대학)

회주 송 월
주지 보 위

사부대중일동

전북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134-16
전화 063)453-0050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KYBA

전북지구장	장석희
전주청년회장	김대현
김제청년회장	서정호
남원청년회장	양병일
완주송광청년회	장석희
정읍청년회장	강명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206

부처님오신날

진신사리 친견법회

일시 : 불기 2568년 5월 15일
오전 10시~오후 5:00

장소 : 참좋은우리절 대법당

대한불교조계종
참좋은우리절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196-154
063)236-6633

군산불교 사암연합회

성흥사	송 월	흥천사	법 운
동국사	재 안	보천사	의 종
은적사	신 행	삼보사	법 송
관음사	도 천	수도암	무 진
광법사	명 각	도안사	명 현
지장암	원 휴	대명사	덕 인
회장 상주사	도 연	재무 염불사	혜 윤

사부대중일동

전북 군산시 서수면 함안로 57-29
전화 063)453-7800

불기2568(2024)년

우리도 부처님 같이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

원로의원 **지현 (해경사)**
원로의원 **세명 (관음정사)**
자문위원 **서산 (보광사)**
자문위원 **월봉 (석봉암)**
자문위원 **세명 (관음정사)**
자문위원 **법안 (청량사)**
자문위원 **옥산 (화엄사)**
자문위원 **법철 (세심사)**
자문위원 **석봉 (백운사)**
선거관리위원장 **만우 (법성사)**
교육위원장 **환명 (약수암)**
감사위원장 **법진 (거림사)**
포교위원장 **도각 (선암사)**

종무원장 **황봉 (관음사)**
행정부원장 **성욱 (영진사)**
재경부원장 **무진 (보현정사)**
종무국장 **혜각 (수도사)**
교무국장 **법륜 (불정사)**
규정국장 **법성 (大장엄사)**
문사국장 **지혜 (도성사)**

종회의장 **광해 (자비사)**
종회부의장 **자운 (여여암)**

중앙종회의원 **정광 (문수암)**
중앙종회의원 **혜우 (봉연암)**
중앙종회의원 **자범 (옥골사)**
중앙종회의원 **환명 (약수암)**
중앙종회의원 **광해 (자비사)**

중부분원장 **혜우 (봉연암)**
서부분원장 **자운 (여여암)**
남부분원장 **근해 (무상사)**
밀양분원장 **지원 (부은사)**
김해분원장 **법조 (보현사)**
중부분원총무 **자명 (석봉암)**
서부분원총무 **성인 (효도암)**
남부분원총무 **청현 (정각사)**
밀양분원총무 **승현 (지혜사)**
김해분원총무 **무진 (보현정사)**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로93 전화 055-298-3634

대중불교 전법도량

봉화산 정 토 원

주지 **등명 합장**

신도일동

김해시 진영읍 장방로136-200
전화 055)342-2991~2
www.bonghwasan.org

한국불교태고종

석 봉 암

회주 **월봉스님**
주지 **자명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원곡2길 77-42
전화 055)223-6801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

대한불교조계종

김해 여여정사

불교대학 · 경전반



주지 도 명

사부대중일동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로30번길1
전화 055)311-2911

대한불교법화종

통영 보 광 사

법화제일도량

주지 **연산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통영시 망일길71-20
전화 055)645-9292

대한불교조계종

두 타 사

불사회
두타회
단나회
108산사순례단
가릉빈가합창단
해병대통영전우회

해병 영혼의집

사부대중 일동

경남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95-1
전화 055)648-1477, 648-1366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포교당

불 인 사

주지 **송산스님**

미소도량불인사
미소명상센타

신도일동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 못안길18
전화 055)338-1638

한국불교태고종
(나누우리 이사장)

밀양 법 성 사

주지 **만우스님**

신도회일동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정2길 159-11
전화 055)351-0374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진 각** (표충사 주지)

상임부회장 **환명**(약수암)
사무총장 **정무**(용궁사)
재무부장 **지공**(어룡사)
포교부장 **현송**(대원암)
사회부장 **천주**(무봉사)
감 사 **성정**(수덕사)
교무부장 **도청**(신명사)
홍보부장 **덕향**(미덕사)

회원사찰일동

경남 밀양시 북성로1길 8-1
전화 055)355-4518 팩스 055)354-5622

산청 단 속 사

주지 **자흥스님**

사부대중 일동

경남 산청군 단성면 호암로673번길 22-4
전화 055)972-5386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⑩ 시대별 찻그릇에 대하여

찻그릇, '차 담아냄의 미학' 정수

다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차를 담아 마시는 찻그릇이다. 차를 위한 수많은 과정의 결과를 오롯이 담아내는 찻그릇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시대에 따라 여러 재질과 형태로 제작되며 변화해왔고, 그 시대 차 문화의 특징과 취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찻그릇은 도자, 금속, 유리에서부터 목제 칠기에 이르기까지 무척 다양한 소재로 제작되었으나 열전도 측면에서나 차의 색, 향, 미를 담아내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단언 도자로 만든 것이었다.

좋은 찻그릇에 대한 고찰은 이미 당대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육우(陸羽)는 〈다경(茶經)〉에서 월주(越州)의 청자 다완을 옥과 얼음에 빗대어 최고라 칭하였고 은과 눈처럼 새하얀 형주(邢州)의 백자 다완은 이에 못 미친다 하였다. 차를 푸른 청자 다완에 담으면 고운 녹빛을 띠지만 하얀 백자에 담게 되면 붉은빛이 돌아 고유의 차색을 해치니 좋지 않다는 의미였다. 그는 이 외에도 황색의 자기에 차를 담으면 자색이 돌고, 갈색의 자기에 담으면 차색이 검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마땅치 않다고 평하였다.

이어 육우는 월주의 다완은 '구연의 입술은 말려 있지 않으며 바닥은 얕은 권족(卷足)을 지닌다'고 하였는데, 그의 기록처럼 이 시기의 다완은 대개 깊이가 얕고 측면이 구연까지 완만한 사직선을 이루며 곧게 벌어지는 형태였다. 이는 완에 담긴 차와 차 거품을 함께 마시기에 적절한 구조이다. 오늘날처럼 좁고 깊은 형태의 잔은 위에 뜬 거품이 먼저 입에 들어오고, 거품을 다 마시고 나야 아래의 차를 마실 수 있으니 차와 차 거품을 함께 마시기에 적절하지 않다. 당시에는 풍성한 거품이 좋은 차의 기준이었으므로 차와 차 거품을 함께 마시기 좋은 형태의 다완을 고안한 것이다.

송대에는 차의 떫은맛을 없애고 여리고 순한 맛을 얻기 위해 갓 돋은 새순을 취하고 고를 짜내어 차를 만들었으니 엽록소가 적게 함유되어 하얀 빛을 띠었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차의 하얀 빛깔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대비감을 주는 검은 색의 다완을 선호했다. 채양(蔡襄)의 〈다록(茶錄)〉, 휘종(徽宗)의 〈대관다론(大觀茶論)〉, 심안노인(審安老人)의 〈다구도찬(茶具圖贊)〉 등 송대의 여러 다서에서는 건요(建窯)의 흑유잔을 최고로 손꼽았다.



송나라 시기 만들어진 흑유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송대 흑유잔, 명청대 백자잔 선호
차 종류에 따라 찻그릇도 변화해

차색은 하얗기 때문에 마땅히 검은 잔(黑盞)이 좋다. 건안지역에서 만든 것은 감흑색에 문양은 가는 토끼털(兎毫)과 같고, 기벽이 약간 두툼하여 데워지면 쉽게 식지 않고 열감이 오래가기 때문에 쓰기에 가장 좋다. 다른 데서 생산된 것은 (기벽이) 얇거나, 자색이 돌아서 모두 (건안의 것에) 미치지 못한다.

–채양(蔡襄)의 〈다록(茶錄)〉 중에서

채양은 이 기록에서 건안의 흑유잔이 심미적이고 기능적인 면에서 차를 마시기에 얼마나 적합한지 논하고 있다. 건요의 흑유잔은 하얀 차색을 돋보이게 해주었을 뿐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뛰어났다. 잔의 두께가 두툼하여 잔 내부의 온기를 오래 유지시키기 때문에 차가 빨리 식지 않도록 하면서도, 겉 표면은 지나치게 뜨겁지 않아 손으로 잡기에 편리했다. 또한 흑유잔은 당시의 음다(飮茶) 방식에 특화된 기형을 지니고 있었는데, 다완에 끓인 물과 찻가루를 넣고 다시(茶匙)나 다선(茶筅)으로 휘저어 거품을 내기에 유리하도록 기체가 깊어졌고 구연부에는 속구(束口)라 칭하는 오목한 홈을 둘러 격불(擊拂) 시 찻물이 넘치지 않도록 변화하였다.

반면 명·청대에는 백자 잔이 차를 마시기에 가장 좋은 찻그릇으로 애호되었다. 백자 찻그릇의 생산과 수요는 이미 오래 전부터 꾸준히 있어 왔지만 당대에는 월주의 청자에, 송대에는 건요의 흑유잔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덩이차(甁茶)를 담기에는 녹빛의 차색을 붉게 만들고, 단차(團茶)를 담기에는 백색의 차색이 돋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덩이차를 분말로 갈아서 풍성한 거품이 피어나도록 휘저어 마시는 당·송대와 달리 명·청대에는 제다(製茶)나 음다법(飮茶法)에서 전대와는 다른 양상을 띠었기 때문에 백자가 최고의 찻그릇으로 선호될 수 있었다.

명·청대에는 찻잎을 그대로 말리고 덖어서 차를 만들고, 다관(茶罐)에 끓인 물을 부어 찻잎을 우려낸 후 찻잔에 따라 마셨다. 그렇기 때문에 찻가루가 섞이지 않은 투명하고 맑은 차색을 감상하기에 새하얗고 깨끗한 백자가 가장 적합하였다. 명대 장원(張源)은 〈다록(茶錄)〉에서 다구로는 백자가 가장 좋다 하였고, 청대 초기에 편찬된 〈단궤총서(檀几叢書)〉에는 좋은 차를 가리는 품다(品茶)를 할 때 백자 찻그릇을 쓴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백자 찻잔을 만들 때에는 구연부가 좁고 속이 깊어야 차색이 강렬하게 드러나고 향이 흩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우려낸 차의 색과 향을 살리기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옛 사람들은 차를 마심에 있어서 차의 색, 향, 미를 최대한 드러내기 위하여 찻잎을 따는 것에서부터 차를 마시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과 요소들을 깊이 연구하고 섬세하게 가려 택하였다. 때문에 찻그릇은 어떤 차를 담아내느냐에 따라 시대별로 그 재질과 색, 형태를 달리하며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좋은 찻그릇을 가리는 기준은 언제나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차의 본질과 아취를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심미성과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지, 찻잔을 잡거나 입에 닿을 때 편안한 재질과 형태인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⑳

1. 다음 말씀은 부처님께서 언제 설하신 것인가?

"아난다야, 잘 들어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법을 등불로 삼고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① 탄생하셨을 때 ② 출가하셨을 때
③ 정각을 이루셨을 때 ④ 처음 설법을 하실 때 ⑤ 열반에 드시려고 하실 때

해설 : 다음의 말씀은 열반에 드시기 전에 남기신 가르침(열반유훈)이다.

2. 초기경전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일생 연표를 나열한 것이다. [보기]를 빠른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녹야원에서 다섯 비구에게 초전법륜을 하시다.
㉡ 수닷따 장자의 보시로 기원정사가 건립되다.
㉢ 사리불(사리뿟따), 목건련(마하목갈라나)이 입적하시다.
㉣ 마하빠자빠띠 등 여성이 출가하여 비구니 승가가 탄생되다.
㉤ 빔비사라왕이 죽림정사를 기증하시다.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

해설 : 보기의 사건들은 모두 태자가 부처님이 되신 후의 일들이다. 그럼으로 초전법륜이 가장 최초의 사건임으로 ㉠이 먼저 위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불교 최초의 사찰은 죽림정사임으로 기원정사는 그 이후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은 ㉤에 위치하여야 한다. 여성의 출가와 두 큰 제자의 입적은 부처님 생애 후반의 사건들로 순서는 ㉣, ㉢이다. 앞의 ㉠, ㉡, ㉤의 사건들은 헷갈리지 않는 예임으로 먼저 그 순서를 배치하여 답을 찾아보자.

3. 다음은 불교의 전개 과정이다. (가) ~ (라)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올바른 것은?

(가) B.C.E 589년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서 성도(成道)
↓
(나) B.C.E 586년 수닷타 장자의 보시로 기원정사를 건립
↓
(다) B.C.E 584년 석가족과 콜리야족의 물싸움 해결
↓
(라) B.C.E 582년 친차 여인의 부처님 모함과 비방

① (가) - 깨달음의 핵심은 '무위자연의 도'이다.
② (나) - 부처님은 이곳에서 가장 오래 머무셨다.
③ (다) - 이 사건으로 인해 카필라국은 분단국가가 된다.
④ (라) - 이로 인해 부처님은 부정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감옥에 간다.
⑤ (라) - 친차는 사람을 죽여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다니던 무서운 살인마였다.

해설 : '무위자연의 도'는 도교의 가르침이기에 불교와 관련이 없으며, 석가족의 나라가 카필라국임으로 콜리야족과 싸운다고 해서 카필라가 분단될 이유는 없다. 친자의 모함과 비방은 자연히 거짓임이 밝혀져 부처님께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았다. 사람을 죽여 손가락 목걸이를 만든 살인마의 이름은 앙굴리마라이다.

4. 다음은 '부처님 생애'의 한 장면이다. 그림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사랑하는 야쇼다라 공주를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하다.
② 노병사의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 성문 밖으로 나가다.
③ 왕위를 물려받는 것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워 가출을 하다.
④ 왕자로서 무예를 닦기 위해 말 타고 장애물 넘기 연습을 하다.
⑤ 왕궁생활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버리고 성을 넘어 출가하다.

해설 : 그림은 사문유관을 한 태자가 성을 넘어 출가하는 유성출가의 모습이다. 태자는 왕궁생활의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버리고 성을 넘어 출가하였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정답 : 1. ⑤ 2. ④ 3. ② 4. ⑤

봉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축

■ 종 정 혜 인
총무원장 :
원 로 원 장 : 도불
율 원 장 : 무공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정,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동안, 혜일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총무원
부 원 장: 동오,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산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자명
총무국장: 중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여암
문화국장: 광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태산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국장: 학산
국제포교원장: 천산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경산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백산지견
감찰부장: 일봉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비구니총무부장: 금산
부회장: 도은
재무: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미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전남, 광주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묵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해월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화광, 천산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불교조계종예술문화협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구사
경남총림 봉곡사
제주총림 법련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이국철
수석부회장: 윤수경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최예원
부산신도회장: 손영만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경남신도회장: 송선근
신도회고문: 설주성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법무실장: 윤명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임병재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일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 (돈암동 83-2)
강남사무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52길 11 3F (신사역8번출구) 02-511-1080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주소 : jogyebuddhism@naver.com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

불기2568(2024)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연예인전법단

단 장 우 봉

– 임원 · 회원 일동 –

■ 연예인전법단이 하는 일 : 종단행사 참여, 산사음악회 기획 및 재능기부, 후원사업, 승보공양사업, 불교행사기획, 포교사업, 예체능인재양성 발굴 및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화계사)
☎(02)902-2663 Fax (02)990-1885 / 010-3573-0108(사무총장)

대한불교조계종

청주 추정리 메밀밭

지 장 사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산사에서 직접 생산한 천연 토종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길 74
043-297-2514

보 현 사 신용협동조합

스님…
대출이 필요하십니까?

스님들의 고민!!!
30년의 전통 전국유일의 불교신협
보현사신협이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찰매매 잔금대출
불사자금 대출
기타 대출상담

自利利他 (자리이타)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대구 중구 중앙대로 67길 10 (상1가 101호)
보현사신협 문의 : 053)428-1133

운불련 호출택시

호출은 053-766-7777

Google play 에서
운불련을 검색하세요! ▼

회 장 조 신 제

한국 운전기사 불자 연합회
대구지역회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 표 탁 진 규

사 부 대 중 일 동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전화 054)955-8200 ~ 1
팩스 054)955-8202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 화 사

사 부 대 중 일 동

서울시 광진구 영화사로 107
전화 02)444-4321, 7215

대한불교
조 계 종

포 교 사 단

포교사 일동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전화 02)927-0588 / 팩스 02)927-5390

(재)한국불교총화종 총본산

천마산 수 진 사

이사장 전남정
총 무 김지오

신 도 일 동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로 115-13(호평동)
전화 031)591-7710, 팩스 031)591-7121

대한불교 미륵정토종

미 륵 정 토 사
초무한참나선원

비대면 설법 <불교심리TV>
YouTube 검색

사 부 대 중 일 동

미륵정토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길 19
전화 041)855-3566

초무한참나선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94
전화 02)912-1050

대한불교조계종

한라산 천 왕 사

조 실 월 서
주 지 지 오

사 부 대 중 일 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528-111
Tel 064)748-8811, 8822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84호 | C19 | 전면광고

탐욕과 성냄과 두려움과 어리석음 등의 악행을
짓지 않는 사람은 그 명예가 날로 더해간다.
마치 달이 보름달을 향하는 것처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설선생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18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
- 매가 : 17억2천

- 위치 : 인천 - 부지 : 200평
- 법당 : 60평 - 요사:60평
- 매가 : 1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채권 인수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토 지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836번지
- 835번지 임야 130평
- 836번지 밭전 300평
- 총 430평, 샘물 나옴
- 사정상 급양도 2750만원

010-7628-9997

사찰(급)안내

- 장호원 감곡KTX역 10분거리 깨끗한 사찰
- 대지계획관리, 그린시설 1000평
- 대웅전, 종각, 휴게소, 잔디광장
- 요사채3동, 다도실, 리라이트광석찜질방
- 연못, 가온기치료기실, 각종 암환자 치료완비
- 은행 2억대출 매매가 8억 급매매 전세 놓습니다
- 장난전화 사절

010-5883-2255
010-7151-8546

사 찰 안 내

- 위치 : 충주시 주덕읍 (국도 4차선 접)
- 대지 : 631평
- 금액 : 2억 5천

010-2136-9889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찰(급)안내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 700평 (실사용 1000평)
- 건물 : 법당 (25평), 산신, 칠성, 용왕
- 요사채 : 슬라브 2동 향토방 1동
- 해우소 : 1동 차량 진입 (주차장)
-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량 (명상, 요가)
- 남향이라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
- 땅에서 나는 물 (약수물)
- 금액 : 5억

010-9203-116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 광역시 서구 신석로 111번길 3-1
- 2층 : 법당 30평
- 1층 : 요사채 30평
- 지하 : 15평
- 가액 4억원
- 스님 건강상 내놓습니다.
- 도심 속 깨끗한 사찰
- 교통 아주 편리함

010-9286-1008

사찰(급)안내

- 경남 통영시 정량동 840-1 관음정사
- 대지 106평, 건평 50평, 삼존불
- 모든 집기 일체 양도
- 몸만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
- 주차장 완비

010-3344-6667

사 찰 안 내

- 매매가 6500만원
- 영천 북안면 약 60평
- 약사불, 조용한 기도처

010-9667-4898
010-9572-6778

사 찰 안 내(토굴)

- 위치 : 경북 영덕 동해안
- 대지 : 326평, 40평 건물 2채
- 법당 15평, 공양간 17평, 방 7개, 목욕탕 3, 외부화장실 2
- 용궁당 노천산신 야외석불 지장입불
- 편리한 아파트식
- 가액 : 2억 (절충 가능)

010-2008-0377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 (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사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 소재
- 종교 부지 적합함
- 관광산업 단지로도 활용도가 높은 토지
- 토지(과수) : 약 2800평 - 대지 : 약 200평
- 2층 건물 1동 : 약 60평
- 매매금액 : 상호 협의하에관심 있으신 분께 영상 보내드립니다. 전화 · 문자 주세요.

010-3119-335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백양산 아래
- 공기 맑은 도심 청정도량
- 풍광 좋은 낙동강 뷰 특징
- 토지 48평, 건물 90평
- 지하1층 34평 법당
- 지상1층 22평
- 2층 20평 및 3층 15평 요사채
- 종교시설 운영, 토굴 활용 가능
- 가액 3억 9500만원(협의 가능)

010-9881-7363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사찰(급)안내

- 위 치 : 부산 연산동
- 땅값만 받고 양도 합니다
- 대지 124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심불(소불)
- 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 가격은 절충

010-7785-557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불국사역 인근
- 대지 : 191평
- 건물 : 45평(법당, 산신, 방, 공양간, 사무실, 화장실(대.소)) 등
- 야외 : 용왕, 탑, 화장실 집기 일체
- 매매금액 : 2억 5천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574-7985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불교무량법계종

(종교법인)

도반 수행자 모집
종도 모집

함께 모여 정진하실 분 찾습니다

위치: 대구시 동구 파계로 22길 7

010-4766-6358

점 연구원

- 음력 생일 숫자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로 미래와 과거를 자신 있게 보는 법 전수
- 준비물 없음. 외우는 것 없음.
- 사주 막힘 없이 보는 법 확실히 전수함.

토화사 010-3750-8555

불교 의식 학인 모집

- 영남 범음 범패
- 49재 천도재 사시불공 등
- 북 · 징 · 경쇠 · 요령 · 목탁
- 매주 화요일 오후3시~5시반
- 일반인 수강가능

조은사(경북 경산 시내)

010-5315-3589

비구니스님 모집

- 민속신앙, 역학(능력자) 가능하신 분
- 청소년(국가, 인재후보, 교육생 활비 지원)도 지원 가능
- 새만금절(사)은 100세를 보장하는 건강요양원입니다.

새만금농장 전화
010-2159-0988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속 · 증여 · 세금
보장자산
(밀착관리/비밀유지)

삼성생명 팀장 오은정
문의 010-9573-418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20년 수제화 외길, 어싱슈즈로 건강 찾으세요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뙤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홍재화 대표

모바일 구매 QR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제조원 필맥스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대한제지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⑨ 육통 스님의 수박동치미 국수



▶한줄 요약
수박은 갈증을 없애고 열을 내리는 성질이, 또 무는 소화를 돕고 해독작용이 탁월해 우리 민족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재료. 게다가 맛까지 더했으니 더운 날에 이만한 별미가 없을 것이다.

달달한 수박에 짭짤아삭한 무 '식감 콜라보'

가끔은 하루가 꿈처럼 달고, 때로는 너무나 맵짜다. 달콤함은 쉽게 질리고, 맵고 짜기만 하면 입안에 머금는 것조차 고되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맛도 그만큼의 균형이 필요한 법.

삶이 지닌 무한대의 변수 속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낸 것은 무엇이든 그 자체로 경이롭고, 또 아름답다. 그러니 달고, 짜고, 시고, 맵고, 쓰디쓴 맛의 조화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찾는 것은 당연한 일. '단짠단짠'의 지혜를 담은 오늘의 국수, 육통 스님의 수박동치미 국수에서 삶의 묘미를 맛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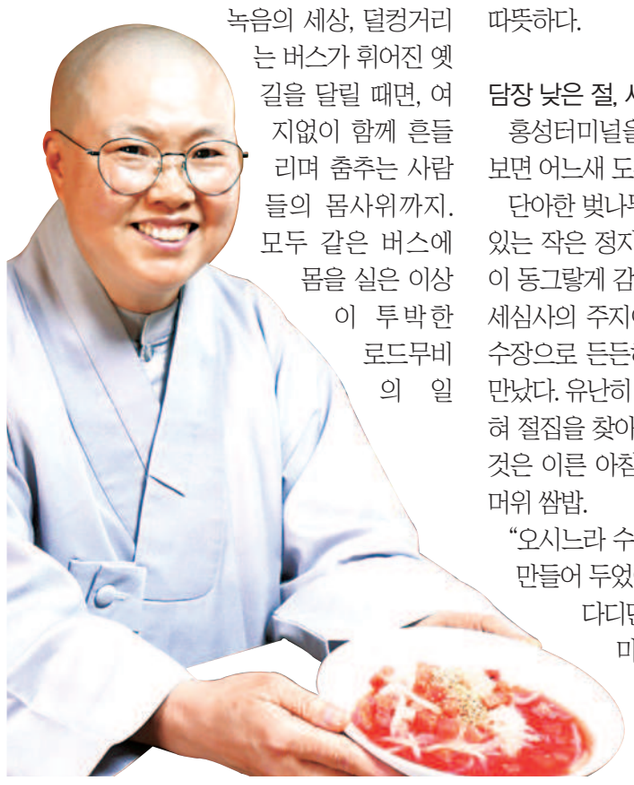
홍성 가는 길

"이런 참~ 서울에서도 두 시간이면 갈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가는겨?"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충남 홍성행 시외버스를 타고 달리는 길. 몇몇 정거장을 에둘러 돌아가는 완행버스의 느릿한 여정에 한 어르신의 궁금함과 투정이 뒤섞인 혼잣말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어르신의 말씀도 딱히 맞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 서울에서 홍성까지는 자동차로 두 시간도 채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랴. 어르신의 뿔 오른 목소리도, 차에 타자마자 익숙한 듯 머리를 기대어 잠이 드는 아주머니도, 쉼 없이 타고 내리는 승객들을 세어 보는 기사님의 바쁜 눈동자도 이내 하나가 되어 버스는 달린다.

완연한 봄의 계절, 맑고 푸른 하늘이 차창 밖으로 가득 찬다. 산과 들이 교차하며 펼쳐지는 녹음의 세상, 덜컹거리는 버스가 휘어진 옛길을 달릴 때면, 여지없이 함께 흔들리며 춤추는 사람들의 몸사위까지. 모두 같은 버스에 몸을 실은 이상 이 투박한 로드무비의 일부가 되어 봄날의 여정을 즐길 수밖에. 그렇게 돌고 돌아 내달리던 버스가 어느새 마지막 종착지에 다다르면, 비로소 이 우연한 동반도 끝이 난다.



"아이고, 기사님. 수고하셨소. 덕분에 잘 왔소." "네,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예상치 못한 긴 여정이었지만, 그 시간이 썩 나쁘지만은 않았던 듯 어르신의 인사에 웃음이 머문다. 처음 만난 홍성의 얼굴도 그렇게 따뜻하다.

담장 낮은 절, 세심사

홍성터미널을 나서서 자분자분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도착하는 세심사.

단아한 벚나무 한그루, 누구라도 앉아 쉴 수 있는 작은 정자가 앞을 지키고, 키 낮은 담장이 동그랗게 감싸 안은 다정한 도량. 이곳에서 세심사의 주지이자, 홍성군종합노인복지관의 수장으로 든든히 자리를 지키는 육통 스님을 만났다. 유난히 더웠던 그날, 땀이 송골송골 맺혀 절집을 찾아온 이방인을 위해 스님이 내민 것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 두신 유부초밥과 머위 쌈밥.

"오시느라 수고 많았어요. 혹시 시장할까 봐 만들어 두었어요. 어서 먹어봐요."

다디단 쌈밥 한입에 취한 것도 잠시, 마음이 급한 객은 스님께 오늘의 목적인 국수를 먼저 재촉한다.

"특별한 것은 없지만 이렇게 더워질 때 먹으면 참 좋은 국수예요. 지금 한번 준비해 볼까요?"

육통 스님의 수박동치미 국수

재료 국수 2~3인분, 수박 반 통, 동치미 무 작은 것 1개, 물, 깨소금, 청양고추(선택)

만드는 법
1. 잘 익은 동치미 무를 길게 채 썰고, 물에 담가 짠맛을 뺀다.
2. 국수를 삶아 잘 비벼 씻어준 뒤,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준다.
3. 수박 한두 조각은 먹기 좋게 깍둑썰기하고, 나머지는 믹서기에 곱게 갈아준다.
4. 3에 2의 채 썬 무를 넣어주고, 짠맛이 배어든 물을 조금 넣어 간을 맞춰준다.
5. 그릇에 담아둔 국수에 4의 수박동치미물을 적당히 부어준다.
6. 썰어놓은 수박 조각과 깨소금을 넉넉히 뿌리고, 입맛에 따라 잘게 썬 청양고추를 넣어 주면 완성.

시원시원한 웃음과 함께 스님이 꺼내신 재료는 바로 잘 익은 수박과 금방 김칫독에서 꺼낸 동치미 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수박동치미 국수'의 메인 재료들이다.

얼핏 봐선 쉬이 그려지지 않는 국수의 맛, 과연 이 두 재료가 만들어내는 국수는 어떤 맛일까?

더울 때 더 귀한 별미

"보덕사 선방에서 공부도 하고, 스님들 시봉도 들며 7년 가까이 머물렀어요. 그때 대중공양 준비를 하며 만들었던 국수입니다. 처음에는 생무를 갈아서 넣었는데, 맛은 좋지만 먹고 난 후에 속이 쓰렸어요. 생각해 보니 절집에는 소금에 절인 동치미 무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무를 채 썰어 넣었더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웃음)."

시원하고 달달한 수박에 짭짤하고 아작아작한 무의 식감이라니! 말 그대로 '단짠단짠'의 매력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별미다.

소면 대신 냉면을 쓰거나, 수박 대신 오미자즙 또는 배를 넣어도 좋다고. 또 동치미 무가 없으면 열무김치를 넣는 등 있는 재료로 얼마든지 변주를 줄 수 있는 것이 이 달콤짭짤한 국수의 매력이다.

세심사 차방에 앉아 훌훌 국수를 들이켜자니, 때 이른 더위에 올랐던 열기가 어느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 수박은 갈증을 없애고 열을 내리는 성질이, 또 무는 소화를 돕고 해독작용이 탁월해 우리 민족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식재료. 게다가 맛까지 더했으니 더운 날에 이만한 별미가 없을 것이다.

"선방에서 지낼 때 별좌 소임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신심이 나서 요리책을 이만큼씩 가져다 놓고, 혼자 응용해 가며 사찰 식으로 바꿔서 많이 해드렸어요. 스님들께서 맛있다고 하시면 그게 최고의 보람이었죠(웃음)."

그러고 보니 이 생경한 재료의 조합을 생각한 아이디어도, 식감이 살아있는 머위 쌈밥과 곁들임 쌈장의 맛까지 어느 하나 예사롭지 않은 솜씨. 알고 보니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스님의 손맛에 사찰음식 교육기관에서 초청 강연을 할 정도라고. 오래전부터 차곡차곡 모아놓은 스님만의 레시피와 직접 기록한 사찰음식 사진들도 언젠가 세상에 나올 때를 기다리며 잠시 잠들어 있는 중이다.

다시 앞으로

"이 국수는 일요법회 때 신도들에게 해드리면 참 좋아하세요. 특히 이 동치미 무 같은 경우는 입맛을 살려주고, 속을 가라앉혀 암 투병을 하셨던 속가의 어머니께서도 즐겨 드셨지요."

딸의 출가를 반대하셨던 어머니. 하지만 막상 출가하자 가장 먼저 수행자를 향한 예우를 갖추고,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마저 당당히 막아주신 어른이었다. 지난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암 치료로 부대끼던 어머니의 속을 유독 이 짠 무가 가라앉혀 주었다니, 이만큼 귀한 약이 또 있을까.

현재 스님이 관장으로 역임하고 있는 홍성군종합노인복지관에서는 디지털 웰다잉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자신의 유언, 또는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디지털화하는 이 프로그램을 정작 어르신들이 꺼렸다고.

"막상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외면하고 싶고, 무섭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르신들께 자신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도전해 보시라고 권했어요. 나중에 엄마 보고 싶을 때 이렇게 영상이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했더니 나중에는 하길 잘했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스님의 바람일지 모를 그 진심을 통해, 어떤 이들은 생과 사를 넘어 그리운 이들과 함께할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올해 초 몸과 마음의 소진으로 힘들었던 시기 '대만 세계비구니대회'에 참석하며 다시 충전할 수 있었다는 육통 스님.

"여법하게 살아가는 우리 스님들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를 때나,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수행의 여정임을 다시 깨달았어요. 다시 기도할 힘을 얻었으니 핑계 대지 않고 또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갈 겁니다."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짜디짠 모든 날을 잘 삼키고 음미할 것. 그러면 잔뜩 올랐던 열도, 이유 없이 차오르는 갈증도 어느새 가라앉을 것이라는 걸. 또 술술 넘어가는 국수처럼 편안한 어떤 날도 반드시 오고야 말 거라는 것을, 오늘도 이 한 그릇 '승소'에서 배운다.

〈작가〉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초파일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승복, 가방 50%/가구, 병풍 30% 할인
최고급 합장주 할인
합장주 100개 55,000원
어린이합장주 100개 50,000원
사월초파일 제 품 할 인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일부품목은 제외됩니다 85,000원
● 보시 용품 염줄
● 각종 연등 탄생불 관욕단
● 각종 미니 만월등 100개 140,000원
● 만월등 사업등
● 연잎 리본 100개 23,000원 할인가
● 방수전선 전구엘리드국산
● 등 승강기 설치

2024 초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팝초 20개, 노란색 최상급 20개
소진시까지 65,000원
5일초 24개 70,000원
3일초 40개 70,000원
1일초 90개 80,000원
15일초 12개 100,000원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할인 수입양초
밀대 50개 60,000원
돈타래 40개 70,000원
원백 20개 70,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50,000원
15일 7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일강 엔지니어링(주)

SUNRIVER ENGINEERING

건설감리전문엔지니어링
기업부설연구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138번길 7-1, 3층
Tel 8017-1010 Fax 8017-1011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 INTERNAT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 몽골 · 인도불교협회 합동 '붓다 성발 · 치아사리 봉안 대법회'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행사

- 일 시 : 불기 2568년 서기2024년 5월 20일~24일
- 장 소 : 몽골 울란바르트 중앙광장 & 몽골 왕궁

인도와 미얀마에서 이운 봉안한 부처님 성발사리, 치아사리, 정골사리, 오색사리 친견대법회 및 몽골 왕궁 특별전시관 봉안의식



생명을 구하는 움직임에 동참하세요

몽골 '희망의 나무' 프로젝트
동참 02-733-5665

나무는 숲 뿐만 아니라 이 행성에 사는 다른 생명체들에게도 중요한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지켜야 할 3대 덕목 중 하나가 나무를 심는 덕목이라고 합니다. '희망의 나무' 핵심 교리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울란바토르시 날라이흐구 5군 '나르트 엥게르'라는 7헥타르의 땅에 10종의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로 몽골을 찾는 이들에게 나무 심기 동기를 부여하며 자선과 선행을 펼치도록 합시다.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몽골불교협회가
몽골정부로부터 받은 5만여 평 대지에
'희망의 나무심기' 녹색 운동을 펼치실 보시공덕자를 모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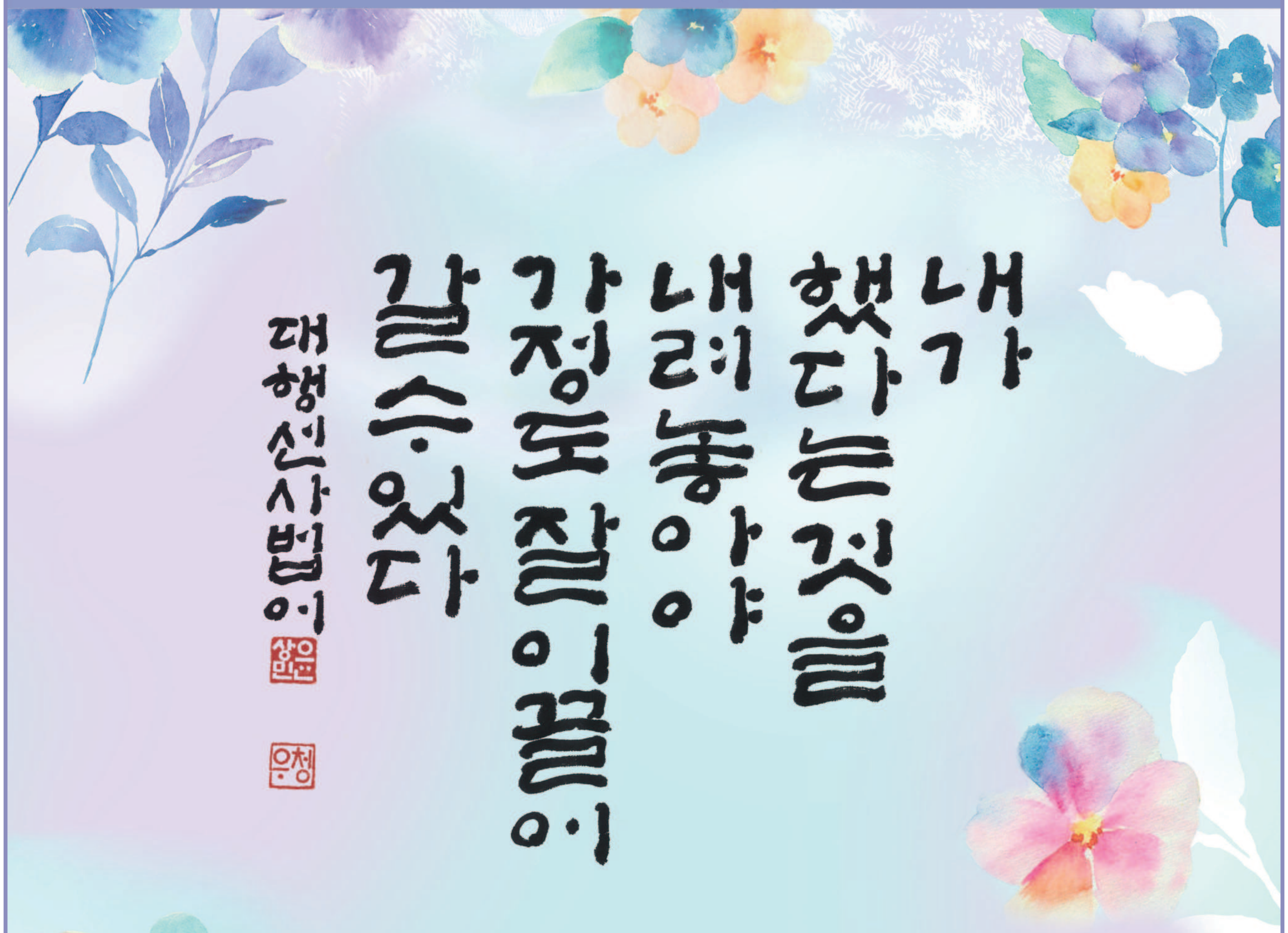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몽골불교협회 MOU 체결

- 녹색운동 나무심기 운동
- 불교 교류 및 지원
- 몽골 500여 대학생 한국 각 대학에 유학 주선
- 몽골 의료 간호사 교육 및 견학
- 몽골 기업들과 한국기업 MOU 체결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WORLD BUDDHIST DHARMA-KING CENTRAL GOVERNMENT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TION

03158 Jongno-gu, sambong-lo 68 shinyoung B/D 3F
(chungjin-dong) Seoul, Korea
대표전화 02-733-5665 H.P 010-3618-6061

불기 2568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이동복**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10303 Burke Lake Rd. Fairfax Station, VA 22039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854 Riverwoods RD. Mettawa, IL 60045, USA
TEL:(1-224)632-0959 E-mail: hanmaumchicago@gmail.com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070-7554-1402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91169-5560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